

2024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관광인프라 지원 사업군

2025. 7.



kipf

최종보고서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관광인프라 지원 사업군

2025. 7.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관광인프라 지원 사업군』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이 영

— < 연구진 > —

■ 『관광인프라 지원 사업군』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연구주관기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강창희 교수(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참여연구자: 박상곤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육지훈 교수(중앙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목 차

I. 서론	1
II. 사업군의 개요	3
1. 관광인프라 지원사업의 배경 및 근거	3
가. 관광인프라 지원사업 배경	3
나. 관광인프라 지원사업 관련 선행연구	5
다. 관광인프라 지원사업의 법적·제도적 근거	6
2. 사업군 및 세부 사업군 구분	10
가. 사업군 구분	10
나. 세부 사업군 구분	12
3. 세부 사업군별 개요	16
가.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16
나. 광역권 개발 사업군	25
다.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39
라.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49
마.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57
바.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62
사. 관광 편의지원 사업군	68
4. 사업군별 심층평가 필요성	76
가.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76
나. 광역권 개발 사업군	79
다.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83
라.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84
마.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85
바.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87
사. 관광 편의지원 사업군	89

Ⅲ. 사업군에 대한 평가 개요	90
1. 총론 및 평가 범위	90
2. 사업군별 논리모형	95
가.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95
나. 광역권 개발 사업군	98
다.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100
라.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102
마.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105
바.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107
사. 관광 편의지원 사업군	109
3. 평가모형 및 평가방법	112
가. 정성평가: 계획 및 과정평가	112
나. 정량평가: 영향평가	114
다.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	117
Ⅳ.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119
1.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119
가. 계획평가	119
나. 과정평가	121
다. 영향평가	124
라.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 효과	134
마.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효과	140
2. 광역권 개발 사업군	148
가. 계획평가	148
나. 과정평가	157
3.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166
가. 계획평가	166
나. 과정평가	171

4.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175
가. 계획평가	175
나. 과정평가	177
5.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179
가. 계획평가	179
나. 과정평가	181
6.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183
가. 계획평가	183
나. 과정평가	184
7. 관광 편의지원 사업군	189
가. 계획평가	189
나. 과정평가	192
8. 국내관광 사업군(관광개발 및 편의지원)에 대한 영향평가	193
가. 영향평가 개요	193
나. 영향평가 방법(식별전략)	193
다. 자료 수집 및 기초통계량	203
라. 영향평가 결과	212
V. 평가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249
1. 계획평가 및 과정평가 결과 요약	249
2. 영향 평가결과 요약	252
3. 정책 제언	253
가.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253
나. 광역권 개발 사업군	260
다.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264
라.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266
마.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268
바.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270

CONTENTS

사. 국내 관광편의 지원 사업군	271
아. 정책제언 요약	275
참고문헌	281

표 목차

〈표 II-1〉 관광인프라 지원사업 관련 선행연구	6
〈표 II-2〉 세부사업별 법적 근거	7
〈표 II-3〉 관광인프라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8
〈표 II-4〉 전체 사업군 구분	12
〈표 II-5〉 세부 사업군 구분	15
〈표 II-6〉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현황	17
〈표 II-7〉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사업의 내역사업별 현황 및 목적	18
〈표 II-8〉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19
〈표 II-9〉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21
〈표 II-10〉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22
〈표 II-11〉 한국관광 해외광고 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23
〈표 II-12〉 한국관광 해외광고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24
〈표 II-13〉 광역권 개발 사업군 현황	27
〈표 II-14〉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28
〈표 II-15〉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31
〈표 II-16〉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 실적	32
〈표 II-17〉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내역 사업별 예산 현황	34
〈표 II-18〉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 실적	35
〈표 II-19〉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36
〈표 II-20〉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사업 실적	38
〈표 II-21〉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현황	40
〈표 II-22〉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41
〈표 II-23〉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41
〈표 II-24〉 문화유산 활용 진흥 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42
〈표 II-25〉 문화유산 활용 진흥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44
〈표 II-26〉 문화유산 활용 진흥 사업 추진 실적	45

〈표 II-27〉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47
〈표 II-28〉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47
〈표 II-29〉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현황	50
〈표 II-30〉 관광자원 기반조성 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51
〈표 II-31〉 관광자원 기반조성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52
〈표 II-32〉 관광자원 기반조성 사업 추진 실적	53
〈표 II-33〉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54
〈표 II-34〉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55
〈표 II-35〉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	57
〈표 II-36〉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현황	58
〈표 II-37〉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59
〈표 II-38〉 해양관광육성 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60
〈표 II-39〉 해양관광육성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61
〈표 II-40〉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현황	63
〈표 II-41〉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64
〈표 II-42〉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65
〈표 II-43〉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66
〈표 II-44〉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67
〈표 II-45〉 관광 편의 지원사업군 현황	69
〈표 II-46〉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70
〈표 II-47〉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71
〈표 II-48〉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72
〈표 II-49〉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73
〈표 II-50〉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74
〈표 II-51〉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74
〈표 II-52〉 국제관광 사업군의 대상 국가별 예산편성액(2001~2023년)	78
〈표 II-53〉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관련 주요 지적 사항	79
〈표 II-54〉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군의 관광개발 사업 수 및 사업비 비율	80

〈표 II-55〉 국내관광개발 사업군의 예산집행률(2023년 기준)	80
〈표 II-56〉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대상지	81
〈표 II-57〉 광역권 개발 사업군 관련 주요 지적 사항	82
〈표 II-58〉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관련 주요 지적 사항	83
〈표 II-59〉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관련 주요 지적 사항	85
〈표 II-60〉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관련 주요 지적 사항	87
〈표 II-61〉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관련 주요 지적 사항	88
〈표 II-62〉 관광 편의지원 사업군 관련 주요 지적 사항	89
〈표 III-1〉 관광인프라 지원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질문 및 평가 방법	91
〈표 III-2〉 세부 사업군별 계획/과정/영향평가 수행 여부	94
〈표 III-3〉 2019~2023년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예산 구성	96
〈표 III-4〉 2019~2023년 광역권 개발 사업군 예산 구성	98
〈표 III-5〉 2019~2023년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예산 구성	100
〈표 III-6〉 2019~2023년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예산 구성	104
〈표 III-7〉 2019~2023년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예산 구성	105
〈표 III-8〉 2019~2023년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예산 구성	109
〈표 III-9〉 2019~2023년 관광편의 지원 사업군 예산 구성	111
〈표 III-10〉 분석 방법 예시: 연도별 예산 투입액	115
〈표 III-11〉 심층평가를 위한 자료	118
〈표 IV-1〉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및 2024~2028 인바운드 마케팅 전략	120
〈표 IV-2〉 연도별 출발국가 수	128
〈표 IV-3〉 자료의 기술통계: 성과변수	129
〈표 IV-4〉 자료의 기술통계: 처치변수	131
〈표 IV-5〉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정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미친 효과(전체)	135
〈표 IV-6〉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정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미친 효과(대륙별)	137
〈표 IV-7〉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정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미친 효과(소득별)	139

〈표 N-8〉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정책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친 효과(전체)	142
〈표 N-9〉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정책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친 효과(대륙별)	145
〈표 N-10〉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정책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친 효과(소득별)	146
〈표 N-11〉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대상지	150
〈표 N-12〉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의 주요 테마	151
〈표 N-13〉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의 유사 사업 추진 사례	151
〈표 N-14〉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	152
〈표 N-15〉 광역권 개발 사업군의 성과지표 설정 현황	153
〈표 N-16〉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군의 사업 목적	154
〈표 N-17〉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군의 관광개발 사업 수 및 사업비 비율	155
〈표 N-18〉 광역권 개발 사업군의 내역 사업 현황	155
〈표 N-19〉 광역권 개발 사업군의 집행률(2023년 기준)	158
〈표 N-20〉 광역권 사업의 사업계획상 준공일자와 실제 준공일자 간 차이 원인	158
〈표 N-21〉 범주별 예방 가능 여부	159
〈표 N-22〉 재무적 성과 분석 대상	162
〈표 N-23〉 3대문화권 문화생태 기반 조성 사업의 재무적 성과	163
〈표 N-24〉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의 재무적 성과	163
〈표 N-25〉 한반도 평화생태벨트의 재무적 성과	163
〈표 N-26〉 광역권 개발 사업의 준공 후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현황	164
〈표 N-27〉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성과 관리 실태	166
〈표 N-28〉 강원도 폐광지역에 대한 연도별 지원(문체부)	169
〈표 N-29〉 생태탐방원 이용객 및 수익금 현황	172
〈표 N-30〉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선정 및 사업 내용	176
〈표 N-31〉 주요 세부 사업별 성과 관리 실태	178
〈표 N-32〉 해양치유시범지구 조성 사업의 최초계획상 사업 기간 및 실제 사업 기간	182
〈표 N-33〉 관광거점도시 사업 국비 누적 실적집행률(2024년 12월 말 기준)	185
〈표 N-34〉 스마트 관광도시 선정 지자체 현황	186
〈표 N-35〉 인천 스마트 관광도시 앱 운영 현황	187

〈표 V-36〉 한국관광공사 앱 운영 현황	188
〈표 V-37〉 전국 지자체 관광어플 현황	188
〈표 V-38〉 공모사업 평가 항목	191
〈표 V-39〉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 내역	193
〈표 V-40〉 시기별 지자체별 명목 GRDP와 실질 GRDP 공표	205
〈표 V-41〉 인구규모와 GRDP 공표 간의 상관성	205
〈표 V-42〉 GRDP의 기술통계량	207
〈표 V-43〉 전력 판매량의 기술통계량	208
〈표 V-44〉 조도의 기술통계량	209
〈표 V-45〉 취업자 수의 기술통계량	209
〈표 V-46〉 정책변수의 기술통계	210
〈표 V-47〉 광역관광 사업군 정책이 지역 소득에 미친 효과	215
〈표 V-48〉 특화관광 사업군 정책이 지역 소득에 미친 효과	217
〈표 V-49〉 지역관광 사업군 정책이 지역 소득에 미친 효과	220
〈표 V-50〉 해양관광 사업군 정책이 지역 소득에 미친 효과	222
〈표 V-51〉 도시관광 사업군 정책이 지역 소득에 미친 효과	224
〈표 V-52〉 관광편의 사업군 정책이 지역 소득에 미친 효과	226
〈표 V-53〉 국내관광 사업군 정책이 취업자 수에 미친 효과	229
〈표 V-54〉 특화관광 자원개발 사업군의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233
〈표 V-55〉 지역관광 자원개발 사업군의 한국형 지역관광활성화: '걷기여행길'	235
〈표 V-56〉 해양관광 자원 개발 사업군의 해양관광육성	237
〈표 V-57〉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의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관광 거점도시	239
〈표 V-58〉 관광 편의 지원 사업군의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 지역관광조직	242
〈표 V-59〉 관광 편의 지원사업군의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관광해설	244
〈표 V-60〉 내역사업들이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247
〈표 V-1〉 사업군별 평가 결과 요약	251
〈표 V-2〉 관광인프라 지원 사업군의 세부 사업군별 영향평가 결과	252

〈표 V-3〉 국제관광 사업군의 대륙별 홍보·마케팅 예산편성액 및 집행액 256

〈표 V-4〉 국제관광 사업군의 대륙별 홍보·마케팅 예산 집행액 257

〈표 V-5〉 방한 외래관광객 상위 10위 국가별 방문객 수, 소득 수준 및 인구수 258

〈표 V-6〉 한국형 지역관광활성화 사업의 재구조화 267

〈표 V-7〉 사업군별 평가 결과 및 개선 방안 277

그림 목차

[그림 II-1] 국내관광수지 추이	4
[그림 II-2] 관광의 구분	11
[그림 II-3]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사업 추진체계	20
[그림 II-4]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사업 지원체계	20
[그림 II-5]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체계	22
[그림 II-6] 한국관광 해외광고 사업 추진체계	24
[그림 II-7] 한국관광 해외광고 사업 지원체계	25
[그림 II-8]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체계	30
[그림 II-9]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체계	33
[그림 II-10]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체계	35
[그림 II-11]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사업 추진체계	38
[그림 II-12]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42
[그림 II-13] 문화유산 활용 진흥 사업 추진체계	45
[그림 II-14]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사업 추진체계	48
[그림 II-15]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사업 지원체계	48
[그림 II-16] 관광자원 기반조성 사업 추진체계	53
[그림 II-17]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56
[그림 II-18]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체계	56
[그림 II-19]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지원체계	60
[그림 II-20] 해양관광육성 사업 추진체계	62
[그림 II-21]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65
[그림 II-22]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67
[그림 II-23]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체계	67
[그림 II-24]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 추진체계	71
[그림 II-25]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 지원체계	71
[그림 II-26]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 추진체계	73

[그림 II-27]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사업 추진체계	75
[그림 II-28]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사업 지원체계	76
[그림 III-1]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논리 모형	97
[그림 III-2] 광역권 개발 사업군 논리 모형	99
[그림 III-3]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논리 모형	101
[그림 III-4]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논리 모형	103
[그림 III-5]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논리 모형	106
[그림 III-6]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논리 모형	108
[그림 III-7] 관광 편의지원 사업군 논리 모형	110
[그림 IV-1] 장금이파크 내부 전시 및 체험 콘텐츠	161
[그림 IV-2] TDSS 정보 검색 결과 예시	165
[그림 IV-3] 인천국제공항 관광안내소 및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	173
[그림 IV-4] 국가유산 방문코스 방문자 여권 및 기념품	174
[그림 IV-5] 해양치유센터 사업추진 과정	181
[그림 IV-6] 링 방법에서 처치 및 통제집단	195
[그림 IV-7] 폐광지역 지원(문체부)사업의 분석 대상	198
[그림 IV-8] 해양관광육성 사업의 분석 대상	199
[그림 IV-9] 관광거점 도시 육성 사업의 분석 대상	202

I. 서론

관광인프라는 관광객이 해당 지역에 방문하고 관광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의미한다. 관광객 체류를 위한 숙박시설,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시설, 관광지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시설 등이 대표적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관광객은 먼 거리를 이동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므로 광범위하고 관광객 요구가 반영된 시설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관광인프라는 ‘관광객이 관광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환대서비스, 출입국·교통, 숙박, 안내·정보, 쇼핑, 식·음, 관광기념품, 관광상품 등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및 수준, 관광객이 관광 경험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제반 관광시설 및 서비스의 접점 관리체계’로 정의되기도 한다(김향자, 2012). 즉 관광인프라는 시설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신규로 구축되거나 기존에 비해 개선된 관광인프라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이 유입되고, 관광객 만족도가 증대되면 지역 상권의 매출이 증대되고 관련 사업체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별 효과가 누적되면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원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한국관광 해외 광고 등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3개 세부사업,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자원 기반 조성, 한국형 지역관광활성화,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스마트 관광 활성화 등 국내관광 개발을 위한 9개 세부사업,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국내관광 역량 강화,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국내관광 편의 지원을 위한 3개 사업 등 15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국토교통부(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환경부(생태관광자원 이용 기반), 해양수산부(해양관광 육성), 국가유산청(문화유산 활용 진흥) 등에서도 국내관광 개발을 위한 4개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재정사업 추진성과 점검 및 분석을 통해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재정사업의 집행 및 성과관리 등 재정운용의 성과 제고

를 위해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재정지원의 적절성 등 사업 타당성, 사업 활동 및 집행 효율성, 사업효과 등을 평가한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관광인프라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효과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심층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위해 2024년 기준으로 약 5,573억원 규모의 정부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19개 세부사업(문체부 15개,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및 유산청 등 4개)에 대하여 심층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심층평가는 19개 세부사업을 국제관광 사업군, 국내 관광개발 사업군, 국내 관광편의지원 사업군 등 3개 사업군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광역권 개발 사업군,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군, 해양관광자원개발 사업군,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관광편의지원 사업군 등 7개 세부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그리고 각 사업군에 대하여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방법을 통해 사업의 계획 및 과정과 운영향을 분석 및 평가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다양한 관광인프라 사업들을 사업군별로 구조화하고 사업 내용 및 추진 현황을 분석하며, 세부 사업군별 심층평가 필요성을 설명한다. 제Ⅲ장에서는 세부 사업군별 논리 모형을 설계하고, 세부 사업군별 평가 유형 및 평가 질문 등을 설정한다. 제Ⅳ장에서는 세부 사업군별 계획평가, 과정평가 및 영향평가 결과를 제시하며, 제Ⅴ장에서는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II. 사업군의 개요

1. 관광인프라 지원사업의 배경 및 근거

가. 관광인프라 지원사업 배경

관광 분야는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가관광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관광발전을 견인하는 관광자원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직접 추진 및 지원 중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1a). 관광인프라는 국내·외 관광객이 관광활동을 하는 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시설 및 서비스로, 관광객의 관광활동이 단순 경관 감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들로 구성되면서 다양한 시설과 콘텐츠가 필요해졌다. 또한 관광객이 만족스러운 관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 탐색부터 실제적인 이동(또는 입국) 및 관광체험 등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시설과 기관이 관련되어 있고 특정 분야(숙박 등)만을 담당하는 민간사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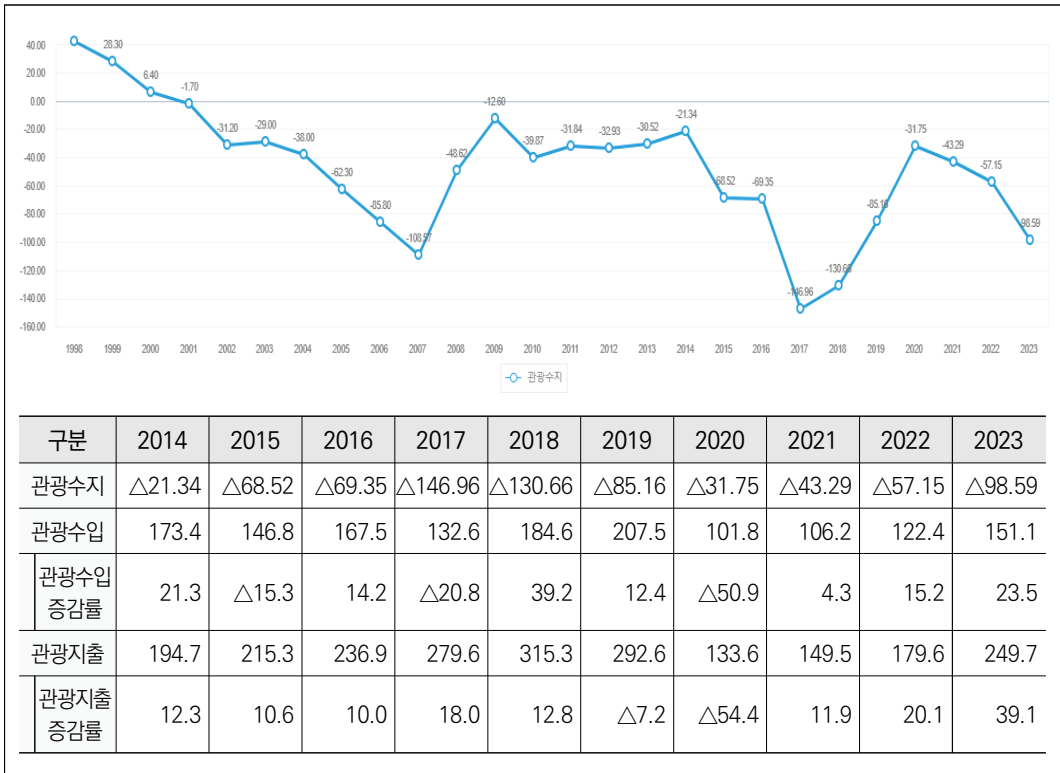
관광인프라 지원을 위한 사업비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및 지역 경제에서 관광 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기가 된 환경 변화 및 다양한 외부 변수가 존재한다. ① 첫째는 1997년 12월 발생한 IMF 외환위기이다. IMF 위기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관광분야에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만큼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달러 환율이 네 배 이상 폭등하면서 아웃바운드 중심으로 운영되던 여행사들이 도산하였고, 1989년 해외여행자유화 조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해외관광객은 1998년에 -32.5% 급감했다(진보라, 2016). IMF 사태는 ‘외환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부족한 외환보유고가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외래관광객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한 대규모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 추진 목적에도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외래관광객 증가’를 명시하였다. IMF 이후 예정되어 있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사업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이라는 메가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도 관광인프라 전반이 개선되어야 했고, 이것은 2000년 초부터 다양한 관광인프라 사업을 추

진하는 이유가 되었다.

② 둘째는 지속적인 관광수지(방한 외래관광객이 국내에서 지출한 금액(관광수입)과 국내 해외관광객이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관광지출) 차이) 적자이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기간 동안(1998~1999년)만 관광수지가 일시적으로 불황형 흑자를 나타냈을 뿐,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적자로 나타난다. 국가적 차원에서 관광수지 적자 심화는 국내관광사업체 및 관련 사업의 발전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을 국내관광으로 전환시킨다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 관광 인프라 지원사업은 이러한 배경을 통해 시행될 수 있었다.

[그림 II-1] 국내관광수지 추이

(단위: 억달러, %)



주: 2023년 자료는 잠정치

자료: 지표누리 e-나라지표, 「관광수지 실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657, 검색일자: 2024. 10. 1.

③ 셋째는 지역의 활성화이다. 최근 추진되는 관광인프라 지원사업들은 인구감소지역을 고려하여 정책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부터 자연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폭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2020년 3만명대였던 자연감소 폭은 2023년 12만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데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였고, 지역 간 인구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사회적 인구 이동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인구감소지역을 양산하고, 더 나아가 지방소멸 위기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2021년 10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및 고시하였고,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의 각종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관광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을 방문하는 체류인구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들의 체류 기간이나 재방문 횟수를 높이고, 이러한 변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사업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관광인프라 지원사업 관련 선행연구

관광인프라 사업군과 관련하여 성과 평가를 진행하거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먼저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①~③)들의 선행연구는 해당 사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성과보다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연구보다는 관광객 수를 파악하는 현황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외래관광객 관련 사업들은 외국인 관광객 수 외에 성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득하기 어렵고, 이마저도 코로나 기간인 2020~2022년 동안은 외래관광객 관련 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다수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권 개발 사업(④~⑦)들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과정 평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해당 사업들은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나 국회 및 감사원, 언론 등에서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제외하고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앞선 광역권 개발 사업과 유사한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그에 비해 폐광이나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사업(⑧~⑩)들은 평가나 점검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관광과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공모사업들(⑪~⑬)을 중심으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외에는 대부분 관련 분야의 활성화 방안 연구가 진행된 상태이다.

〈표 II-1〉 관광인프라 지원사업 관련 선행연구

대상 사업명	관련 선행연구
①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현주·윤주·이성빈(2024), 지방시대, 방한 외래관광객 지방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경은·김현정(2023), 국제관광 재개 국면의 주요국 외래객 유치 정책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광훈·손신옥(2023), 방한 외래 관광객 확대를 위한 관광-항공 협력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향자(2012),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의 관광수용태세 정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2024), 2024 국가별 방한 관광시장 분석.
②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③ 한국관광 해외 광고	
④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2010),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평가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4),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7),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20), 광역관광개발 개선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23),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24),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⑥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⑦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⑧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⑨ 문화유산 활용 진흥	
⑩ 생태관광자원 이용 기반	
⑪ 관광자원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2023), 2022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년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모니터링 및 중간성과 진단 연구.
⑫ 한국형 지역관광활성화	
⑬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2024), 2023 K-관광섬 육성사업 컨설팅.
⑭ 해양관광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수산부(2023), 해양레저관광활성화 방안.
⑮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2023), 2022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컨설팅 및 성과진단 연구용역. 문화체육관광부(2024), 관광거점 도시 육성사업 중간 성과관리 및 컨설팅 연구.
⑯ 스마트 관광 활성화	
⑰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관광공사(2021), 2021 한국관광안내표지 종합안내서. 한국관광공사(2024), 2023 한국관광안내표지 종합안내서. 한국관광공사(2023), 2023 지역 맞춤형 안내표지 컨설팅 사업 보고서. 한국관광공사(2024), 2024 지역 맞춤형 안내표지 컨설팅 사업 보고서. 한국관광공사(2024), 2023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분석. 한국관광공사(2021), 워케이션 활용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관광공사(2023),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방안 연구. 김성윤·김현지·김형곤(2022),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⑱ 국내관광 역량 강화	
⑲ 문화관광축제 지원	

자료: 저자 작성

다. 관광인프라 지원사업의 법적·제도적 근거

관광 분야는 타 분야와 비교하여 법률이 단순화되어 있으며, 상징적 법으로 인식되는 「관광기본법」 외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관광진흥법」이 존재한다. 「관광진흥법」은 1986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관광 분야의 대표 법률로 위상을 지키고 있으며, 통합 및 제정 과정에서 관광진흥 및 개발 등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고 있다.

본 심층평가 대상 사업은 총 19개이며 그중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한국관광 해외 광고 사업은 「관광기본법」 제7조를 근거로 한다. 「관광기본법」에서는 ‘외국 관광객’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유사한 개념이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관광진흥법」 제48조를 근거로 하며,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 제4조를 근거로 한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역시 「관광진흥법」 제48조를 근거로 하며, 문화유산 활용 진흥 사업과 생태관광자원 이용 기반 사업은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를 근거로 한다. 관광자원 기반 조성,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 등은 모두 「관광진흥법」 제48조를 근거로 한다. 스마트 관광 활성화 사업은 「관광진흥법」 제47조의8을,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2를 근거로 하며, 해양관광육성사업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를 근거로 한다.

〈표 11-2〉 세부사업별 법적 근거

세부 사업명	법령	부처
①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관광기본법」 제7조	문체부
②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③ 한국관광 해외 광고		
④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관광진흥법」 제48조	문체부
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⑥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⑦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 제4조	국토부
⑧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진흥법」 제48조	문체부
⑨ 문화유산 활용 진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국가유산청
⑩ 생태관광자원 이용 기반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환경부
⑪ 관광자원 기반 조성	「관광진흥법」 제48조	문체부
⑫ 한국형 지역관광활성화		
⑬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⑭ 해양관광 육성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	해수부

〈표 II-2〉의 계속

세부 사업명	법령	부처
⑮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관광진흥법」 제48조	문체부
⑯ 스마트 관광 활성화	「관광진흥법」 제47조의8	
⑰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관광진흥법」 제48조	문체부
⑱ 국내관광 역량 강화		
⑲ 문화관광축제 지원		

자료: 국가유산청·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환경부, 「2019년 예산요구서」, 2018; 국가유산청·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환경부, 「2020년 예산요구서」, 2019; 국가유산청·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환경부, 「2021년 예산요구서」, 2020; 국가유산청·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환경부, 「2022년 예산요구서」, 2021; 국가유산청·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환경부, 「2023년 예산요구서」, 2022; 국가유산청·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환경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조항별 세부 내용은 〈표 II-3〉과 같다. 일부 사업은 사업명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조항이 제시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포괄적인 조항에 근거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표 II-3〉 관광인프라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구분	근거 법령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관광 여건의 조성)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및 기획 2.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 지원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4. 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5. 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관광홍보물의 제작,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표 11-3〉의 계속

구분	근거 법령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屋外廣告物)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p>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6. 주민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p>제48조의2(지역축제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p>	<p>제4조(국가 등의 책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는 해안권 및 내륙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해안권 및 내륙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시·도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p>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p>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p>제51조(보조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할 수 있다. <p>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유산의 보호·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표 11-3〉의 계속

구분	근거 법령
자연환경 보전법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이하 "생태관광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 ① 정부는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스포츠(이하 이 조에서 "해양관광"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바닷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있는 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도시·어촌간의 교류 확대 및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촌을 특색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는 어촌특화관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특화관광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에서의 레저스포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4. 10. 1.

2. 사업군 및 세부 사업군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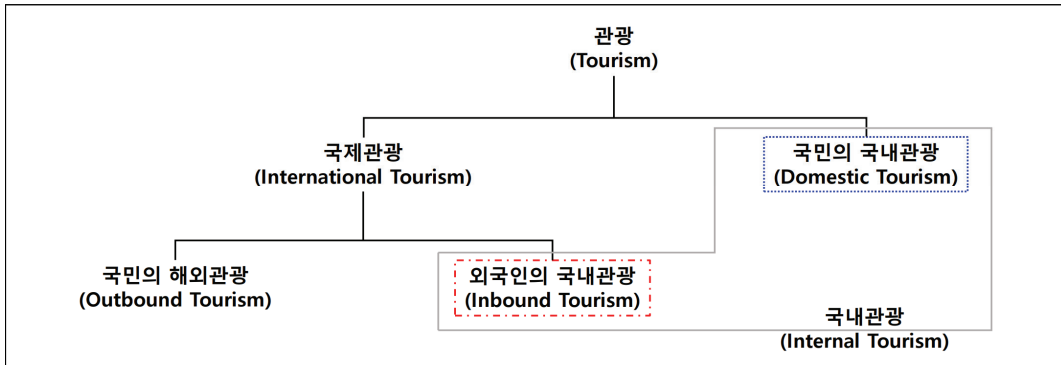
가. 사업군 구분

국제관광통계 권고안에 따르면 관광은 국제관광(international tourism)과 국민 국내관광(domestic tourism)으로 구분되며, 국제관광은 다시 국민 해외관광(outbound tourism)과 외국인 국내관광(inbound tourism)으로 세분화된다(UNWTO, IRTS 2008: 2.39절). 국제관광 중 국민 해외관광은 거주 방문객이 자국을 떠나 외국에서 여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외국인 국내관광은 비거주 방문객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여 관광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국민 국내관광은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주 방문객의 활동을 포함한다.

국내관광(internal tourism)은 국민 국내관광과 외국인 국내관광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당 국가 내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수행하는 관광 활동을 의미한다. UNWTO

는 이러한 구분을 관광 목적지 관점에서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국민 국내여행은 주요 목적지가 거주 국가 내에 있는 여행을, 외국인 국내여행 및 국민 해외여행은 주요 목적지가 거주 국가 밖에 있는 여행을 의미한다. 다만 외국인 국내여행은 참조국가 내에서의 방문만을 포함한다(UNWTO, IRTS 2008: 2.32절).

[그림 11-2] 관광의 구분



자료: UNWTO(IRT S 2008)를 참고하여 작성

이러한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른 관광 유형의 구분은 관광객 이동 방향에 따른 정책과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유형들은 관광인프라 사업군의 세부 사업들을 구분하는 유용한 기준이 된다. 이러한 구분을 바탕으로 관광 관련 세부 사업군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인 국내관광, 즉 인바운드 관광은 외국인이 특정 국가를 방문해 관광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UNWTO에서는 인바운드 관광을 “외국 거주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해당 국가를 방문하여 관광 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IRT S 2.19절). 인바운드 관광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가 정책으로는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이 있다. 이는 국가 또는 도시의 관광 매력을 알리기 위해 글로벌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문화 행사 및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원활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수용 태세를 개선하는 정책도 포함된다.

외국인 국내관광과 국민 국내관광을 포괄하는 국내관광(internal tourism)은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광활동을 아우르며, 자국민과 외국인의 국내관광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국내관광과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는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기반 시설 확충이 있으며, 이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혜택을 받는 중요한 사업이다.

한편 심층평가 대상인 국내관광 관련 세부 사업을 크게 두 가지 사업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내관광 개발 사업군이다. 해당 사업군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같은 광역권 사업은 물론,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한국형 지역관광활성화 사업, 해양관광육성 사업,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 등 다수 사업이 지역 및 특화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일종의 통합 사업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국내관광기반 사업군이다. 해당 사업군은 관광안내 체계 구축 지원사업,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등 지역 및 특화 관광자원 개발보다는 ‘관광기반’ 조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관광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이들 사업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심층평가를 위해 각 세부 사업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관광 사업군(international tourism sector)과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관광 사업군(internal tourism sector)으로 구분한다. 또 국내관광 사업군을 다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관광개발 사업군(tourism development sector)과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관광기반 사업군(tourism infrastructure sector)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즉 심층평가를 위해 전체 사업을 일차적으로 <표 II-4>와 같이 구분한다.

〈표 II-4〉 전체 사업군 구분

관광인프라 지원 사업군	I. 국제관광 사업군(International Tourism Sector)	
	국내관광 사업군 (Internal Tourism Sector)	II. 국내관광개발 사업군(Tourism Development Sector)
		III. 국내관광기반 사업군(Tourism Infrastructure Sector)

자료: 저자 작성

나. 세부 사업군 구분

관광인프라 지원사업군을 국제관광 사업군, 국내관광개발 사업군, 국내관광기반 사업군 등 3개 사업군으로만 구분하면 각 사업군에 속한 세부 사업별 목적, 내용 등에 따라 분석 체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성과평가 결과가 희석되거나 다소 왜곡될 소지가 있고 평가 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도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심층평가에서는 일차적으로 구분한 3개 사업군을 세부 사업군으로 추가 분류하여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세부 사업군은 사업 목적, 대상 및 추진체계, 사업 유형 및 내용, 사업대상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류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목적, 대상

및 추진체계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다각적인 효과를 창출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추진 목적이 유사한 사업일수록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성과가 유사하며, 사업 예산과 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체로 특정 대상에 집중하게 된다. 정책 대상이 중요한 이유는 사업의 범위와 기간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한국관광 해외 광고 사업의 경우 해외 국가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실시하고, 관광브랜드를 강화해 국내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들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한국관광 해외 광고’ 사업을 하나의 세부 사업군으로 분류하여 ‘외래관광 유치 사업군’으로 정의한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의 경우,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요구를 가진 관광객들이 편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공통의 목적으로 한다.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한국관광공사가 매년 단년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 편의 제공 및 국내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을 별도의 세부 사업군으로 분류하여 ‘관광 편의지원 사업군’으로 정의한다.

둘째, 사업 유형 및 내용을 추가 검토한다. 사업 유형 및 내용은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다른 사업과 차별화된 정체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관광 분야의 사업 유형은 관광진흥사업과 관광개발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대표적인 관광진흥사업은 축제, 홍보·마케팅, 프로모션 등이 있으며, 관광개발사업은 특정 대상지(지자체)를 선정하여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외래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사업은 관광진흥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관광개발 사업군(Tourism Development Sector)은 관광자원을 직접 개발하는 사업으로, 자원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다. 관광자원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자원의 위치나 특성에 따라 특화관광자원, 지역관광자원, 해양관광자원, 도시관광자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관광개발 사업군을 특화관광자원, 지역관광자원, 해양관광자원, 도시관광자원 등의 세부 사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문화유산 활용 진흥·생태관광자원 이용 기반 사업은 특정 지역에 분포한 자원을 개발 및 활용하여 해당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사업이므로, 이를 하나의 세부 사업군으로 분류하여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으로 정의한다.

관광자원 기반 조성 및 한국형 지역관광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의 유희자원이나 관광자원을 발굴 및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이다. 즉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환경 개선 지원이 주요 사업 내용이므로, 이를 별도의 세부 사업군으로 분류하여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군'으로 정의한다.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및 해양관광육성 사업은 해양관광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이다. 즉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해양은 수(水)자원을 기반으로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들 사업을 하나의 세부 사업군으로 분류하여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으로 정의한다.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및 스마트 관광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역 확산을 위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지역 관광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즉 해당 사업은 외래관광객을 위한 도시관광자원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관광개발 사업과 차별적이다. 따라서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및 스마트 관광 활성화 사업을 별도의 세부 사업군으로 분류하여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으로 정의한다.

셋째, 사업대상지가 공통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별도의 세부 사업군으로 분류한다. 관광진흥사업의 경우 특정 사업대상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려운 반면, 관광개발사업에서는 사업대상지와 사업 수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업대상지와 사업 수는 사업비와 사업 규모를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특히 광역권은 기능적으로 연계된 둘 이상의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며, 공간 내부의 기능적 연계성이나 자원의 동질성을 지닌 지역으로 정의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광역관광의 개념은 오랫동안 논의된 주제이며, 제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2002~2011년)에서는 기능적으로 연계된 지역 간의 광역관광권 개념이 제시된 바 있다(한국관광연구원, 2001). 문화체육관광부(2020)는 두 개 이상의 시·도에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자원의 연계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광역관광권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심층평가에서도 사업대상지 또는 범위가 여러 시·도 및 시·군을 포함하는 남북권

광역관광개발·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해안 및 내륙권 발전 사업 지원사업을 하나의 세부 사업군으로 분류하여 '광역권 개발 사업군'으로 정의한다.

상술한 사업군 및 세부 사업군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관광인프라 지원사업군을 'I. 국제관광 사업군', 'II. 국내관광개발 사업군', 'III. 국내관광기반 사업군'으로 구분한다. 'I. 국제관광 사업군' 및 'III. 국내관광기반 사업군'은 각각 하나의 세부 사업군('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및 '관광 편의 지원사업군')으로 다시 정의한다. 즉 이들 사업군은 그 자체로 세부 사업군이 된다. 'II. 국내관광개발 사업군'은 사업 목적, 대상 및 추진체계, 사업의 유형 및 내용, 사업대상지 등에 따라 '광역권 개발 사업군',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등 5개 세부 사업군으로 분류 및 정의한다. 따라서 심층평가 대상 19개 사업을 총 3개 사업군 및 7개 세부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표 II-5〉 세부 사업군 구분

(단위: 백만원)

사업군	세부 사업군	사업명	'24년 사업비	재원			
I. 국제관광 사업군	가.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①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129,793	관광기금			
		②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③ 한국관광 해외 광고					
국내 관광 사업군	나. 광역권 개발 사업군	④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96,840	지특회계			
		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⑥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⑦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다. 특화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⑧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65,605	지특회계
					⑨ 문화유산 활용 진흥		일반회계
					⑩ 생태관광자원 이용 기반		지특회계
	라. 지역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⑪ 관광자원 기반 조성	62,104	지특회계			
		⑫ 한국형 지역관광활성화		관광기금			
	마. 해양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⑬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4,150	지특회계			
		⑭ 해양관광육성	40,836	일반회계			
	바.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⑮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92,480	지특회계			
		⑯ 스마트 관광 활성화		관광기금			
	III. 국내관광기반 사업군	사. 관광 편의 지원사업군	⑰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64,507	관광기금		
			⑱ 국내관광 역량 강화				
⑲ 문화관광축제 지원							

자료: 국가유산청·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환경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3. 세부 사업군별 개요

가.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1) 사업군 전체 현황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은 '① 외래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 '②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③ 한국관광 해외 광고'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외래관광객의 국내 유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군 전체의 연도별 예산은 2020년 83,670백만원에서 2024년 129,793백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556,400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외래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 사업은 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관광여건 개선 등을 통한 관광 수용태세 향상 및 지역관광 활성화, 여행업 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69,219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내역사업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 고품격 관광 활성화, 관광편의성 제고, 여행업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 조성, 한국관광 품질 관리, 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 및 유통활성화 지원이다.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은 해외시장별 맞춤형 방한관광 홍보마케팅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2000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5,197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내역사업은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 관광상품 개발 지원,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 및 시장 건전화, 한국관광통계 관리 및 조사, 국제관광기구 협력, 관광-항공 연계 외래객 유치 활성화,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한관광 회복 특별마케팅이다.

'한국관광 해외 광고' 사업은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한국관광의 해외홍보를 통한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 및 방한 관광객 유치 증대를 목적으로 2002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1,984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내역사업은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 한국관광 온라인 홍보, 홍보간행물 활용 한국관광 홍보,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한국관광 홍보, K-브랜드 활용 한국관광 협업광고이다.

〈표 II-6〉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명	사업 목적	추진 기간	최근 5년 사업 예산(구비 기준)					사업 대상지	내역 사업
			'20	'21	'22	'23	'24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관광특구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관광여건 개선 등을 통한 관광 수용태세 향상 및 지역관광 활성화, 한국방문의 해 추진, 여행업 경쟁력 제고 등	2008년~ 단년도 계속사업	23,544	25,111	29,015	45,014	46,535	169,219	관광진흥사업 1.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2.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 3. 고품격 관광 활성화 4. 관광 편의성 제고 5. 여행업경쟁력 강화 및 간접여행 상품 조성 6. 한국관광 품질 관리 7. 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 및 유통활성화 지원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해외시장별 맞춤형 방한관광 홍보마케팅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2000년~ 단년도 계속사업	30,271	50,704	48,266	50,883	55,073	235,197	관광진흥사업 1.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 2. 관광상품 개발 지원 3.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 및 시정간전화 4. 한국관광통계 관리 및 조사 5. 국제관광기구 협력 6. 관광-항공 연계 외래객 유치 활성화 7.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한관광 회복 특별마케팅
한국관광 해외 광고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한국관광 해외홍보로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 및 방한 관광객 유치 증대	2002년~ 단년도 계속사업	29,855	31,958	30,253	31,733	28,185	151,984	관광진흥사업 1.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 2. 한국관광 온라인 홍보 3. 홍보간행물 활용 한국관광 홍보 4.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한국관광 홍보 5. K-브랜드 활용 한국관광 협업광고
계			83,670	107,773	107,534	127,630	129,793	556,400	-

2) 세부 사업별 개요

가)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사업은 방한 외래관광객을 위한 관광수용태세 향상 및 관광 활성화 촉진을 위한 방한 외래관광객 관광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은 「관광기본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및 제8조(관광 여건의 조성) 등을 근거로 하며,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국내·외 관광객이지만 지원 대상에게 직접 보조금 지급이 아닌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등과 같은 보조금 사업자(시행 주체)를 통해 사업이 수행되기 때문에 문체부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 100% 및 지자체 5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표 II-7〉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사업의 내역사업별 현황 및 목적

내역사업명	시행 주체	지원 형태	사업 목적
1.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문체부, 지자체	직접, 지자체 보조 50%	관광특구 대상 공모를 통해 관광콘텐츠 개발, 외국관광객 수용태세 제고와 관광인프라 개선을 지원하여 관광특구를 매력적인 국제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 외국인 유치 촉진, 문체부의 관광특구에 대한 직접 평가를 통해 관광특구 현황 분석 및 부실한 관광특구 개선을 위한 방향 제시 및 지자체의 개선 유도
2.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	한국관광공사	민간보조 100%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하이커그라운드 등 한국 관광홍보센터 운영,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를 통한 청와대 권역 관광 제고
3. 고품격 관광 활성화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 지자체, (사)한국현대무용진흥회	직접, 민간보조 100%, 지자체 50%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에 인바운드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대상 쇼핑관광 축제 개최, 지역 주요 관광지에 전국 단위 관광정보 및 각종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어 무인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관광객 편의 제고, 코로나19 이후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캠페인인 '한국 방문의 해' 추진
4. 관광 편의성 제고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민간보조, 지자체 보조 50%	편리한 관광환경기반(교통·쇼핑) 구축을 통한 국내관광 만족도 제고 및 지역관광 활성화 유도
5. 여행업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 조성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관광 통역사협회	민간보조 100%	여행산업 환경 및 시장변화에 따른 여행업계 경쟁력 제고, 여행업 관련 정보 제공, 관광통역안내서비스 향상 교육, 여행업계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6. 한국관광 품질 관리	한국관광공사	민간보조 100%	한국관광 품질 관리를 통한 관광 인프라 개선 및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 등 국가관광 경쟁력 향상
7. 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 및 유통활성화 지원	한국관광공사	민간보조 100%	관광기념품 콘텐츠 발굴과 체계적 상품 육성 및 홍보·판로 개척 등 유통활성화 지원을 통한 관광기념품 산업경쟁력 강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해당 사업의 2024년 예산 중 ‘고품격 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21,697백만원)이 4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여행업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 조성’ 사업 예산(9,057백만원) 및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 사업 예산(8,398백만원)이 각각 19.5% 및 18.0%를 차지한다.

〈표 II-8〉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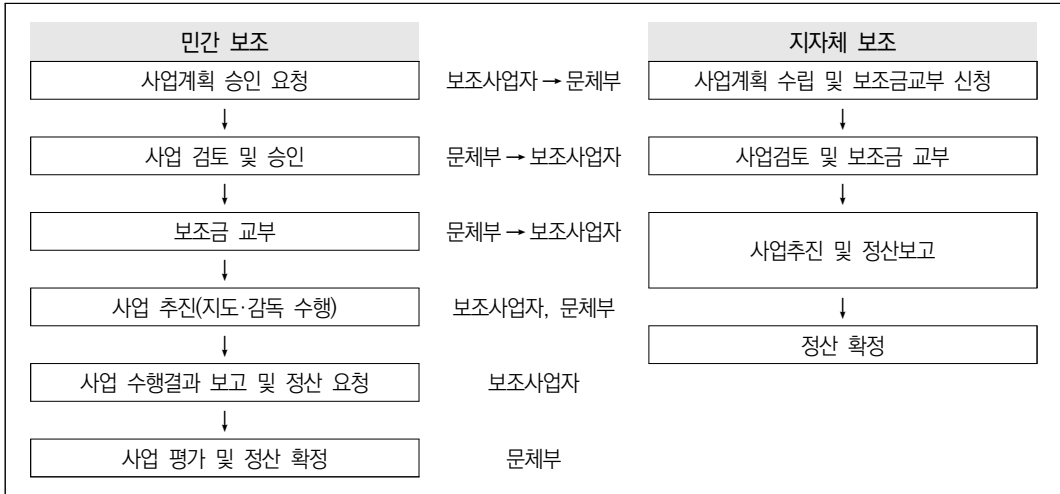
내역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구성비
1.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1,084	1,084	1,084	1,084	779	1.7
2.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	9,139	3,795	4,329	8,918	8,398	18.0
3. 고품격 관광 활성화	4,990	4,641	4,641	14,641	21,697	46.6
4. 관광 편의성 제고	2,880	5,480	5,580	5,580	3,244	7.0
5. 여행업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 조성	1,671	6,671	9,041	10,341	9,057	19.5
6. 한국관광 품질 관리	3,180	2,890	2,890	2,890	1,800	3.9
7. 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 및 유통활성화 지원	600	550	1,450	1,560	1,560	3.4
합계	23,544	25,111	29,015	45,014	46,535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해당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민간 보조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문체부에 사업계획을 승인 요청하면 문체부는 사업을 검토 및 승인 후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체부는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 결과를 보고하며 정산을 요청하면 문체부는 사업을 평가하고 정산을 확정한다. 지자체 보조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다. 문체부의 사업 검토 및 보조금 교부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며, 정산 보고 및 확정이 이루어진다.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사업의 지원 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등이 공모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 등 공모 대상이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를 제출한다.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등의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 선정되면 지자체 등 수행 및 주관기관이 보조 사업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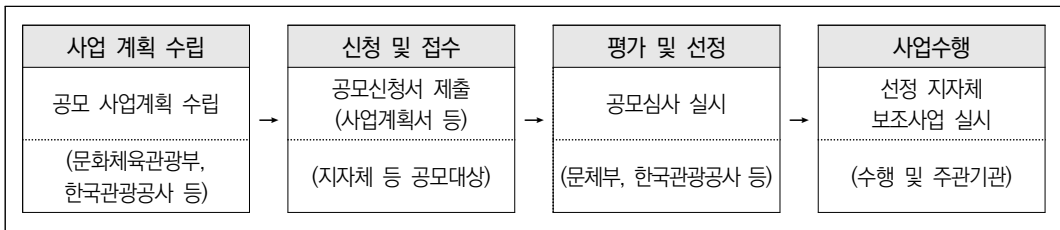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사업의 내역사업 대부분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등 사업 수행 보조사업자에게 지정 교부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통해 공모 선정하는 사업은 아니다. 다만 보조사업의 공모사업 절차 등을 통해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내역사업에 따라 개별 신청이 이루어진다.

[그림 11-3]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사업 추진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그림 11-4]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사업 지원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나)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해외 시장별 맞춤형 방한관광 홍보마케팅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은 「관광진흥법」 제7조(외국관광객의 유치), 「관광진흥법」 제47조의6(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제76조(재정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등을 근거로 하며,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국내·외 관광객 및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이다. 사업 시행 주체는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등이 2000년부터 계속 시행하였으며 문체부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에 출연금 또는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표 11-9〉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내역 사업명	시행 주체	지원 형태	사업 목적
1.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	한국관광공사	직접 수행, 민간경상보조	중화권·일본·아중동·구미주·미국 시장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인바운드 전략 수립 및 홍보마케팅 지원
2. 관광상품 개발 지원	한국관광공사	민간 경상보조 (정액)	외래관광객의 지방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 상품 개발 지원, 신규·잠재 방한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환승관광 상품 개발 지원, 미래세대 방한관광 잠재수요 창출을 위한 방한 청소년 관광 지원
3.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 및 시장건전화	(사)한국여행업 협회	민간 경상보조 (정액)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관리·운영 지원 및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한 시장 수익구조 모니터링,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
4. 한국관광통계 관리 및 조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민간 경상보조 (정액), 출현금 (문광연)	한국관광통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등 정부승인통계 관리 및 조사를 통한 외래객 유치 관련 기본자료 제공
5. 국제관광기구 협력	한국관광공사, 세계관광기구, 문체부	직접 수행, 민간 경상보조 (정액)	국제사회 내 선도적 역할 수행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 실시를 통한 한국관광 입지 제고 및 외래객 유치 증대 기여
6. 관광-항공 연계 외래객 유치 활성화	한국관광공사	민간 경상보조 (정액)	관광산업과 항공 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방한 외래관광객 확대 추진
7.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한관광 회복 특별마케팅	한국관광공사	민간 경상보조 (정액)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 수요 선점을 위한 방한관광 회복 특별마케팅 추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의 총예산은 2020년 30,271백만원에서 2024년 55,073백만원으로 연평균 16.1% 증가하였다. 2024년 예산 중에서는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 사업 예산(39,745백만원)이 7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한관광 회복 특별마케팅’ 사업 예산(7,600백만원) 및 ‘관광-항공 연계 외래객 유치 활성화’ 사업 예산(3,600백만원)이 각각 13.8% 및 6.5%를 차지한다.

〈표 II-10〉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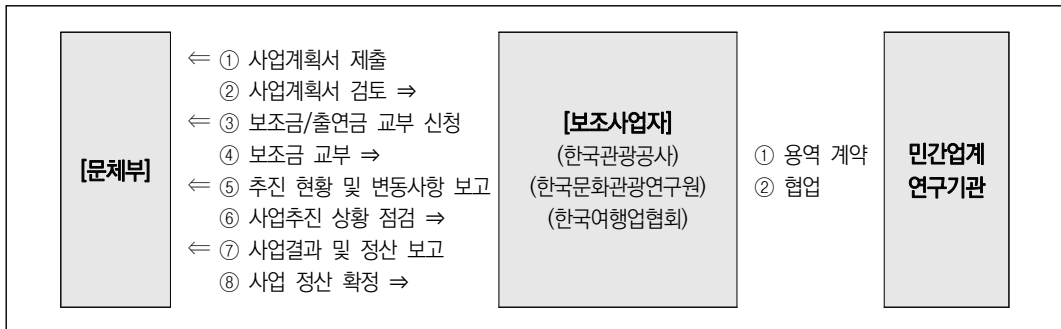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구성비
1.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 활동 지원	23,893	38,612	34,289	35,158	39,745	72.2
2. 관광상품 개발 지원	1,490	3,900	3,110	2,564	650	1.2
3.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 및 시장건전화	500	500	500	530	937	1.7
4. 한국관광통계 관리 및 조사	841	943	864	879	938	1.7
5. 국제관광기구 협력	2,047	2,049	1,803	1,602	1,603	2.9
6. 관광-항공 연계 외래객 유치 활성화	1,500	4,700	4,700	4,000	3,600	6.5
7.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한관광 회복 특별마케팅	-	-	3,000	6,150	7,600	13.8
합계	30,271	50,704	48,266	50,883	55,073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당해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조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에 보고하면 문체부에서 검토 및 승인하고, 보조금과 출연금 신청 및 교부가 이루어진다. 보조사업자는 민간업계 및 연구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해 협업을 수행하며, 사업이 집행되는 동안 문체부는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결과 및 정산 내역을 문체부에 보고하면 사업 정산이 확정된다.

〈그림 II-5〉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다) 한국관광 해외광고

한국관광 해외광고 사업은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한국관광 해외홍보를 통해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 및 방한 관광객 유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및 제76조(재정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제3항을 근거로 하여 한국관광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등이 2002년부터 계속 시행한 한국관광 해외광고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및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국내외 관광객 및 관련 여행업계 전반이다.

〈표 II-11〉 한국관광 해외광고 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내역 사업명	시행 주체	지원 형태	사업 목적
1.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민간 경상보조 (정액)	방한 관광시장별 맞춤형 한국관광 콘텐츠 제작, 다양한 광고 매체를 활용한 이미지 광고 등을 통한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 및 방한관광객 유치 확대
2. 한국관광 온라인 홍보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민간 경상보조 (정액)	VisitKorea 온라인 채널(홈페이지, 모바일 앱, SNS 등)을 통한 다양한 한국관광 정보제공으로 관광목적지로서의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 및 방한관광 동기 부여
3. 홍보간행물 활용 한국관광 홍보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민간 경상보조 (정액)	개별관광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홍보간행물 제작으로 방한동기 부여 및 외래객 유치 증대 기여
4.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한국관광 홍보	문체부, 국제방송교류재단	민간경상보조 (정액)	글로벌 방송네트워크를 활용 한국관광 홍보 영상콘텐츠의 전 세계 송출 통한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 및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5. K-브랜드 활용 한국관광 협업광고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 (정액)	해외 현지 내 인지도 있는 K-브랜드 기업 및 메가 이벤트와의 협업으로 한국관광 광고 효과성 제고 및 K-프리미엄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한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한국관광 해외광고 사업의 총예산은 2020년 29,855백만원에서 2024년 28,185백만원으로 연평균 1.4% 감소하였고, 2023년 예산(31,733백만원)에 비해서도 2024년 예산이 3,548백만원 감액되었다. 2024년 예산 중에서는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 사업 예산(18,626백만원)이 6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한국관광 온라인 홍보’ 사업 예산(3,636백만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한국관광 홍보’ 사업 예산(2,690백만원)이 각각 12.9% 및 9.5%를 차지한다.

〈표 II-12〉 한국관광 해외광고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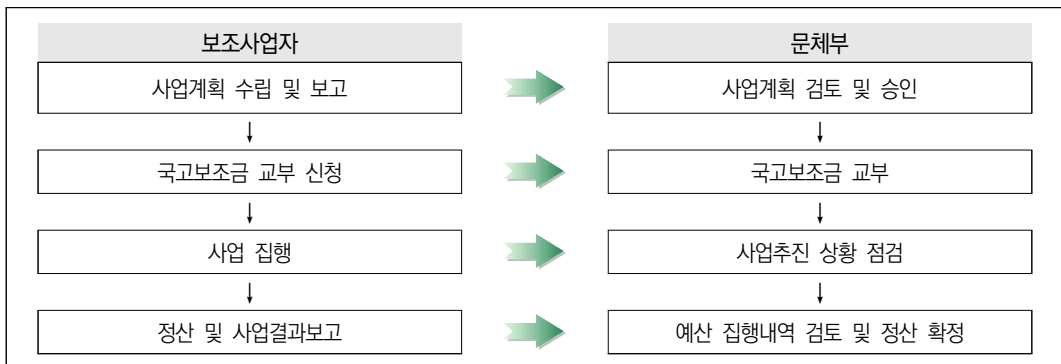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내역 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구성비
1.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	21,122	23,110	21,110	22,414	18,626	66.1
2. 한국관광 온라인 홍보	3,487	3,138	3,778	3,778	3,636	12.9
3. 홍보간행물 활용 한국관광 홍보	1,695	1,566	1,275	1,451	1,233	4.4
4.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한국관광 홍보	3,551	3,244	3,190	3,190	2,690	9.5
5. K-브랜드 활용 한국관광 협업광고	-	-	-	-	2,000	7.1
기타 종료 사업	-	900	900	900	-	-
계	29,855	31,958	30,253	31,733	28,185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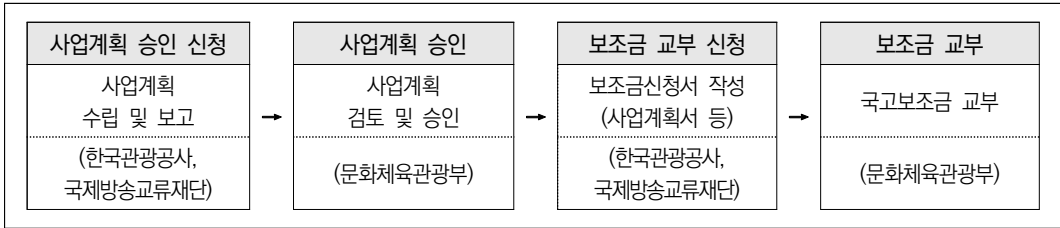
당해 사업의 추진체계는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체계와 동일하다. 즉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에 보고하면 문체부에서 검토 및 승인하고, 보조금 신청 및 교부가 이루어진다. 사업이 집행되는 동안 문체부는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보조사업자가 사업 결과 및 정산 내역을 문체부에 보고하면 문체부의 예산집행내역 검토 후 사업 정산이 확정된다. 한국관광 해외광고 사업의 지원체계는 한국관광공사 및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에 보고한다. 문체부가 이를 검토 및 승인하면 한국관광공사 및 국제방송교류재단이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조금이 교부된다.

[그림 II-6] 한국관광 해외광고 사업 추진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그림 11-7] 한국관광 해외광고 사업 지원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나. 광역권 개발 사업군

1) 사업군 전체 현황

광역권 개발 사업군은 ‘④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⑥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⑦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연계 및 협력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군이 연계하여 장기간 사업을 추진한다. 당해 사업군의 연도별 예산은 2020년 33,586백만원에서 2024년 97,569백만원까지 지속 증가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총 371,868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문체부의 광역권 사업은 다른 사업군과 달리 광역권을 형성하는 지자체 사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내역 사업이 아닌 단위 사업으로 명명한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남부권(전남·광주·부울경)의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K-컬처를 활용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추진된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33,278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5대 프로젝트, 12개 소권역별 전략 및 142개 단위 사업이 시행된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기존 광역관광자원 개발에서 제외된 서부내륙권의 우수한 관광 잠재력을 개발하여 지역관광 성장 동력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9,669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40개 단위 사업(관광개발 29개, 관광진흥 11개)이 시행된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유교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지역관광 체계적 개발 및 충청유교문화 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13,807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

으며, 47개 단위 사업(관광개발 34개, 관광진흥 13개)이 시행된다.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사업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의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제·문화·관광 등 지역산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발전종합계획에는 6개 권역, 637건의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사업이 반영되어 있으며, 남해안권 96개 사업, 동해안권 83개 사업, 서해안권 106개 사업, 내륙첨단산업권 146개 단위사업, 백두대간권 155개 단위사업, 대구·광주연계협력권 87개 단위사업이 시행된다. 이 중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 관광사업은 35개 사업으로 95,113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표 II-13〉 광역권 개발 사업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명	사업 목적	추진 기간	최근 5년 사업 예산(국비 기준)				사업 대상지	단위 사업		
			'20	'21	'22	'23			'24	계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남부권(전남·광주·부울경)의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K-컬처를 활용하여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	2024~2033년	-	-	-	5,500	27,778	33,278	5개 시·도, 66개 시·군·구 -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5대 프로젝트, 12개 소권역별 전략, 142개 단위 사업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기존 광역관광자원 개발에서 제외된 서부내륙권의 우수한 관광잠재력을 개발하여 지역관광 성장 동력 마련	2017~2026년	19,932	41,144	27,633	21,307	19,653	129,669	2개 시·도, 19개 시·군 - 세종, 충남(천안,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예산), 전북(전주, 익산, 정읍,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40개 단위 사업 (관광개발 29개, 관광진흥 11개)
충청유교 문화권 광역관광 개발	유교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지역관광 및 충청유교 문화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2019~2028년	11,988	24,178	20,427	34,031	23,183	113,807	3개 시·도, 28개 시·군 - 대전, 세종, 충북(11개), 충남(15개)	47개 단위 사업 (관광개발 34개, 관광진흥 13개)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국토균형 발전을 위하여 재정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의 발전 증진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추진, 지역거점의 문화·사업·관광 진흥 도모	2013~2030년	1,666	6,898	20,003.5	39,591	26,955	95,113.5	남해안권: 부산, 경남, 전남 동해안권: 울산, 강원, 경북 서해안권: 인천, 경기, 충남, 전북 내륙침단산업권: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백두대간권: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대구, 광주, 전남, 경북	- 남해안권: 96개 사업 - 동해안권: 83개 사업 - 서해안권: 106개 사업 - 내륙침단산업권: 146개 사업 - 백두대간권: 155개 사업 -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87개 사업
계			33,586	72,220	68,063.5	100,429	97,569	371,867.5		

자료: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국토교통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2) 세부 사업별 개요

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남부권(전남·광주·부울경)의 관광자원 및 K-컬처를 활용하여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국내외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이다. 「관광진흥법」 제48조 및 제76조,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 및 제79조 등을 근거로 하여 지자체(부산 및 광주광역시, 울산, 전남, 경남 66개 시·군)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수행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시행 주체인 지자체에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50%)를 지원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본 사업의 2024년 총예산은 27,778백만원이며, 이 중에서 '예술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 사업 예산(2,507백만원)이 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예산(2,145백만원) 및 '통영 관광만 구축' 사업 예산(1,805백만원)이 각각 7.9% 및 6.7%를 차지한다.

〈표 II-14〉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가장 드라이브 관광경관 명소화	-	-	-	-	320
2.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	-	-	-	2,145
3. 예술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	-	-	-	-	2,507
4. 장생포 고래마을 관광경관 명소화	-	-	-	-	1,260
5. 울주 산악관광 베이스캠프 조성 사업	-	-	-	-	810
6. 울주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	-	-	-	300
7. 강동해변 도심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	-	-	-	300
8. 일산해변 풍류문화놀이터 명소화 사업	-	-	-	-	315
9. 땅끝 수상복합공연장 조성 사업	-	-	-	900	1,091
10. 추포도 음식관광테마 명소화 사업	-	-	-	1,700	1,036
11.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사업	-	-	-	1,175	291
12. 레저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 사업	-	-	-	800	220
13. 구례 그린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사업	-	-	-	925	486
14. 섬진강 레인보우워크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	-	-	-	240
15. 생태형 산림관광정원 조성 사업	-	-	-	-	766
16. 뷰타스파 웰니스관광 거점화 사업	-	-	-	-	491
17. 갯벌 치유 관광플랫폼 조성 사업	-	-	-	-	735
18. 도리포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	-	-	-	345

〈표 II-14〉의 계속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9. 해안도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	-	-	-	342
20. 달(月) 관광스테이 조성 사업	-	-	-	-	120
21. 가우도 빛의 숲 관광갤러리 조성	-	-	-	-	337
22. 빛가람 호수공연장 조성 사업	-	-	-	-	234
23. 영산강 파노라마 관광명소 조성	-	-	-	-	372
24. K-사찰 음식관광 명소화 사업	-	-	-	-	429
25. 인문치유 관광루트 명소화 사업	-	-	-	-	379
26. 세방낙조 아트문화 관광명소 조성 사업	-	-	-	-	325
27. 문학치유관광루트 연계명소화 사업	-	-	-	-	340
28. 문화접목 아행관광공간 조성 사업	-	-	-	-	242
29. 공연접목 아행관광공간 조성 사업	-	-	-	-	623
30.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 조성 사업	-	-	-	-	289
31. 정남진 은하수로드 관광명소 조성 사업	-	-	-	-	416
32. 고흥 선셋가든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	-	-	-	235
33.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	-	-	-	-	125
34. 하동 북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	-	-	-	542
35. 밤머리재 전망대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	-	-	-	280
36. 진주 원도심 관광골목 명소화	-	-	-	-	482
37. 자란 관광만 구축사업	-	-	-	-	966
38. 고성 상죽암 디지털놀이터 조성 사업	-	-	-	-	319
39. 통영 관광만 구축 사업	-	-	-	-	1,805
40. 사랑도 관광기반 구축 사업	-	-	-	-	222
41. 진해 벚꽃로드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	-	-	-	340
42. 근대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	-	-	-	-	185
43. K예술마실섬 네트워크 구축	-	-	-	-	240
44. 진영 봉하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	-	-	-	290
45. 낙동 선셋 디지털파크 조성 사업	-	-	-	-	510
46. 함양 한방 웰니스관광 거점화 조성 사업	-	-	-	-	413
47. 해양스포치유 여행플랫폼 조성	-	-	-	-	245
48. 선상지 테마 관광명소 조성 사업	-	-	-	-	423
49. 관광루트 상품화 기반구축(부산)	-	-	-	-	40
50. 관광루트 상품화 기반구축(광주)	-	-	-	-	20
51. 관광루트 상품화 기반구축(울산)	-	-	-	-	20
52. 관광루트 상품화 기반구축(전남)	-	-	-	-	60
53. 관광루트 상품화 기반구축(경남)	-	-	-	-	60
54. 남부권 로컬 투어랩 운영(전남)	-	-	-	-	100
55. 남부권 로컬 투어랩 운영(경남)	-	-	-	-	100
56. 남부권 통합협의체 및 통합 관리체계 구축(부산)	-	-	-	-	40
57. 남부권 통합협의체 및 통합 관리체계 구축(광주)	-	-	-	-	40

〈표 11-14〉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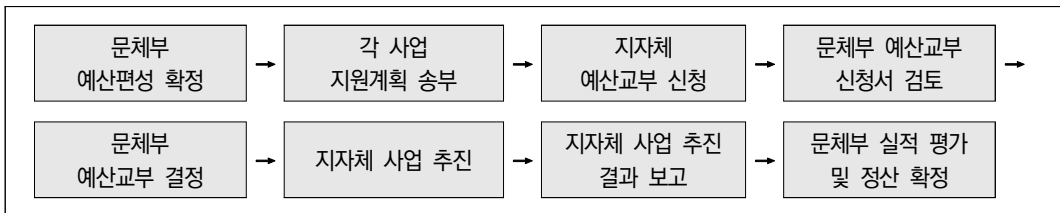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8. 남부권 통합협의체 및 통합 관리체계 구축(울산)	-	-	-	-	40
59. 남부권 통합협의체 및 통합 관리체계 구축(전남)	-	-	-	-	40
60. 남부권 통합협의체 및 통합 관리체계 구축(경남)	-	-	-	-	40
61. K-콘텐츠 기반 관광생태계 고도화 지원(부산)	-	-	-	-	100
62. 무등산권역 지오스테이 상품화	-	-	-	-	100
63. 남도미식 프리미엄 투어 상품화	-	-	-	-	100
64. 고부가 K-관광상품 및 이벤트 육성	-	-	-	-	150
65. 남도고택 달밤스테이 상품화	-	-	-	-	100
66. 명가명인 연계 '남도한상' 상품화	-	-	-	-	100
67. 섬진강 스테이 특화상품 운영(전남)	-	-	-	-	75
68. 섬진강 스테이 특화상품 육성(경남)	-	-	-	-	25
69. 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경남)	-	-	-	-	100
70. 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경남)	-	-	-	-	100
71. 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경남)	-	-	-	-	50
72. 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경남)	-	-	-	-	50
73. K 관광명소 상품화(경남)	-	-	-	-	150
74. K-거상 관광루트 상품화(경남)	-	-	-	-	250
합계	-	-	-	5,500	27,77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당해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체부에서 예산을 편성 및 확정하여 송부한 각 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예산 교부를 신청하고, 문체부는 이를 검토하여 예산 교부를 결정한다.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는 문체부에 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문체부는 실적평가 후 사업 정산을 확정한다.

〔그림 11-8〕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지역의 상생발전과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광역적 차원에서의 개발 요구에 따라 서부내륙권의 우수한 관광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고용 및 지역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기본법」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및 제76조(재정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 제2항 제6호(지역지원계정) 등을 근거로 하여 세종, 충남(8개 시·군), 전북(19개 시·군) 등 지자체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수행하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시행 주체인 지자체에 5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본 사업의 연도별 예산은 2020년 16,932백만원에서 2024년 19,653백만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하였으나, 2023년 예산(19,714백만원)에 비해서는 2024년 예산이 61백만원가량 소폭 감액되었다.

〈표 II-15〉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단위 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개발 사업	김종서 호국충절공원	700	1,600	-	-	-
	대한독립만세길	-	-	-	-	-
	백제문화이음길	-	1,345	900	1,793	1,792
	논산 근대역사문화촌	600	3,135	1,535	-	-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300	300	1,200	2,461	1,230
	부리깊은 인삼체험마을	100	829	826	-	-
	백제역사 너울옛길	100	3,715	-	-	-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1,000	1,445	1,440	-	-
	매운고추체험나라	500	2,562	2,000	-	-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1,800	5,000	4,600	4,003	1,000
	덕산온천 휴양마을	-	1,000	1,500	2,000	2,338
	호국문화체험단지	-	250	900	1,593	796
	음식관광창조타운	-	-	-	500	4,350
	한옥마을 관광기반 정비	250	2,000	990	-	-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	600	2,600	3,000	3,100

〈표 II-15〉의 계속

(단위: 백만원)

구분	단위 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익산 미륵사지관광지	2,327	-	-	-	-
	대장금 테마파크	1,000	1,923	-	-	-
	옛다솜 이야기원	2,876	1,600	1,667	-	-
	상관 편백 모험의 숲	-	-	-	-	-
	삼례삼색(三色)마을	300	1,000	1,162	1,162	-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마을	500	1,000	-	-	-
	부귀산 별빛고원	-	-	400	-	-
	무주 생태모험공원	400	1,900	2,335	1,193	1,192
	무주 태권마을	500	1,825	-	-	-
	장수천천(天川)에 놀라운	-	-	300	1,000	455
	필봉풍물 민속마을	-	300	1,368	2,102	-
	태조 희망의 숲	500	1,150	1,158	-	-
	섬진강 문화예술 다남길	644	750	752	-	-
	참살이 발효마을	2,535	5,915	-	-	-
계	16,932	40,894	26,733	19,214	16,253	
진흥 사업	실행계획 수립	-	-	-	500	-
	성지해움길	-	-	-	-	450
	근대문화유산배움 코스	-	-	-	-	1,350
	비단가람온길레저 코스	-	-	-	-	750
	시나브로 치유길	-	-	-	-	850
계	-	-	-	500	3,400	
합계	16,932	40,894	26,733	19,714	19,65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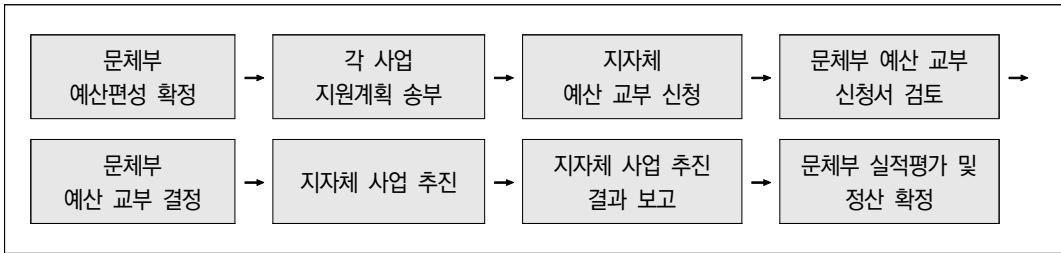
〈표 II-16〉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 실적

구분	사업 실적
전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김중서 호국충절공원 조성 등 18개 사업 추진 - 2021년 김중서 호국충절공원 조성 등 20개 사업 추진 - 2022년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조성 등 17개 사업 추진 - 2023년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등 12개 사업 추진 - 2023년 말 현재 전체 공정률 46.4% 진행 중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당해 사업의 추진체계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동일하다. 먼저 문체부에서 예산을 편성 및 확정하여 송부한 각 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예산 교부를 신청한다. 문체부는 이를 검토하여 예산 교부를 결정한다.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한 이후 문체부에 결과를 보고하고, 문체부는 실적평가 후 사업 정산을 확정한다.

[그림 11-9]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유교문화를 재조명하고, 충청지역 유교문화자원의 관광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관광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국내·외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이다.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및 제76조(재정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등을 근거로 하여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지자체가 2019년부터 2028년까지 수행하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시행 주체인 지자체에 5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사업대상지는 대전, 세종, 충북(11개 시·군), 충남(15개 시·군)이다.

본 사업의 연도별 예산은 2020년 7,478백만원에서 2024년 23,183백만원으로 연평균 32.7% 증가하였으나, 2023년 예산(29,006백만원)에 비해서는 2024년 예산이 5,823백만원 감액되었다.

〈표 II-17〉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내역 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단위 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개발 사업	효(孝)문화부리 마을	-	-	-	3,245	1,300
	이사동 유교전통 의례관(종료)	200	-	800	2,300	-
	회덕유생고을	-	-	-	-	-
	금강누정문화복합센터	-	-	-	-	-
	금강누정선유길	-	200	500	936	-
	사주당태교랜드	900	3,800	2,600	-	315
	문화산수 구곡관광길(종료)	525	100	-	-	-
	화양동선비문화체험단지(사업 중단)	-	500	-	-	-
	문화산수구곡관광길	-	-	-	-	-
	입신양명과거길	-	-	-	-	-
	명승문화마을	650	-	1,500	4,533	1,076
	문화산수구곡관광길	-	-	-	-	-
	탄금대명승지	-	-	-	-	-
	의병창의마을	-	-	-	-	500
	문화산수구곡관광길	-	-	-	-	-
	입신양명과거길	300	940	470	1,478	1,807
	옥아동천유토피아	-	350	500	500	500
	월류예술마을	-	-	-	-	-
	입신양명과거길	-	-	-	-	500
	권선징악돛가비아이야기마을	-	-	-	-	-
	송강문화창조마을	400	1,000	1,000	1,933	1,180
	초평책마을	-	300	500	1,586	1,500
	자린고비청빈마을	-	253	500	-	800
	문화산수구곡관광길	-	760	515	-	845
	대동누리청년군자마당	-	-	900	-	1,000
	홍주천년양반마을	500	800	400	2,363	379
	추사서예창의마을	500	1,460	-	1,500	1,301
	암행어사출두야	-	-	-	-	-
	담헌천문달빛마당(종료)	171	609	600	732	-
	충청감영생생마을(종료)	208	2,156	-	1,656	-
	금강누정선유길(사업 중단)	-	-	-	-	-
	토정비결체험관	1,160	-	1,000	500	1,699
	백의중군로 통곡의 집	-	145	650	-	350
	외암마을 인문학 서당	-	420	650	-	350
밤하늘 산책원	-	-	342	500	800	
사계문화체험관	-	-	-	-	500	

〈표 II-17〉의 계속

(단위: 백만원)

구분	단위 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여민동락역사누리	564	1,115	-	1,000	1,300
	한의약령마을	-	-	-	-	-
	문헌사색원	-	1,000	1,000	1,744	2,131
	선비총의문화관	300	1,000	500	1,000	1,250
	사신들의 바다 순례길	1,100	400	1,500	500	900
	금강누정선유길	-	-	-	1,000	500
계		7,478	17,308	16,427	29,006	22,783
진흥 사업	충청유교문화권 진흥사업 실행계획 수립	-	-	-	-	400
	계	-	-	-	-	400
합계		7,478	17,308	16,427	29,006	23,18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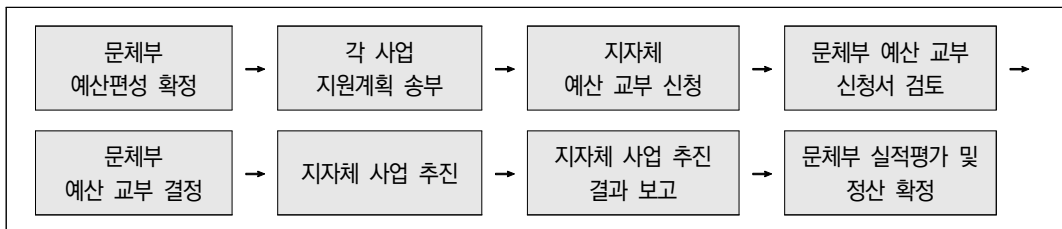
〈표 II-18〉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 실적

구분	사업 실적
전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2023년 총 27개 사업 추진(1개 완공, 25개 진행 중, 1개 사업 중단), - 충청유교문화권 진흥사업(관광상품 개발 7개, 마케팅 및 안내체계 구축 4개, 관광역량강화 2개 등 총 13개 사업) 실행계획수립 용역 시행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용역 시행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당해 사업의 추진체계는 남부권 및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동일하다. 먼저 문체부에서 예산을 편성 및 확정하여 송부한 각 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예산 교부를 신청한다. 문체부는 이를 검토하여 예산 교부를 결정한다.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는 문체부에 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문체부는 실적 평가 후 사업 정산을 확정한다.

[그림 II-10]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라)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지역 연계, 주요거점 조성 등 사업효과가 우수한 핵심사업을 선정 및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제5조, 제6조 및 제31조를 근거로 하여 지자체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사업은 시행 주체인 지자체에 50%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내역 사업은 남해안권, 동해안권, 서해안권,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대구·광주 연계협력권이다.

해당 지자체는 남해안권은 부산, 경남, 전남, 동해안권은 울산, 강원, 경북, 서해안권은 인천, 경기, 충남, 전북, 내륙첨단산업권은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백두대간권은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광주 연계협력권은 대구, 광주, 전남, 경북이다.

본 사업의 연도별 예산은 2020년 1,666백만원에서 2024년 26,955백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2023년 예산(39,591백만원)에 비해서는 2024년 예산이 12,636백만원 감액되었다. 2024년 예산 중에서는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예산(4,000백만원)이 1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설악동 재건사업’ 사업 예산(2,500백만원) 및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 예산(2,500백만원)이 각각 9.3%를 차지한다.

〈표 II-19〉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담당부처	권역	내역 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국토부	동해안	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	-	-	-	300	500	800
	동해안	속초 설악동 재건사업	600	1,950	3,250	3,400	2,500	11,700
	동해안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	-	300	2,910	4,000	7,210
	서해안	노을, 생태 갯벌 플랫폼 조성	-	-	300	782	1,000	2,082
	서해안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	-	-	300	500	800
	서해안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 센터 조성	-	-	-	300	500.0	800.0
	서해안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충남)	-	-	-	300	1,500	1,800
	남해안	서남해안 명품경관 조성	-	-	-	300	500	800
	남해안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	800	2,000	3,100	200	6,100
	남해안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	600	2,500	1,920	2,500	7,520

〈표 II-19〉의 계속

(단위: 백만원)

담당부처	권역	내역 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남해안	남도 2대교 건설	-	-	300	2,500	405	3,205
	백두대간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	-	300	1,000	3,900	1,950	7,150
	백두대간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거점관광지 조성	-	-	400	2,880	1,000	4,280
	백두대간	단양 에코 순환 루트 인프라 구축	-	-	300	3,480	1,000	4,780
	백두대간	섬진강 동화정원(문화예술벨트) 조성	-	-	300	1,305	500	2,105
	백두대간	황매산 녹색 문화 체험 지구 조성	-	-	300	2,350	1,000	3,650
	백두대간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	-	-	-	300	500	800
	내륙첨단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	-	-	300	500	800
	내륙첨단	심향산 발길 순환루트 치유힐링공간 조성사업	-	-	-	300	500	800
	대구광주	바래미 생태레저단지 조성	-	-	200	1,000	1,000	2,200
	대구광주	낙동강 문화권 에코 뮤지엄 조성	-	-	-	300	500	800
	대구광주	봉무 심포공원 조성	-	-	-	300	500	800
	대구광주	수성못 스마트 여행자거리 조성	-	-	-	300	1,400	1,700
	동해안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울진)	-	-	-	-	300	300
	동해안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경주)	-	-	-	-	300	300
	남해안	서남해안 명품경관 조성(천사전망공원)	-	-	-	-	300	300
	백두대간	속리산 힐링 아카데미조성	-	-	-	-	200	200
	백두대간	동서화합 육십령 가이아미터 조성	-	-	-	-	300	300
	백두대간	선비문화유산풍류관광벨트조성	-	-	-	-	300	300
	내륙첨단	금강천리 발길 따라 지역 매력 살리기 - 죽당리 대지예술공원	-	-	-	-	300	300
	내륙첨단	탄금호 자전거 연계거점	-	-	-	-	300	300
	대구광주	영호남 동서 고대문화권 역사관광루트 구축	-	-	-	-	200	200
	동해안	축산(영덕) 블루시티 조성	1,066	2,670	2,000	3,764	-	9,500
	남해안	남해안 명품전망 공간조성	-	578	5,353.5	-	-	5,931.5
	동해안	포항 해파랑길 단절구간 연결	-	-	1,500	3,000	-	4,500
계			1,666	6,898	20,003.5	39,591	26,955	95,113.5

자료: 국토교통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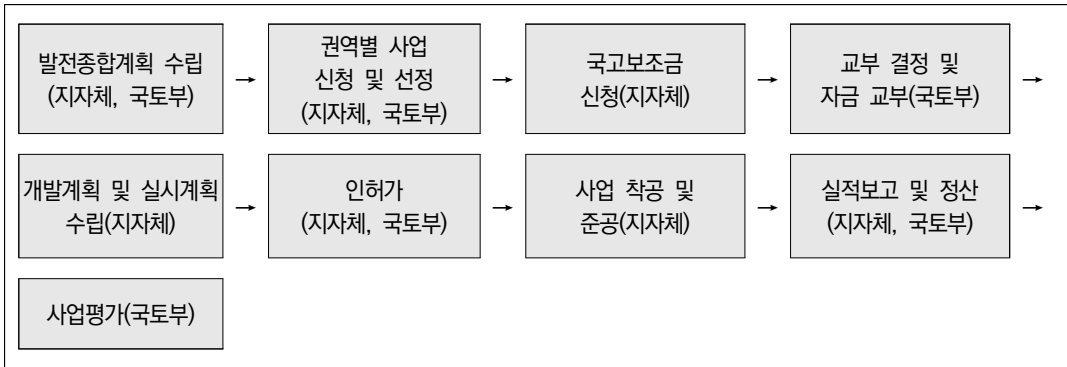
〈표 II-20〉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사업 실적

구분	사업 실적
남해안권	국가 종합비행성능 시험장 구축,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클러스터 구축 등 20건 준공
동해안권	희토류 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양기술 실험역 시험평가 및 인증센터 건립 등 2건 준공
서해안권	화성 자율주행 혁신산업생태계 구축, 서산시 석유화학산업 고도화 기반 구축 등 4건 준공
백두대간권	세라믹 융복합소재 산업클러스터 조성, 산림 레포츠길 조성 등 6건 준공
내륙침단권	완주 힐링 외승길 조성 등 3건 준공

자료: 국토교통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당해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와 국토부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권역별로 사업을 신청하면 국토부가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국토부에서 결정 및 교부한다. 지자체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서 인허가를 승인하면 사업이 착공된다. 준공 이후에는 실적보고 및 정산이 이루어지고 국토부에서 사업을 평가한다.

[그림 II-11]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사업 추진체계



자료: 국토교통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다.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1) 사업군 전체 현황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은 ‘⑧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⑨ 문화유산 활용 진흥’, ‘⑩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특화자원 개발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당해 사업군의 전체 예산은 2020년 46,673백만원에서 2024년 65,605백만원까지 증가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329,751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은 폐광지역 관광산업 지속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2023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9,450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내역 사업은 (2024년 기준) 폐광지역 통합 관광 브랜드 육성, 통합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폐광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 폐광지역 관광생태계 구축 등이다.

‘문화유산 활용 진흥’ 사업은 지역 소재 국가유산을 역사교육장 및 프로그램형 문화관광 상품으로 재탄생시켜 문화 혜택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극복하고, 문화 향유 서비스 균등화를 실현할 목적으로 2007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6,672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내역사업은 국가유산 방문캠페인,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및 인지도 제고, 세계유산축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국가유산 스토리텔링 활용 활성화, 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 서비스, 궁중문화체험 운영,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국가유산 광역 활용 기반 구축이다.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사업은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 관광지역’으로 지정 및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83,629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내역 사업은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 환경 친화적 에코촌 조성,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제도 운영,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자연보전단체 지원이다.

〈표 II-21〉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명	사업 목적	추진 기간	최근 5년간 사업 예산(국비 기준)					사업 대상지	내역 사업
			'20	'21	'22	'23	'24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폐광)	폐광지역 관광산업 지속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023년 ~단년도 계속사업	-	-	-	2,750	6,700	9,450	1. 폐광지역 통합관광 브랜드 육성 2. 통합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3. 폐광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 개발 4. 폐광지역 관광생태계 구축
문화유산 활용 진흥 (국가유산)	지역 소재 국가유산을 역사교육장 및 프로그램형 문화관광 상품으로 재탄생시켜 문화 혜택의 수도 권 편중 현상 극복 및 문화 향유 서비스 균등화 실현	2007년 ~단년도 계속사업	40,133	51,162	51,467	50,827	43,083	236,672	1. 국가유산 방문캠페인 2.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3.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인지도 제고 4. 세계유산축전 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6.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7. 국가유산 스토리텔링 활용 활성화 8. 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 서비스 9. 공중문화체험 운영 10.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전문인력 역량 강화 11. 국가유산 광역 활용 기반 구축
생태 관광자원 이용 기반 (생태자원)	보존 가치가 있고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 관광지역'으로 지정 및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2011년 ~단년도 계속사업	6,540	12,351	27,919	20,997	15,822	83,629	1.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 2. 환경친화적 예코촌 조성 3.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제도 운영 4.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5. 자연보전단체 지원
계			46,673	63,513	79,386	74,574	65,605	329,75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2) 세부 사업별 개요

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은 폐광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관광객 유입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은 「관광기본법」 제9조, 「관광진흥법」 제48조 및 제76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9조(지역지원제정의 세입과 세출) 등을 근거로 하여 지자체가 2023년부터 수행하며, 시행 주체인 지자체에 정률 5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국내외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이다.

〈표 II-22〉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내역사업명	시행주체	지원 형태	사업 목적
1.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 삼척, 영월, 정선)	지자체 보조 50%	다양한 홍보·마케팅과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형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폐광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 함으로써 관광객 유입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타당성 연구	충남 보령, 전남 화순, 경북 문경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관련 타당성 조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의 2023년 및 2024년 총예산은 각각 2,750백만원 및 6,700백만원이다. 당해 사업의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문체부는 사업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사업 추진 이후에는 지자체가 문체부에 정산을 보고하며,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정산을 확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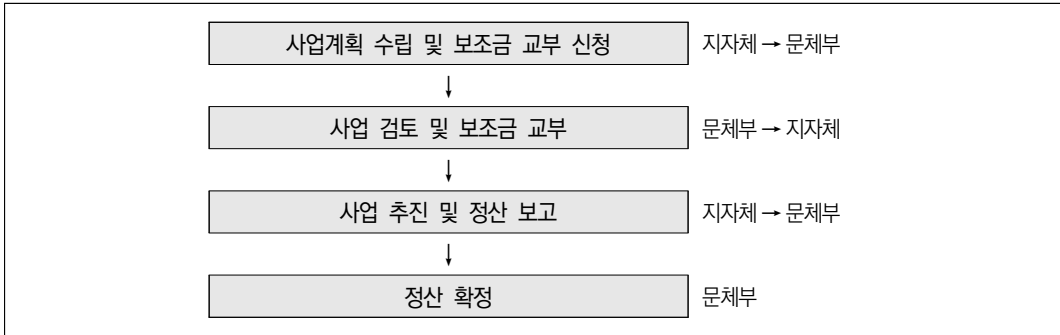
〈표 II-23〉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구성비
1.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	-	-	2,150	6,700	100.0
2.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타당성 연구	-	-	-	600	-	0.0
계	-	-	-	2,750	6,700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그림 II-12]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나) 문화유산 활용 진흥

문화유산 활용 진흥 사업은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면서 국민들이 유산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국가유산 활용을 통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사례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일반 국민이며, 해당 사업은 「국가유산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3조, 제25조, 제26조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보조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근거로 하여 국가유산청, 지자체, 국가유산진흥원 등이 2007년부터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시행 주체인 지자체, 국가유산진흥원, (사)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등에 40~50%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표 II-24> 문화유산 활용 진흥 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내역 사업명	시행 주체	지원 형태	사업 목적
1. 국가유산 방문캠페인	국가유산진흥원	민간위탁 100%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문화의 바탕이 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실제 해당 지역 방문으로 이어지고 다시 찾고 싶도록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 제공
2.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지자체 또는 수행단체	지자체경상보조 100%	지역에 소재한 국가유산을 역사교육장 및 프로그램형 문화관광상품으로 재탄생시켜, 문화해택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극복하고, 문화향유 서비스 균등화 실현

〈표 II-24〉의 계속

내역 사업명	시행 주체	지원 형태	사업 목적
3.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인지도 제고	국가유산청, 공모를 통한 지자체 선정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100%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국민 공감 및 인지도 제고, 내·외국인 맞춤형 콘텐츠 생성 및 배포 등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통합 홍보
4. 세계유산축전	국가유산 진흥원	민간위탁 100%	인류 자산인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을 활용한 축전, 활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이들 문화유산이 가진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모든 국민과 더불어 향유할 수 있는 고품질 복합 콘텐츠 보급
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국가유산 진흥원	민간위탁 100%	미디어·디지털 기술을 국가유산에 접목하여 지역의 대표 유산으로써의 가치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는 야간 특화·지역 체류형 활용 콘텐츠 개발
6.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지자체 또는 수행단체	지자체 경상보조 50%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민의 세계유산 향유 기회 확대, 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7. 국가유산 스토리텔링 활용 활성화	국가유산청	직접수행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야기 자원을 웹툰, 웹드라마, 영상 맵핑, 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가공·활용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산업화 및 문화유산의 가치를 극대화
8. 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 서비스	공모를 통해 선정	민간위탁 100%	문화유산 접근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층별 유형, 제약여건,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지원
9. 궁중문화체험 운영	국가유산 진흥원	민간위탁 100%	조선시대 왕가의 산책을 재현한 정통 퍼레이드에 공연을 가미한 연중 상설 공연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 제공
10.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전문 인력 역량 강화	공모를 통해 선정	민간경상보조 100%	지역 국가유산 활용사업 담당자(지자체 및 수행단체)의 기획 및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 지역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품질 제고
11. 국가유산 광역활용 기반 구축	(사)한국문화유산 활용단체연합회, 제주	민간위탁 100%, 지자체 경상보조 50%	산발적·소규모로 운영되어 온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통합 연결,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자료: 국가유산청,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국가유산청 내부자료

본 사업의 연도별 예산은 2020년 40,133백만원에서 2024년 43,083백만원으로 연평균 1.8% 증가하였으나, 2023년 예산(50,827백만원)에 비해서는 2024년 예산이 7,744백만원 감액되었다. 2024년 예산 중에서는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예산(17,574백만원)이 4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국가유산 방문캠페인’ 사업 예산(6,797백만원) 및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예산(6,712백만원)이 각각 15.8% 및 15.6%를 차지한다.

〈표 11-25〉 문화유산 활용 진흥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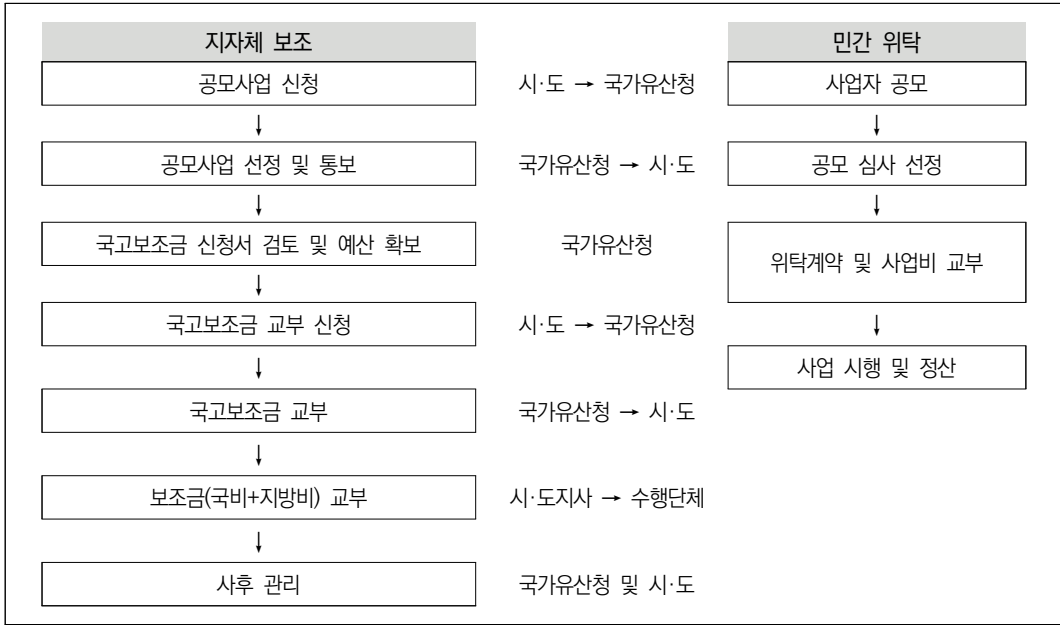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내역 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구성비
1. 국가유산 방문캠페인	4,900	6,150	7,274	8,047	6,797	15.8
2.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18,168	19,468	21,703	22,203	17,574	40.8
3.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인지도 제고	-	165	500	500	400	0.9
4. 세계유산축전	6,000	7,200	6,000	6,000	6,000	13.9
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	4,500	7,200	7,200	6,712	15.6
6.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1,680	2,000	2,000	2,000	1,500	3.5
7. 국가유산 스토리텔링 활용 활성화	234	236	901	901	901	2.1
8. 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 서비스	3,000	3,000	500	500	400	0.9
9. 궁중문화체험 운영	800	800	800	800	1,600	3.7
10.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전문인력 역량 강화	200	300	270	270	216	0.5
11. 국가유산 광역 활용 기반구축	-	-	-	-	600	1.4
12. 사업운영경비 및 종료사업	5,151	7,343	4,319	2,406	383	0.9
계	40,133	51,162	51,467	50,827	43,083	100.0

자료: 국가유산청,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국가유산청 내부자료

당해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먼저 시·도 등 지자체에서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참여한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한다. 지자체가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면 유산청이 국고보조금을 지자체에 교부한다. 시·도 등 지자체는 국비 및 지방비 등의 보조금을 사업수행단체에 교부하고 이를 사후 관리하고 있다. 민간 위탁 방식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 및 사업비 교부 이후 사업 시행 및 정산이 이루어진다.

[그림 II-13] 문화유산 활용 진흥 사업 추진체계



자료: 국가유산청,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국가유산청 내부자료

<표 II-26> 문화유산 활용 진흥 사업 추진 실적

구분	사업 실적
국가유산 방문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 방문코스(10개, 76개 거점) 활성화 - 특색 있는 국가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운영을 통한 국가유산 가치 재창출 - 사회 환경 변화에 발맞춘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제작 - 활용으로 새로운 국가유산 향유기반 마련 및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생생국가유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328억원 -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374억원 - 고택종가집 활용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78억원 - 문화유산 야행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3,577억원 -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19억원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인지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맞춤형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보급 - 문화유산 유유자적 통합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성 증대 - 대국민에 유효한 국가유산 활용사업 정보(내용, 일시 등) 제공
세계유산축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의 국가유산 복합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대한 진정성 및 역사적 가치 제고 - 세계유산을 지역 국가유산 활용 거점으로 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지원을 통해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자생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표 II-26〉의 계속

구분	사업 실적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지역의 다양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지역별 문화향유를 위한 유입인구 증가 및 새로운 야간 국가유산 활용 콘텐츠로 급부상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전국 13개 사업, 13만 7,339명 참가 및 총 1,358회 프로그램 진행 - 2021년 전국 23개 사업, 17만 4,640명 참가 및 총 1,072회 프로그램 진행 - 2022년 전국 21개 사업, 18만 5,560명 참가 및 총 1,603회 프로그램 진행 - 2023년 전국 20개 사업, 15만 6,204명 참가 및 총 1,618회 프로그램 진행
국가유산 스토리텔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 이야기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제작·보급을 통해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도 제고(국가유산 이야기 자원(무형문화유산 80선, 근대문화유산 250선, 민속문화유산 100선 등) 발굴 - 웹툰 콘텐츠(물상객주, 단오에 오신, 역사를 습작하다, 환수왕 등) 제작
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9,512명 참여(장애인 4,377, 노인 1,780, 보호아동 1,693, 다문화 1,662) - 2021년 1만 4,333명 참여(장애인 6,118, 노인 2,558, 보호아동 2,998, 다문화 2,659) - 2022년 1,931명 참여(장애인 720, 노인 299, 보호아동 533, 다문화 379) - 2023년 1,992명 참여(장애인 804, 노인 202, 보호아동 458, 다문화 528)
공중문화체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운영 1,074회, 관람객 29만 4,255명 - 2019년 운영 1,103회, 관람객 31만 3,294명 - 2020년 운영 448회, 관람객 2만 1,481명 - 2021년 운영 818회, 관람객 9,927명 - 2022년 운영 1,064회, 관람객 21만 6,740명 - 2023년 운영 1,068회, 관람객 72만 5,270명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전문인력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관련 전문적 교육 제공을 통해 사업 관계자의 역량 강화 - 사회 환경 및 트렌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다양화 실현

자료: 국가유산청,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국가유산청 내부자료

다)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사업은 자연자원 규제·통제 위주 정책에서 자연자원의 보전과 이용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여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며,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일반 국민이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및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를 근거로 하여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지자체, 한국생태관광협회 등이 2011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사업은 시행 주체인 국립공원공단, 지자체, 한국생태관광협회 등에 정액 보조금 또는 50~100%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표 II-27〉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내역 사업명	시행 주체	지원 형태	사업목적
1.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	지자체, 국립공원공단	지자체 보조 50%	생태자원이 우수한 국립공원과 생태관광지역에 체험, 교류, 교육 등 기능을 갖춘 생태관광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및 지역소득 증진 도모
2.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지자체	지자체 보조 50%	생태관광 인프라가 열악한 생태관광지역에 환경친화적 소규모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3.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제도 운영	지자체	지자체 보조 50%	환경적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육성
4.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환경부	지자체 보조 50%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태관광 행사 및 홍보, 콘텐츠 조사·발굴 등을 통해 생태관광 인지도 및 지속적인 만족도 제고 기여
5. 자연보전단체 지원	한국생태관광협회	정액 보조	생태관광지역 및 탐방프로그램 조사·연구, 국제협력,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생태관광 관련 법정단체 지원

자료: 환경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환경부 내부자료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사업의 연도별 예산은 2020년 6,540백만원에서 2024년 15,822백만원으로 연평균 24.7% 증가하였으나, 2023년 예산(20,997백만원)에 비해 2024년 예산이 5,175백만원 감액되었다. 2024년 예산 중에서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 사업 예산(12,480백만원)이 7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제도운영' 사업 예산(1,440백만원) 및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사업 예산(1,203백만원)이 각각 9.1% 및 7.6%를 차지한다.

〈표 II-28〉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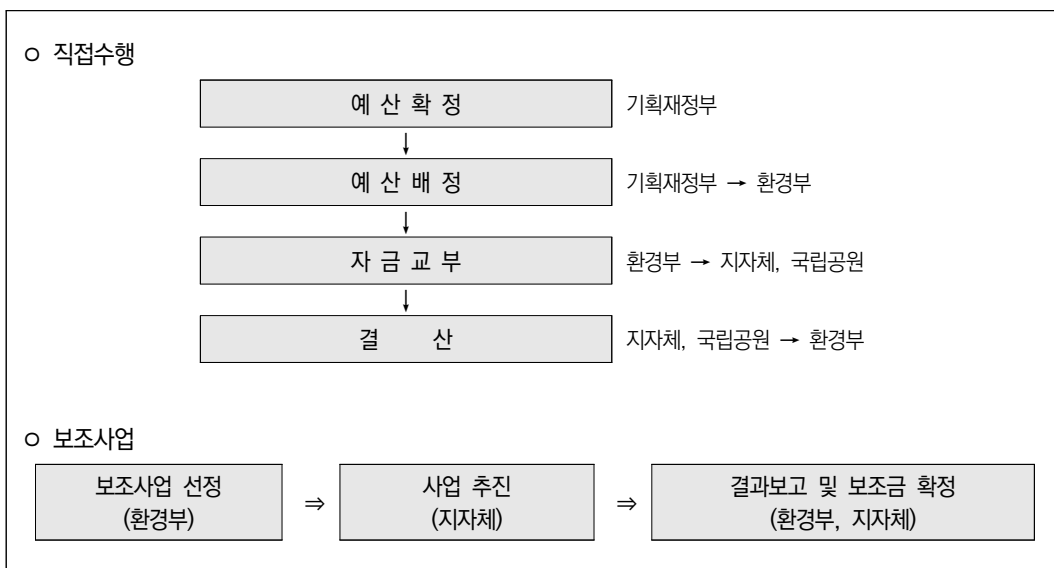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내역 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구성비
1.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	4,000	9,260	23,536	13,402	12,480	78.9
2.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	1,000	2,165	5,000	650	4.1
3.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제도 운영	1,020	1,120	1,247	1,305	1,440	9.1
4.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1,520	901	901	1,220	1,203	7.6
5. 자연보전단체 지원	-	70	70	70	49	0.3
계	6,540	12,351	27,919	20,997	15,822	100.0

자료: 환경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환경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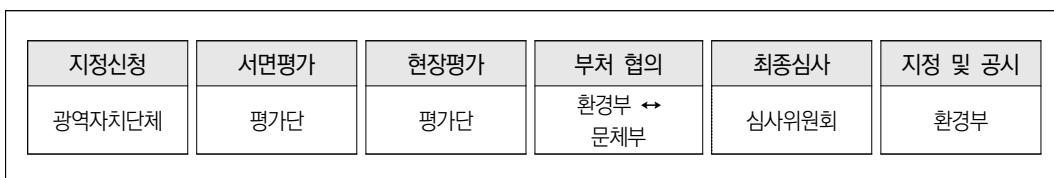
당해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환경부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경우, 기재부에서 예산을 확정 및 배정하면 환경부가 지자체, 국립공원 등에 자금을 교부한다. 그리고 지자체, 국립공원 등은 사업추진 후 결산 내역을 환경부에 보고한다.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환경부가 보조사업을 선정하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지자체가 사업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면 보조금이 확정된다.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사업의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단이 서면 및 현장 평가를 수행하고 환경부와 문체부 간 협의가 진행된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심사 후 환경부에서 지정 및 공시한다.

[그림 II-14]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사업 추진체계



자료: 환경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환경부 내부자료

[그림 II-15]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사업 지원체계



자료: 환경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환경부 내부자료

라.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1) 사업군 전체 현황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군은 ‘⑪ 관광자원 기반 조성’, ‘⑫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등 2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지역의 자원을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당해 사업군의 연도별 예산은 2020년 41,179백만원에서 2024년 62,104백만원까지 지속 증가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90,715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관광자원 기반 조성 사업은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환경 개선 지원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계획공모형 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09,568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내역 사업은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관광자원 정책개발 및 운영 지원, 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광투자 유치지원, 지역관광개발 지원 체계 구축, 지역관광 자원개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 등이다.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은 한국의 특색을 보유한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확충을 통해 한국형 지역관광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할 목적으로 2009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81,147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내역 사업은 걷기여행길 활성화 지원, 코리아둘레길 세계적 브랜드 육성(2023년 사업 종료),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인천공항 K-관광·컬처존 조성 등이다.

〈표 11-29〉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명	사업 목적	추진 기간	최근 5년 사업 예산					사업 대상지	내역 사업
			'20	'21	'22	'23	'24		
관광자원 기반 조성	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환경 개선 지원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2010년~ 계속사업/ (계획 규모형) 2019~ 2025년	20,872	33,513	50,446	56,658	48,079	209,568	1.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2. 관광자원개발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 3.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 시스템 운영 4. 관광투자유치 지원 5. 지역 관광개발 지원체계 구축 6. 지역관광자원개발 7. 계획모형 지역관광개발 8. 오시안노 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코리아둘레길, DMZ 접경지역, 반려동물 동반여행 등 한국 특색을 보유한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확충으로 한국형 지역관광을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 도모	2009년~ 단년도 계속사업	20,307	14,204	16,911	15,700	14,025	81,147	1. 걷기여행 활성화 2. DMZ 접경지역관광 활성화 3.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4. 인천공항 K-관광 칼처존 조성
계			41,179	47,717	67,357	72,358	62,104	290,71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2) 세부 사업별 개요

가) 관광자원 기반조성

관광자원 기반조성 사업은 기존 관광개발사업과 달리 핵심·인프라·관리운영사업을 포괄하는 패키지형 사업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계획 및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일반 국민이다. 해당 사업의 근거는 「관광기본법」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및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제49조(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제76조(재정 지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이다. 시행 주체인 문체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이 2010년부터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50% 보조금 지급 및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정률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표 II-30〉 관광자원 기반조성 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내역 사업명	시행 주체	지원 형태	사업 목적
1.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지방자치단체 (충남, 전남)	지자체 보조 50%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고자 관광레저도시 브랜드 마케팅, 투자유치 활동 등 지원
2. 관광자원 개발 제도개선 및 운영 지원	문체부	직접 수행	관광자원개발 제도 개선 및 평가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운영·현장 출장 등의 원활한 운영 지원
3. 국가 관광자원개발 통합 정보시스템 운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업출연금 (정액보조)	국가 관광자원개발 통합시스템의 DB 구축, 시스템 개선, 대국민 서비스 등 지역 관광자원개발 관련 업무 지원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도모
4. 관광투자유치 지원	한국관광공사	정액 지원	국내 관광자원개발 투자정보 구축 및 운영, 지역 관광자원 맞춤형 관광투자 컨설팅, 관광자원개발 투자유치 담당자 교육
5. 지역관광개발 지원체계 구축	한국관광공사	정액 지원	지방이양 대상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사전 컨설팅 및 사후 관광영향평가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6. 지역관광자원 개발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보조 50%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관광자원 개발 지원
7.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보조 50%	지역의 낙후, 유휴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 개발, 자원 관리 운영 등을 중심으로 관광자원 개선 및 지역 관광개발 역량 강화
8.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 시설 조성	한국관광공사	정액 지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관광단지 활성화 및 지역주민 생활편의 증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본 사업의 연도별 예산은 2020년 20,872백만원에서 2024년 48,079백만원으로 연평균 23.2% 증가하였으나, 2023년 예산(56,658백만원)에 비해서는 2024년 예산이 8,579백만원 감액되었다. 2024년 예산 중에서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예산(27,807백만원)이 5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지역관광개발’ 사업 예산(14,630백만원) 및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 사업 예산(3,300백만원)이 각각 30.4% 및 6.9%를 차지한다.

〈표 II-31〉 관광자원 기반조성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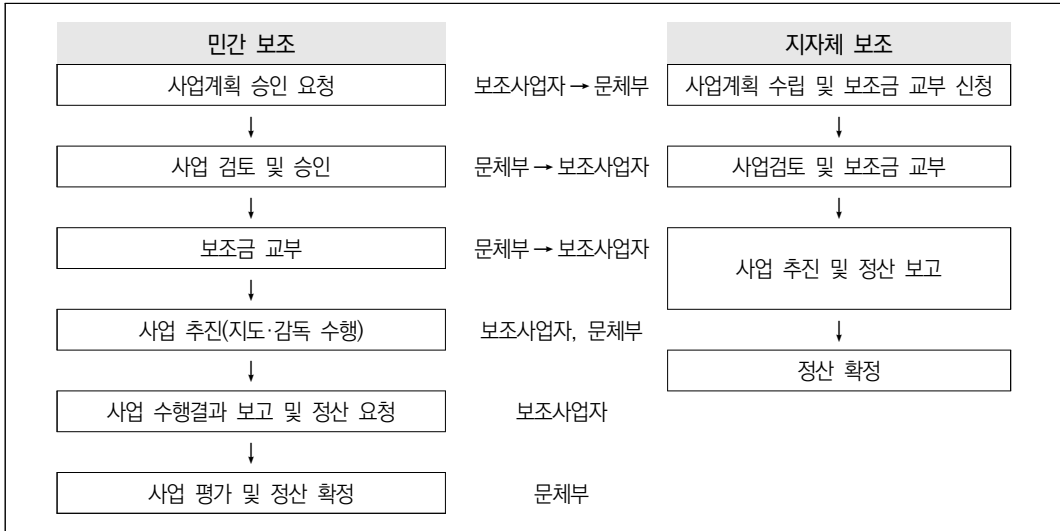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내역 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구성비
1.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130	130	130	150	150	0.3
2. 관광자원 정책개발 및 운영 지원	592	692	892	1,592	892	1.9
3. 국가 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416	416	416	500	500	1.0
4. 관광 투자유치 지원	300	300	300	300	300	0.6
5. 지역관광개발 지원체계 구축	500	500	500	500	500	1.0
6. 지역관광자원 개발	9,934	20,637	9,086	13,848	14,630	30.4
7. 계획공모형 관광자원개발사업	1,200	4,500	21,000	28,240	27,807	57.8
8. 오시아노 공공시설 조성	-	700	3,300	3,150	3,300	6.9
기타 종료사업 및 이관사업	7,800	5,638	14,822	8,378	-	0.0
	20,872	33,513	50,446	56,658	48,079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당해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체부는 보조사업자가 승인 요청한 사업계획을 검토 및 승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한다.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문체부는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하여 정산을 요청하면 문체부는 사업 평가 후 정산을 확정한다.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문체부는 사업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사업 추진 이후에는 지자체가 문체부에 정산을 보고하며,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정산을 확정한다.

[그림 II-16] 관광자원 기반조성 사업 추진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표 II-32〉 관광자원 기반조성 사업 추진 실적

구분	사업 실적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기업도시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이벤트 추진
지역관광 자원개발	지역 고유 생태자원, 지역소재의 역사 및 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지원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총 41개소 개발 지원)
관광자원 정책개발 및 운영 지원	관광산업 정책·제도의 조사·연구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 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본격 운영 - 대표전화(1577-4880) 서비스 실시 - 대국민 서비스 실시 및 콘텐츠 기획·운영 -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업데이트 및 시스템 기능 개선 - 인터페이스 기능 개선, 모바일 반응형 웹페이지 구현 - 타 부처 공간 정보 연계, 교육 동영상 콘텐츠 연계 - 인터페이스 기능 개선, 모바일 반응형 웹페이지 구현 -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구상, GIS 서비스 고도화 -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년 권역별 담당자 교육 추진
관광투자유치 지원	투자 관련 컨퍼런스 및 투자박람회 참가, 국내외 초청 현장투자설명회 개최, 지자체 투자유치 담당자 워크숍 개최, 관광단지 개발업무 지침서 제작·배포, 지자체 관광개발사업 공모 선정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온라인 정보기반 마련 및 교육콘텐츠 제작·배포
지역관광 개발지원 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관광개발사업 컨설팅 대상 선정 및 지원(총 48개소), 지역관광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멘토링단 구성 및 자문, 지역관광개발사업 실태·영향조사, 사업설명회,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지자체 현장 답사 및 대상지 방문관광객 설문조사 실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2019년 2개, 2020년 8개, 2021년 5개, 2024년 3개 등 총 18개 지자체를 공모 절차를 통하여 선정하고 지역관광자원 리모델링 사업 발굴 및 추진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	하수처리장 설치 실시계획 완료, 각종 인허가 이행 및 시공자 선정 및 착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나)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은 대한민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내·외국인 관광객, 지자체, 관광업계 종사자 등이다. 「관광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제13조, 「관광진흥법」 제48조 등을 근거로 하여 지자체가 2009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은 시행 주체인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자체 등에 50% 및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출연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표 11-33〉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내역 사업명	시행 주체	지원 형태	사업 목적
1. 걷기여행길활성화	78개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정액), 지자체 경상보조(50%), 출연금(정액)	한반도 외곽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코리아둘레길을 구축·운영하여 세계적 걷기여행길 조성 및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내용: 코리아둘레길 홍보마케팅, 두루누비 운영, 지자체 센터 운영 등
2. DMZ 접경지역관광 활성화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정액), 지자체 경상보조(50%)	비무장지대(DMZ) 및 접경지역을 평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접경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콘텐츠 확충 및 홍보마케팅 사업 지원 지원 내용: 상품화 지원, 생생누리 운영, 평화의 길 운영, 홍보 등
3.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정액), 지자체 경상보조(50%)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동반여행 수요에 부응하여 반려동물과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콘텐츠 개발, 수용태세 개선, 건전한 여행문화 정착 등의 사업 수행
4. 인천공항 내 K-관광·컬처존 조성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정액), 민간자본보조(정액)	매력적인 K-컬처와 다양한 관광지의 실감 체험 및 홍보 등을 위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내 실감형 K-관광·컬처 디지털 체험존 조성 및 운영 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본 사업의 연도별 예산은 2020년 20,307백만원에서 2024년 14,025백만원으로 연평균 8.8% 감소하였으며, 2023년 예산(15,700백만원)에 비해서도 2024년 예산이 1,675백만원 감액되었다. 2024년 예산 중에서는 ‘걷기여행 활성화’ 사업 예산(5,358백만원)이 3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DMZ 접경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4,156백만원) 및 '인천공항 K-관광 컬처존' 사업 예산(3,011백만원)이 각각 29.6% 및 21.5%를 차지한다.

〈표 II-34〉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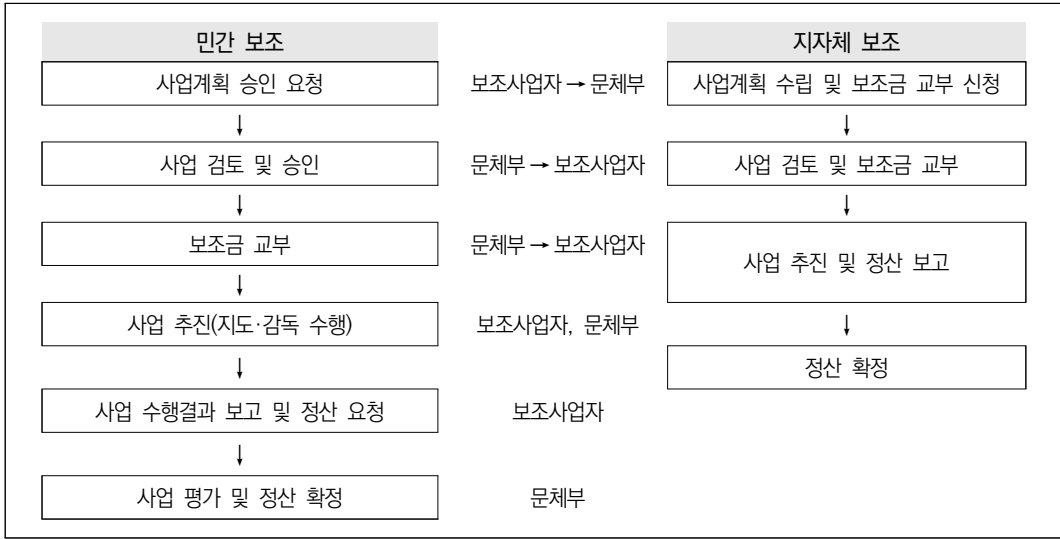
내역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구성비
1. 걷기여행 활성화	3,869	3,869	3,569	3,486	5,358	38.2
2. DMZ 접경지역관광 활성화	14,110	8,007	10,214	8,816	4,156	29.6
3.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	-	500	1,000	1,500	10.7
4. 인천공항 K-관광 컬처 존	-	-	-	-	3,011	21.5
기타 종료 사업	2,328	2,328	2,628	2,398	-	0.0
계	20,307	14,204	16,911	15,700	14,025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당해 사업의 추진체계는 관광자원 기반조성 사업과 동일하다.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체부는 보조사업자가 승인 요청한 사업계획을 검토 및 승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한다.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문체부는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하여 정산을 요청하면 문체부는 사업 평가 후 정산을 확정한다.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문체부는 사업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사업 추진 이후에는 지자체가 문체부에 정산을 보고하며,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정산을 확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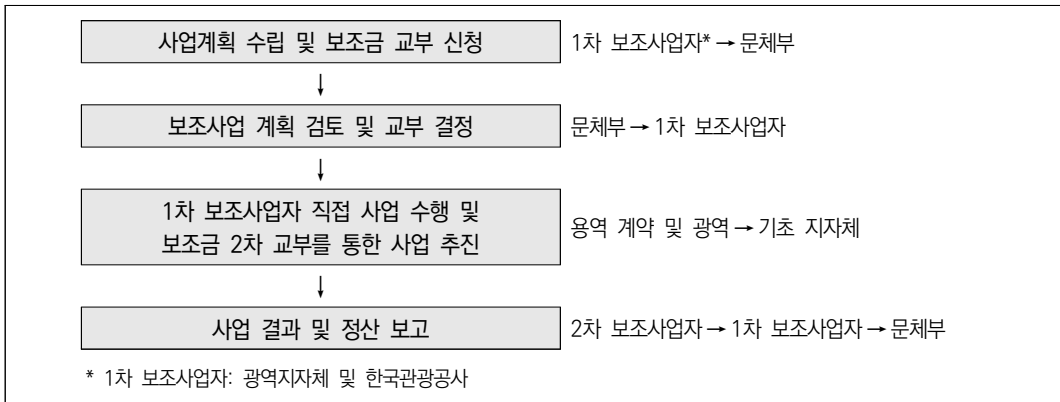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의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체부는 1차 보조사업자(광역지자체 및 한국관광공사)의 사업계획 및 보조금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사업추진은 1차 보조사업자가 용역 계약을 통해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광역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로 보조금을 2차 교부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업 수행 후에는 1차 및 2차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 결과 및 정산 내역을 문체부에 보고한다.

[그림 II-17]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그림 II-18]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표 II-35〉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

구분	사업 실적
걷기여행 활성화	- 해파랑길, 남파랑길, 서해랑길, - DMZ길 등 총 283개 코리아둘레길 코스 조성
코리아둘레길 세계적 브랜드 육성	- 코리아둘레길 내 한류관광명소 및 한국만의 독자적인 자연 및 문화 명소 등 세계인들이 관심 가질만한 콘텐츠 및 스토리텔링 연계 해외홍보 대표 코스 선정 - 지자체 협력을 통한 추천코스 내 종합안내판 다국어화(영/중/일) 및 안내사인(나무패널, 리본, 화살, 스티커 등) 영문 보수 - 코리아둘레길 글로벌 대표코스 홍보 간행물 제작·배포 - 글로벌 OTA 연계 상품개발 및 판촉 등
DMZ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 DMZ 생생누리 조성 및 운영, 평화관광 루트 및 여행상품 개발 - DMZ 접경지역 관광 기반 조성 - DMZ 평화의 길 운영 등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 반려동물 동반여행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현황, 인식도 파악 및 향후 추진 과제 등 도출 - 반려동물 동반여행 시범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 팻티켓 캠페인 등 반려동물 동반여행 인식 제고 - 반려동물 동반여행 주요 관광자원 조사 및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대상 지자체 공모·선정(울산·태안)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마.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1) 사업군 전체 현황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은 ‘⑬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⑭ 해양관광육성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당해 사업군의 연도별 예산은 2020년 30,892백만원에서 2024년 45,986백만원까지 지속 증가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7,841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은 지자체별 섬을 대상으로 관광진흥사업과 관광기반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목표는 섬 관광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된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300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섬 관광 활성화 전반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시행한다.

해양관광육성 사업은 증가하는 해양레저 관광수요에 부응하는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한국 해양레저 관광명소를 육성할 목적으로 2020년부터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27,541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내역 사업은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해양레저 관광정보 기반구축,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이다.

〈표 II-36〉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명	사업 목적	추진 기간	최근 5년간 사업 예산(국비 기준)					사업 대상지	내역 사업	
			'20	'21	'22	'23	'24			계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섬)	섬 관광 편의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 주민역량 강화 교육, 홍보·콘텐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섬 관광 활성화 도모	2023~2026년	-	-	-	5,150	5,150	10,300	5개 시·군 웅진 백령도, 울릉 울릉도, 신안 흑산도, 여수 거문도, 군산 말도·명도·방축도	-
해양관광 육성	해양레저관광거점조성: 증가하는 해양레저 관광수요에 부응하는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한국 해양레저 관광 명소 육성	2020년~계속사업	30,892	48,088	49,794	57,931	40,836	227,541	9개 시·군 (2020) 경기 시흥, 전북 군산, 전남 보성, 강원 고성, 제주 서귀포 (2023) 경북 경주, 울산 동구, 경남 창원, 충남 보령	1. 해양관광 인프라조성 2.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3. 해양레저 관광정보 기반 구축 4.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계			30,892	48,088	49,794	63,081	45,986	237,84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2) 세부 사업별 개요

가)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은 섬 지역 관광기반 조성, 관광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 및 인지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 당해 사업은 개발사업 및 진흥사업 등 2개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며,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일반 국민이다. 「관광진흥법」 제48조 및 제76조,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등을 근거로 하여 지자체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수행하는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은 시행 주체인 지자체에 5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의 2023년 및 2024년 총 예산은 5,150백만원으로 동일하다.

〈표 II-37〉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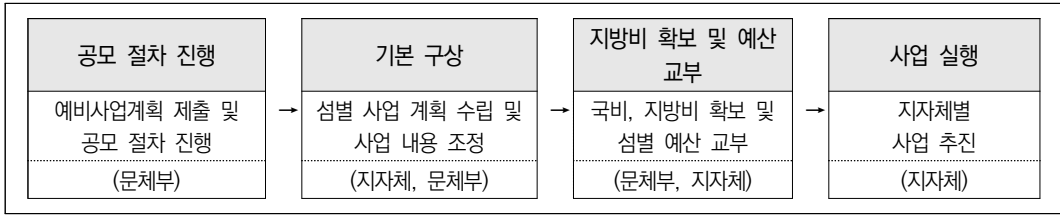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내역 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구성비
1. K-관광섬 육성사업	-	-	-	5,000	5,000	97.1
2. 사업 컨설팅 용역비	-	-	-	150	150	2.9
계	-	-	-	5,150	5,150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당해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문체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 예산을 편성 받았으며 공모 절차를 통하여 5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이후 섬(지자체)별 예산을 편성 및 확정하여 송부한 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지자체는 예산 교부를 신청한다. 문체부는 이를 검토하고 예산 교부를 결정한다.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는 문체부에 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문체부는 실적 검토 후 사업 정산을 확정한다. 당해 사업의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자체가 사업별 수요조사를 통해 섬별 종합계획을 계획한다. 그리고 문체부, 지자체 등이 국비 및 지방비를 확보하여 사업별 예산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며, 지자체별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림 II-19]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지원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나) 해양관광육성

해양관광육성 사업은 해양관광·레저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급증하는 해양관광·레저 수요 대응,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일반 국민이다.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 제28조 및 제35조 등을 근거로 하여 해수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2013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해양관광육성 사업은 시행 주체인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 정액 보조금 또는 30~50%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표 II-38〉 해양관광육성 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내역 사업명	시행 주체	지원 형태	사업 목표
1. 해양관광 인프라조성	지자체	지자체 보조 50%	조선 및 해운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마리나 산업 기반 확충 - 부산 및 통영 마리나 비즈 센터('19~'25) -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 전북 군산, 강원 고성('19~'24), 제주('19~'25), 전남 보성('20~'26), 경기 시흥('20~'24), 충남 보령('23~'26), 경북 경주('23~'27), 경남 창원('24~'28) 추진 -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전남 완도('19~'23), 충남 태안('20~'24), 경북 울진('20~'25), 경남 고성('20~'26) 추진
2.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직접 수행, 민간, 지자체	정액 지원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관련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및 운영활성화 자금 지원하고, 해양스포츠 인구 저변 확대와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해양스포츠제전과 스포츠대회 및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지원을 위하여 전국 해양스포츠제전과 스포츠대회 및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지원 -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 무인도서 국민탐사단 지원 -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레저장비 산업지원 -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 및 해양 스포츠 대회 개최 - 해양소년단연맹 지원, 마리나전문가 육성
3. 해양레저 관광 정보 기반 구축	해수부	직접 수행	해양레저관광정보 DB개선, 레저관광산업 통계기반 구축, 마리나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양레저관광 정책 기반 구축
4.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해양치유 관리단	민간위탁	해양치유자원조사 등을 통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자료: 해양수산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해양관광육성 사업의 연도별 예산은 2020년 30,892백만원에서 2024년 40,836백만원으로 연평균 7.2% 증가하였으나, 2023년 예산(57,931백만원)에 비해서는 2024년 예산이 17,095백만원 감액되었다. 2024년 예산 중에서는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 예산(34,106백만원)이 8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5,730백만원)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700백만원)이 14.0% 및 1.7%를 차지한다.

〈표 II-39〉 해양관광육성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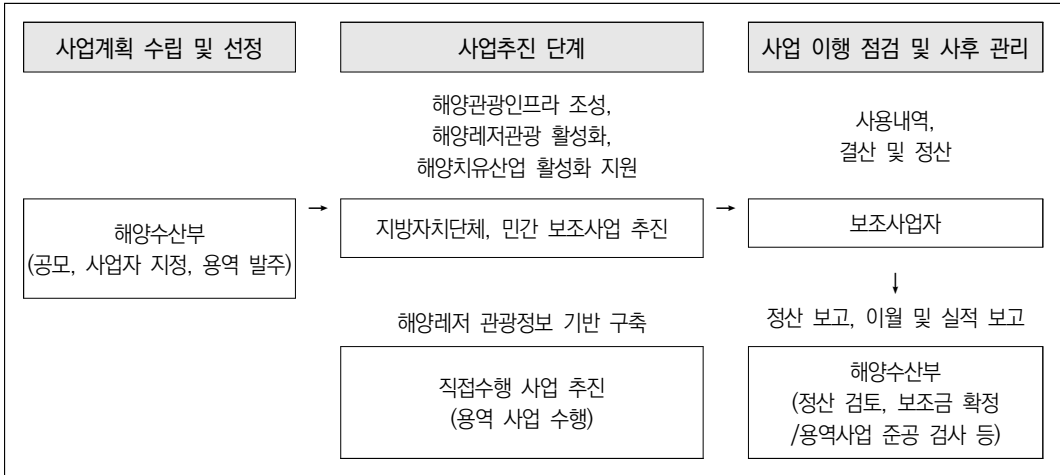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구성비
1.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23,115	41,226	42,932	50,269	34,106	83.5
2.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7,477	6,562	6,062	6,662	5,730	14.0
3. 해양레저 관광정보 기반 구축	300	300	300	300	300	0.7
4.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	-	500	700	700	1.7
합계	30,892	48,088	49,794	57,931	40,836	100.0

자료: 해양수산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해당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 단계에서 해수부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지정하고 용역을 발주한다.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민간 보조사업이 추진되며, 해양레저 관광정보 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에는 용역사업이 추진된다. 사업 이행 점검 및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용 내역을 결산 및 정산하여 해수부에 보고한다. 해수부는 이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확정하고 용역사업 준공 검사 등을 실시한다.

[그림 11-20] 해양관광육성 사업 추진체계



자료: 해양수산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바.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1) 사업군 전체 현황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은 ‘⑮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와 ‘⑯ 스마트 관광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도시 및 산업 중심의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당해 사업군의 연도별 예산은 2020년 32,912백만원에서 2024년 92,480백만원까지 증가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357,798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방한관광객 지역 확산 및 유치에 위해 국제경쟁력 있는 지역 관광도시 육성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97,515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관광거점도시 육성, 산업관광 및 생활관광 활성화 등을 시행한다.

스마트 관광 활성화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 관광 서비스 환경 조성 및 ICT와 관광융·복합을 통한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0,283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관광 빅데이터,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 관광마케팅 통합시스템, 애드테크 활용 국제관광 디지털마케팅 등이다.

〈표 II-40〉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명	사업 목적	추진 기간	사업 예산					사업 대상지	내역 사업
			'20	'21	'22	'23	'24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방문관광객 지역 확산 및 유치를 위해 국제경쟁력 있는 지역 관광도시 육성	1999년~단년도 계속사업/ 2020~2025년 (관광거점도시 육성)	17,200	39,900	35,431	44,301	60,683	197,515	1. 관광거점도시 육성 2. 산업관광 활성화(총료) 3. 생활관광 활성화(총료) 4. 문화콘텐츠형 시디투어(총료)
스마트 관광 활성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 관광 서비스 환경조성 및 ICT와 관광융·복합을 통한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2015년~단년도 계속사업	15,712	30,172	48,971	33,631	31,797	160,283	1.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2. 관광빅데이터 3.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 4. 관광마케팅 통합 시스템 운영 5. 애드테크 활용 국제관광 디지털 마케팅
계			32,912	70,072	84,402	77,932	92,480	357,79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2) 세부 사업별 개요

가)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방한 관광객의 지역 확산 및 유치 확대를 위해 국제경쟁력 있는 지역 관광도시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해 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 산업관광 활성화, 생활관광 활성화, 문화 콘텐츠형 시터투어 등 4개 내역사업으로 시행되었다가 현재는 1개 내역사업(관광거점도시 육성)만 추진되고 있다. 「관광기본법」 제9조, 「관광진흥법」 제48조 및 제76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9조(지역지원제정의 세입과 세출) 등을 근거로 하여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등이 1999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주체인 한국관광공사 및 지자체에 정률 5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수행되며,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일반 국민이다.

〈표 II-41〉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내역 사업명	시행 주체	지원 형태	사업 목적
1. 관광거점도시 육성	지자체	지자체 보조 50%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방한 관광객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관광거점도시 중심으로 권역별 파급효과 창출
2. 산업관광 활성화(종료)	-	-	관광자원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지역산업체나 향토 산업 등의 산업 현장, 홍보시설 및 산업유산을 관광자원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지역 경제 수익원 창출 및 지역관광 활성화
3. 생활관광 활성화(종료)	-	-	새롭게 변화하는 여행 및 관광 트렌드와 소비자 유형을 고려하여, 현지인들만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고,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새로운 유형의 관광콘텐츠 개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의 총예산은 2020년 17,200백만원에서 2024년 60,683백만원으로 연평균 37.1% 증가하였으며, 2023년 예산(44,301백만원)에 비해서도 2024년 예산이 16,382백만원 증액되었다.

〈표 11-42〉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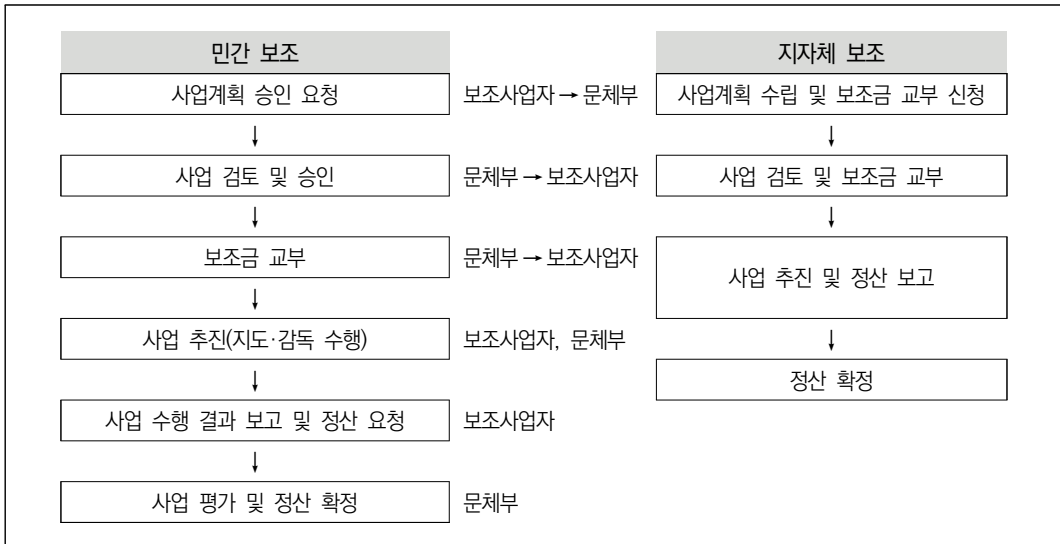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내역 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구성비
1. 관광거점도시 육성	15,900	38,300	33,081	42,301	60,683	100.0
2. 산업관광 활성화(종료)	500	500	500	500	-	-
3. 생활관광 활성화(종료)	500	500	1,550	1,500	-	-
4. 문화콘텐츠형 시티투어(종료)	300	600	300	-	-	-
계	17,200	39,900	35,431	44,301	60,683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당해 사업의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다.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체부는 보조사업자가 승인 요청한 사업계획을 검토 및 승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한다.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문체부는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하여 정산을 요청하면 문체부는 사업 평가 후 정산을 확정한다.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문체부는 사업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사업 추진 이후에는 지자체가 문체부에 정산을 보고하며,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정산을 확정한다.

〔그림 11-21〕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나) 스마트관광 활성화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ICT와 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일반 국민이다. 「관광기본법」 제1조 및 제13조, 「관광진흥법」 제47조(관광정보 활용 등),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 자원 개발), 제76조(재정지원) 등을 근거로 하여 한국관광공사가 2015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은 시행 주체인 한국관광공사에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표 II-43〉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내역 사업명	시행 주체	지원 형태	사업 목적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 (정액)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력을 적용해 관광객에 신속, 편리하고 최적화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 도시' 조성 ■ 관광편의·체험·서비스·모빌리티 등 스마트관광 요소와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 매력이 조화된 관광구역 조성: 2023년 기준 총 9개 지자체 (인천, 수원, 대구, 여수, 울산, 경주, 남원, 청주, 양양) 조성 완료, 3개 지자체 조성 중(용인, 인제, 통영)/3년간 총 45억원 지원
관광빅데이터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 (정액)	관광 활동 및 서비스 제공 등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관광 빅데이터를 수집, 축적, 분석해 데이터 수요자(관광객, 민간업체, 공공분야)별 맞춤형 데이터 기반 관광특화 분석 서비스 제공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 (정액)	TourAPI, 디지털 스토리텔링 서비스(Odii), 국내관광정보 제공 등 ICT와 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맞춤형 관광 서비스 제공
관광마케팅 통합 시스템 운영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 (정액)	신속하고 안정적인 스마트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인프라 및 보안 시스템 운영
에드테크 활용 국제관광 디지털 마케팅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 (정액)	AI 등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방한 관광마케팅으로 방한관광 시장 조기회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의 총예산은 2020년 15,712백만원에서 2024년 31,797백만원으로 연평균 19.3% 증가하였으나, 2023년 예산(33,631백만원)에 비해서는 2024년 예산이 1,834백만원 감액되었다. 2024년 예산 중에서는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사업 예산(11,551백만원)이 3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관광 빅데이터' 사업 예산(10,925백만원) 및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 사업 예산(4,331백만원)이 각각 34.4% 및 13.6%를 차지한다.

〈표 II-44〉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구성비
1.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4,500	13,200	25,600	8,700	11,551	36.3
2. 관광 빅데이터	5,037	10,234	12,811	12,600	10,925	34.4
3.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	3,035	3,598	3,520	3,591	4,331	13.6
4. 관광마케팅 통합 시스템 운영	3,140	3,140	3,140	3,140	3,140	9.9
5. 애드테크 활용 국제관광 디지털 마케팅	-	-	3,900	5,600	1,850	5.8
계	15,712	30,172	48,971	33,631	31,797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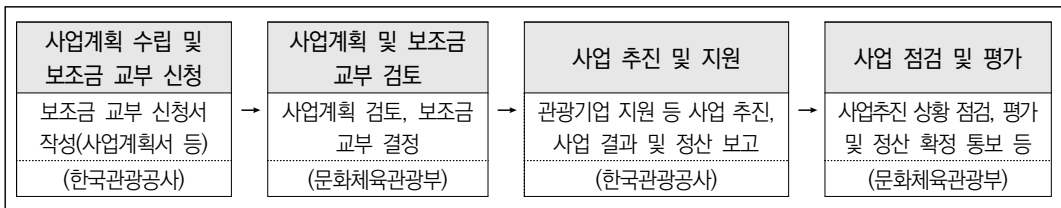
당해 사업의 추진 및 지원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체부가 보조금 예산을 통지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교부를 신청한다. 문체부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에 교부예산 승인을 통지하면 한국관광공사가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결과를 정산 보고한다. 그리고 문체부는 사업추진 현황 및 집행내역을 평가하여 정산 확정을 통보한다.

〔그림 II-22〕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그림 II-23〕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 지원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사. 관광 편의지원 사업군

1) 사업군 전체 현황

관광 편의지원 사업군은 '⑰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⑱ 국내관광 역량 강화', '㉑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관광객이 편리하게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당해 사업군의 연도별 예산은 2020년 68,876백만원에서 2024년 64,507백만원까지 매년 소폭의 증액 및 감액이 있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316,131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신속하고 정확한 관광정보의 제공을 통한 관광편의 제공 및 국내관광활성화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1998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8,949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내역 사업은 관광안내소 운영(관광통역안내소 및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안내서비스 개선(1330 전화 운영), 관광안내체계지원(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및 안내 인력 역량지원, 관광안내표지 개선 등이다.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은 국내관광 매력 홍보 및 관광소재 개발, 생애주기별·계층별 관광지원, 여행정보·통계 제공 등을 통한 국내관광 수요 확대 및 국내관광 산업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2004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25,911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내역 사업은 국내관광 캠페인, 관광소재 및 상품개발, 국민관광 지원, 관광통계 개선,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숨-햇 제작 홍보 지원 등이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은 성장가능성 높은 지역축제를 관광상품으로 특화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세계적 축제로 육성할 목적으로 1998년부터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31,271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내역 사업은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 축제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축제 평가 및 육성,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 등이다.

〈표 11-45〉 관광 편의 지원사업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명	사업 목적	추진 기간	사업 예산					사업 대상지	내역 사업	
			'20	'21	'22	'23	'24			계
관광 안내체계 구축 지원	신속하고 정확한 관광정보의 제공 을 통한 관광편의 제공 및 국내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1998년 ~단년도 계속사업	18,817	18,337	8,424	7,582	5,789	58,949	전국	1. 관광안내소 운영(관광통역안내소 및 관광안내소 운영) 2. 관광안내서비스 개선(1330운영) 3. 관광안내체계지원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4. 문화관광해설사 및 안내인력 역량 지원 5. 관광안내표지 개선
국내관광 역량 강화	국내관광 매력 홍보 및 관광소재 개발, 생애주기별·계층별 관광지 원, 여행정보·통계 제공 등을 통한 국내관광 수요 확대 및 국내 관광 산업 발전 도모	2004년 ~단년도 계속사업	36,569	41,784	46,736	47,693	53,129	225,911	전국	1. 국내관광 캠페인 2. 관광소재 및 상품 개발 3. 국민관광 지원 4. 관광통계 개선 5. 디지털관광주인증 운영 6. 숨-잇 제작 홍보 지원 7. 비활성화 관광지원 스토리텔링 관광지화
문화관광 추진 지원	성장가능성 높은 지역축제를 관광 상품 으로 특화하여 지역 관광 활 성화 및 세계적 축제로 육성	1998년 ~단년도 계속사업	13,490	4,281	4,164	3,747	5,589	31,271	전국	1.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 2. 축제 경쟁력 강화 지원 3. 지역축제 평가 및 육성 4.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5.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
계			68,876	64,402	59,324	59,022	64,507	316,13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2) 세부 사업별 개요

가)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은 신속하고 정확한 관광안내 정보 제공으로 국내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및 외래 관광객의 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일반 국민과 외래관광객이다. 「관광기본법」 제7조 및 제13조, 「관광진흥법」 제48조 및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등을 근거로 하여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 등이 1998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 주체인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사단법인 비비비코리아 등에 정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표 II-46〉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내역 사업명	시행 주체	지원 형태	사업 목적
1. 관광안내소 운영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민간경상보조 (정액)	관광객 관광편의를 위해 주요 관광지 및 교통거점에 관광안내소 운영 지원
2.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한국관광공사, (사)비비비코리아	민간경상보조 (정액)	국내·외 관광객 언어 및 관광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 등 관광안내서비스 운영 지원
3. 관광안내표지 개선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 (정액)	관광안내표지판의 현황 파악 및 효율적 관리와 개선을 위해 관광안내표지판 DB를 운영하고 가이드라인 등 지속 개선 지원
4. 관광경찰 협업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 (정액)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광경찰에 단속비 등 지원
5.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해당 지자체	지역으로 이관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이고 흥미로운 해설을 제공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의 총예산은 2020년 18,817백만원에서 2024년 5,789백만원으로 연평균 25.5% 감소하였으며, 2023년 예산(7,582백만원)에 비해서도 2024년 예산이 1,793백만원 감액되었다. 2024년 예산 중에서는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사업 예산(4,520백만원)이 7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 예산(1,119백만원)이 19.3%를 차지한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의 예산은 2022년 이후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당해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조사업자가 문체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면 문체부는 사업 검토 및 승인 후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문체부는 지도 및 감독을 수행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 결과를 보고하면서 정산을 요청하면 문체부에서 사업을 최종 평가하고 정산을 확정한다.

〈표 II-47〉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 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구성비
1. 관광안내소 운영	1,906	2,006	1,483	1,407	1,119	19.3
2.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6,325	5,745	5,745	5,465	4,520	78.1
3. 관광안내표지 개선	80	80	80	160	100	1.7
4. 관광경찰 협업	100	100	100	50	50	0.9
5.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9,956	9,956	566	500	-	-
6. 기타 종료사업	450	450	450	-	-	-
계	18,817	18,337	8,424	7,582	5,78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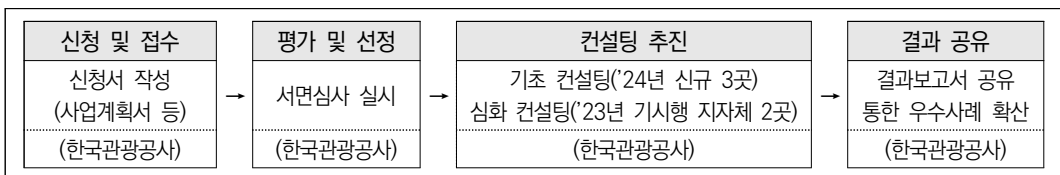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그림 II-24]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 추진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그림 II-25]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사업 지원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나) 국내관광 역량 강화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은 범국민적 여행캠페인 및 국내관광 콘텐츠 발굴, 관광복지 확대를 통한 여행문화 확산 및 국내여행 총량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당해 사업은 국내관광

캠페인, 관광소재 및 상품개발, 국민관광 지원, 관광통계 개선,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숨-햇 제작 홍보지원, 비활성화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관광지화 등 7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일반 국민이다. 「관광기본법」 제8조 및 제13조, 「관광진흥법」 제76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사업) 및 제14조(보조금) 등을 근거로 하여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자체 등이 2004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은 문체부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행 주체인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자체 등에 정액 출연금 및 보조금, 50%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표 II-48〉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내역 사업명	시행 주체	지원 형태	사업 목적
1. 국내관광 캠페인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정액)	국내관광 수요의 균형적 분산과 국내여행 총량 확대를 위해 전 국민 대상 여행가는 달 캠페인 추진
2. 관광소재 및 상품개발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민간경상보조(정액)	지역별 특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및 국내대표 관광지 육성·홍보
3. 국민관광 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자체	민간경상보조(정액), 지자체 보조 50%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행 지원 및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 제고를 위해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휴가비 등을 지원, 관광분야 민·관·산·학 의견수렴을 통한 협업과제 및 제도개선 과제 등 발굴
4. 관광통계 개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출연금 (정액)	정부·지자체의 관광정책 수립 및 관광사업체 경영 등에 필요한 국민의 관광행태와 관광사업체 특성 등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 및 대국민 활용도 제고
5.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정액)	인구감소지역으로 생활인구 지속 유입 및 체류기간 증대
6. 숨-햇 제작 홍보 지원	한국방송연기자협회	민간경상보조(정액)	지역의 숨은 명소를 관광콘텐츠로 제작 및 홍보
7. 비활성화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관광지화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정액)	스토리텔링 마케팅 활용 한국 관광콘텐츠 고도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의 총예산은 2020년 36,569백만원에서 2024년 53,129백만원으로 연평균 9.8% 증가하였으며, 2023년 예산(47,693백만원)에 비해서도 2024년 예산이 5,436백만원 증액되었다. 2024년 예산 중에서는 ‘국민관광 지원’ 사업 예산(34,770백만원)이 6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국내관광 캠페인’ 사업 예산(10,424백만원) 및 ‘관광통계 개선’ 사업 예산(3,215백만원)이 각각 19.6% 및 6.1%를 차지한다.

〈표 II-49〉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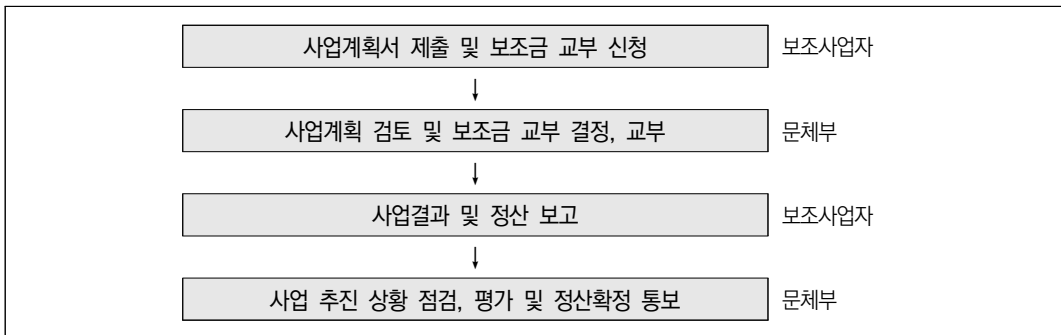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내역 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구성비
1. 국내관광 캠페인	11,317	11,317	12,067	11,905	10,424	19.6
2. 관광소재 및 상품개발	2,754	4,011	3,658	2,395	1,270	2.4
3. 국민관광 지원	19,946	23,646	26,596	29,178	34,770	65.4
4. 관광통계 개선	2,442	2,810	3,215	3,215	3,215	6.1
5.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	-	-	-	3,000	5.6
6. 숨-햇 제작 홍보 지원	-	-	-	-	250	0.5
7. 비활성화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관광지화	-	-	-	-	200	0.4
기타 종료 사업	110	-	1200	1000	-	-
계	36,569	41,784	46,736	47,693	53,129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당해 사업의 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보조사업자가 문체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다. 문체부는 이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결정 및 교부하며, 사업 추진 이후 보조사업자는 사업결과 및 정산 내역을 문체부에 보고한다. 문체부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정산 확정을 통보한다.

[그림 II-26]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 추진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다) 문화관광축제 지원(보조)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사업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축제를 문화관광 자원화 및 관광상품으로 특화하여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의 최종 수혜자는 일반 국민이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

조(기금의 용도)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지자체가 1998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사업은 시행 주체인 한국관광공사 및 지자체에 정액 및 50% 정률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표 II-50〉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사업의 내역사업별 목적

내역 사업명	시행 주체	지원 형태	사업 목적
1.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	지자체	지자체 경상보조 50%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관광축제 대상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
2. 축제 경쟁력 강화 지원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정액)	문화관광축제 대상 컨설팅, 축제 실무자 교육 등 축제 질적 수준 개선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3. 지역축제 평가 및 육성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정액)	문화관광축제 지정제도 운영 및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될 수 있는 후보 축제 대상 모니터링, 통합 홍보 브랜딩 지원
4.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문체부	직접 수행	문화관광축제 담당자 워크숍, 평가보고서 발간, 현장평가 등 사업 직접 수행
5.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민간경상보조(정액), 지자체 경상보조 50%	지역경제 및 내수 활성화를 넘어, 외래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한국 대표 글로벌 축제(K-Festival) 전략적 육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사업의 총예산은 2020년 13,490백만원에서 2024년 5,589백만원으로 연평균 19.8% 감소하였으나, 2023년 예산(3,747백만원)에 비해서는 2024년 예산이 1,842백만원 증액되었다. 2024년 예산 중에서는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 사업 예산(2,500백만원)이 4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축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예산(1,068백만원) 및 ‘지역축제 평가 및 육성’ 사업 예산(1,040백만원)이 각각 19.1% 및 16.1%를 차지한다.

〈표 II-51〉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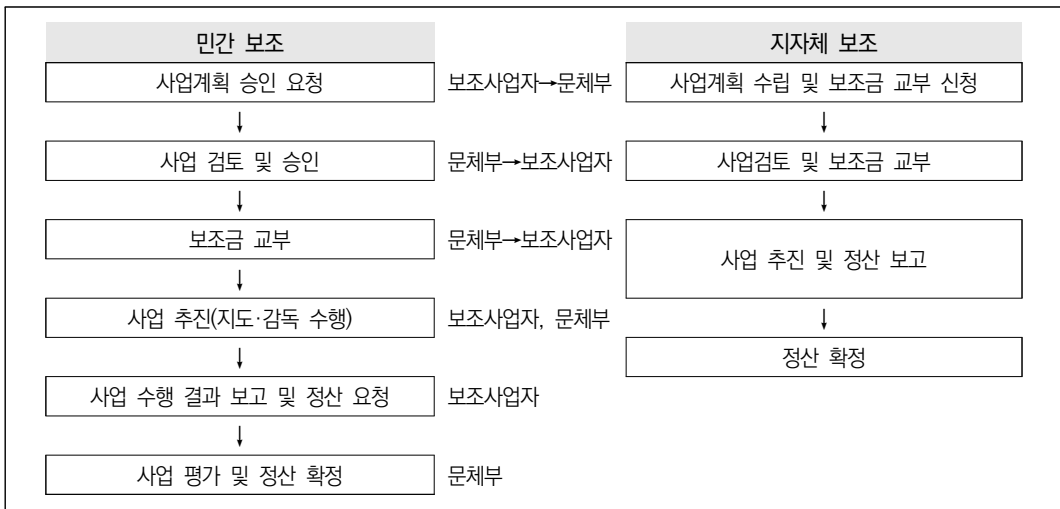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내역 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구성비
1.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	5,200	1,000	960	930	900	16.1
2. 축제 경쟁력 강화 지원	3,000	400	2,564	1,450	1,068	19.1
3. 지역축제 평가 및 육성	1,200	2,791	550	1,286	1,040	2.0
4.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90	90	90	81	81	1.4
5.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	-	-	-	-	2,500	44.7
기타 종료 사업	4,000	-	-	-	-	-
합계	13,490	4,281	4,164	3,747	5,589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당해 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체부는 보조사업자가 승인 요청한 사업계획을 검토 및 승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한다.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문체부는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하여 정산을 요청하면 문체부는 사업 평가 후 정산을 확정한다.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문체부는 사업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사업 추진 이후에는 지자체가 문체부에 정산을 보고하며,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정산을 확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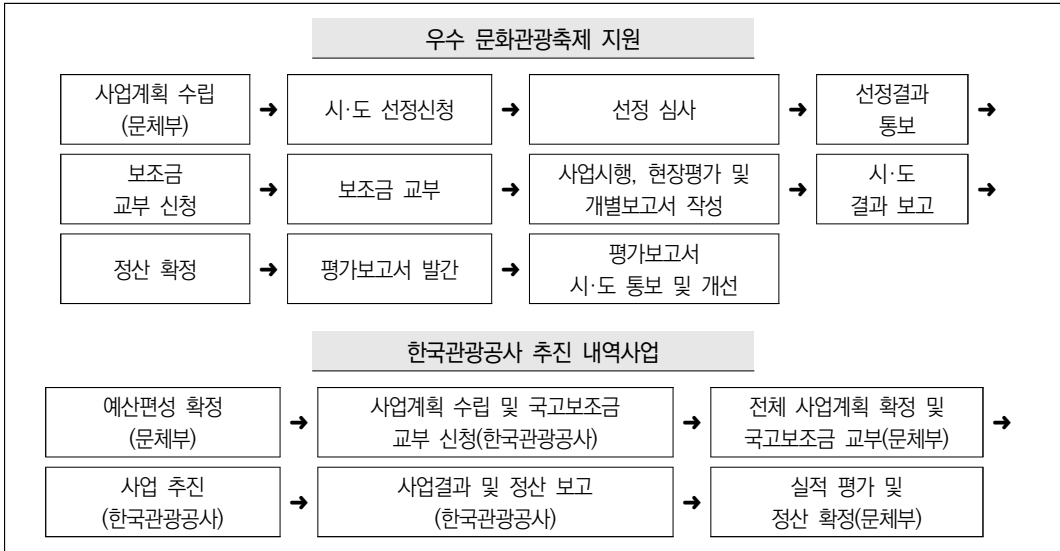
[그림 11-27]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사업 추진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사업의 지원체계는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과 한국관광공사 추진 내역사업이 다르다.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의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신청을 받아 심사 및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보조금 교부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 현장평가 및 개별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진다. 사업종료 후 시·도에서 결과를 보고하고 정산이 확정되며,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여 시·도 통보 및 개선이 이루어진다. 한국관광공사 추진 내역사업은 문체부에서 예산편성을 확정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한다. 문체부가 전체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를 통해 실적 평가 및 정산이 확정된다.

[그림 II-28] 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사업 지원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4. 사업군별 심층평가 필요성

가.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1) 외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에 속한 세부사업은 ‘외래관광객 유치’라는 단일 목적을 가지고 있어 사업군 내에서 다수의 내역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 중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관광 여건 및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 예를 들어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사업의 내역사업 중 ‘코리아그랜드세일’과 ‘한국 방문의 해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관광 비수기(1~2월) 민관 협력형 쇼핑문화 관광축제를 통한 방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11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지속 추진되고 있다. 한국 방문의 해 캠페인은 주요 시기별 방한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1년, 2010~2012년, 2016~2018년, 2023~2024년 등 네 차례 진행되었다.

행정학에서는 이처럼 특정 대상이 초기에 반복적으로 경로를 형성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학술 용어로 ‘경로의존성’이라고 한다(Levi, 1997). 진보라(2016)는 경로의존성과 관련하여 과거의 선택이 미래의 선택 범위를 제약하며, 결정적 계기로 선택된 제도가 향후의

제도 변화를 제약하고, 초기에 설정된 경로를 따르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외래관광객 유치에 대한 관광 상황과 여건은 시시각각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계기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이 경로의존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2) 국가별 외래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 필요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사업은 대륙별로 추진되고 있어 주요 국가별 대응이 부족할 수 있다. 같은 동아시아 국가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여건과 관광시장의 특성이 다른 만큼, 외래관광객 유치 역시 해당 국가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외래관광객 시장은 관광 분야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접 국가라고 하더라도 문화나 인종, 기후에 따라서 다른 마케팅 접근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동 및 인도 시장과 같이 아직 외래관광객 비중이 높지 않고 등 신주로 개척을 시도하는 관광시장(국가)의 경우에도 국민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해외 관광을 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이고, 이들에 대한 언어 대응 등의 준비가 필요하여 전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별 대응은 타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외래관광객 유치는 비자 발급, 입국 수속 절차 및 불법 체류자 관리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부처(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와 연계·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타 부처에서는 외래관광객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정책에 대해서도 국가별로 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에서 국가별 외래관광객 유치 전략이 존재하는지, 그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타 부처와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3)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성 검증 필요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사업과 한국관광 해외광고 사업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총 517,17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364,331백만원 및 한국관광 해외광고 152,846백만원). 구체적으로 구미주 시장에 97,517백만원(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60,554백만원 및 한국관광 해외광고 36,963백만원), 아시아 및 중동 시장에는 117,902백만원(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

성화 70,844백만원 및 한국관광 해외 광고 47,058백만원), 일본 시장에는 73,792백만원(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47,764백만원 및 한국관광 해외 광고 26,028백만원) 및 중화권 시장 110,615백만원(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65,041백만원 및 한국관광 해외 광고 45,57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즉 각 지역별로 2개 세부 사업의 예산이 동시에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 투입이 외래관광객 수 증가, 외래자본 투자액 증가 등에 어떠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표 II-52〉 국제관광 사업군의 대상 국가별 예산편성액(2001~2023년)

(단위: 백만원)

대상 국가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한국관광 해외 광고	합계
공통(전 세계)	364,331	152,846	517,177
구미주	60,554	36,963	97,517
아시아 및 중동	70,844	47,058	117,902
일본	47,764	26,028	73,792
중화권	65,041	45,574	110,615
합계	608,534	308,468	917,00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4) 추진체계 점검 및 객관적인 성과지표 검토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에 속한 3개 사업의 소관 부서는 문체부 국제관광과, 관광기반과, 관광수출전략추진단 등이지만, 다수의 내역사업은 ‘한국관광공사’ 1개 기관을 통하여 동시에 추진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 내에서 내부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예산의 중복 집행, 마케팅 및 홍보의 실질적인 효과성 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외에도 해외 또는 국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적이다 보니,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조직이 성과집계 및 평가를 진행할 때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성과를 집계하는 등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 사업 추진 기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의 성과지표 관련 평가도 필요하다. 현재 국제관광 사업군의 성과지표는 주로 사이트 방문자 수, SNS 팔로워 수, 앱 다운로드 수, 프로모션 횟수, 브랜드 인지도 등 초기 관심도와 노출도를 평가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광고가 실제로 관광객 유입과 경제적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방문자 수나 SNS 팔로워 수는 단순히 관심을 나타낼 뿐 실제 방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프로모

션 횡수나 브랜드 지표는 투입된 자원의 양을 보여줄 뿐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에 대한 최근 3년간 국회 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등의 주요 지적 사항을 정리하면 <표 II-53>과 같다.

<표 II-53>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관련 주요 지적 사항

사업명	주요 지적 사항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결산 지적사항(국회예산정책처, 국회 상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예산정책처)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중소기업사 유통 채널 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수립 및 예산집행 관리 필요 - (국회 상임위) 여행업계 공유공간 지원사업 재점검 및 집행률 제고 필요,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조성 사업 재점검 및 집행률 제고 필요 ○ 2022년 결산 시정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리아그랜드세일 대기업 참여 유도방안 마련 필요 ○ 2023년 결산 분석보고서(국회예산정책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특구 지원사업의 지자체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 교부 및 코리아 투어카드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성 검토 필요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국회예산정책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한 사업 내용의 경우 연계·통합하거나 차별화하여 연계하는 등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 필요 ○ 2022년 및 2023년 국정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인바운드 관광객 감소, 원화 가치 하락을 고려한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및 관광수지 증대 대책 마련 필요 - 2023년: 방한 외래객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모색할 것, K-컬처에 대한 관심을 실제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1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 2023b; 국회예산정책처,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나. 광역권 개발 사업군

1)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계획 수립

2010년 이후 다양한 광역권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시설·기반 조성 형태의 사업보다는 연계·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광역권 사업의 목적이 변화되었다. 그러나 광역권 개발 사업의 내역사업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관광개발사업(하드웨어)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관광진흥 사업은 사업비 기준으로 약 10% 내외 수준이다.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의 특성상 시설조성사업 비중이 높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계·협력이라는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표 II-54〉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군의 관광개발 사업 수 및 사업비 비율

(단위: 억원, %)

구분	사업 수					사업비				
	관광개발	비율	관광진흥	비율	계	관광개발	비율	관광진흥	비율	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109	76.8	33	23.2	142	27,368	91.0	2,696	9.0	30,064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9	72.5	11	27.5	40	5,455	88.5	712	11.5	6,167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34	72.3	13	27.7	47	7,151	90.0	796	10.0	7,947
사업군 계	172	82.2	57	17.8	229	39,974	90.5	4,204	9.5	44,17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2) 지속적인 예산집행을 저조

광역권 개발 사업군은 예산집행률이 낮은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 예결위, 예산정책처, 문체위 등에서도 다수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효율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광역권 사업군과 타 사업군의 예산집행률을 분석해 보면 광역권 사업군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다만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예산집행률 부진은 계획된 예산이 실제로 활용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국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계획된 사업 목표 달성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고, 당초 기대한 사업성과를 얻기 어렵게 되며, 예산이 일시적으로 묶여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후속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평가가 필요하다.

〈표 II-55〉 국내관광개발 사업군의 예산집행률(2023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광역권 개발 사업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5,500	-	0.0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1,307	17,937	84.2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34,031	21,815	64.1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39,591	24,597	62.1
	사업군 계	100,429	64,349	64.1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2,750	1,441	52.4
	문화유산 활용 진흥	50,827	50,667	99.7
	생태관광자원 이용 기반	21,010	23,871	113.6
	사업군 계	74,587	75,979	101.9

〈표 II-55〉의 계속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관광자원 기반 조성	59,289	38,873	65.6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15,700	13,334	84.9
	사업군 계	74,989	52,207	69.6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섬)	5,150	250	4.9
	해양관광육성	53,088	37,955	71.5
	사업군 계	58,238	38,205	65.6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44,466	24,534	55.2
	스마트 관광 활성화	33,631	31,989	95.1
	사업군 계	78,097	56,523	72.4
합계		386,340	287,263	74.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3) 동일한 지역에 대한 예산 중복 투입 가능성

광역권 개발 사업군에서는 다수의 내역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혹은 부처 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동일한 지역이나 동일한 사업에 중복적으로 예산이 투입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문체부에서 추진 하고 있는 3개 광역권 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등 광역관광개발 사업지자체를 살펴보면 총 61개 내역사업 중 38개 사업(62.3%)이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문체위는 서부내륙권 및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주기 및 사업 권역(세종, 충남)이 일부 중복되므로, 지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표 II-56〉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대상지

(단위: 시·군 개수)

구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합계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서해안권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대전광역시	-	-	2	2	-	5	-
세종특별자치시	-	1	1	2	-	1	-
강원특별자치도	-	-	-	-	-	3	5
전라남도	5	-	-	5	-	-	2
전북특별자치도	-	14	-	14	4	4	4
충청남도	-	10	15	25	7	6	-
충청북도	-	-	13	13	-	6	5
합계	5	25	31	61	11	25	1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광역권 개발 사업군에 대한 최근 3년간 국회 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등의 주요 지적 사항을 정리하면 <표 II-57>과 같다.

<표 II-57> 광역권 개발 사업군 관련 주요 지적 사항

사업명	주요 지적 사항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결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밀한 집행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지방비 미확보로 전액 불용 - 사전준비 상황에 따라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 면밀한 집행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선도 사업 전액 불용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의 경우, 최소한의 사업이라도 시작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체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내륙권 및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주기와 사업권역(세종, 충남) 일부 중복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내 집행가능성 고려한 예산 편성 등 관리 철저) 실적행률 37.5%로 저조, 23개 사업 중 16개 사업의 실적행액이 전무하며, 지자체의 사업 지연으로 연례적 이월 발생 - (성과 지표 개선) 현행 성과 지표 '충청지역 관광객 수'의 사업성고가 과다 계상되어 실제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설정 필요 - 2023년 집행(실집행) 실적 부진 및 보조금 및 출연금 실적행 관리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도 집행률 85.2%, 실적행률 37.5% ○ 문체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례적 집행부진 방지를 위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지속 점검 및 다음 연도 예산반영 규모를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의 연례적 이월·불용을 최소화 - 서부내륙권 및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주기 및 사업 권역 일부 중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내륙권: 세종·충남·전북/충청유교문화권: 대전·세종·충북·충남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결산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을 최소 두 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을 교부 ○ 201년 결산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시행 이후 14년간 18개 사업을 지원하는 데 그쳐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 - 그동안 동해안권 7개, 남해안권 8개에 비해 서해안권은 2개로 관련 법과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서해안권 및 내륙권 중점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실효성 제고 ○ 2022년 결산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교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보조금 교부로 예산의 불필요한 이월이나 보조사업자에의 유보 방지 필요, 가시적이고 계량화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자료: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국토교통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다.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1) 특정 지역에 대한 예산 집중 가능성

특화관광자원개발 사업군은 지역의 특화자원을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예산이 집중 지원되면 전국의 관광자원과 인프라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예산이 집중된 지역은 관광 인프라가 과도하게 성장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은 발전 기회가 부족해 지역 격차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 부처가 별도의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 지역이나 유사한 유형의 사업에 예산을 지속 투입하는 경우에도 예산 효율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평가가 필요하다.

2) 고유 자원 활용 방안 및 가이드라인 부재

특화자원은 당초 관광목적의 자원이 아니지만 해당 자원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거나 본래 목적이 종료되면서 새로운 기능이 부여된 것이다. 예를 들어 탄광은 석탄을 캐기 위한 산업시설이었으며 국가유산 역시 관광을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다.

〈표 11-58〉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관련 주요 지적 사항

사업명	주요 지적 사항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집행(실집행) 실적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도 집행률 83.5%, 실집행률 61.3%
문화유산 활용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회계 결산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실집행률과 수혜율이 부진하게 나타나는 등 사업성과가 전반적으로 저조 ○ 2022년 국정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궁과 능에서 진행되었던 무장애 공간 조성사업이 전국 국가유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유산 향유기반 조성을 위해 시설뿐 아니라 이를 국민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할 것 ○ 2023년 국정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 활용사업이 단년도 공모사업으로 비효율적이며,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 활용사업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개발 필요 -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지원 예산 세분화, 운영일수 연장, 지역별 균형 있는 운영 장소 선정 등 운영방식 개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 검토 보고(부처별 II)」, 2021; 국가유산청,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이러한 자원은 관광자원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 사업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본래 자원의 특성을 상실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도도 저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평가도 필요하다. 특히 화관광자원 사업군에 대한 최근 3년간 국회 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등의 주요 지적 사항을 정리하면 <표 II-58>과 같다

라.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1) 유사 및 중복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필요

김향자(2016)는 지역관광개발사업이 지자체장 변경에 따라 보여 주기 식으로 추진될 경우, 지역 특성과 무관한 사업이 추진되어 온 사례가 많아 사업 추진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중복 투자가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윤주(2019)도 지역관광개발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부 소액사업과 중복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개발사업 안에서도 다양한 중복유형이 발생할 수 있어 광역과 기초, 중앙과 기초, 부처와 부처 사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지방분권으로 인해 사무와 재정이 지방이양됨에 따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제한됨에 따라 일부 소액 사업의 경우 중복 발생의 우려가 크다는 의미이다. 또한 김성윤·이충훈(2022)은 유사 및 중복사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무 처리에 대한 절차나 방식에 대해 규정된 내용이 없어 중복성 판단에 대한 기준과 처리 및 향후 조치에 대한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부처 관광자원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처 연계사업에 대한 사례 및 심층분석을 수행한 윤주·김진영(2021)의 연구 결과에서도 부처 간 예산 조달 과정에서 예산 중복 현상이 발견되었다. 지자체 중심의 단지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시 동일 부처 또는 동일 사업에 대하여 여러 부처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중복성 여부에 대한 지적 또는 문제 제기 등이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부처별로 공모사업 등 선정 과정에서 유사 및 중복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유사 및 중복사업이 다수 지정되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평가가 필요하다.

2) 사업성과 및 사후 관리 미비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에서는 완공 이후 관리·운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

다. 예를 들어 박경열(2018)은 대부분의 관광사업이 관광인프라 확충이라는 목표에 따라 시설 등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 인프라 구축 이후에 정상적으로 운영 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관광자원개발 사업 내용들이 단지 시설 조성에 주된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되면서, 인프라 구축 이후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흡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성과 및 사후관리가 실제로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군에 대한 최근 3년간 국회 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등의 주요 지적 사항을 정리하면 <표 II-59>와 같다.

<표 II-59>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관련 주요 지적 사항

사업명	주요 지적 사항
관광자원 기반 조성	○ 예결위 - 국회 증액사업이 사업계획 미흡 등으로 예산이 미배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
한국형 지역관광활성화	○ 2021년 예결위 결산시정요구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20년 걷기여행길 활성화 특별사업)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 보고(부처별 II)」, 2021;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예산요구서」, 2021.

마.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1) 기본계획 미수립 등 사업 추진 과정 검토 필요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내용 및 사업대상지(지자체 등)가 확정되어야 한다. 사업대상지는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장소 및 기능을 담당해야 하고 접근성과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는 동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관광개발사업에서 일단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고 건물이 조성되기 시작하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의 사업대상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사업 수행 지자체 및 사업 대상지를 검토하고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관광다양성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 추진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추진 부서의 T/F 운영을 통하여 공모사업 절차 및 기준 등이 마련되었다. 기본계획의 부재는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할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계획을 바탕으로 성

과를 측정하여 정책의 적절성과 부족한 점을 파악할 수 있는 벤치마크를 설정해야 하지만, 기본계획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벤치마크를 마련하기 어려워 사업성과의 객관적 평가와 개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해양관광육성사업 중 해양치유센터 사업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견된다. 2021년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하고 ‘해양치유 서비스 인프라 조성 전략’의 세부 추진과제로 ‘해양치유 시범 거점 조성 추진’을 제시하였다. 해양치유 시범거점 조성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완도군·태안군·울진군·고성군에 2024년까지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20년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2017년 해양치유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지자체 네 곳(완도군·태안군·울진군·고성군)이 먼저 선정되고, 해양치유시범단지 실시 설계 예산이 2019년 편성되어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이 시작되었다. 즉 「해양치유자원법」 제정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 시행이 이루어진 것이다. 정상적인 사업 추진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대응이 어렵다. 또한 사업의 중장기적인 목적 및 추진 방향이 불명확하므로, 사업의 방향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시 상황에 따른 결정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당초 사업 목적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평가가 요구된다.

2) 자원 고유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

해양관광자원 개발은 내륙과 달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양 및 섬 자원 등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훼손의 가능성이 높고, 한번 훼손되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관광자원개발 사업은 해수 및 바람 등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예를 들어 해양관광자원 개발은 기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기상 문제가 사업 추진 및 사업 내용 전반에 걸쳐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사계절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기후는 해양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쳐 사업 기간이 지연되며, 기상 악화 및 태풍, 해무 등으로 해양 이용시간이 짧고, 관련 시설이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주변 관광과 연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조사 및 대안 마련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평가가 필요하다.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에 대한 최근 3년간 국회 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등의 주요 지적 사항을 정리하면 <표 II-60>과 같다.

〈표 II-60〉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관련 주요 지적 사항

사업명	주요 지적 사항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처 - 2023년 집행(실집행) 실적 부진(집행률 97.1%, 실집행률 5.0%) -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계획 점검 및 섬 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방안 마련 필요
해양관광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농해수위(2022년 8월) - 실집행 부진 해소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등 사업 집행을 제고를 위해 면밀히 관리·감독을 할 것 ○ 국회 예결위(2019년 10월) -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사업의 2017년과 2018년 실행률이 각각 15.3%, 1.2%로 부진하며, 여수박람회법이 마련되기 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 보고(부처별 IV)」, 2019; 국가유산청, 「2023년 예산요구서」, 2022.

바.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1) 낮은 예산 집행률 검토

2020년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누적 국비 실행률은 전체 지역에서 평균 73.2%로 나타나며, 특히 전주시와 목포시의 경우에는 각각 65.3%와 60.4%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면 불용액 및 이월액은 차기 예산집행 계획에도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 특히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다음 해에 집행되지 않고 다시 이월되는 경우가 많아 계획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악순환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가진다.

집행률 부진 원인으로는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부처의 소통 부족 및 절차적 비효율성이 존재할 수 있다. 각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예산 교부 후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이 배정되거나, 지역적 상황 변화에 따른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관광거점도시의 경우 토지 사용 문제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지자체별로 필요한 준비 기간과 인허가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군 전반에 걸쳐 예산 집행률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은 타 관광자원개발사업과 달리, 관련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대부분 스마트 기기 및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이 주요 내용이다. 이 중에서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였던 인천광역시 중구를 포함해 총 11개 지역이 선정되었고, 인천 중구의 경우 사업 추진 당시 개발한 여행 애플리케이션 ‘여행e지’, 스마트 결제시스템, 데이터 플랫폼 등 스마트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비를 보조받아 지자체에서 개발한 관광 앱의 활용도가 높지 않고, 일부 사업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내용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국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에 대한 최근 3년간 국회 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등의 주요 지적 사항을 정리하면 <표 II-61>과 같다.

<표 II-61>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관련 주요 지적 사항

사업명	주요 지적 사항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례적(2020~2023) 집행(실집행) 부진: 2020~2023년 평균 실 집행률 52.5% - 2023년 집행(실집행) 실적 부진: 2023년도 집행률 99.1%, 실 집행률 59.5%
스마트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도 결산 지적(예결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사업은 집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사업기간을 단년도로 설정하여 실적행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의 연내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22년도 결산 지적(예정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사업의 보조사업 관리 철저 및 관광안내 앱 활용도 제고 필요 -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사업은 2022년 사업 계획액 전액을 교부하였으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하였고, 사업을 통해 개발된 관광안내 앱의 활용도 저조 ○ 2023년도 결산 지적(예정처, 예결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스마트 관광도시 플랫폼 사업의 지속 여부 검토 및 신규 사업 추진 시 민간과의 경합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는 민간 플랫폼과 중복성이 높은 스마트관광도시 플랫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향후 신규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민간과의 경합 여부 및 사업 수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실적행 부진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신규 선정 지방자치단체의 1차년도 사업 실적행률이 매우 저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a; 국회예산정책처, 「2021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 2023b; 국회예산정책처,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사. 관광 편의지원 사업군

다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관광 편의지원 사업군은 대부분 사업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단기간 내에 검토되고 소수의 사업비로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사업은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이다. 국민관광지원 사업에서는 더욱 세분화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열린관광지 및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근로자 휴가지원, 야간관광 특화도시, 워케이션 시범사업,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사업 등이다. 해당 사업들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타 부처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초창기 기간만 국비 중심의 사업을 계획하였다. 이렇게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관광 편의지원 사업군에 대한 최근 3년간 국회 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등의 주요 지적 사항을 정리하면 <표 II-62>와 같다.

<표 II-62> 관광 편의지원 사업군 관련 주요 지적 사항

사업명	주요 지적 사항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국정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장애인이 알아보기 어려운 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한 정비 필요 ○ 보조사업 연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안내서비스 개선(5,745백만원) 내역사업의 2023년 예산 일정 수준 감축 필요
국내관광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결산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 품목 재구성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 필요 - 입점 업체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2022년 결산 지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관련, 참여 기업 확대 및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차등 지원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021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취약계층의 관광정보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 ○ 2023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의 관광접근성을 위해 인적서비스 등 무형 요소를 고려한 인증제 도입 검토 필요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쇼핑몰(휴가샵) 내 취급 품목 규정 검토, 고소득 직종 지원 제한 등 사업 취지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것
문화관광축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역사업 간 통합 및 운영 효율화 필요, 일부 사업 성과평가 보안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 ○ 2022년 결산(국회 상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축제 관람객 수 산정 시 관광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신뢰도 제고 필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a; 국회예산정책처, 「2021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 2023b; 국회예산정책처,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Ⅲ. 사업군에 대한 평가 개요

1. 총론 및 평가 범위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3)에 따르면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계획평가, 과정평가, 영향평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수행된다. 계획평가는 주로 정성평가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재정지원·재원조달·재원분담·추진체계 등이 적절한지, 사업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수혜대상이 적정한지 그리고 유사제도와의 중복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원칙적으로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사업 추진에 따라 성과평가가 가능하도록 사업 시행 이후 2~3년 이상 경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업 추진체계의 적절성, 재원 분담의 적정성 등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사업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도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사업운영이 초기단계인 사업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획평가를 통해 사업설계 측면에서의 적절성 평가를 수행하거나, 사업운영이 원래 집행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설계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에 벗어난 부분을 파악하는 과정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과정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사업의 운영이 원래의 집행계획이나 설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설계에 따라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벗어난 부분을 파악하고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효과를 발생시켰는지를 파악한다. 특히 당초 계획대로 사업활동이 집행되었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지, 사업별로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사업활동 측면과 사업 참여자(수혜자)가 사업에 만족하는지, 사업 전달체계상 관계자들은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 대상 집단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영향평가는 주로 정량평가 방법으로 수행되며, 결과평가와 순영향 평가로 구분한다. 결과평가(Outcome Evaluation)는 재정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하며, 순영향 평가(Net Impact Evaluation)는 수혜자와 비수혜자와의 비교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심층평가에서도 7개 세부 사업군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방법을 통해 계획평가, 과정평가, 영향평가(순영향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표 III-1〉 관광인프라 지원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질문 및 평가 방법

세부 사업군	세부 사업	구분	평가 준거 및 질문	평가 방법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① 외래관광객 유치 기관 조성 ②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③ 한국관광 해외 광고	계획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설계의 적절성)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기본 및 중합)이 수립되어 있는가? • (성과 지표의 적절성) 국가(또는 대륙)별로 성과목표가 세부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사업 활동)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가 집계되고 있는가? • (사업 활동) 사업 추진 시 적절한 업체가 선정되었는가? • (사업 활동)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중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적절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가? • (대상 집단) 사업수혜자들의 성과는 관리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 여부 확인 • 계획이 없을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확인 • 성과 점검 여부 및 취합 결과 확인 • 선정 업체들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방안(사업담당자 인터뷰) • 중간평가 진행 여부 확인 • 사업수혜자 및 (제한한) 관광객에 대한 조사 여부 확인
		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달성하였는가? 	
		계획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각 사업별로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 (수혜 대상의 적정성) 사업계획 시 수요 예측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재원 분담의 적절성) 예산(국비 및 지방비)은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가? 사업비 구성 비율은 적정한가? • (추진 체계의 적절성) 광역권 계획 수립 시 관련 부처와 협의가 진행되었는가? 사업 추진 후 사전에 협의한 계획의 수정을 위해 수시로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 (사업 설계의 적절성) 시·군 사업별로 사전절차가 계획되어 있는가? (Ex. 기본계획 수립 여부, 대상지 매입 진행, 재정심사, 타당성 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최초 계획서 확인 • 문체부 및 해당 지역의 최근 5년 관광예산 평균과 사업 예산 비교(기존 사업의 국비, 지방비, 민자 집행을 확인) • 관광개발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관 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가유산청 등) 의견수렴 절차 및 과정 확인 • 실제 사업추진 연도를 기준으로 사업 준비 항목 검토
		과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활동) 당초 계획대로 연도별 사업비가 집행되었는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가? • (사업 활동)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는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가? • (사업 활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간평가가 진행되었는가? 중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성 있게 피드백이 되고 있는가? • (사업 활동) 광역권 사업의 추진을 위한 별도 조직이 구축 및 운영되었는가? 만약 전문조직이 운영되지 않는다면 사업 대상 시·군별로 의견공유 및 논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사업 활동)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 추진 시 모니터링 및 컨설팅 과정이 진행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및 사업별 계획 예산 확인 • 중간평가(운영 등) 추진 여부 확인 •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위한 용역이나 직접 진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 사업별 집행을 확인, 중단 사업 수, 사업 지연 요인 등 확인 • 기존 공무원 조직 외에 별도의 추진 조직 구성 여부 확인 • 현장실사 및 담당자 인터뷰
광역권개발 사업군	④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⑥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⑦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달성하였는가? 	

〈표 III-1〉의 계속

세부 사업군	세부 사업	구분	평가 준거 및 질문	평가 방법
특화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⑧ 폐관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⑨ 문화유산 활용 진흥 사업 ⑩ 생태관광자원 이용 기반	계획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 타 부처 또는 타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가? • (사업 활동) 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는가? • (사업 활동) 지역주민 반대 등 사업 추진 시 장애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 (사업 활동) 사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별 계획 및 유관 부처 사업 내용 확인 •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존재 여부 확인 • 해당 사업 지자체 담당자 및 언론보도 확인 • 현장실사 및 담당자 인터뷰
		과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설계의 적절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기본 또는 종합)이 수립되어 있는가? •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 타 부처 또는 타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가? • (추진 체계의 적절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이 적절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 여부 확인 • 사업별 계획 확인 • 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 확인
		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활동) 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는가? • (사업 활동) 당초 계획대로 연도별 사업비가 집행되었는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존재 여부 확인 • 연도별 및 사업별 계획 예산 확인 • 사업별 집행을 확인
		계획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설계의 적절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기본 또는 종합)이 수립되어 있는가? •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 타 부처 또는 타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가? • (추진 체계의 적절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분담이 적절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 여부 확인 • 사업별 계획 확인 • 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 확인
지역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⑪ 관광자원 기반 조성 ⑫ 한국형 지역관광활성화	과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활동) 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는가? • (사업 활동) 당초 계획대로 연도별 사업비가 집행되었는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존재 여부 확인 • 연도별 및 사업별 계획 예산 확인 • 사업별 집행을 확인
		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달성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달성하였는가?)
		계획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설계의 적절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기본 또는 종합)이 수립되어 있는가? • (사업 활동) 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는가? • 시·군 단위 사업별로 사전절차가 진행되었는가?(Ex. 기본계획 수립 여부, 대상지 매입 진행, 재정심사, 타당성 조사 등) • (사업 활동) 사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피드백이 되고 있는가? •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 여부 확인 •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존재 여부 확인 • 실제 사업추진 연도를 기준으로 사업 준비 항목 검토 • 목표(완공) 연도에 따른 진행을 확인 • 사업 진행을 및 모니터링 결과 확인 • 현장실사 및 담당자 인터뷰
		과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설계의 적절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기본 또는 종합)이 수립되었는가? • (사업 활동) 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는가? • 시·군 단위 사업별로 사전절차가 진행되었는가?(Ex. 기본계획 수립 여부, 대상지 매입 진행, 재정심사, 타당성 조사 등) • (사업 활동) 사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피드백이 되고 있는가? •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달성하였는가?)
해양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⑬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⑭ 해양관광육성	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달성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달성하였는가?)
		과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설계의 적절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기본 또는 종합)이 수립되었는가? • (사업 활동) 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는가? • 시·군 단위 사업별로 사전절차가 진행되었는가?(Ex. 기본계획 수립 여부, 대상지 매입 진행, 재정심사, 타당성 조사 등) • (사업 활동) 사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피드백이 되고 있는가? •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달성하였는가?)

〈표 III-1〉의 계속

세부 사업군	세부 사업	구분	평가 준거 및 질문	평가 방법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⑮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⑯ 스마트 관광 활성화	계획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설계의 적절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기본 또는 종합)이 수립되어 있는가? • (사업 활동) 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는가? • (사업 활동) 사업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 및 피드백이 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 수립 여부 확인 •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존재 여부 확인 •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영역이나 직접 진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단계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달성하였는가? 	
		계획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소규모 신규사업, 아이다어 차원 및 일회성 사업들이 다수 포함된 당해 사업군에 있어서 사업 목표 및 내용 등이 이전 사업들과 비교하여 차별성이 확보되었는가? • 타 부처 또는 타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가? • (추진 체계의 적절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이 적절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확인 • 사업 추진 주체들의 역할 확인
관광편의 지원 사업군	⑰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⑱ 국내관광 역량 강화 ⑲ 문화관광축제 지원	과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활동) 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는가? • (사업 활동) 관광객 편의 제공, 국민관광 지원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존재 여부 확인 • 현장실사 및 담당자 인터뷰
		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단계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달성하였는가?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3)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III-2〉는 세부 사업군별로 계획평가 및 과정평가(정성평가) 및 영향평가(정량평가)의 수행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본 심층평가에서는 7개 세부 사업군에 전체에 대하여 계획평가 및 과정평가를 수행한다. 다만 광역권 개발 사업군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의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의 지역관광 다양성 등은 2023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2024년 기준에서 추진된 사업 내용이 집계되지 않아 과정 평가에서는 제외한다.

〈표 III-2〉 세부 사업군별 계획/과정/영향평가 수행 여부

사업군	세부 사업군	세부 사업명	정성평가		정량평가
			계획평가	과정평가	영향평가
국제관광 사업군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	✓	✓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한국관광 해외 광고			
국내관광 개발 사업군	광역권 개발 사업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	미평가(2023년부터 사업 추진)	✓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특화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	미평가(2023년부터 사업 추진)	✓
		문화유산 활용 진흥		✓	
		생태관광자원 이용 기반			
	지역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관광자원 기반 조성	✓	✓	✓
		한국형 지역관광활성화			
	해양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	미평가(2023년부터 사업 추진)	✓
		해양관광육성		✓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	✓	✓
스마트 관광 활성화					
국내관광 기반 사업군	관광편의 지원 사업군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	✓	✓
		국내관광 역량 강화			
		문화관광축제 지원			

자료: 저자 작성

2. 사업군별 논리모형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3)에 따르면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포함한 재정성과평가의 목적은 재정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에 따른 담당자 책무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따라서 성과지표는 투입 및 과정지표뿐 아니라 산출 및 결과지표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출지표는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를, 결과지표는 사업의 궁극적 목적과 부합하는 성과를 측정한다(강희우 외, 2018). 본 연구에서는 관광인프라 지원사업군의 논리모형을 투입, 과정(활동), 산출 및 결과지표로 구성하고, 세부 사업군별로 사업 내용과 예산 비중에 따라 과정(활동)을 세분화해 산출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가.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에 투입한 예산은 약 5,414억원이며, 이를 사업 내용 및 예산 비중에 따라 홍보 및 마케팅, 관광산업 지원, 관광기반 및 시설 조성, 관광편의 개선,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 등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 투입한 예산은 403,951백만원으로 동 기간 전체 예산의 74.6%를 차지한다. 즉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이다. 그 다음으로 여행업 생태계 전환 혁신역량 강화, 여행업 경쟁력 강화 등 관광산업 지원 활동에 31,414백만원(5.8%)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테마관광 거점 조성, 하이커 운영 등 관광기반 및 시설 조성 활동에 29,696백만원(5.5%)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쇼핑관광 활성화, 관광교통 편의성 제고 등 관광편의 개선 활동에는 23,063백만원(4.3%)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프로그램 운영 활동에는 16,403백만원(3.0%), 국제관광기구 협력,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 등 기타 활동에는 36,811백만원(6.8%)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403,951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서는 홍보 및 마케팅 건수, 해외관측 및 현지여행업계 교류지원 건수, 한국관광 인지도 및 선호도 증대 등의 산출물을 얻고자 하며, 31,414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관광산업 지원 활동에서는 관광상품 개발 건수, 수혜자 만족도 증대, 관광기념품 판매 건수 등의 산출물을 얻고자 한다. 29,696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관광기반 및 시설 조성 활동을 통해서도 테마관광 거점 조성 수, 관광클러스터 조성 수, 하이커 운영 건수 등의 산출물을 확보하고자 하며,

23,063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관광편의 개선 활동을 통해서도 관광편의시설 개선 건수, 수혜자 만족도 증대, 관광교통 체계 구축 건수 등의 산출물을 확보하고자 한다. 16,403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프로그램 운영 활동에서는 관광 및 쇼핑 사업체 매출액 증가 등의 산출물을 얻고자 하며, 36,811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기타 활동에서는 국제관광기구 협력 건수, 한국관광통계 조사 및 분석 건수, 한국관광 품질 인증 건수 등의 산출물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및 산출물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외래관광객 수 증가를 기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제관광 수지를 증대시키는 성과를 얻고자 한다.

〈표 III-3〉 2019~2023년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예산 구성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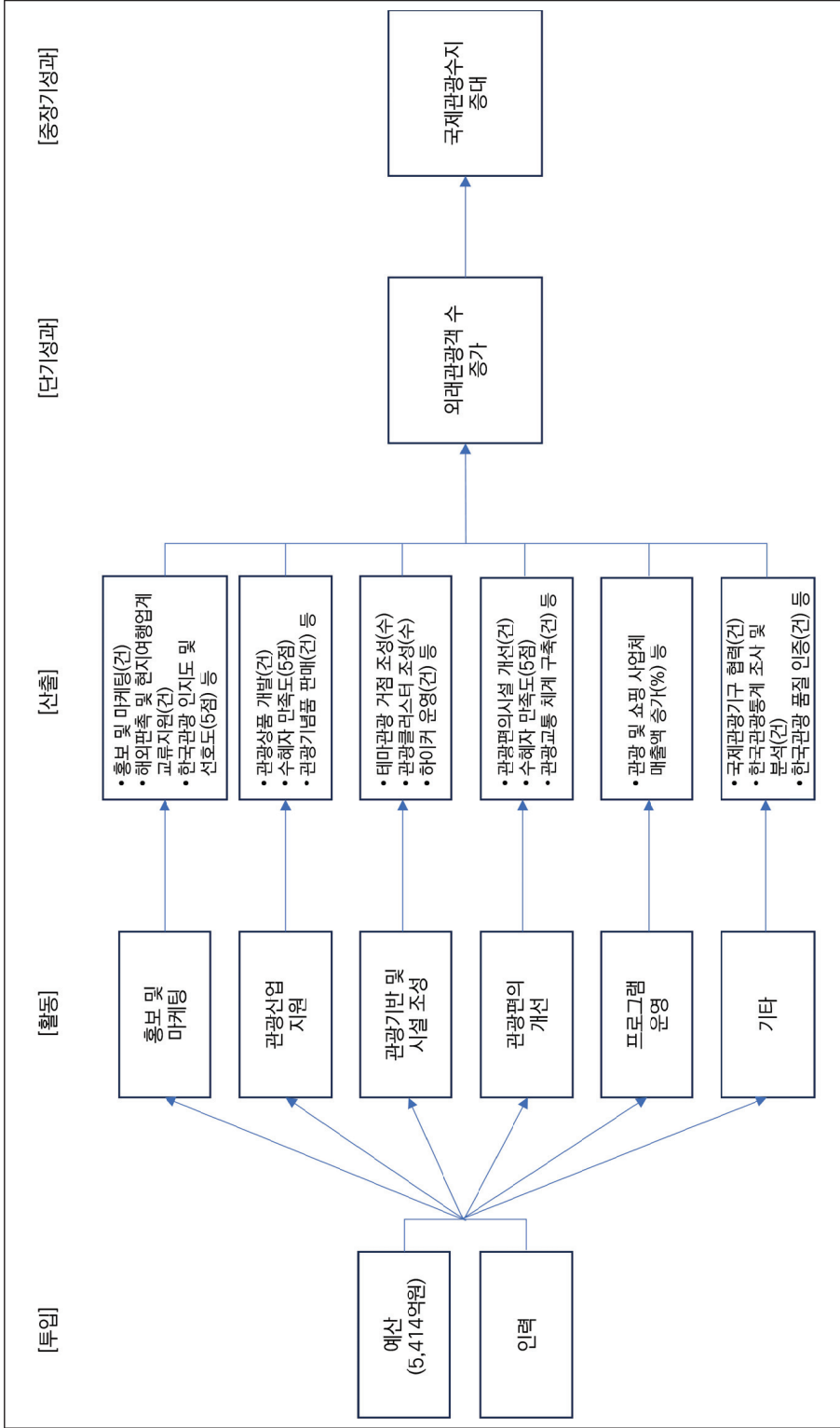
구분	예산액(2019~2023년)	구성 비율
홍보 및 마케팅	403,951	74.6
관광산업 지원	31,414	5.8
관광기반 및 시설 조성	29,696	5.5
관광편의 개선	23,063	4.3
프로그램 운영	16,403	3.0
기타	36,811	6.8
합계	541,338	100.0

주: 주요 내역사업

1. 홍보 및 마케팅: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 등
2. 관광산업 지원: 여행업 생태계 전환 혁신역량 강화, 여행업 경쟁력 강화 등
3. 관광기반 및 시설 조성: 테마관광 거점 조성, 하이커 운영 등
4. 관광편의 개선: 쇼핑관광 활성화, 관광교통 편의성 제고 등
5. 프로그램 운영: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6. 기타: 국제관광기구 협력,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예산요구서」, 2018;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예산요구서」, 2019;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산요구서」, 2020;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예산요구서」, 2021;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예산요구서」, 2022;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그림 III-1]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논리 모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예산요구서」, 2018;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예산요구서」, 2019;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산요구서」, 2020;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예산요구서」, 2021;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예산요구서」, 2022;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등을 토대로 저자 작성

나. 광역권 개발 사업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광역권 개발 사업군에 투입한 예산은 약 2,805억원이며, 이를 사업 내용 및 예산 비중에 따라 관광개발 및 관광편의 제고,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륵사지관광지 조성, 문헌사색원,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로드 조성, 설악동 재건사업, 축산블루시티 조성,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통영관광만구축(T-UAM), 예술접목야행관광공간조성, 땅끝수상복합공연장 조성,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황매산 녹색체험 지구 조성 등 관광개발 및 관광편의 제고 활동에 투입한 예산은 279,961백만원으로 동 기간 전체 예산의 99.8%를 차지한다. 즉 광역권 개발 사업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거의 관광개발 및 관광편의 제고 활동이다. 그리고 근대문화유산 배움 코스 관광상품화, 성지혜움길 관광코스화 등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개발 활동에 500백만원(0.2%)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279,961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관광개발 및 관광편의 제고 활동에서는 관광루트 특화 건수, 스토리텔링 접목 로컬투어 확대 건수, 자연사람 공존형 관광벨트 구축 건수, 지역관광지 개발 건수, 지역관광자원 개발 건수, 문화산수 관유 여행 공간 개발 건수, 유교문화사유 공간 개발 건수, 해안 드라이브관광루트 조성 지원 건수,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지원 건수, 관광인프라 및 기반 확충 지원 건수, 교통 분산을 통한 정체 민원 해소율, 관광객 편의 관련 만족도 증대 등의 산출물을 얻고자 한다. 500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개발 활동에서는 연계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발굴 건수, 연계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체계 구축 건수, 지역관광생태계 구축 건수 등의 산출물을 확보하고자 한다. 광역권 개발 사업군은 이러한 과정 및 산출물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수를 증가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창출 및 지역소득 증대 등의 성과를 얻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표 III-4〉 2019~2023년 광역권 개발 사업군 예산 구성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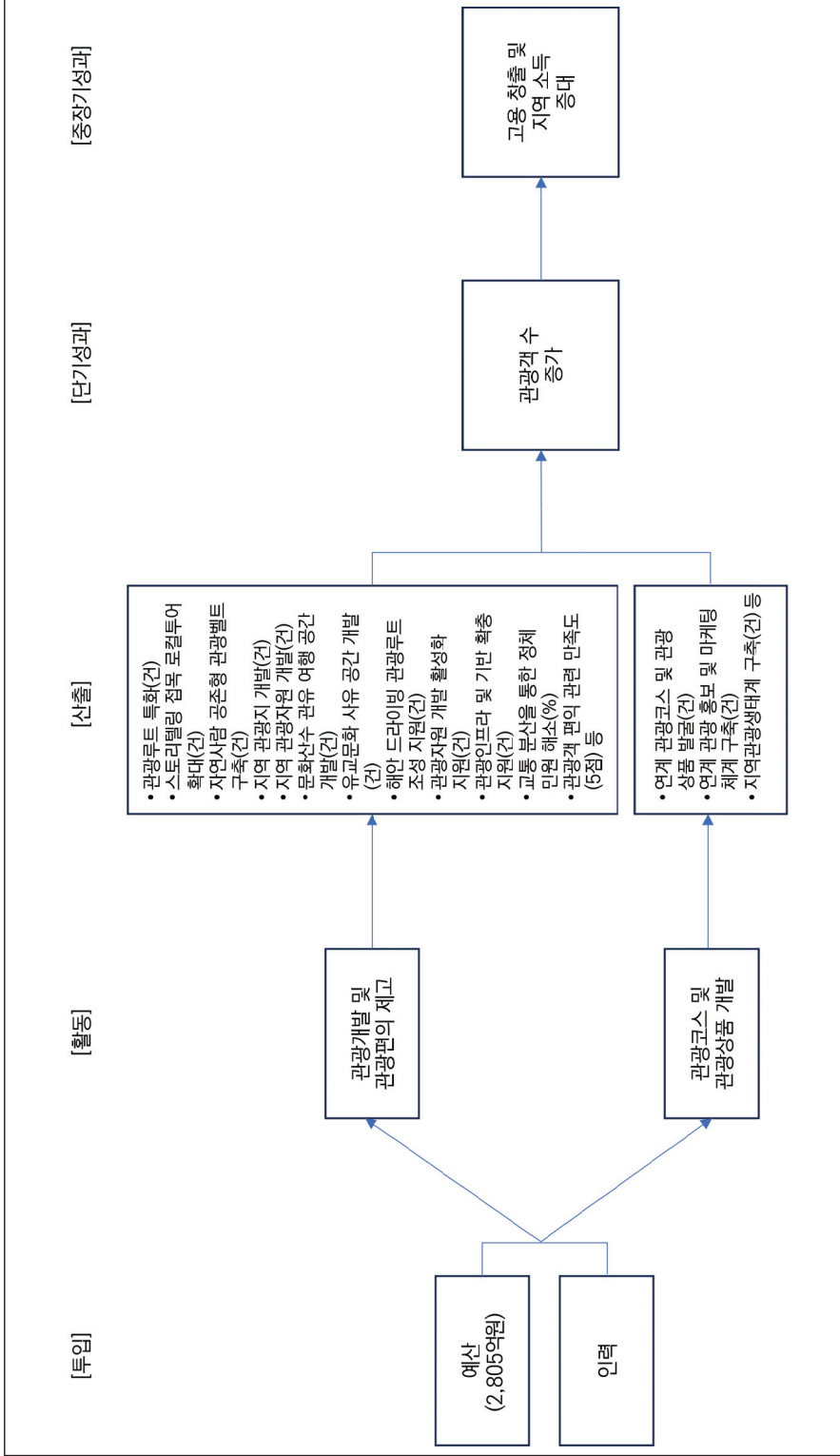
구분	예산액(2019~2023년)	구성 비율
관광개발 및 관광편의 제고	279,961	99.8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	500	0.2
합계	280,461	100.0

주: 주요 내역사업

1. 관광개발 및 관광편의 제고: 미륵사지관광지 조성, 문헌사색원,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로드 조성, 설악동 재건사업, 축산블루시티 조성,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통영관광만구축(T-UAM), 예술접목 야행관광공간 조성, 땅끝 수상 복합공연장 조성,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황매산 녹색체험 지구 조성 등
2.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 근대문화유산 배움 코스 관광상품화, 성지 혜움길 관광코스화 등

자료: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예산요구서」, 2018;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예산요구서」, 2019;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산요구서」, 2020;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예산요구서」, 2021;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예산요구서」, 2022;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그림 III -2] 광역권 개발 사업군 논리 모형



자료: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예산요구서」, 2018;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예산요구서」, 2019;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산요구서」, 2020;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예산요구서」, 2021;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예산요구서」, 2022;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등을 토대로 저자 작성

다.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에 투입한 예산은 약 3,131억원이며, 이를 사업 내용 및 예산 비중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시설 조성 및 기타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제도 운영, 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 서비스, 세계유산축전 등 프로그램 운영 활동에 투입한 예산은 193,007백만원으로 동 기간 전체 예산의 61.6%를 차지한다. 즉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프로그램 운영 활동이다. 그 다음으로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등 시설 조성 활동에 108,052백만원(34.5%)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국가유산 스토리텔링 등 활성화,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전문 인력 교육,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인지도 제고, 폐광지역 관광콘텐츠 개발, 특화브랜드 육성,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등 기타 활동에 12,015백만원(3.8%)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표 III-5〉 2019~2023년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예산 구성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2019~2023년)	구성 비율
프로그램 운영	193,007	61.6
시설 조성	108,052	34.5
기타	12,015	3.8
합계	313,07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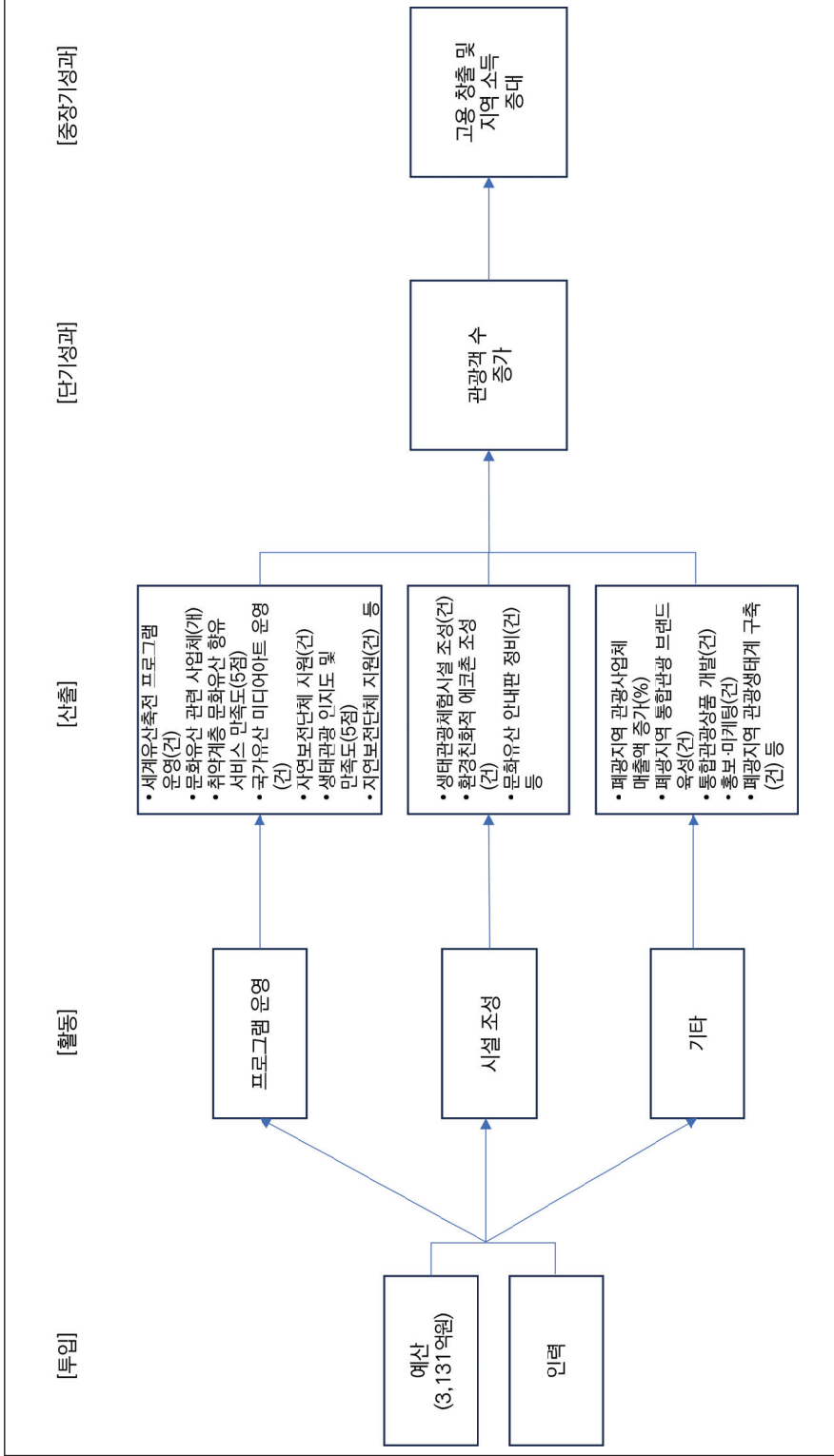
주: 주요 내역사업

1. 프로그램 운영: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제도운영, 취약계층 국가유산 향유 서비스, 세계유산축전 등
2. 시설 조성: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등
3. 기타: 국가유산 스토리텔링 등 활성화,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전문인력 교육,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인지도 제고, 폐광지역 관광콘텐츠 개발, 특화브랜드 육성,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등

자료: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2019년 예산요구서」, 2018;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2020년 예산요구서」, 2019;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2021년 예산요구서」, 2020;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2022년 예산요구서」, 2021;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2023년 예산요구서」, 2022;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193,007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프로그램 운영 활동에서는 세계유산축전 프로그램 운영 건수, 문화유산 관련 사업체 개수,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만족도 증대, 자연보전단체 지원 건수, 생태관광 인지도 및 만족도 증대, 자연보전단체 지원 건수 등의 산출물을 얻고자 한다.

[그림 III -3]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논리 모형



자료: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2019년 예산요구서」, 2018;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2020년 예산요구서」, 2019;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2021년 예산요구서」, 2020;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2022년 예산요구서」, 2021;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2023년 예산요구서」, 2022;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내부자료 등을 토대로 저자 작성

108,052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시설 조성 활동에서는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 건수,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건수,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조성률,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 건수 등의 산출물을 확보하며, 12,015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기타 활동에서는 폐광지역 관광사업체 매출액 증가율, 폐광지역 통합관광 브랜드 육성 건수, 통합 관광상품 개발 건수, 홍보·마케팅 건수, 폐광지역 관광생태계 구축 건수 등의 산출물을 얻고자 한다.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은 이러한 과정 및 산출물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수를 증가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창출 및 지역소득 증대 등의 성과를 얻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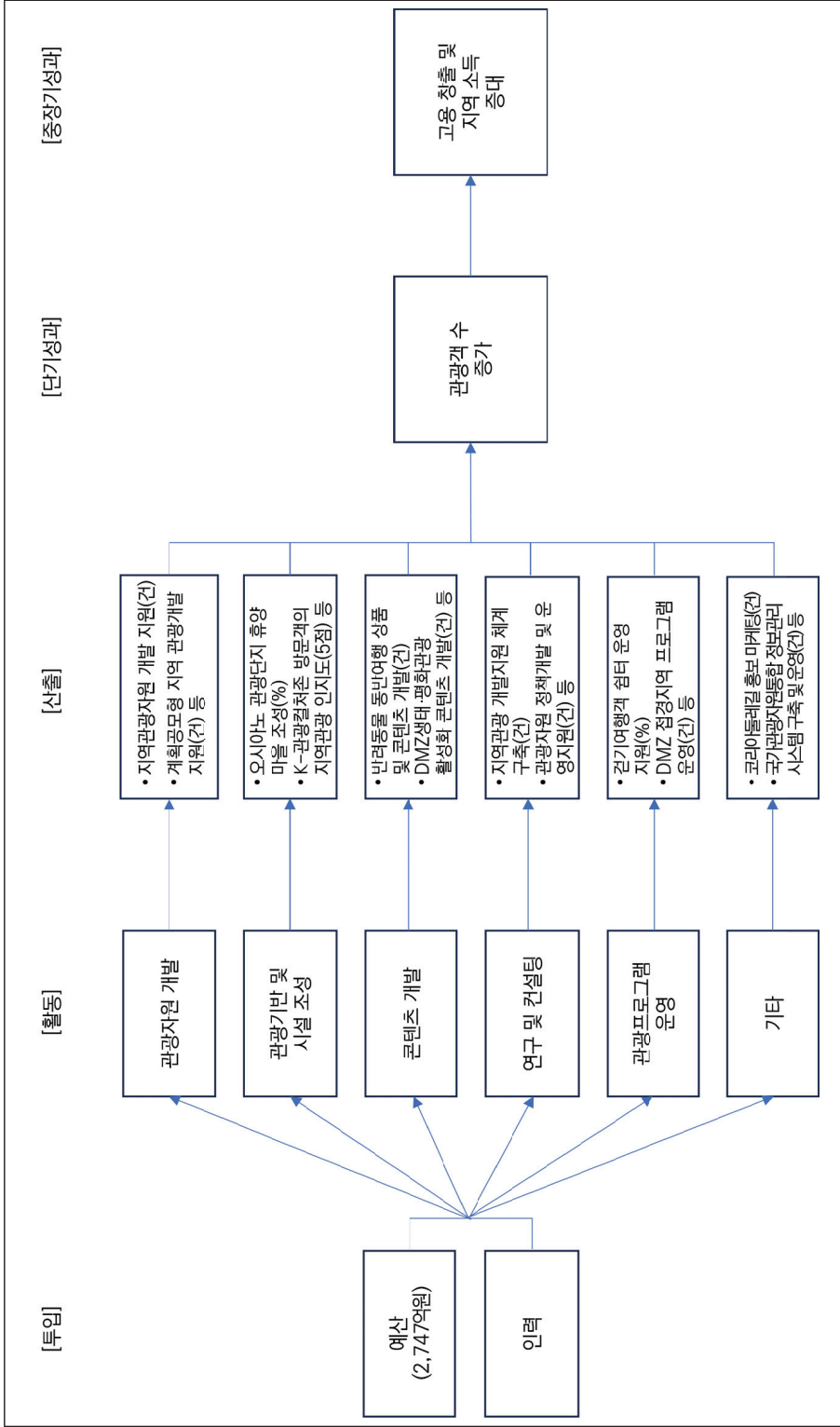
라.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군에 투입한 예산은 약 2,747억원이며, 이를 사업 내용 및 예산 비중에 따라 관광자원 개발, 관광기반 및 시설조성, 콘텐츠 개발, 연구 및 컨설팅, 관광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관광자원 개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생태녹색관광육성 등 관광자원 개발 활동에 투입한 예산은 131,745백만원으로 동 기간 전체 예산의 48.0%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오시아노 휴양마을 조성, DMZ생태·평화관광 활성화(관광기반 조성) 등 관광기반 및 시설 조성 활동에 42,909백만원(15.6%)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관광레저도시지원 및 콘텐츠 개발, DMZ생태·평화관광 활성화(콘텐츠 개발) 등 콘텐츠 개발 활동에는 35,387백만원(12.9%)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지역관광 개발지원 체계 구축, 관광자원 정책 개발 및 운영 지원, 지역관광발전지수 및 동향 분석 등 연구 및 컨설팅 활동에는 29,428백만원(10.7%)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코리아둘레길 세계적 브랜드 육성, 걷기여행길 활성화 지원 등 관광프로그램 운영 활동에는 20,681백만원(7.5%)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국가관광자원통합 정보관리시스템, 코리아모빌리티(두루누비) 등 기타 활동에는 14,563백만원(5.3%)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131,745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관광자원 개발 활동에서는 지역관광자원 개발 지원 건수, 계획공모형 지역 관광개발 지원 건수 등의 산출물을 얻고자 하며, 42,909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관광기반 및 시설 조성 활동에서는 오시아노관광단지 공공시설 조성률, K-관광컬처존 방문객의 지역관광 인지도 증대 등의 산출물을 얻고자 한다.

[그림 III -4]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논리 모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예산요구서」, 2018;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예산요구서」, 2019;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산요구서」, 2020;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예산요구서」, 2021;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예산요구서」, 2022;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등을 토대로 저자 작성

35,387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콘텐츠 개발 활동에서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상품 및 콘텐츠 개발 건수, DMZ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 건수 등의 산출물을 얻고자 하며, 29,428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연구 및 컨설팅 활동에서는 지역관광 개발지원 체계 구축 건수, 관광자원 정책개발 및 운영지원 건수 등의 산출물을 확보하고자 한다. 20,681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관광프로그램 운영 활동에서는 걷기여행객 쉽터 운영지원율, DMZ 접경지역 프로그램 운영 건수 등의 산출물을 얻고, 14,563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기타 활동에서는 코리아 둘레길 홍보 마케팅 건수, 국가관광자원통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건수 등의 산출물을 확보하고자 한다.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군은 이러한 과정 및 산출물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수를 증가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창출 및 지역소득 증대 등의 성과를 얻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표 III-6〉 2019~2023년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예산 구성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2019~2023년)	구성 비율
관광자원 개발	131,745	48.0
관광기반 및 시설 조성	42,909	15.6
콘텐츠 개발	35,387	12.9
연구 및 컨설팅	29,428	10.7
관광프로그램 운영	20,681	7.5
기타	14,563	5.3
합계	274,713	100.0

주: 주요 내역사업

1. 관광자원 개발: 지역관광자원 개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생태녹색관광육성 등
2. 관광기반 및 시설 조성: 오시아노 휴양마을 조성, DMZ생태·평화관광 활성화(관광기반 조성) 등
3. 콘텐츠 개발: 관광레저도시지원 및 콘텐츠 개발, DMZ생태·평화관광 활성화(콘텐츠 개발) 등
4. 연구 및 컨설팅: 지역관광 개발지원 체계 구축, 관광자원 정책 개발 및 운영 지원, 지역관광발전지수 및 동향 분석 등
5. 관광프로그램 운영: 코리아둘레길 세계적 브랜드 육성, 걷기여행길 활성화 지원 등
6. 기타: 국가관광자원통합 정보관리시스템, 코리아모빌리티(두루누비)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예산요구서」, 2018;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예산요구서」, 2019;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산요구서」, 2020;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예산요구서」, 2021;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예산요구서」, 2022;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마.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에 투입한 예산은 약 2,155억원이며, 이를 사업 내용 및 예산 비중에 따라 관광개발, 관광산업 지원, 콘텐츠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연구 및 컨설팅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섬 관광 활성화 등 관광개발 활동에 투입한 예산은 173,575백만원으로 동 기간 전체 예산의 80.5%를 차지한다. 즉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관광개발 활동이다. 그 다음으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등 관광사업 지원 활동에 29,197백만원(13.5%)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섬 관광 활성화, 해양 관광 콘텐츠 개발 등 콘텐츠 개발 활동에 9,413백만원(4.4%)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해양레저관광 정보기반 구축 등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동에는 1,350백만원(0.9%)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섬 관광 활성화 통합 컨설팅, 해양치유산업활성화 지원 등 연구 및 컨설팅 활동에는 1,997백만원(0.6%)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표 III-7〉 2019~2023년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예산 구성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2019~2023년)	구성 비율
관광개발	173,575	80.5
관광산업 지원	29,197	13.5
콘텐츠 개발	9,413	4.4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350	0.9
연구 및 컨설팅	1,997	0.6
합계	215,53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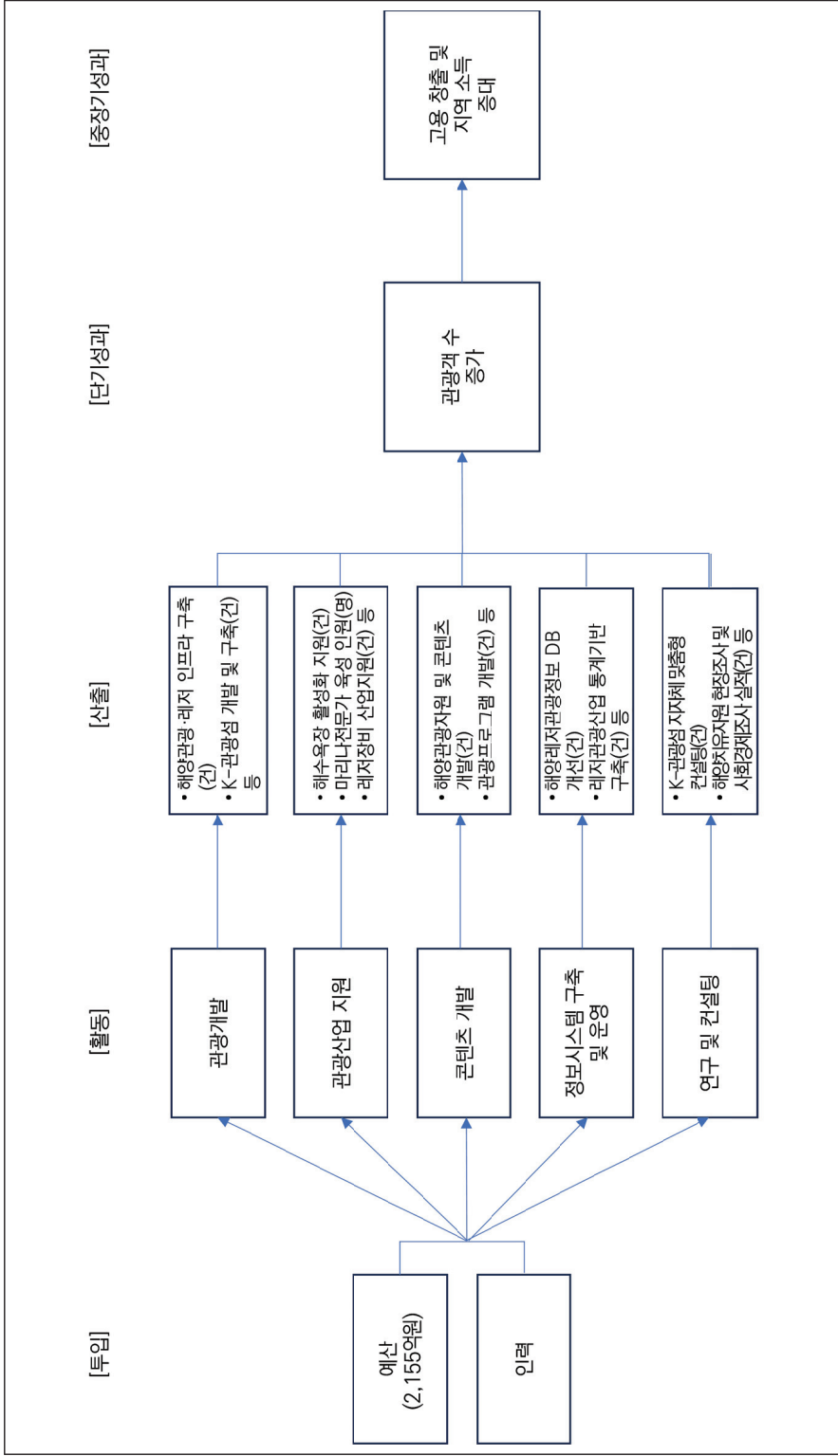
주: 주요 내역사업

1. 관광개발: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섬 관광 활성화 등
2. 관광산업 지원: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등
3. 콘텐츠 개발: 섬 관광 활성화, 해양 관광 콘텐츠 개발 등
4.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양레저관광 정보기반 구축 등
5. 연구 및 컨설팅: 섬 관광 활성화 통합 컨설팅, 해양치유산업활성화 지원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 「2019년 예산요구서」, 2018;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 「2020년 예산요구서」, 2019;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 「2021년 예산요구서」, 2020;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 「2022년 예산요구서」, 2021;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 「2023년 예산요구서」, 2022;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173,575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관광개발 활동에서는 해양관광·레저 인프라 구축 건수, K-관광섬 개발 및 구축 건수 등의 산출물을 얻고자 하며, 29,197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관광산업 지원 활동에서는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건수, 마리나전문교육성 인원 수, 레저장비 산업지원 건수 등의 산출물을 얻고자 한다.

[그림 III -5]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논리 모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 「2019년 예산요구서」, 2018;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 「2020년 예산요구서」, 2019;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 「2021년 예산요구서」, 2020;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 「2022년 예산요구서」, 2021;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 「2023년 예산요구서」, 2022;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 내부자료 등을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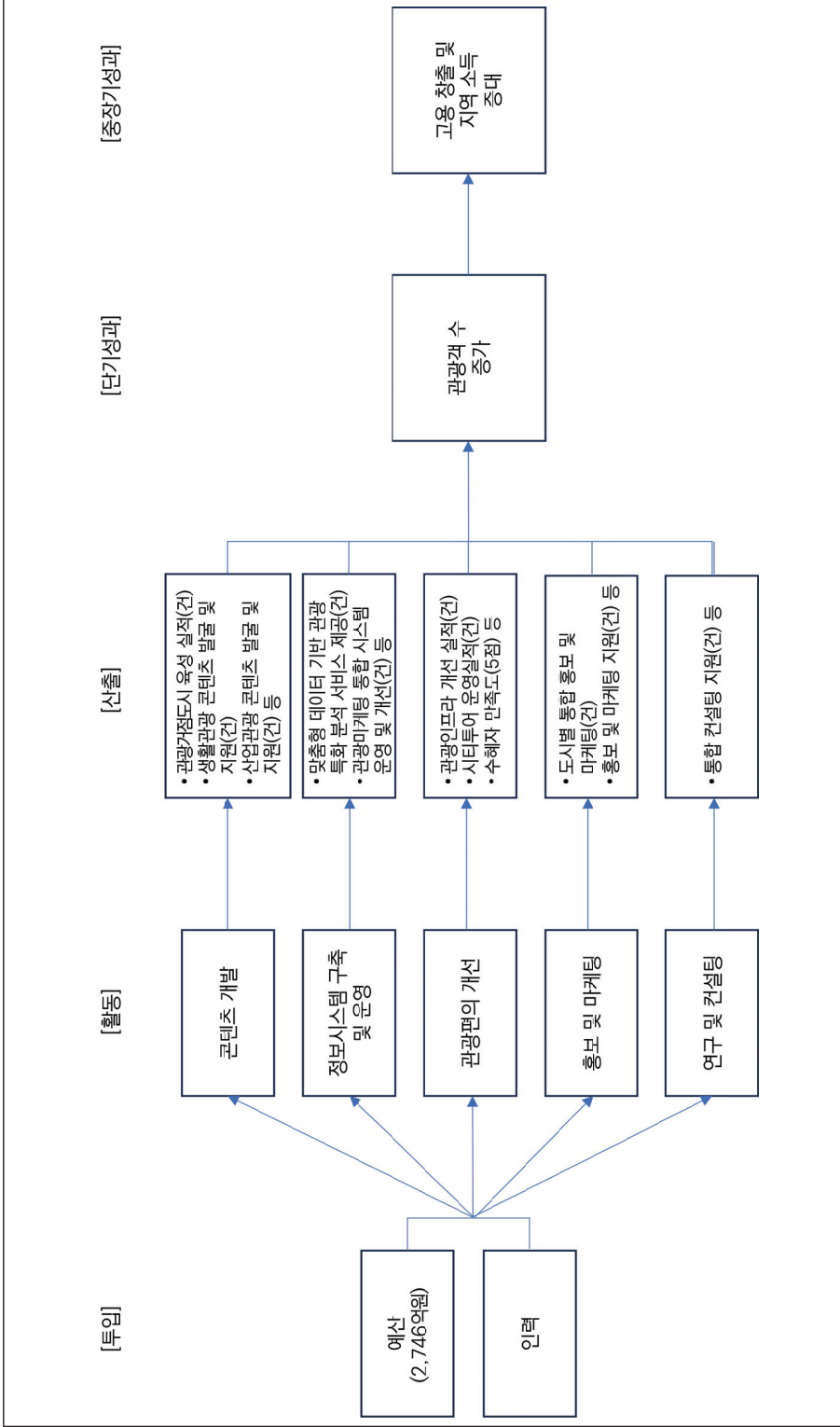
9,413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콘텐츠 개발 활동에서는 해양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 건수, 관광프로그램 개발 건수 등의 산출물을 얻고자 하며, 1,350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동에서는 해양레저관광정보 DB 개선 건수, 레저관광산업 통계기반 구축 건수 등의 산출물을, 1,997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연구 및 컨설팅 활동에서는 K-관광섬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건수, 해양치유자원 현장조사 및 사회경제조사 실적 건수 등의 산출물을 확보하고자 한다.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은 이러한 과정 및 산출물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수를 증가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창출 및 지역소득 증대 등의 성과를 얻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바.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에 투입한 예산은 약 2,746억원이며, 이를 사업 내용 및 예산 비중에 따라 콘텐츠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광편의 개선, 홍보 및 마케팅, 연구 및 컨설팅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제관광도시 육성,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등 콘텐츠 개발 활동에 투입한 예산은 127,670백만원으로 동 기간 전체 예산의 46.5%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관광 빅 데이터,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 관광마케팅 통합 시스템 운영 등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동에 73,341백만원(26.7%)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국제관광도시 육성,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등 관광편의 개선 활동에는 50,083백만원(18.2%)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 등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는 22,490백만원(8.2%)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통합 컨설팅 지원 등 연구 및 컨설팅 활동에는 981백만원(0.4%)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127,670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콘텐츠 개발 활동에서는 관광거점도시육성 실적 건수, 생활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 건수, 산업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 건수 등의 산출물을 얻고자 하며, 73,341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동에서는 맞춤형 데이터 기반 관광특화 분석 서비스 제공 건수, 관광마케팅 통합 시스템 운영 및 개선 건수 등의 산출물을 얻고자 한다.

[그림 III-6]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논리 모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예산요구서」, 2018;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예산요구서」, 2020;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산요구서」, 2020;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예산요구서」, 2021;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예산요구서」, 2022;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등을 토대로 저자 작성

50,083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관광편의 개선 활동에서는 관광인프라 개선 실적 건수, 시티투어 운영 실적 건수, 수혜자 만족도 증대 등의 산출물을 얻고자 하며, 22,490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서는 도시별 통합 홍보 및 마케팅 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건수 등의 산출물을, 984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연구 및 컨설팅 활동에서는 통합 컨설팅 지원 건수 등의 산출물을 확보하고자 한다.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은 이러한 과정 및 산출물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수를 증가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창출 및 지역소득 증대 등의 성과를 얻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표 III-8〉 2019~2023년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예산 구성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2019~2023년)	구성 비율
콘텐츠 개발	127,670	46.5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73,341	26.7
관광편의 개선	50,083	18.2
홍보 및 마케팅	22,490	8.2
연구 및 컨설팅	981	0.4
합계	274,565	100.0

주: 주요 내역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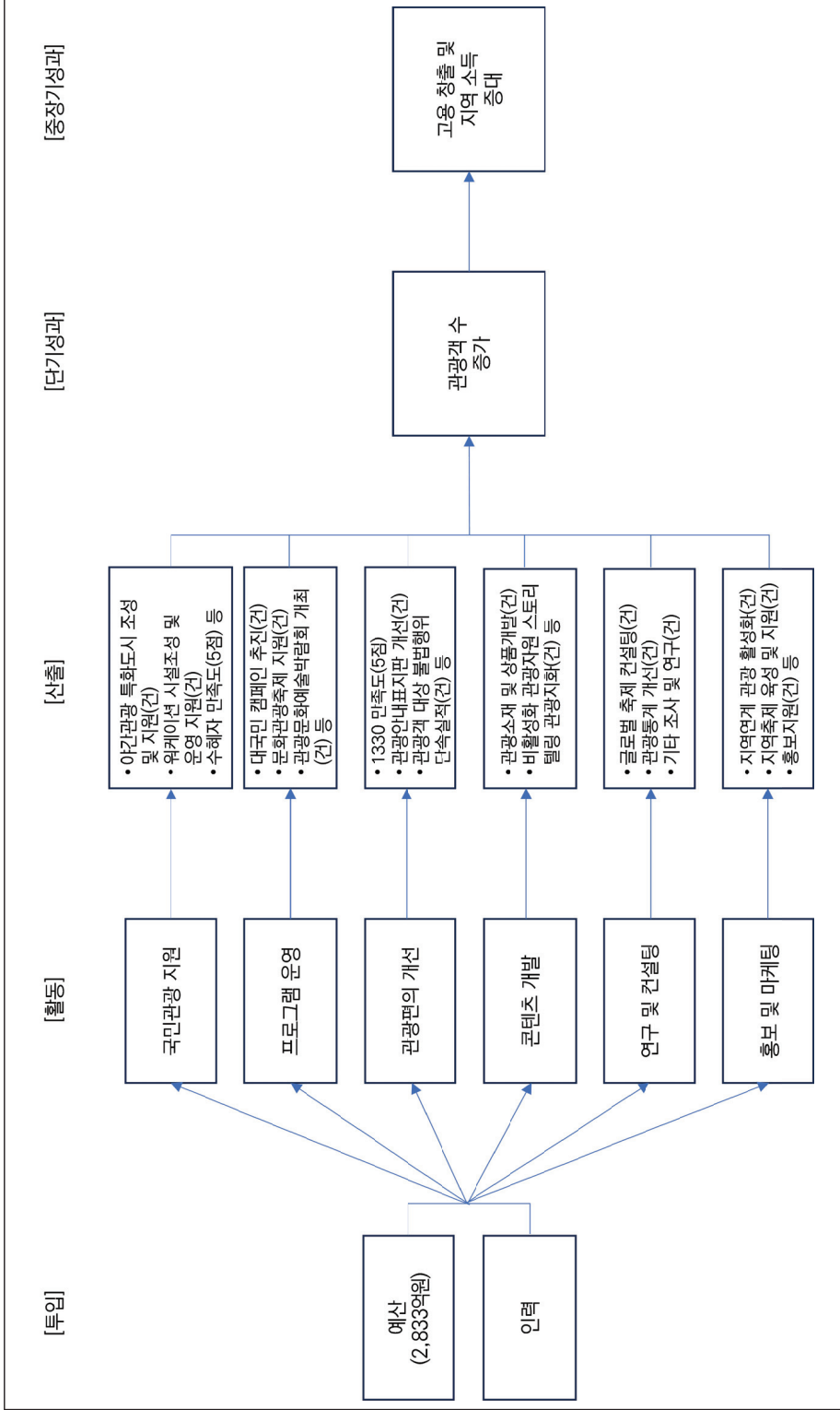
1. 콘텐츠 개발: 국제관광도시 육성,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등
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광 빅데이터,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 관광마케팅 통합 시스템 운영 등
3. 관광편의 개선: 국제관광도시 육성,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등
4. 홍보 및 마케팅: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 등
5. 연구 및 컨설팅: 통합 컨설팅 지원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예산요구서」, 2018;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예산요구서」, 2019;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산요구서」, 2020;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예산요구서」, 2021;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예산요구서」, 2022;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사. 관광 편의지원 사업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관광 편의지원 사업군에 투입한 예산은 약 2,833억원이며, 이를 사업 내용 및 예산 비중에 따라 국민관광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광편의 개선, 콘텐츠 개발, 연구 및 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관광 지원,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등 국민관광 지원 활동에 투입한 예산은 112,732백만원으로 동 기간 전체 예산의 39.8%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국내관광 캠페인, 우수문화관광축제 지원, 영호남 관광문화예술박람회 개최 등 프로그램 운영 활동에

그림 III-7] 관광 편의지원 사업군 논리 모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예산요구서」, 2018;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예산요구서」, 2019;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산요구서」, 2020;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예산요구서」, 2021;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예산요구서」, 2022;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등을 토대로 저자 작성

67,638백만원(23.9%)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관광안내소 운영 등 관광편의 개선 활동에는 55,894백만원(19.7%)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관광소재 및 상품개발, 축제 경쟁력 강화 지원, 비활성화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관광지화 등 콘텐츠 개발 활동에는 27,100백만원(9.6%)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관광통계 개선,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등 연구 및 컨설팅 활동에는 14,885백만원(5.3%)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숨-햇 제작 홍보지원,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등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는 5,036백만원(1.8%)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표 III-9〉 2019~2023년 관광편의 지원 사업군 예산 구성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2019~2023년)	구성 비율
국민관광 지원	112,732	39.8
프로그램 운영	67,638	23.9
관광편의 개선	55,894	19.7
콘텐츠 개발	27,100	9.6
연구 및 컨설팅	14,885	5.3
홍보 및 마케팅	5,036	1.8
합계	283,285	100.0

주: 주요 내역사업

1. 국민관광 지원: 국민관광 지원, 디지털관광 주민증 운영 등
2. 프로그램 운영: 국내관광 캠페인, 우수문화관광축제 지원, 영호남 관광문화예술박람회 개최 등
3. 관광편의 개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관광안내소 운영 등
4. 콘텐츠 개발: 관광소재 및 상품개발, 축제 경쟁력 강화 지원, 비활성화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관광지화 등
5. 연구 및 컨설팅: 관광통계 개선, 문화관광축제 활성화 등
6. 홍보 및 마케팅: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숨-햇 제작 홍보지원,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예산요구서」, 2018;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예산요구서」, 2019;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산요구서」, 2020;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예산요구서」, 2021;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예산요구서」, 2022;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112,732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국민관광 지원 활동에서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및 지원 건수, 위케이션 시설조성 및 운영지원 건수, 수혜자 만족도 증대 등의 산출물을 얻고자 하며, 67,638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프로그램 운영 활동에서는 대국민 캠페인 추진 건수, 문화관광축제 지원 건수, 관광문화예술박람회 개최 건수 등의 산출물을 얻고자 한다. 55,894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관광편의 개선 활동에서는

1330 만족도 증대, 관광안내표지판 개선 건수,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단속실적 건수 등의 산출물을 얻고자 하며, 27,100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콘텐츠 개발 활동에서는 관광소재 및 상품개발 건수, 비활성화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관광지화 건수 등의 산출물을 확보하고자 한다.

14,885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연구 및 컨설팅 활동에서는 글로벌 축제 컨설팅 건수, 관광통계 개선 건수, 기타 조사 및 연구 건수 등의 산출물을 얻고자 하며, 5,036백만원의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도 지역연계 관광 활성화 건수,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건수, 홍보지원 건수 등의 산출물을 확보하고자 한다. 관광편의 지원 사업군은 이러한 과정 및 산출물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광객 수를 증가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창출 및 지역소득 증대 등의 성과를 얻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3. 평가모형 및 평가방법

가. 정성평가: 계획 및 과정평가

본 심층평가에서는 계획평가와 과정평가를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정성평가는 주로 기본계획,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 내역,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선행연구 검토, 사례 분석 등의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관광정책 전문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담당자, 사업 참여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FGI) 및 현장 점검, 계량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그리고 사업군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1) 계획평가

계획평가는 주로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데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의 세부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서부터 완료까지 산출물이 명확히 명시되고 구체화되었는지 확인한다. 특히 사업의 산출물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 증대와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파악하며, 상위 계획인 관광진흥기본계획과의 정합성도 상호 검토를 통해 분석한다. 또한 해외홍보 사업의 중장기적 체계적 계획 수립 및 집행 사례, 서울특별시 서울관광 활성화 계획(2022~2026년)

및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2024년) 등의 지자체 사례와 외래 관광객 유치 사업군을 비교 분석하는 사례 분석을 수행한다.

둘째, 광역권 개발 사업군의 세부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내내역사업들의 사업계획서, 선행 연구 등을 검토하여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목적과 다른 관광시설 중심의 사업이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사업대상지, 사업 규모 및 사업수행 방식 등에 대한 타당성을 재평가한다. 또한 중간평가 및 피드백이 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중간평가 보고서 등을 분석한다.

셋째, 국내관광개발 사업군 전반적으로 초기 수요조사 관련 문서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지 및 시설물 선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 있었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원 필요성, 민간 부문과의 사업 중복성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2) 과정평가

가) 문헌 연구 및 계량 분석

과정평가에서의 문헌 연구 및 계량 분석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세부 사업군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행위를 분석하여 세부 사업군별로 운영 효율성을 평가한다.

둘째,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의 예산 편성액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중복 집행, 마케팅 및 홍보의 효과성 등을 검토한다.

셋째, 광역권 개발 사업군에 속한 세부 사업별 사업 내용을 분석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사업별 매출액이익률을 산출하고, 이를 공공투자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사회적 할인율 및 유사 민간사업체 평균이익률과 비교 분석하여 사업성과 및 효과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넷째, 관광 편의지원 사업군에 대해서도 세부 사업별 사업 내용을 분석하여 타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별 국비 지원액 등을 분석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 집중 여부를 파악한다.

나) 인터뷰 및 현장 점검

계획평가에서의 인터뷰 및 현장점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의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특화관광 자원 개발 취지와 맞는 사업이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특히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과 같이 과거부터 지속되었던 지역 민원성 사업에 대해 단순히 사업명을 변경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해당 사업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둘째, 광역권 개발 사업군 및 해양관광개발 사업군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완료 여부 및 관광객 유입 성과, 시설물 운영 현황, 사업추진 지연 및 장기화 등을 확인하여 사업 추진의 필요성, 사업지 선정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셋째, 관광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관광인프라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나. 정량평가: 영향평가

본 보고서에서 국내관광 사업군과 국제관광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정량분석의 틀은 거의 동일하다. 여기에서는 먼저 국제관광 지원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통계분석 방법을 설명한다. 이후 이 분석틀을 국내관광 사업군에 대한 성과 평가로 확장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국제관광 지원사업의 성과를 특정 연도에 한국을 방문한 각 국가의 방문객 수로 설정하자. 여기서 각 국가는 i 로 표시하고, $i = 1, 2, \dots, N$ 과 같이 i 는 1부터 N 까지의 정수 값을 취한다. 각 연도는 t 로 표시하고, $t = 1, 2, \dots, T$ 와 같이 t 는 1부터 T 까지의 정수 값을 취한다. 즉 우리가 다음 통계분석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총 T 개 연도에 대해 연도별로 총 N 개 국가의 국가별 방한 외래관광객 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별 패널자료이다. 우리는 국가 i 의 연도 t 현재 방한 외래관광객 수(또는 방한 외래관광객 수의 자연로그 값)를 Y_{it} 로 정의하고 통계모형의 종속변수(성과변수)로 사용한다.

이제 성과변수 Y_{it} 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수, 즉 처치변수를 정의하자. 국제관광 지원사업의 경우 우리는 연도 t 에 국가 i 에 대해 투입한 예산액(또는 예산액의 자연로그 값)을

처치변수 d_{it} 로 설정한다. 국제관광 지원사업이 적절한 성과를 발휘하고 있다면, 특정 연도에 특정 국가에 투입하는 예산액을 증가시키면 그로 인하여 이 국가의 방한 외래관광객 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해당 사업이 성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다면, 특정 연도에 특정 국가에 투입하는 예산액을 증가시키더라도 이 국가의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전혀 변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특정 연도에 특정 국가에 투입된 국제관광 지원사업 예산액 d_{it} 와 한국 방문 관광객 수 Y_{it} 를 통계모형을 통해 연결시킴으로써 투입 예산액이 실제로 방문객 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한다.

이론적으로 특정 연도 투입 예산액의 효과가 당해 연도에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즉 국제관광 지원사업은 단기에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경우 처치변수를 현재와 같이 특정 연도에 특정 국가에 투입한 예산액으로 한정하면 국제관광 지원사업의 진정한 장기적 효과를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성과가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서 처치변수로서 d_{it} 외에 $d_{i,t-1}$, $d_{i,t-2}$, $d_{i,t-3}$, $d_{i,t-4}$ 등을 추가하는 통계모형도 추정할 것이다.

〈표 III-10〉 분석 방법 예시: 연도별 예산 투입액

(단위: 억원)

연도	국가				
	1	2	3	4	5
1	0	0	0	0	0
2	0	0	0	0	0
3	0	20	0	0	0
4	0	20	0	0	0
5	0	20	30	0	0
6	0	20	30	0	0
7	0	20	30	40	0
8	0	20	30	40	0
9	0	20	0	50	50
10	0	20	0	50	60

자료: 저자 작성

〈표 III-10〉의 사례를 이용해 본 보고서에서 적용하는 성과평가 모형을 간략히 살펴보자. 〈표 III-10〉에는 총 5개($N=5$) 국가의 연도 1부터 10까지($T=10$)의 연도별 예산 투

입액이 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가 1의 경우에는 연도 1부터 10까지 연도별 예산 투입액이 모두 0이다. 즉 이 국가에는 국제관광 지원사업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 이 국가는 본 보고서의 통계분석에서 통제집단(비교군)을 형성한다. 국가 1의 방한 외래관광객 수의 연도별 추세는 본 지원사업과는 무관하게 변동하는 방한 외래관광객 수의 변동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BTS 등과 같은 한류 연예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방한 외래관광객 수가 증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한 외래관광객 수의 증가는 평가 대상 사업의 예산 투입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평가 대상 사업의 예산 투입액이 유발하는 순수한 방문객 수 증가 효과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국가 1과 같은 통제 국가들이 필요하다. 이런 통제집단 국가들이 통계분석 표본에 없다면, 전반적인 방한 외래관광객 수의 자연적인 추세 변동분과 본 사업의 예산 투입이 유발하는 방한 외래관광객 수 변동분(인과효과)을 구분할 수 없다.

국가 2의 경우에는 연도 1과 2의 연도별 예산 투입액이 0이고, 연도 3부터 10까지의 연도별 예산 투입액은 모두 20이다. 즉 국가 2는 본 사업의 예산이 투입되는 처치집단 국가로서, 예산 투입의 최초 시점은 연도 3이다. 만약 본 사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면, 우리는 연도 3부터 국가 2의 방한 외래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목격해야 할 것이다. 이런 현상이 데이터 분석으로부터 발견되지 않는 경우 우리는 본 사업의 예산 투입이 이 국가의 방한 외래관광객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 3의 경우에는 연도 1~4까지의 연도별 예산 투입액은 0이고, 연도 5~8까지의 연도별 예산 투입액은 모두 30이다. 그런데 연도 9과 10의 연도별 예산 투입액은 다시 0으로 하락한다. 국가 3도 본 사업의 예산액이 투입되는 처치집단 국가이다. 다만 예산 투입액이 연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만약 본 사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면, 우리는 연도 5~8까지의 기간 동안 국가 3의 방한 외래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목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도 8과 9에는 예산 투입액이 0으로 하락했으므로, 국가 3의 방한 외래관광객 수가 원래 수준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 국가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도별 방한 외래관광객 수의 이와 같은 변동 양상이 관측되지 않는 경우, 우리는 본 사업의 예산 투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가 4과 5의 연도별 예산 투입액 변동 양상에 대해서도 국가 3의 경우와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제관광 사업군의 성과를 방한 외래관광객 수를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성과변수로 외국인 직접투자액을 사용하더라도 평가 방법은 동일하다.

이제 위에서 사용한 추정 방법을 국내관광 사업군에 적용해 보자. 여기서 국제관광 사업군의 '국가'는 '시군구'로 대체되고, 성과변수로 활용했던 방한 외래관광객 수나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시군구 지역의 소득이나 취업자 수로 대체된다.

다.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방법

심층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공통 자료 및 세부 사업군별 자료로 구분된다. 공통 자료로는 기초지자체(시·군·구) 수준에서의 계획 예산 및 실행 예산(2000~2023년), 최근 3년간 사업계획서, 사업시행지침서(가이드라인 등), 세부 사업 및 내역 사업별 상세 개요 및 설명 자료, 만족도 조사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결과보고서 등), 연도별 예산요구서 등을 수집하여 평가에 활용한다. 세부 사업군별 평가를 위해 개별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표 III-11〉 심층평가를 위한 자료

구분	자료 내역
공통	1. 기초지자체(시·군·구) 단위의 계획예산 및 실행예산(2000~2023년)
	2. 최근 3년간 사업계획서, 사업시행지침서(가이드라인 등), 만족도 조사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결과보고서 등)
	3. 세부 사업 및 내역사업별 상세 개요 및 설명 자료
	4. 연도별 예산요구서
국제관광 사업군	정부부처 수준에서의 계획예산 및 실행예산(2000~2023년)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별 예산액(2000~2023년)
	가장 최근의 관광진흥계획(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문체부 내 국제관광과-관광수출전략추진단-관광기반과 간 협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내역사업 '관광기념품공모전개최 및 유통활성화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된 관광기념품공모전 수상작 리스트와 그중 유통까지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세부사업 및 내역 사업별 성과지표 및 평가결과(2020~2023년)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별 결산서(2020~2023년)	
국내관광 사업군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된 9개 완료사업에 대한 개별 최종평가보고서와 현재 추진 중인 3개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계획서
	현재 추진 중인 3개 세부사업 중 중간평가를 실시한 경우 중간평가보고서
	세부 단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 시 추정된 수요조사(수요 추정) 자료 및 기본계획자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완료된 9개 사업을 추진하며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었는지 해당 애로사항을 어떻게 반영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반영하였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내역사업별 사업대상지(시·군·구), 사업계획서상 사업시작연도 및 준공연도와 실제 사업시작연도 및 준공연도, 준공여부, 사업계획 및 실제 사업시작 일자가 상이하다면 이유, 매출액, 총 지출액, 방문객 수 및 상시고용자 수
	인천공항 내 국가유산청 부스의 존재 필요성 여부 설명 자료
	국립공원별 계획 예산 및 실행 예산(2000~2023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지자체 공모 시 활용한 지침(선정기준)과 사업수행 시 지자체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내역사업 '관광자원 개발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의 일환으로 2020~2023년까지 추진된 28개 과제에 대한 결과보고서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해양레저관광 거점, 마리나비즈 센터, 해양치유센터 등 건립지역 선정 시 선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섬별 차등지원을 위한 평가보고서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지자체 공모 시 활용한 지침(선정기준)과 사업수행 시 지자체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국내관광 기반 사업군	기초지자체(시·군·구) 수준에서 육성된 문화관광해설사 수
	내역 사업 '관광안내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1330 등 대화내용 분석 결과
	내역 사업 '근로자 휴가지원' 성과평가 시 활용한 원자료
	내역 사업 '근로자 휴가지원' 참여근로자 확정하는 기준이 명시된 지침 등 자료
	추제별 연도별 실행 예산(2000~2023년)

자료: 저자 작성

IV.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1.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가. 계획평가

가-1. 계획평가 방법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에 대한 계획평가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세부사업별 계획, 국가별 인바운드 관광전략, 예산 자료, 선행연구 등의 검토를 통해 수행하였다.

가-2. 계획평가 결과

문체부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부 사업마다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으로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이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반의 관광진흥을 포괄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의 최종 목표는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이며, 구체적으로 3개 세부 추진과제를 통해 2019년 1,750만명이었던 외국인 관광객 수를 2027년에는 3천만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과는 별도로 문체부는 3년 단위의 외래객 유치를 위한 인바운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국제관광, 방한동향 등 내·외부 환경 분석, 전략 이행실적 점검, 시장별·테마별 전략 체계도 도출 및 실행 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2028 인바운드 마케팅전략 수립’ 자료를 보면 관광시장에 대한 내·외부 환경 분석, 주요 경쟁국의 Post COVID-19 대응 관광정책 분석 등을 통해 타깃(target) 국가 및 시장별 인바운드 전략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유관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실무 차원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획은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 수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표 IV-1〉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및 2024-2028 인바운드 마케팅 전략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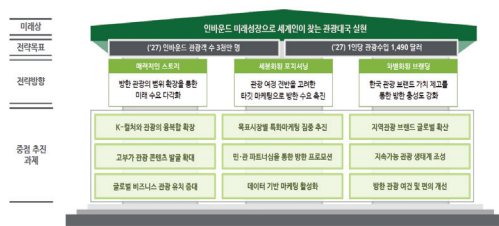
전략	세부 추진 과제	주요 추진 내용
세계인이 찾는 관광매력국가 실현	1. K-관광 매력의 대대적 확산으로 시장 다변화 2. 관광과 K-컬처의 독보적·매력적 융합 3.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리한 서비스 제공	- '한국방문의 해' 계기 관광 조기 회복 추진 - 인바운드 조속 복원 및 시장 다변화 - 미래세대 타깃 한국관광 브랜드 가치 확산
현장과 함께 만드는 관광산업 혁신	1. 규제 혁신을 통한 재도약 지원 2. 미래 관광산업 선도기반 구축 3. 고성장 융복합 시장으로 영역 확장	- 예술자원 활용 K-아트 관광콘텐츠 확대 - 청와대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 - 팬덤 경제 기반 K-콘텐츠 관광 모델화 - 개별화 되는 취향 맞춤형 테마관광 콘텐츠 발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국내관광	1. 국내여행 수요 촉진 2. 누구나 누리는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3.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안전 확립	- 한국 관광의 프리미엄화 - 외국인 관광객 출입국 편의 제고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 시대 구현	1. 체류형 관광모델 개발로 지역경제 활력 강화 2. 독창적 매력이 있는 지역 관광자원 개발 3.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확충	- 국제공항국제항 연계 한국관광 수요 복원 촉진 - 관광객 편의성 증진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 - 체감도 높은 안내 및 쇼핑 서비스 강화

(2024-2028 인바운드 마케팅 전략)

인바운드 마케팅 수립 2024-2028 인바운드 마케팅전략 체계(안)

대외 환경 및 트렌드 변화와 전략적 방향의 설정을 통해 수립된 '24-28 인바운드 마케팅 전략 체계'는 다음과 같다.

중장기 인바운드 마케팅 전략 체계(안)



인바운드 마케팅 수립 주요 고려사항 시장별 인바운드 전략 - [구미대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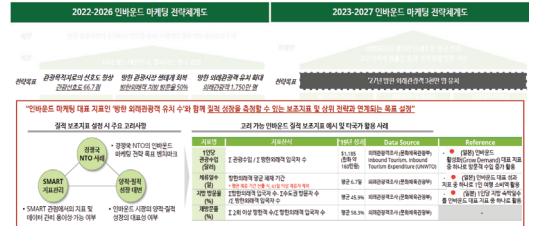
시장구분	시장유형	주요 국가	핵심 Target Persona	주요 MKT 목적	주요인식 Action Item
미국	K-콘텐츠 애호가 (한국 문화 애호가)	미국	K-Contents Enthusiast	K-Contents Enthusiast	· 미·중 시장 내 K-콘텐츠, K-pop, K-drama 관련 수요 증대 및 신규 시장 발굴 · 대한 한국인사 관광 관련 수요 증대 (대한 교포세대/연인/가족 등) 관광 및 여행 시장 · K-콘텐츠 애호가/문화 애호가/여행 애호가 등 주요 세그먼트/라이프스타일/취향/관심사/행동 패턴 분석
					· 여행 K-콘텐츠 관심사 확대 · K-콘텐츠 관련 SNS/블로그/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K-콘텐츠 관련 SNS/블로그/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구미 대양주	Group C (신용그룹)	미국	K-콘텐츠 애호가 (한국 문화 애호가)	K-Contents Enthusiast	· K-콘텐츠 관련 SNS/블로그/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K-콘텐츠 관련 SNS/블로그/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K-콘텐츠 관련 SNS/블로그/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K-콘텐츠 관련 SNS/블로그/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독일	Group B (신용그룹)	독일	K-콘텐츠 애호가 (한국 문화 애호가)	K-Contents Enthusiast	· K-콘텐츠 관련 SNS/블로그/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K-콘텐츠 관련 SNS/블로그/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K-콘텐츠 관련 SNS/블로그/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K-콘텐츠 관련 SNS/블로그/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6차 관광기본계획 :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2022; 한국관광공사, 「2024-2028 인바운드 마케팅 전략 수립, 2023d.

인바운드 마케팅 수립 주요 고려사항 2024-2028 인바운드 전략 보조지표 설정

전략 목표의 경우 데이터 기층 지능성, 공식 공정이 경영전략 연계성, 정부 목표 부합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측정주기 1년 단위로 측정하며, 세부실적 등을 실적 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24-28 인바운드 마케팅전략 핵심 별 수립 방향



인바운드 마케팅 수립 주요 고려사항 시장별 인바운드 전략 - [일본·아중동] 1/2

시장구분	시장유형	주요 국가	핵심 Target Persona	주요 MKT 목적	주요인식 Action Item
미국	K-콘텐츠 애호가 (한국 문화 애호가)	미국	K-Contents Enthusiast	K-Contents Enthusiast	· 방한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 충족률 증대 · 방한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 충족률 증대 · 방한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 충족률 증대
					· 방한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 충족률 증대 · 방한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 충족률 증대 · 방한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 충족률 증대
구미 대양주	Group C (신용그룹)	미국	K-콘텐츠 애호가 (한국 문화 애호가)	K-Contents Enthusiast	· 방한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 충족률 증대 · 방한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 충족률 증대 · 방한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 충족률 증대
					· 방한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 충족률 증대 · 방한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 충족률 증대 · 방한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 충족률 증대
독일	Group B (신용그룹)	독일	K-콘텐츠 애호가 (한국 문화 애호가)	K-Contents Enthusiast	· 방한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 충족률 증대 · 방한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 충족률 증대 · 방한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 충족률 증대
					· 방한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 충족률 증대 · 방한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 충족률 증대 · 방한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 충족률 증대

나. 과정평가

나-1. 과정평가 방법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에 대한 과정평가는 사업 추진 내용, 예산 자료,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여 유사 및 중복 사업의 조정, 성과 평가 체계화와 목표에 근접한 성과지표의 연계 강화를 지적한다.

나-2. 과정평가 결과

1) 주로 단기적 성과에 집중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대행사나 수탁받은 기관이 성과 평가 결과까지 자체적으로 제출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사업 수행 주체가 자신의 사업성과를 직접 평가하여 위탁기관인 문체부에 제출함으로써 사업의 성과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성과 평가 방식으로 인해 성과가 단기적 지표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성과지표가 단기적 성과를 강조하게 되면 사업의 장기적 효과나 실질적 성과보다는 단기 지표에 따라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국제관광 광고 및 홍보 사업군에서 주로 사용되는 성과지표는 사이트 방문자 수, SNS 팔로워 수, 앱 다운로드 수, 프로모션 횟수, 브랜드 인지도 등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광고의 노출도와 초기 관심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 광고가 관광객 유입 및 경제적 효과로 이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사이트 방문자 수와 SNS 팔로워 수는 단순히 관광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낼 뿐,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프로모션 횟수나 브랜드 개발 지표는 투입된 자원의 양만을 보여줄 뿐, 그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방문 의향이나 만족도를 측정하는 설문 조사 또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산 집행률과 같은 지표 역시 투입된 자금의 정도만 보여줄 뿐, 사업의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나 관광객 유입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현재 사용되는 지표들은 주로 단기적 산출물이나 투입의 양을 측정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광고가 실제로 관광객 유치와 경제적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목표에 근접한 성과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표는 세계관광기구의 국제관광 통계에 대한 지침에서도 제시될 만큼 중요한 지표이다. 주요 지표는 결국 국가별 관광객 수와, 보조적으로 지출액이 될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광고 지표인 방문 의향 전환율, 재방문 및 추천 의향, 브랜드 인지도 변화, 도달 및 참여의 질적 평가도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표가 관광객 행동 변화로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는 경영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광고의 본질적 역할과 그 효과 측정 방식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의 견해에 따르면 광고는 마케팅 믹스(4P) 중 프로모션에 해당하는 요소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알리고 구매 욕구를 자극하여 판매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광고가 단독으로 매출 증가를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의 경쟁 환경, 소비자 선호 변화, 거시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가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광고의 효과를 단순히 매출과 직접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광고의 핵심 목적은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체부는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 사업 또한 실질적인 관광객 수와 지출액 증가라는 경제적 효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관광 광고의 목적은 단순히 관광객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 관광'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관광 목적지로서의 매력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광고의 성과를 평가할 때 전통적인 매출 기반 지표보다는 관광 브랜드 인지도, 선호도, 추천 의향, 방한 결정 영향력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광고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광고의 성과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관광객 행동 변화까지 추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하지만, 익명성을 보장하는 설문조사의 특성상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문체부는 관광 광고의 효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기존의 평가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광고와 브랜드 구축, 그리고 매출 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현대 경영학과 마케팅에서의 주된 견해는 광고는 단순히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수단에 머무르지 않으며,

브랜드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광고에 투자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광고가 브랜드를 구축하고, 브랜드가 실제 매출로 연결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광고가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판매 증가를 유도하지 않을 수 있으나, 브랜드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장기적인 구매 행동을 형성하는 과정에 기여한다. 즉 브랜드의 구축이란 결국 매출 증가를 전제로 정당성을 가진다. 여기서 매출은 세계관광기구의 관광통계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된 성과로 방문객 수 혹은 관광지출액임은 자명하다.

2) 사업 만족도 조사 미흡 및 지자체 참여 저조

관광 관련 민간사업체가 직접 참여하는 사업에서는 참여기업의 만족도가 사업의 지속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홍보·마케팅 사업의 실제 만족도 조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관광 비수기에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서비스 등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2024년 1~2월 진행된 ‘코리아그랜드세일’ 사업에 1,653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코리아그랜드세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도 시행하였다. 그러나 설문에 참여한 기업은 약 10% 수준(173개)이고, 참가기업의 업종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실제 만족도를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민간사업체가 직접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참가기업에 대한 설문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의 참여도를 증대시킬 필요도 있다. 외래관광객유치 관광기반 조성 사업의 내역 사업인 ‘관광 편의성 제고’ 사업의 목적은 편리한 관광환경 기반(교통·쇼핑)을 구축하여 국내관광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2023년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의 사업계획서(변경)에 따르면 지자체 공모로 추진되는 사업을 총 3회 실시하였으나, 지자체 참여 저조로 인해 선정된 지자체 수가 2개에서 1개로 감소하였고, 사업에 선정된 1개 지자체(경북 영주시)도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높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 수가 많지 않아 쇼핑관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로 인해 결국 해당 사업은 ‘해외 잠재 방한객 유입 기반 조성’으로 대체되었다.

3)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련성이 낮은 사업 추진

외래관광객유치 관광기반 조성 사업의 내역 사업인 ‘관광 편의성 제고’에 포함된 관광 DRT 사업은 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관광교통 여건 개선을 통한 방한 외래 관광객 방문지역 다각화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수요응답형 교통)’는 농어촌 지역 등 대중교통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제공하는 교통 서비스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버스의 대량 수송과 택시의 우수한 접근성 등 장점 결합)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추진되어 사업 추진 목적과 관련성이 낮다. 대도시를 방문한 외국인 개별 관광객들은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다. 영향평가

다-1. 영향평가 개요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와 외국인 직접투자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적용한다. 이중차분법은 정책이 시행되기 전과 후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추정한다. 이중차분법을 적절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지역 고정효과와 시간(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해야 하는 이유는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은 시간이 흘러도 크게 변하지 않으며, 지역의 관광객 유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위치한 산이나 바다, 역사적 유적지는 지역 고유의 매력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정책 효과와 무관하게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 이와 같은 지역별 고유 특성이 통제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와 지역 특성에 따른 효과가 혼재되어 분석 결과에 편향이 생길 수 있다.

다음으로 시간 고정효과를 통제하는 이유는 특정 시점에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외부 충격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글로벌 경제 변동, 기술 혁신, 법률 개정 등은 모든 지역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전례 없는 사건은 전국적으로 방한 외래관광객 수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시간

적 충격을 통제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와 외부 요인이 뒤섞여 분석 결과가 왜곡될 위험이 높아진다. 시간 고정효과를 통제함으로써 특정 시기의 외부 충격의 영향을 제거하고, 정책 변수가 미친 순수한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

다-2. 영향평가 방법(식별전략)

앞서 설명한 사업군별 영향 평가 모형과 방법론을 기반으로 국제관광 사업군에 대한 영향평가 전략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총 N개 국가에 대한 총 T개 연도의 연도별 정보(즉 d_{it} , Y_{it} , 및 공변량 벡터 X_{it})를 보유한 패널 자료에 대해 우리는 다음의 통계모형을 추정한다.

$$Y_{it} = \beta_0 + \beta_1 d_{it} + \beta_2 X_{it} + \alpha_i + \tau_t + u_{it} \quad \text{식 (1)}$$

식 (1)의 종속변수 Y_{it} 는 i 국가에서 t 년도에 입국한 방한 외래관광객 수의 자연로그 값 또는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표준화 점수 값이다.¹⁾ 처치변수 d_{it} 는 국가별(i) 연도별(t) 국제관광 마케팅 집행 예산액의 자연로그 값이다. α_i 는 개체(국가) 고정효과로서, 본 사업의 예산 투입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방한 외래관광객 수의 국가별 차이를 포착한다. τ_t 는 시점(연도) 고정효과로서, 본 사업의 예산 투입과 무관하게 연도별로 모든 국가의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착한다. 예를 들어 한류의 전 세계적 인기로 따라 각국의 방한 외래관광객 수가 공통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연도 고정효과 τ_t 에 의해 포착된다.

식 (1)에서는 연도 고정효과를 τ_t 로 설정해 연도 고정효과가 모든 국가에 대해 동일한 크기라고 가정하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 세계 국가들의 평균 연도효과를 통해 각국 방문객 수의 연도효과가 적절히 포착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연도효과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서 동일하지 않고 한국과의 인접도 또는 친밀도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전에도 이미 아시아 지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한류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었다. 그에 따라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방한 외래관광객 수의 증가는 다른 대륙의 방문객 수 증가보다 훨씬 일찍부터 시작되었을 수 있다. 이는 모든 국가에 공통적인 연도 고정효과보다는 대륙별로 연도효과를 서로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1)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국가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0 이하의 값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경우에는 로그 변환 대신 표준화 점수를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감안해 전 세계 공통 연도 고정효과 τ_t 대신에 대륙별로 연도 고정효과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통계모형을 식 (2)와 같이 설정한다.

$$Y_{ijt} = \beta_0 + \beta_1 d_{ijt} + \beta_2 X_{ijt} + \alpha_i + \tau_{jt} + u_{ijt} \quad \text{식 (2)}$$

식 (2)에는 국가 i 가 속한 대륙을 표시하는 지표 j 가 추가되어 있다. 그에 따라 Y_{ijt} , d_{ijt} , X_{ijt} 는 대륙 j ($=1, 2, \dots, J$)에 속한 국가 i 의 연도 t 현재 성과변수, 처치변수, 공변량 벡터의 값을 각각 표시한다. 식 (2)에서의 연도 고정효과 τ_{jt} 는 대륙별로 연도 고정효과의 값이 서로 다를 가능성을 허용한다.²⁾

식 (1)과 (2)에서 공통적으로 본 사업 예산 투입액의 인과효과를 보여주는 모수는 β_1 이다. $\beta_1 = \frac{\Delta E(Y_{it})}{\Delta d_{it}}$ 으로 표시되므로, β_1 은 본 사업 예산 투입액 d_{it} 가 1단위 증가할 때 나타나는 $E(Y_{it})$ 의 변동분을 표시한다. $\beta_1 > 0$ 이 성립하면, 임의의 한 국가에 대한 본 사업의 예산 투입이 해당 국가의 당해 연도 한국인 관광객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beta_1 = 0$ 이 성립하면, 임의의 한 국가에 대한 본 사업의 예산 투입이 해당 국가의 한국인 관광객 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우리는 β_1 의 추정치 $\hat{\beta}_1$ 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함으로써 평가 대상 사업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판단한다.

한편 예산 투입의 효과가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해 우리는 식 (1)과 (2)에서 d_{ijt} 뿐만 아니라 $t-1$, $t-2$, $t-3$, $t-4$ 년도의 예산 투입액(d_{ijt-1} , d_{ijt-2} , d_{ijt-3} , 그리고 d_{ijt-4})을 설명변수로 추가한 모형을 추정한다. 즉 예산 투입액의 시간 지연 효과를 고려해 t , $t-1$, $t-2$, $t-3$, $t-4$ 년도 예산 각각이 외래관광객 수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다-3. 자료수집 및 기초통계량

본 연구는 통계 모형의 성과변수, 처치변수 그리고 공변량 변수들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이용한다. 먼저 식 (1)과 (2)의 처치변수(d)는 “각국(i)의 연도별(t) 국제관광 사업 예산 투입액(자연로그 값)”으로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3년간의 국가별

2) 식 (1)과 (2)의 통계모형은 보통 이원 고정효과 모형(two-way fixed effects model, TWFE)이라고 불린다. 현대 정책평가 경제학에서는 이 모형을 일반형 이중차분 모형(generalized difference-in-differences, DID)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아래에서 이들 두 개 용어를 혼용하며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및 연도별 정보를 구축하였다. 식 (1)과 (2)의 종속변수(y)는 국가별 방한 외래관광객 수(자연로그 값)로서, 2020년 기준 191개 국가들에 대해 방한 외래관광객 수의 연도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특정 연도에 어떤 국가의 방한 외래관광객 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변수의 값은 0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모든 표본 국가를 대상으로 식 (1)과 식 (2)를 추정한다. 이와 같이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을 진행한 이후, 출발국이 속한 대륙별 이질성을 고려한 대륙별(아시아, 유럽, 북중미)³⁾ 분석과 국가별 경제 규모를 고려한 소득 수준별(고소득 국가, 중상위소득국)⁴⁾ 분석을 추가로 진행한다.

1) 성과변수: 방한 외래관광객 수 및 외국인 직접투자액

본 연구에서는 국제관광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해 ‘국가별 방한 외래관광객 수’를 성과 지표로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2018년 4월부터 외국인 출입국 신고카드를 폐지하면서, 기존에 출입국 신고카드를 통해 수집되던 국가별 방한 외래관광객 수의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UNWTO Yearbook of Tourism Statistics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방한 외래관광객 수를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UN-WTO의 “Tourism Factbook”의 부속자료인 “Outbound tourism by country”, “Basic Indicators (Compendium)”, “Arrivals of non-resident visitors at national borders, by country”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방한 외래관광객들의 출발국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 연도에 각 국가로부터 한국에 입국한 관광객 수 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3) 국가는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대륙별로 분류하였다. 다만 몇몇 국가에 대해서는 정치적 및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사이프러스(CYP)는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속하나,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유럽으로 분류하였고, 튀르키예(TUR)는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있지만 통상적으로 유럽으로 분류된다. 아르메니아(ARM), 조지아(GEO), 카자흐스탄(KAZ)은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있으나, 정치적·경제적 협력체를 고려할 때 유럽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러시아(RUS) 역시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으나, 대부분의 기준에서 유럽으로 분류된다.

4) 세계은행(World Bank)의 1인당 국민소득(GNI) 기준 소득 그룹 분류에 따르면, 저소득국은 방한 외래관광객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1,136달러~1만 3,845달러 이하인 국가를 중위소득국(Middle-Income Countries)으로 묶어 분석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3,846달러 이상인 고소득국(High-Income Countries)을 별도로 구분하여, 고소득국과 중위소득국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현재 사용되는 소득 수준 분류는 2022년 GNI 데이터를 반영한 2023년 7월 1일자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표 IV-2〉 연도별 출발국가 수

연도	관측치	연도	관측치
2000	187	2010	191
2001	186	2011	191
2002	186	2012	191
2003	186	2013	191
2004	188	2014	191
2005	189	2015	191
2006	191	2016	191
2007	191	2017	191
2008	191	2018	191
2009	191	2019	191
2010	191	2020	191
2011	191		

주: 포함된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국가명은 ISO 3166-1 기준으로 정의된 국가 코드이다. ABW, AFG, AGO, ALB, ANT, ARE, ARG, ARM, ASM, ATG, AUS, AUT, AZE, BDI, BEL, BEN, BFA, BGD, BGR, BHR, BHS, BIH, BLR, BLZ, BMU, BOL, BRA, BRB, BRN, BTN, BWA, CAF, CAN, CHE, CHL, CHN, CIV, CMR, COG, COL, COM, CPV, CRI, CUB, CYP, CZE, DJI, DMA, DNK, DOM, DZA, ECU, EGY, ERI, ESP, EST, ETH, FIN, FJI, FRA, FRO, GAB, GBR, GEO, GER, GHA, GIN, GMB, GNB, GNQ, GRC, GRD, GRL, GTM, GUM, GUY, HKG, HND, HRV, HTI, HUN, IDN, IND, IRL, IRN, IRQ, ISL, ISR, ITA, JAM, JOR, JPN, KAZ, KEN, KGZ, KHM, KIR, KNA, KWT, LAO, LBN, LBR, LBY, LCA, LKA, LSO, LTU, LUX, LVA, MAC, MAR, MDA, MDG, MDV, MEX, MKD, MLI, MLT, MNG, MOZ, MRT, MUS, MWI, MYS, NAM, NCL, NER, NGA, NIC, NLD, NOR, NPL, NZL, OMN, PAK, PAN, PER, PHL, PLW, PNG, POL, PRK, PRT, PRY, QAT, ROM, RUS, RWA, SAU, SDN, SEN, SGP, SLB, SLE, SLV, SOM, SRB, STP, SUR, SVK, SVN, SWE, SWZ, SYC, SYR, TCD, TGO, THA, TJK, TKM, TON, TTO, TUN, TUR, TZA, UGA, UKR, URY, USA, UZB, VCT, VEN, VNM, VUT, WBG, WSM, YEM, ZAF, ZAR, ZMB, ZWE.

자료: 저자 작성

〈표 IV-2〉는 UN-WTO의 “Tourism Factbook”에서 방한 외래관광객 수가 확인되는 국가들의 수를 연도별로 제시한다. 〈표 IV-3〉은 위에서 설명한 과정을 통해 구축한 성과변수의 기술 통계량을 제시한다.

2000~2020년의 전체 기간 동안 국가별 연간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평균 4만 7,581.4명이고 표준편차는 32만 4,717.1명으로 나타난다. 최소값은 1명, 최대값은 806만 7,722명이며, 총 4,067개의 관측치가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의 평균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16만 457.4명으로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표준편차는 32만 4,717.1명이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방한 외래관광객이 전체 외래관광객의 절대 다수를 구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미주·대양주 지역의 평균 외래관광객 수는 3만 5,760.82명으로서, 아시아 평균의 1/5 정도에 불과하다. 유럽 지역의 경우 평균 외래관광객 수는 1만 2,254.73명으로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간별로는 2000~2010년 동안 방한 외래관광객 수가 평균 3만 3,070.02명으로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2010~2020년 기간에는 평균 외래관광객 수가 7만 2,467.8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표준편차는 46만 3,824.6명으로 변동성도 크게 확대되었다.

종합적으로 아시아 지역이 가장 많은 방한 외래관광객을 설명하면서도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미주·대양주와 유럽은 상대적으로 적은 외래관광객 수와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낸다. 또한 2010년 이후 방한 외래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변동성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IV-3〉 자료의 기술통계: 성과변수

구분	전 기간				2000~2010년	2010~2020년
	전체	아시아	미주·대양주	유럽		
방한외래객 (명)	47,581.44 (324717.1) [1, 8067722] 4,067	160,457.4 (324717.1) [1, 8067722] 975	35,760.82 (126993.4) [1, 1044038] 628	12,254.73 (24391.51) [4, 168051] 943	33,070.02 (202400.6) [1, 3053311] 2,569	72,467.84 (463824.6) [1, 8067722] 1,498
외국인 직접투자 (백만달러)	492.53 (3374.92) [-57.6, 57796] 4,067	783.33 (5174.69) [-42.7, 57796] 975	683.10 (4337.03) [-55.2, 35102] 628	760.58 (2783.98) [-57.6, 28446] 943	95.82 (1275.72) [-2.2, 32403] 2,569	1172.87 (5235.60) [-57.6, 57796] 1,498

주: 평균(SD), [최소, 최대], 관측치 순임.

자료: 저자 작성

국제관광 정책은 단순히 외래 관광객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것을 넘어서 국가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비즈니스나 상용 목적의 방문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 관광은 경제적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흐름을 강화하여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적 교류를 통해 형성된 신뢰와 경제적 환경에 대한 정보 접근성은 잠재적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관광 홍보정책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도구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한 외래관광객 수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액도 국제관광 지원사업의 중요한 성과변수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3〉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액(백만달러)의 기술통계량을 지역별 및 기간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0~2020년의 전체 기간 동안 한국으로 유입된 국가별 연간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평균은 492.53백만달러이며, 표준편차는 3,374.92백만달러이다.

아시아 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액 평균은 783.33백만달러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표준편차는 5,174.69백만달러로 나타나며, 이는 아시아에서 한국으로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대규모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최대값은 57,579.96백만달러에 이른다.

미주·대양주의 경우 평균 투자액은 683.10백만달러로, 아시아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표준편차는 4,337.03백만달러로 변동성이 크며, 최대 투자액은 35,102백만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미주·대양주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유럽 지역은 평균 투자액이 760.58백만달러로 아시아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일정한 수준의 투자 규모를 보인다. 표준편차는 2,783.98백만달러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최대 투자액은 28,446백만달러에 달한다. 이는 유럽에서의 투자 유입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고 안정적인 수준임을 의미한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2000~2010년 동안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평균은 95.82백만달러였고, 표준편차는 1,275.72백만달러로 변동성도 크지 않았다. 반면 2010~2020년에는 평균 투자액이 1,172.87백만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 표준편차도 5,235.60백만달러로 확대되었다. 이는 2010년 이후 한국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 변동성 증가는 특정 국가에서의 대규모 투자가 한국으로 유입된 상황을 반영한다.

종합적으로 아시아가 주요 투자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주·대양주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유럽은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 유입과 안정적인 변동성을 보인다. 2010년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급격한 증가와 변동성 확대는 한국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하며, 특히 아시아와 미주·대양주 지역에서의 대규모 투자가 한국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정책 처치변수: 국가별 국제관광 사업 예산 투입액

국제관광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각 국가(i)에 대해 투입된 연도별(t) 예산액의 자연로그 값을 처치변수 d_{it} 로 설정하였다.

처치변수 측정의 첫 번째 방식은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광고 및 마케팅 예산을 국가별로 구분해 집계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 광고비의 경우, 기획·제작 예산이 별도로 존재하고 광고 집행 예산 또한 중동·아프리카, 유럽 등 권역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별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실제로 문체부의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예산은 공통(전 세계), 중화권, 일본, 아중동, 구미주 등 권역별로만 집계된다. 한편 국가별 국제관광 사업 예산 투입액은 내역 사업이 국가별로 구분되지 않고 주로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지사에서 지원사업비로 지출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예산 투입액을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별 예산액으로 대리 측정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국가별 국제관광 사업 예산이 없는 경우, 해당 변수 값을 0으로 설정하였다.

〈표 IV-4〉는 이와 같이 구축된 처치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관광공사 해외 지사별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예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지역 및 연도별로 보여준다. 전체 기간 동안 각국 지사의 연간 총예산의 평균은 77.46백만원, 표준편차는 460.90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의 지사총예산은 평균 235.95백만원, 표준편차 869.77백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변동성도 가장 크다. 미주·대양주는 평균 80.70백만원, 표준편차 321.37백만원으로 아시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유럽은 평균 36.36백만원, 표준편차 169.04백만원으로 가장 낮은 예산과 변동성을 기록하였다.

〈표 IV-4〉 자료의 기술통계: 처치변수

구분	전 기간				2000-2010년	2010-2020년
	전체	아시아	미주·대양주	유럽		
지사 총예산 (백만원)	77.46 (460.90) [0, 6869.7] 4,067	235.95 (869.77) [0, 6869.7] 975	80.70 (321.37) [0, 2036] 628	36.36 (169.04) [0, 1082.5] 943	30.50 (234.07) [0, 4069] 2,569	157.99 (687.53) [0, 6869.7] 1,498
마케팅 예산 (백만원)	31.35 (214.29) [0, 3400] 4,067	104.30 (417.73) [0, 3400] 975	26.91 (110.50) [0, 786] 628	9.45 (45.37) [0, 340] 943	10.91 (100.44) [0, 2125] 2,569	66.41 (324.75) [0, 3400] 1,498

주: 평균(SD), [최소, 최대], 관측치 순임.

자료: 저자 작성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2010년 동안 지사 총예산의 평균은 30.50백만원, 표준편차는 234.07백만원이었으나, 2010~2020년에는 평균 157.99백만원, 표준편차 687.53백만원으로 예산과 변동성이 모두 증가하였다.

전체 기간 동안 마케팅 예산의 평균은 31.35백만원, 표준편차는 214.29백만원으로 나

타났다. 아시아 지역의 마케팅 예산은 평균 104.30백만원, 표준편차 417.73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변동성도 가장 높았다. 미주·대양주는 평균 26.91백만원, 표준편차 110.50백만원으로 아시아보다 낮은 수준이다. 유럽은 평균 9.45백만원, 표준편차 45.37백만원으로 가장 적은 예산과 변동성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00~2010년 동안 마케팅 예산의 평균이 10.91백만원, 표준편차는 100.44백만원이었으나, 2010~2020년에는 평균 66.41백만원, 표준편차 324.75백만원으로 예산 및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마케팅 예산이 지사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47%(마케팅 예산 평균 31.35백만원/지사 총예산 평균 77.46백만원)를 차지하며, 이는 지사 총예산의 상당 부분이 마케팅에 사용됨을 나타낸다. 아시아 지역의 마케팅 예산은 지사 총예산의 약 44.20%를 차지했고, 미주·대양주는 약 33.35%, 유럽은 약 26%를 차지하였다.

아시아 지역은 지사 총예산과 마케팅 예산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으며, 미주·대양주와 유럽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할당받았다. 특히 유럽은 지사 총예산과 마케팅 예산에서 가장 낮은 수준과 변동성을 보였다. 2010~2020년에는 두 예산 항목 모두에서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특히 마케팅 예산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표 IV-3〉과 〈표 IV-4〉를 통해 성과변수 방한 외래관광객 수와 지역별 처치변수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시아 지역은 16만 457.4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했으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지사 총예산(235.95백만원)과 마케팅 예산(104.30백만원)도 아시아 지역에 가장 많이 할당되었다. 이는 아시아가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따라 지사 운영과 마케팅 활동에 많은 자원이 투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예산 변동성 또한 커서 외래관광객 수 변화에 따른 예산 배분의 유동성을 시사한다.

미주·대양주는 3만 5,760.82명의 외래관광객을 기록했으며, 외래관광객 수가 아시아에 비해 적다. 이에 따라 지사 총예산(80.70백만원)과 마케팅 예산(26.91백만원)도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었다. 미주·대양주의 외래관광객 수는 아시아의 약 1/4 수준이므로, 예산도 이 규모에 맞춰 할당된 것으로 보인다. 변동성도 아시아보다 낮아 예산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은 1만 2,254.73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했으며, 외래관광객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지사 총예산(36.36백만원)과 마케팅 예산(9.45백만원)도 가장 적게 할당되

었다. 유럽 지역의 예산 변동성은 낮아 안정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라 지사 총예산과 마케팅 예산도 아시아 지역에 가장 많이 할당되었다. 이는 아시아가 방한 외래관광객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투입도 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미주·대양주와 유럽은 상대적으로 적은 외래관광객 수를 기록하였고, 예산도 이에 맞춰 책정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0~2020년 동안 방한 외래관광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방한 외래관광객 수의 증가와 맞물려 마케팅과 지사 운영 예산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4. 영향평가 결과

여기에서는 국제관광 사업군의 예산 투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와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별·소득별로 분석한다. 다양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분석 결과를 먼저 요약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상세한 분석을 제시한다.

본 소절의 분석 결과는 관광시장별로 광고 및 홍보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소득 국가와 중위소득 국가 사이에서 외래관광객 유치와 FDI 유입 효과의 차별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장기적 국제관광 광고비 배분에서 각 시장의 반응 양태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산 투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의 한계수익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즉각적인 외래관광객 유입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아시아 시장과 중위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광고비 증가가 바로 외래관광객 수 증가로 연결되는 특성을 보이므로, 추가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전체 예산의 성과를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반면 북중미와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광고비 증가가 외래 관광객 수 증가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는 현재 이들 시장에 대한 광고비 투입의 한계효과가 아시아 지역만큼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국제 관광 광고비 투입을 통해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와 FDI 촉진을 위해서는 시장 특성과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예산 투입 전략이 요구된다. 광고비의 한계효과가 높은 아시아 지역 및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을 늘려 나가고, 북중미 지역의 경우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각국마다 예산

투입의 효과성이 서로 다를 것이다. 예산 투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예산의 한계효과가 높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을 늘려 나가고, 예산의 한계 효과가 불분명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산 투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지역과 국가별로 한국 방문에 대한 관심도를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 한국어 강좌의 수강생 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이 국가에서 한국 방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국가들에 대한 광고비 예산 투입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동일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한국 방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 금액의 광고비 투자에 대한 한계수익률이 높은 국가와 지역 순으로 전체 예산액을 배분함으로써 전체 예산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하의 실증분석에서는 국제관광 사업군의 정책 투입이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대륙별, 소득 수준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 효과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전체, 대륙별, 소득 수준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정책 투입의 다각적인 효과를 평가할 것이다.

라.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 효과

1) 전체 분석

〈표 IV-5〉의 국제관광 사업군 정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미친 효과(전체)는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의 예산 투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추정 모형은 국가 고정효과 및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한 고정효과 모형으로 동일 국가 내에서 예산 변동이 외래관광객 수 변동에 미친 영향을 포착하고자 한다.

먼저 (1)열은 국가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해당 연도의 예산 투입이 당해 연도의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계수는 -0.000197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해당 연도의 예산 투입이 당해 연도의 외래관광객 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 관광마케팅의 효과는 누적되며 장기적인 시차를 두고 가시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Woodside and Lysonski, 1989; Ritchie and Ritchie, 2002; Dwyer et al., 2004; Song et al., 2012; Pike and Page, 2014)을 고려하면 이 결과를 바로 국제관광 사업군의 예산 투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미친 영향으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예산 투입의 효과가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나 가능성을 고려해 (2)열과 (3)열에서는 t 년도뿐 아니라 $t-1, t-2, t-3, t-4$ 년도의 예산 투입액을 설명변수로 추가한 모형을 추정한다. 다음에서 예산 투입액의 시간 지연 효과를 고려하는 (2)열과 (3)열의 추정치를 중심으로 국제관광 사업군 정책이 외래관광객 수에 미친 효과를 정리한다.

(2)열은 예산 투입의 시간 지연 효과를 고려한 모형이다. 국가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된 상태에서 t 년도뿐만 아니라 $t-1, t-2, t-3, t-4$ 년도의 예산 투입이 당해 연도의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 결과이다. (2)열에서 t 년도 로그 예산 투입액의 계수는 0.03705로 나타난다. 이는 t 년도 예산 투입액이 100% 증가할 때 t 년도 외래관광객수가 약 3.705% 증가함을 시사한다. 또는 예산 투입액이 10% 증가할 때 t 년도 외래관광객수가 약 0.3705% 증가함을 시사한다. 해당 추정치는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하에서는 보다 보수적인 해석을 위해 유의수준을 5%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추정치를 평가하고자 한다.

〈표 IV-5〉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정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미친 효과(전체)

구분	종속변수: (로그 방한 외래관광객 수)		
	(1)	(2)	(3)
변수	전체	전체	전체
로그 사업군 예산(t 년)	-0.00197 (-0.005765)	.03705 (1.716)	.03434 (1.624)
로그 사업군 예산($t-1$ 년)		.000265*** (6.003)	.000239*** (4.476)
로그 사업군 예산($t-2$ 년)		.000059 (1.458)	.000037 (.8529)
로그 사업군 예산($t-3$ 년)		.000108 (1.758)	.000133 (1.799)
로그 사업군 예산($t-4$ 년)		-.000059 (-.8925)	-.000054 (-.7682)
국가 FE	통제	통제	통제
연도 FE	통제	통제	통제
대륙별×연도 FE			통제
표본 수	1526	1115	1115
국가 수		112	
분석 기간	2005~2019		
평균(표준편차)	8.079(2.637)		

주: 1. ()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계산된 t -통계량이다.

2. * $p<0.05$, ** $p<0.01$, *** $p<0.001$

자료: 저자 작성

$t-1$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는 0.00026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여준다. 이는 1년 전의 예산 투입도 당해 연도의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영향의 크기는 (비록 통계적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크기의 변동을 보면) t 년도 예산 투입액 영향의 크기보다는 상당히 작다. $t-2$ 및 $t-3$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의 크기는 매우 작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 예산 투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3)열은 (2)열과 동일한 모형에 대륙별 연도 고정효과를 추가로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3)열에서 t 년도 로그 예산 투입액의 계수는 0.03434로 추정되었으나,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3)열 추정치의 크기는 (2)열 추정치의 크기와 대체로 유사하다. (3)열에서 $t-1$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는 0.000239이고, 여전히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인다. 이는 대륙별 연도 고정효과를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1년 전 예산 투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다른 해의 예산 투입에 대한 계수는 유의하지 않으며, 예산 투입의 영향이 당해 연도와 1년 전 투입액을 통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선행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2011)가 이 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대한 예산 투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해외 마케팅 예산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제관광 사업군의 예산 투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미치는 효과가 일정한 시간의 시차를 두고 지속되지만, 그 시차가 2년을 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 투입 효과를 평가할 때는 정책 효과 발현의 시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대륙별 분석

<표 IV-6>의 국제관광 사업군 정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미친 효과(대륙별)는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의 예산 투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미친 영향을 대륙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열과 (2)열은 아시아 국가들을, (3)열과 (4)열은 유럽 국가들을, 그리고 (5)열과 (6)열은 북중미 국가들을 분석 표본으로 하고 있다.

먼저 (1)열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로, 국가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 한 상태에서 해당 연도의 예산 투입이 당해 연도의 방한 아시아 외래관광객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투입의 효과가 여러 해에 걸쳐 누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열에서는 이러한 예산 투입의 시간 지연 효과를 반영한 모형을 제시하였다. 국가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t 년도뿐만 아니라 $t-1$, $t-2$, $t-3$, $t-4$ 년도의 예산 투입이 당해 연도의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다.

(2)열의 결과에 따르면, t 년도 로그 예산 투입액의 계수는 0.04187로서,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t-1$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는 0.000246으로 나타나 1년 전 예산 투입이 당해 연도의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또한 $t-2$ 와 $t-3$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는 매우 작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 예산 투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유럽과 북중미의 (3)열부터 (6)열의 결과를 통해 아시아와 비교할 수 있다. 유럽과 북중미 모두 해당 연도의 예산 투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미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4)열에 의하면, 유럽지역의 경우 t 년도 로그 예산 투입액의 계수는 0.04425로서, (2)열의 아시아 지역 추정치가 유사한 크기를 갖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예산 투입은 한국 방문 외래 관광객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아시아 지역의 경우와 유사하게, 예산투입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 예산 투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표 IV-6〉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정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미친 효과(대륙별)

구분	종속변수: (로그 방한 외래관광객 수)					
	(1)	(2)	(3)	(4)	(5)	(6)
변수	아시아	아시아	유럽	유럽	북중미	북중미
로그 사업군 예산(t 년)	-.04154 (-.8927)	.04187 (1.675)	.03782 (1.372)	.04425 (1.106)	-.8401*** (-4.529)	-.3282** (-3.062)
로그 사업군 예산($t-1$ 년)		.000246*** (4.354)		-.000655 (-2.017)		-.00041* (-2.09)
로그 사업군 예산($t-2$ 년)		.000044 (1.008)		.00029 (1.296)		-.000169 (-.5743)
로그 사업군 예산($t-3$ 년)		.000133 (1.706)		-.000352 (-1.071)		-.000124 (-.4144)
로그 사업군 예산($t-4$ 년)		-.000053 (-.7025)		.000298 (1.819)		-.001206*** (-5.018)
국가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표본 수	464	330	609	450	305	223
국가 수	36		43		22	

〈표 IV-6〉의 계속

구분	종속변수: (로그 방한 외래관광객 수)					
	(1)	(2)	(3)	(4)	(5)	(6)
변수	아시아	아시아	유럽	유럽	북중미	북중미
분석 기간	2005~2019		2005~2019		2005~2019	
평균(표준편차)	9.377(2.614)		8.382(1.856)		6.185(2.671)	

주: 1. ()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계산된 t -통계량이다.

2. * $p<0.05$, ** $p<0.01$, *** $p<0.001$

자료: 저자 작성

(6)열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중미 지역의 경우 t 년도 로그 예산 투입액의 계수는 -0.328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낸다. 이는 북중미 국가에서 초기 예산 투입에 대한 반응이 낮으며, 예산 투입이 외래관광객 수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음(-)의 효과는 (5)열과 (6)열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며, 북중미의 경우 예산 투입의 한계수익률이 낮은 상황을 반영한다. 아시아 및 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중미의 경우에도 예산투입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 예산 투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국제관광 사업군 예산 투입에 따른 방한 외래관광객 수의 반응이 아시아, 유럽, 북중미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특히 유럽과 북중미에서는 단기적 예산 투입이 당해 연도나 1년 이후의 외래관광객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북중미는 예산 투입의 한계수익률이 현재는 낮은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 전략을 설계할 때, 아시아 지역은 예산 투입의 긍정적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단기적 집중 전략이 적합할 수 있다.

3) 소득별 분석

〈표 IV-7〉은 소득 수준에 따라 고소득 국가(High-Income Countries)와 중위소득 국가(Middle-Income Countries)로 구분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의 예산 투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열과 (2)열은 고소득 국가에 대한 분석 결과이며, (3)열과 (4)열은 중위소득 국가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먼저 (1)열은 국가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해당 연도의 예산 투입

이 당해 연도의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계수는 -0.4107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고소득 국가에서 t 년도 예산 투입이 오히려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고소득 국가의 경우 (2)열에서 예산 투입의 시간 지연 효과를 고려했으나, 예산 투입이 외래관광객 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음(-)의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 예산 투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고소득 국가에서 예산 투입이 외래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낸다. 고소득 국가들이 주로 유럽과 북중미에 위치해 있음을 감안할 때 이상의 결과는 <표 IV-7>의 추정결과와 모순되지 않는다.

(3)열과 (4)열은 중위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다. (3)열에서는 국가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해당 연도의 예산 투입이 당해 연도의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미친 효과를 보여주며, 계수는 -0.05937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중위소득 국가의 경우 t 년도 예산 투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시사한다.

<표 IV-7>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정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미친 효과(소득별)

구분	종속변수: (로그 방한 외래관광객 수)			
	(1)	(2)	(3)	(4)
변수	고소득국	고소득국	중위 소득국	중위 소득국
로그 사업군 예산(t 년)	-0.4107* (-2.44)	-0.1011 (-0.7595)	-0.05937 (-1.526)	0.02522 (1.058)
로그 사업군 예산($t-1$ 년)		-0.00004 (-0.2674)		0.000212*** (5.526)
로그 사업군 예산($t-2$ 년)		-0.000348*** (-8.452)		0.000069* (2.243)
로그 사업군 예산($t-3$ 년)		-0.000079** (-2.692)		0.00007 (.9464)
로그 사업군 예산($t-4$ 년)		-0.00017* (-2.155)		0.000011 (.2804)
국가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표본 수	712	522	645	472
국가 수	51		47	
분석 기간	2005~2019		2005~2019	
평균(표준편차)	8.563(2.460)		7.827(2.844)	

주: 1. ()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계산된 t -통계량이다.

2. * $p<0.05$, ** $p<0.01$, *** $p<0.001$.

자료: 저자 작성

예산 투입의 누적된 장기적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4)열에서 t 년도뿐만 아니라 $t-1$, $t-2$, $t-3$, $t-4$ 년도의 예산 투입액을 설명변수로 추가한 모형을 추정하였다. (4)열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t-1$ 년도와 $t-2$ 년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관찰된다. 연도별 추정계수를 살펴보면 t 년도에 0.02522로 시작한 추정계수가 $t-1$ 년도에 0.000212, $t-2$ 년도에 0.000069, $t-3$ 년도에 0.00007, 그리고 $t-4$ 년도에 0.000011로 점차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예산 투입의 효과가 초기에는 비교적 크게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t 년도에서 $t-1$ 년도로 넘어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보이나, $t-3$ 년도와 $t-4$ 년도에서는 유의성이 크게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 투입이 초기에는 다소 강한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점차 약화되어 누적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예산 투입이 단기적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수 있다.

고소득 국가(High-Income Countries)와 중위소득 국가(Middle-Income Countries)는 국제관광 사업 예산 투입의 효과에 있어 상반된 경향을 보인다. 고소득 국가에서는 예산 투입이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며, 이는 예산 투입의 즉각적 효과가 긍정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반면 중위소득 국가에서는 1년 전 예산 투입이 외래관광객 수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 투입의 긍정적 효과가 누적되는 경향을 보인다.

마.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효과

국제관광객의 이동은 국가 간 인적 교류의 핵심 요소로, 단순한 관광을 넘어 비즈니스와 상용 목적을 포함한 다양한 방문 형태를 포함한다. 한국관광공사의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방한 외래관광객 중 상용 목적의 방문 비율은 10.4%로 나타났다. 이는 현지에서의 경제적 네트워크 형성과 정보 흐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간 경제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인적 교류가 증가할수록 해당 국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며, 잠재적 투자자에게 필요한 현지 정보와 네트워크를 제공하여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관광 사업군의 정량평가는 방한 외래관광객 수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연구들은 인적 교류와 FDI 간의 관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Head et al. (1995)은 일본 제조업의 미국 내 투자 결정을 분석하며, 특정 지역에 이미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새로운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투자자가 기존의 네트워크와 관계를 활용하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자 안정성을 높이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설명한다. 이와 유사하게 Gould(1994)는 이민자 네트워크가 미국과 모국 간의 무역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 결정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민자나 상용 관광객과 같은 인적 교류는 국가 간 정보 유통을 촉진하여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상호작용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함의를 제공한다. Javorcik(2004) 역시 정보 비대칭이 FDI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적 네트워크가 이를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인적 교류가 FDI 유입을 촉진하는 경로는 Portes and Yiu(2013) 및 Rauch and Trindade(2002)에서도 나타나며, 이들은 이민자 네트워크와 민족적 네트워크가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적 교류가 FDI를 촉진하는 중요한 경로임을 뒷받침한다.

국제관광과 FDI 간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룬 실증 연구들도 존재한다. Fourie and Santana-Gallego(2011)은 관광이 국제 무역과 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관광객 이동이 국가 간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FDI 유입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이 연구는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FDI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Blonigen(2005)는 다양한 FDI 결정 요인을 다룬 문헌을 검토하며, 인적 교류와 정보 유통이 FDI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관광을 통한 인적 이동이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며, 투자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ndo(2006)는 관광산업 내에서 FDI 유입을 분석하면서, 관광객과 투자 간의 상호 관계를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상용 관광객과 비즈니스 방문객이 해당 국가에 대한 신뢰와 경제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FDI 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제관광객 유치 정책이 단순히 관광산업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인적 교류를 통해 장기적으로 FDI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방한 관광객 유입을 장려하는 정책은 국가 간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투자 촉진의 경로로서 기능할 수 있다.

1) 전체 분석

〈표 IV-8〉은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의 예산 투입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1)열은 예산 투입의 즉각적 효과를 평가한 모형이며, (2)열과 (3)열은 예산 투입의 시간 지연 효과를 고려하여 t 년도뿐만 아니라 $t-1$, $t-2$, $t-3$, $t-4$ 년도의 예산 투입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다. (2)열에서는 국가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하였고, (3)열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대륙별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표 IV-8〉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정책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친 효과(전체)

구분	종속변수: (표준화된 외국인 직접투자액)		
	(1)	(2)	(3)
변수	전체	전체	전체
로그 사업군 예산(t 년)	.02852 (.8165)	.1377* (2.028)	.1578* (2.292)
로그 사업군 예산($t-1$ 년)		-.000313** (-3.23)	-.000296 (-1.869)
로그 사업군 예산($t-2$ 년)		-.000284** (-2.722)	-.000332** (-3.345)
로그 사업군 예산($t-3$ 년)		.00047 (1.649)	.000436 (1.308)
로그 사업군 예산($t-4$ 년)		.000744* (2.372)	.000933* (2.233)
국가 FE	통제	통제	통제
연도 FE	통제	통제	통제
대륙별×연도 FE			통제
표본 수	1814	1330	1330
국가 수		121	
분석 기간		2005~2019	
표본 평균(표준편차)		-1.19e-09(.8743)	
원 평균(표준편차)		44176.44(560665.7)	

주: 1. ()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계산된 t -통계량이다.

2.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저자 작성

먼저 (1)열에서 t 년도 예산 투입의 계수는 0.02852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예산 투입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2)열과

(3)열은 예산 투입의 지연 효과를 추가로 고려한 모형으로, 이하에서 이 두 모형을 중심으로 해석한다.

(2)열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t 년도 예산 투입의 계수는 0.1377로, 이는 정책 예산이 100% 증가할 때 외국인 직접투자가 약 0.1377 표준편차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 종속변수인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표준편차가 0.8743448임을 고려하면, 이는 약 0.12백만달러(0.1377×0.8743448) 정도의 증가에 해당한다. 반면 $t-1$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는 -0.000313으로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보이며, 1년 전 예산 투입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0.000313 표준편차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t-2$ 년도의 예산 투입 역시 유의미한 음(-)의 효과로, 예산이 100% 증가하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약 -0.000284 표준편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 년도의 계수는 유의하지 않지만, $t-4$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는 0.000744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이며, 이는 4년 전 예산 투입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0.000744 표준편차의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3)열은 (2)열과 동일한 모형에 대륙별 연도 고정효과를 추가로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로,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t 년도 예산 투입의 계수는 0.1578로, 이는 정책 예산이 100% 증가할 때 외국인 직접투자가 약 0.1578 표준편차 증가함을 의미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t-1$ 년도의 계수는 유의하지 않지만, $t-2$ 년도 예산 투입 계수는 -0.000332로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나타내며, 예산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0.000332 표준편차 감소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t-3$ 년도는 유의하지 않지만, $t-4$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는 0.000933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여, 4년 전 예산 투입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0.000933 표준편차의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2)열과 (3)열에서 $t-k$ 년도별로 예산 투입의 효과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먼저 예산이 투입된 이후 실제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산이 처음 투입된 t 년도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의 성과가 둔화되거나 초기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예산이 결실을 맺어 다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부 경제 상황과 정책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예산 투입 후 $t-1$ 년도 또는 $t-2$ 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나 특정 국가의 경제 불안정 등 외부 요인이 발생하면, 예산의 효과가 예상과 달리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안정적인 외부 환경이 조성될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 또한 예산 투입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초기 예산 투입 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나, 동일한 유형의 정책이 반복되면 투자자들이 점차 피로감을 느끼거나 기대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해 초기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정적인 반응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효과의 한계와 장기적 성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이 한계에 도달하면 중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예산 투입의 누적 효과가 성과로 이어져 다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가능성도 존재한다.

종합적으로 국제관광 사업군의 예산 투입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미하게나마 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 투입이 초기에는 투자 유입을 촉진할 수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점차 약화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제관광 사업군의 예산이 외국인 직접투자를 중장기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성과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전략적 예산 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

2) 대륙별 분석

〈표 IV-9〉는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정책의 예산 투입이 아시아, 유럽, 북중미 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친 누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1)열과 (3)열, (5)열은 각 지역의 해당 연도 예산 투입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친 단기적 영향을 보여주며, (2)열, (4)열, (6)열은 시간에 따른 누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t 년도뿐만 아니라 과거 4년간의 예산 투입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시차 효과를 평가하였다.

먼저 아시아 지역의 누적 효과를 보여주는 (2)열에서는 t 년도 예산 투입이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며, 예산 투입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단기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t-1$ 년도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t-2$ 년도의 예산 투입은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보였다. 이는 2년 전 예산 투입이 현재 연도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t-4$ 년 전 예산 투입이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누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예산 투입이 초기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다가, 중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며, 장기적으로 다시 긍정적인 성과를 발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럽 지역의 누적 효과를 분석한 (4)열에서는 t 년도부터 $t-4$ 년까지의 모든 시차 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유럽 지역에서는 예산 투입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유의미한 누적 효과를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북중미 지역의 경우, 누적 효과를 분석한 (6)열에서 t 년도 예산 투입은 유의미하지 않지만, $t-4$ 년도의 예산 투입이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4년 전의 예산 투입이 현재 연도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북중미 지역에서 예산 투입이 초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누적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9〉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정책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친 효과(대륙별)

구분	종속변수: (표준화된 외국인 직접투자액)					
	(1)	(2)	(3)	(4)	(5)	(6)
변수	아시아	아시아	유럽	유럽	북중미	북중미
로그 사업군 예산(t 년)	.03497 (.8446)	0.171* (1.965)	-.005893 (-.1633)	.09391 (1.028)	1.544* (2.314)	0.1767 (.3257)
로그 사업군 예산($t-1$ 년)		-.000318 (-1.994)		.001645 (1.714)		-.000373 (-1.592)
로그 사업군 예산($t-2$ 년)		-.000317** (-3.196)		-.001496 (-1.212)		.000495 (1.359)
로그 사업군 예산($t-3$ 년)		.000408 (1.147)		-.000692 (-.4344)		-.000421 (-1.478)
로그 사업군 예산($t-4$ 년)		.000982* (2.275)		-.00047 (-.465)		-.001761** (-3.459)
국가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표본 수	585	429	689	505	375	275
국가 수	39		46		25	
분석 기간	2005~2019		2005~2019		2005~2019	
표본 평균(표준편차)	-3.37e-09(0.928)		5.74e-10(0.902)		-2.74e-09(0.773)	
원 평균(표준편차)	1242.05(6180.769)		114684.1(905693.7)		983.778(5281.517)	

주: 1. ()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계산된 t -통계량이다.

2.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저자 작성

종합적으로 아시아, 유럽, 북중미 지역의 예산 투입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 반응은 지역별로 상이한 누적 효과를 보인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적 효과가 유지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유럽 지역에서는 예산 투입의 누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북중미 지역에서는 $t-4$ 년의 예산 투입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누적 효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 투입 전략을 단기와 장기 효과를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3) 소득별 분석

〈표 IV-10〉의 (1)열부터 (4)열까지의 분석 결과를 보면, 중위소득 국가에서 예산 투입의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 방향으로 변화하는 체계적인 패턴이 나타난다.

고소득 국가의 경우, (1)열에서 t 년도 예산 투입의 계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나 외국인 직접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2)열에서는 시간 지연 효과를 반영하여 t 년도부터 $t-4$ 년도까지의 예산 투입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친 누적 효과를 평가한 결과, 개별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초기의 긍정적 효과가 중기($t-1$ 년)에 음(-)의 효과로 전환되는 ‘양상’이 관찰된다. 이는 1년 전 예산 투입이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면 다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 효과로 반복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패턴은 예산 투입이 단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보이다가 중기에는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며, 장기적으로 다시 긍정적 영향을 회복하는 ‘U자형’의 누적 효과를 시사한다.

〈표 IV-10〉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정책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친 효과(소득별)

구분	종속변수: (표준화된 외국인 직접투자액)			
	(1)	(2)	(3)	(4)
변수	고소득	고소득	중위 소득	중위 소득
로그 사업군 예산(t 년)	.5034* (2.578)	.2531 (1.171)	.0524 (1.233)	.152* (2.204)
로그 사업군 예산($t-1$ 년)		-.000288 (-.675)		-.000456*** (-3.85)
로그 사업군 예산($t-2$ 년)		.000302 (1.711)		-.000291* (-2.615)
로그 사업군 예산($t-3$ 년)		.00029 (1.376)		.000166 (.5151)

〈표 IV-10〉의 계속

변수	종속변수: (표준화된 외국인 직접투자액)			
	(1) 고소득	(2) 고소득	(3) 중위 소득	(4) 중위 소득
로그 사업군 예산($t-4$ 년)		-0.00235 (-.9847)		.001159** (2.804)
국가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표본 수	855	627	704	516
국가 수	57		47	
분석 기간	2005~2019		2005~2019	
표본 평균(표준편차)	2.45e-09(0.905)		-2.02e-09(.858)	
원 평균(표준편차)	93629(814069.7)		115.5231(645.438)	

주: 1. ()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계산된 t -통계량이다.

2. * $p < 0.05$, ** $p < 0.01$, *** $p < 0.001$

자료: 저자 작성

중위 소득국가의 경우 (3)열에서 t 년도 예산 투입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시간 지연 효과를 반영한 (4)열에서는 t 년도와 $t-4$ 년도의 예산 투입이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이며 외국인 직접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 $t-1$ 년도와 $t-2$ 년도의 예산 투입은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보여, 중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위 소득국가에서도 예산 투입이 초기와 장기에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지만, 중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고소득 국가와 중위소득 국가 모두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패턴은, 예산 투입이 초기에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중기에는 일정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예산 집행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 투입 효과가 감소하거나 초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반영할 수 있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예산 투입이 다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어, 예산 집행의 누적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패턴을 바탕으로, 고소득 국가와 중위소득 국가에 대한 예산 투입 전략은 단기 성과와 중장기 성과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기적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 집행 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2. 광역권 개발 사업군

가. 계획평가

가-1. 계획평가 방법

광역권 개발 사업군에 대한 계획평가를 통하여 관련 문제점과 원인 및 (발생 및 발생이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를 제시한다. 구체적인 계획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성과 목표 설정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각 광역권 개발 사업에 설정된 성과 목표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하며, 사업 전체 목표와 세부 성과 목표 간의 일관성 여부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사업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여부 확인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한다. 광역권 개발 사업의 세부 내역별로 기본계획서나 사업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사업의 기초적인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한다. 특히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은 계획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립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추가 평가를 수행한다.

셋째, 수립된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한다. 즉 기본계획이 수립된 사업들에 대해 계획이 실제로 구체적인 목표를 갖추고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예산 확보 가능성, 인·허가와 같은 행정 절차의 사전 대비, 부지 확보 여부와 사업 대상지 변경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계획의 현실성과 실행력을 확인한다.

넷째, 사업 자연 요인의 사전 관리 가능성 및 불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예상되는 자연 요인들을 사전에 관리 가능한 요소와 불가항력적 요소로 나누어 평가한다. 부지 확보 지연이나 인허가 문제, 조례 개정 등은 지방정부의 사전 조정과 협의를 통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전 관리 가능 요소로 분류하며, 건설 자재 수급 문제나 자연재해와 같은 외부 요인은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로 판단하여 관리 불가능한 요소로 분류한다.

다섯째, 성과 관리 체계의 구축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이 수행되는 동안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체계가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사업 수행 중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이러한 성과 관리 체계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조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가-2. 계획평가 결과

1) 동일 지역에 유사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

2000년부터 현재까지 문체부가 추진한 12개 광역권 개발 사업의 대상지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광역시에서 전남 목포시에 이르는 해안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는 남해안 지역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이 가장 먼저 추진되었으며,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내 23개 시·군 및 6개 구·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후에도 동일 지역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24년부터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에서도 다시 동일 지역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동일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과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 사업을 들 수 있다. 경북 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부터, 해당 사업 대상지를 포함한 대구광역시 및 경북 전역을 대상으로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되었다. 특히 해안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2개 광역권 개발 사업 중 4개 이상의 사업에 포함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동일 지역에서 3개 이상의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4개): 3개 남해안 및 동해안 사업
- ② 경남 하동군(4개): 3개 남해안 및 지리산권 사업
- ③ 전남 목포시 및 신안군(4개): 3개 남해안 및 서해안 사업
- ④ 그 외 남해안 관광벨트 추진 지역 전체(3개): 3개 남해안 사업
- ⑤ 경북 문경시, 영주시, 상주시, 예천군, 봉화군(3개):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사업, 3대 문화권 사업, 중부내륙권 사업
- ⑥ 경북 울진군 및 영덕군(3개):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사업, 3대 문화권 사업, 동해안 사업

〈표 IV-11〉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대상지

순번	구분	사업 기간	사업 대상지
1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2000~2009년	-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하구, 영도구, 동구, 강서구, 해운대구 -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진해시, 마산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2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2010~2017년	-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영암군, 신안군
3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2024~2023년	- 부산광역시(전체),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진해시, 마산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밀양시, 양산시, 거창군, 합천군, 창녕군, 함양군, 산청군 -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영암군, 신안군, 나주시, 함평군, 영광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화순군, 무안군
4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2000~2010년	- 경상북도: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5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	2010~2021년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군위군, 칠곡군, 울릉군
6	지리산권 관광개발	2008~2017년	- 전라북도: 남원시, 장수군 - 전라남도: 곡성군, 구례군 - 경상남도: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7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2008~2017년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 충청남도: 아산시, 서산시, 보령시, 당진군, 태안군, 홍성군, 서천군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 전라남도: 목포시,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신안군
8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2009~2018년	- 부산광역시(기장군), 울산광역시(북구,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 강원도: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9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013~2022년	-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보은군, 괴산군 - 강원도: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 경상북도: 문경시, 영주시, 상주시, 예천군, 봉화군
10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2013~2022년	- 강원도: 고성군,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
11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017~2026년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12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2019~2028년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자료: 저자 작성

이처럼 광역권 개발 사업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테마와 내용 역시 중복되거나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광역권 개발 사업에서 정의하는 ‘광역 관광권’의 개념과도 연관된다. 문화체육관광부(2017)에 따르면 광역 관광권은 인접한 2개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존재하며, 해당 지역이 공통적으로 자연·문화·역사자원 등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어 연계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다수의 광역권 개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해당 지역의 자연·문화·역사 자원을 기반으로 한 유사 사업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경북 지역에서 추진된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과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 사업은 공통적으로 유교를 핵심 테마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전남 보성군, 영광군, 강진군, 경남 고성군 등에서도 공통, 선셋, 섬 등을 테마로 한 다수의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이 진행된 바 있으며, 여기에 더해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사업과 같은 기타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된 사례가 확인된다.

〈표 IV-12〉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의 주요 테마

주요 테마	구분
해안(지역) 중심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유교(테마) 중심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3대 문화권(유교·신라·가야)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자료: 저자 작성

〈표 IV-13〉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의 유사 사업 추진 사례

구분	대상 사업	위치
공통 관련 테마	- 고성 백악기 공룡테마파크(남해안 관광벨트) -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전남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
	- 비봉 우항리 공룡화석지 자연학습장(남해안 관광벨트) - 비봉 공룡공원 조성(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경관(선셋) 테마	- 백수해안도로 경관 자원화 조성사업(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 백수 노을광장 사업(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 - 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전남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섬 테마	- 가우도 향기의 섬 가꾸기(남해안 관광클러스터) -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사업(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 가우도 빛의 숲 관광갤러리 조성(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전남 강진군 가우도 일대

자료: 저자 작성

2) 사업별 성과지표가 상이하여 사업 간 성과 비교가 어려움

광역권 개발 사업군은 대규모 사업비와 장기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된다(문체부에서 추진하는 광역권 개발 사업은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으로 불리지만 광역권 개발 사업으로 통일). 광역권 개발 사업은 대부분 10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다수의 내역 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사업이 확정되면 중요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계획 수립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

〈표 IV-14〉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현황

순번	구분	계획수립	사업 기간	사업비 집행기간	국비 기준
1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1999	2000~2009년(10년)	-	완료
2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2000	2000~2010년(11년)	2000~2011년(12년)	완료(1년 추가)
3	지리산권 관광개발	2006	2008~2017년(10년)	2008~2019년(12년)	완료(2년 추가)
4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2006	2008~2017년(10년)	2008~2019년(12년)	완료(2년 추가)
5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2006	2009~2018년(10년)	2009~2019년(11년)	완료(1년 추가)
6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2009	2010~2017년(8년)	2010~2019년(10년)	완료(2년 추가)
7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	2010	2010~2021년(12년)	2010~2022년(13년)	완료(1년 추가)
8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010	2013~2022년(10년)	2013~2022년(10년)	완료
9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2011	2013~2022년(10년)	2013~2022년(10년)	완료
10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015	2017~2026년(10년)	추진 중	심층평가 대상
11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2016	2019~2028년(10년)	추진 중	심층평가 대상
12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2023	2024~2033년(10년)	추진 중	심층평가 대상

자료: 저자 작성

광역권 개발 사업은 대부분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해당 광역권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물론 사업 추진 목표 및 방법, 세부 내역 사업 등이 제시된다. 광역권 개발 사업은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도 높고 장기간 동안 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이 중에서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의 종합적인 추진 방향이자 사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성과지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초기 광역권 개발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으나, 현재 심층평가 대상인 3개 광역권 개발 사업은 초기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이 추진된 지 약 15~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성과지표(관광발전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만 그 수준에서는 차이가 나타나는데 ① 단일 지표(관광

객)를 제시한 경우 ② 다수의 지표(관광객 및 관광수입)를 제시한 경우 ③ 항목별 지표(관광객 수 및 만족도, 일자리 등)를 제시한 경우로 구분된다. 이러한 차이는 사업 간 성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게 하므로 광역권 개발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성과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IV-15〉 광역권 개발 사업군의 성과지표 설정 현황

구분	기본 계획 수립 여부	관광발전 지표				
		구분	주요 성과지표	기준 (현행)	목표 (2033)	비고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 (2023)	지역관광의 경쟁력 강화	① 숙박여행일수	2.33일	6.08일	• 남부권 여행일수(1인1회): 남부권 여행일수 추세값 + 목표값
			② 관광객 방문 만족도	3.31점	4.50점	• 남부권 기존 관광개발사업 만족도 (2020, 5점 만점)
			③ 관광객 소비액 증가율	-%	10.0%	• 관광(내국인) 신용카드 지출 증가율 (전국 0.7%)
			④ 관광목적지 선택 추이	-%	20.0%	• 지역관광목적지 검색건수 증가율 (전국 19.0%)
		광역관광권별 균형발전	⑤ (관광)생활인구의 유입율	100.0%	130.0%	• 상주인구수 대비 생활인구수 비중 (전국 100~150%)
			⑥ 시도 간 관광객 격차율	20.7	15.0	• 시군(40개) 방문인구수 대비 격차율 (부산 22.1 vs 완도 1.4)
			⑦ 지역민 관광행복 수준	-점	4.30점	•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지역주민 만족도 (5점/100점 환산 86점)
		지속가능한 관광의 관리	⑧ 유희공간 관광전환 면적	0km ²	10km ²	• 관광지 평균 지정면적 0.2m ² (50개소)
			⑨ 지역관광 일자리 증가율	-%	6.0%	• 공공부문 일자리 평균 증가율 (2020, 6.3%)
			⑩ 지역-관광(벤처)기업 연계 수	0개	30개	• 관광벤처기업수 145개(2021)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 (2015)	○ 내국인 관광객 수요 - 내국인 관광수요는 2015년 30,468천일에서 2025년 50,695천일로 연평균 5.2% 증가: 충남 서부내륙권 수요는 2015년 12,963천일에서 2025년 20,663천일, 전북 서부내륙권 수요는 2015년 17,515천일에서 2025년 30,031천일로 연평균 4.8%, 5.5% 증가				
		○ 외국인 관광객 수요 - 외국인 관광수요는 2015년 194천일에서 2025년 519천일로 연평균 10.4% 증가: 충남 서부 내륙권 외국인 관광수요는 2015년 125천일에서 2025년 336천일, 전북 서부 내륙권은 2015년 69천일에서 2025년 183천일로 연평균 10.5%, 10.3% 증가				
충청유교 문화권 광역관광 개발	○ (201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안)」, 2016; 문화체육관광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연구」, 2023c;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2023d.

3) 하드웨어 시설 조성에 사업비 및 사업 내용 집중

2000년부터 추진한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은 현재까지 9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3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완료 사업 중 초기 사업들은 2000년 초에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당시에는 사업 목표에 ‘기반 조성’이라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남해안 관광벨트 5대 개발 목적 중 하나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동시에 새로운 해양지향적 국토개발 축의 형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다양한 광역권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반조성 형태의 사업보다는 연계협력을 위한 사업으로 목적이 변화되었다. 2010년 이후 계획이 수립된 3개 사업(심층평가 대상)의 목표를 살펴보면, 연계·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전략적인 관광개발사업을 통하여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의 연계협력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표 IV-16〉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군의 사업 목적

구분	사업 목적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과 지역’, ‘문화와 기술’,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하루 더 머무는 여행 목적지 육성 - 남도문화 예술관광지대 구축(남서권) -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형성(남중권) - 해양문화 휴양관광지대 조성(남서권)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미래지향적 관광비전 제시 • 지역 관광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관광개발사업 제시 • 광역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연계·협력형 관광개발체계 제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대표 문화 관광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관광비전 제시 • 유교문화관광을 통해 충청권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적 관광개발사업 제시 • 광역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연계 협력형 관광개발체계 제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안)」, 2016; 문화체육관광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연구」, 2023c;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2023d.

그러나 사업비 및 내역사업 수를 비교해 보면, 연계·협력보다는 여전히 시설 조성 등 관광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3개 사업에서 관광개발 사업비 비중은 90%에 이르는데, 이는 초기 광역권 관광개발사업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광역권 개발 사업의 단위 사업명 및 사업대상지를 검토하면 사업명이 대부분 마을, 공원, 센터, ~관처럼 시설 조성을 위한 공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 사업들은 수익성이 좋지 않아 지방비가 지속 투입되고, 언론에서 예산 낭비 사례로 거론되는 등 지역 차원에서 부담이 되고 있다.

〈표 IV-17〉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군의 관광개발 사업 수 및 사업비 비율

(단위: 억원, %)

구분	사업 수					사업비				
	관광개발	비율	관광진흥	비율	계	관광개발	비율	관광진흥	비율	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109	76.8	33	23.2	142	27,368	91.0	2,696	9.0	30,064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9	72.5	11	27.5	40	5,455	88.5	712	11.5	6,167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34	72.3	13	27.7	47	7,151	90.0	796	10.0	7,947
합계 및 평균	172	75.1	57	24.9	229	39,974	90.5	4,204	9.5	44,178

주: 관광개발사업은 자본사업(시설 조성 등)을 의미하며, 관광진흥사업은 경상사업(홍보 및 이벤트 등)을 의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표 IV-18〉 광역권 개발 사업군의 내역 사업 현황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추진 지자체	사업명	추진 지자체	사업명
세종시	김종서 호국충절공원	대전 중구	효(孝)문화부리마을(거점)
충남 천안	대한독립만세길	대전 동구	이사동 유교전통 의례관
충남 공주	백제문화이음길	대전 대덕구	회덕유생고을
충남 논산	논산 근대역사문화촌(거점)	세종시	금강누정문화복합센터(거점)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금강누정선유길
	호국문화체험단지	충북 청주	사주당 태교랜드(거점)
충남 부여	백제역사 너울옛길	충북 괴산	문화산수구곡관광길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입신양명과거길
			명승문화마을
충남 청양	매운고추체험나라	충북 단양	문화산수구곡관광길
		충북 제천	문화산수구곡관광길
충남 예산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거점)	충북 제천	의병 창의마을
	덕산온천 휴양마을		문화산수구곡관광길
충남 금산	부리깊은 인삼체험마을		충북 옥천
		충북 옥천	옥야동천 유토피아
전북 전주	음식관광 창조타운(거점)	충북 영동	월류예술마을
	한옥마을 관광기반 정비		입신양명과거길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충북 증평	권선징악 돛가비 이야기마을

〈표 IV-18〉의 계속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추진 지자체	사업명	추진 지자체	사업명
전북 익산	익산 미륵사지 관광지	충북 진천	송강문화창조마을 초평책마을
		충북 음성	자린고비 청빈마을
		충남 논산	대동누리청년군자마당(거점)
		충남 홍성	홍주 천년양반마을(거점)
전북 정읍	대장금 테마파크	충남 예산	추사 서예창의마을(거점)
전북 남원	옛다솜 이야기원(거점)		
전북 완주	삼례삼색(三色)마을(거점)	충남 천안	암행어사 출두야 담헌천문달빛마당
	상관 편백모험의 숲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마을	충남 공주	충청감영생생마을 금강누정선유길
전북 진안	부귀산 별빛고원	충남 보령	토정비결 체험관
전북 무주	무주 생태모험공원	충남 아산	백의중군로 통곡의 집 외암마을 인문학서당
	무주 태권도마을		
전북 장수	장수천천(天川)에 놀라온	충남 서산	밤하늘 산책원
		충남 계룡	사계문화체험관
		충남 당진	여민동락역사누리
전북 임실	필봉풍물 민속마을	충남 금산	한의학령마을
	태조 희망의 숲	충남 서천	문헌사색원
전북 순창	섬진강 문화예술 다남길	충남 청양	선비총의문화관
	참살이 발효마을	충남 태안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충남 부여	금강누정선유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4)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고려한 사업지 선정 필요

광역권 개발사업은 가급적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위주로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표 IV-18〉을 보면 실제로는 각 지자체별로 비교적 균등(1~3개)하게 관광개발 사업이 배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 대상지가 선정될 경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및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지역을 연계하는 특정 테마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 기본계획 수립 여부, 대상지 매입 진행, 재정심사, 타당성 조사 등 사업의 사전절차에 대한 지자체별 이행 수준이

유사해야 지자체별로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종료되어 해당 시설들을 연계하는 코스 개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전절차 미비로 특정 지자체가 사업을 제때 완공하지 못하게 되면 전체적인 테마 코스 구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해당 사업의 최종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되어야 조성된 공간을 활용하는 연계·협력 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권 개발 사업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과정평가

나-1. 과정평가 방법

과정평가 방법은 사업이 계획에서 실행, 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목표 달성과 실행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단계별 절차를 포함한다(단 남부권 사업의 경우 2023년 7월 계획이 수립되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과정평가에서는 제외함).

첫째, 사업 지연 요인을 분석하고 관리 가능성을 평가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지연 요인을 사전에 관리 가능한 요소와 불가항력적 요소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와의 조정이 필요한 인허가 문제나 부지 확보 지연과 같은 요소는 사전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자연재해나 자재 수급 문제와 같은 외부적 요인은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사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예상되는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둘째,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한 성과 목표와 성과 관리 체계를 파악하여 각 사업의 성과 목표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수립되었는지, 사업의 전체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사업 실행 과정에서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성과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러한 성과 관리 체계는 사업의 중간성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포함하여 사업 목표 달성을 돕는다.

셋째, 성과와 목표 간 연계성을 평가하고 사후 지속 가능성을 검토한다. 성과 지표가 단순히 투입량이나 활동 빈도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최종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한다. 자립 운영 가능성 등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한지를 평가하여 사업의 장기적 효과성을 검토한다.

나-2. 과정평가 결과

1) 예산 집행률 저조

〈표 IV-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광역권 개발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3개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70.1%이며, 이는 기존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평가에서도 꾸준히 지적되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표 IV-19〉 광역권 개발 사업군의 집행률(2023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B/A)	
광역권 개발 사업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5,500	-	0.0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1,307	17,937	84.2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34,031	21,815	64.1
	해안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	39,591	24,597	62.1
사업군 계	100,429	64,349	64.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는 사업 지연인 것으로 보인다. 광역권 개발 사업에서의 사업 지연 사유를 분석한 결과, 인허가 문제, 조례 개정, 예산 심사, 관련 부처 협의 지연 등 행정 절차 지연, 건설 자재 수급 문제, 공사 중단, 설계 변경, 추가 공사 등 건설 및 시공 관련 지연, 민간 위탁 선정, 운영 기관 탐색, 운영 프로그램 협의 지연 등 운영 및 협력 지연, 부지 확보 지연, 사업 대상지 변경, 토지 매입 등 부지 및 토지 문제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사업 지연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V-20〉 광역권 사업의 사업계획상 준공일자와 실제 준공일자 간 차이 원인

(단위: %)

범주	예시	비율
행정 절차 지연	인허가 문제, 조례 개정, 예산 심사, 관련 부처 협의 지연	24.49
건설 및 시공 관련 지연	건설 자재 수급 문제, 공사 중단, 설계 변경, 추가 공사	20.41
운영 및 협력 지연	민간 위탁 선정, 운영 기관 탐색, 운영 프로그램 협의 지연	16.33
부지 및 토지 관련 문제	부지 확보 지연, 사업 대상지 변경, 토지 매입	12.24
기타	기타 사유로 인해 영업 시작이 지연된 사례	26.53

주: 2024년 10월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광역관광권에 포함된 146개 내역 사업에 대해 각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광역권 사업의 사업계획상 준공일자와 실제 준공일자 간 차이가 나는 이유(중복응답)'를 조사한 결과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IV-21〉 범주별 예방 가능 여부

(단위: %)

요인	세부 내용	비율
사전 관리 가능 (58.2)	부지 확보 지연	10.9
	사업 대상지 변경	10.9
	인허가 문제, 조례 개정, 예산 심사, 관련 부처 협의 지연	21.8
	민간 위탁 선정, 운영 기관 탐색, 운영 프로그램 협의 지연	14.5
사전 관리 불가능 (41.8)	건설 자재 수급 문제, 공사 중단, 설계 변경, 추가 공사	18.2
	기타 사유로 인해 영업 시작이 지연된 사례	23.6

주: 2024년 10월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광역관광권에 포함된 146개 내역 사업에 대해 각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광역권 사업의 사업계획상 준공일자와 실제 준공일자 간 차이가 나는 이유(중복응답)'를 조사한 결과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특히 사업 지연 사유를 사전 관리 가능한 요인과 사전 관리 불가능 요인으로 분류해 본 결과, 부지 확보 지연, 사업 대상지 변경, 인허가 문제, 조례 개정 등 지방정부와 사업 주체가 사전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여 사전 관리가 가능했던 요인이 전체의 58.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보다 심층적이고 내실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많은 지연 원인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충분한 계획과 조율로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업의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는 사전 관리 가능한 지연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에 조율하여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집행률 저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 사업 추진 지연 요인 다수 발생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에서 많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는 대장금 테마파크이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2015)」에 따르면 대장금 테마파크는 대장금 설화를 주요 소재로 정읍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식품 및 역사문화자원을 하나로 묶는 음식테마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축제(구절초 축제)와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옥정호와 역사적 인물인 대장금의 스토리텔링 등을 향토음식과 연계시켜 융·복합 산업형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16~2020년까지 '전라북도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1306-12일원'에 조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0년 5월에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되었고, 2022년 12월 건축물 사용 승인이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개관하지 못하고 있다. 즉 당초 계획에 비해 4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다.

사업 지연 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 계획 시점부터 사업지(산내면 종성리 1306-12일원)는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의 목적에 적합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곳이었으며,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계획」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부지 선정 논란이 있었고, 결국 지역주민과의 마찰, 지자체 협의, 실시설계 용역 중지 등으로 사업지를 '산내면 장금리 1117번지(구 장금초교 일원)'로 변경하면서 착공이 지연되었다. 또한 사업 내용도 변경되었다. 당초에는 대장금 테마관, 향토음식 체험관, 대장금 직판장 등 3개 건물을 별도로 건축하여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장금이 테마관 1개 건물만 조성되었고, 장금이 테마관 건물 내부에 향토음식 체험관 및 대장금 직판장이 소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둘째, 최초 계획 시점에서는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업계획 시점에서는 '대장금'을 테마로 하는 시설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대장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MBC에서 요구한 사용료 수준이 높아 정읍시 자체 검토 후 명칭을 변경하였고, 독자 개발한 장금이 캐릭터만 사용하게 되었다.

셋째, 개발 초기 단계에서 내부 콘텐츠 및 시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였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조성 시점에는 내부 콘텐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운영 방안도 수립되지 않았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중간평가 이후 내부 콘텐츠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 운영 방안을 결정하였으나 준공 후 시설 개관이 다소 지연되었다. 이는 주로 최초 계획 및 사업 심사 단계에서의 문제로 판단된다. 정읍시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저작권 문제 발생 가능성 파악, 용도변경을 고려한 사업지 선정, 지역 주민과의 협의, 내부 콘텐츠 구상 등이 미흡했고, 공모 내역을 심사 및 승인하는 담당부처에서도 이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앙부처의 관광개발사업 신청 이전에 기초지자체의 사업 계획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읍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내용 등을 전라북도청에서 우선 검토한 이후 관광개발사업을 신청하도록 한다. 둘째, 담당부처에서는 관광 및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개별 사업을 심의 및 선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읍시는 장금이파크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정읍시는 “의녀 장금이”, “구절초 장금이”, “쌍화차 장금이” 등 독자적인 캐릭터와 스토

리를 개발한 바 있다. 따라서 관광시설과 지역 특산품을 연계한 캐릭터 및 스토리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관광시설 조성의 확장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장금이파크 주변에는 향토섬, 구절초 지방정원, 청실배나무 등의 관광자원이 존재한다. 따라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방문객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전략이 요구된다.

[그림 IV-1] 장금이파크 내부 전시 및 체험 콘텐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토 필요

광역권 개발 사업의 단위 사업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시적인 재무적 성과가 창출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심층평가에서는 광역권 개발 사업의 초기 사업 계획상 타당성 검토 결과와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의 실제 재무적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다만 본 심층평가 대상 광역권 개발 사업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고, 이미 사업이 종료된 3개 광역권 개발 사업(3대 문화권 문화생태 기반 조성,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3개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의 내역사업별로 사업계획서 수립 여부, 사업 계획상 준공일 및 실제 준공일, 총수입액 및 총지출액 등의 자료를 담당 부처에 요청하여 수집하였다. 둘째, 2024년 이전에 준공된 내역 사업의 연차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재무적 성과를 계산하였다. 셋째,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한 연차별 이익률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기간의 재무적 성과를 평가하였다.

〈표 IV-22〉에 나타난 분석 결과를 보면, 준공된 사업 중 수익이 집계된 비율은 56.6%, 비용이 집계된 비율은 68.4%로, 대부분 사업에서 수익과 비용의 집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보조금 집행 이후 담당 부처가 사업성과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재무적 성과 분석의 기초 자료 확보가 미흡하며, 사업의 성과가 계획과 일치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보여준다.

〈표 IV-22〉 재무적 성과 분석 대상

(단위: 개, %)

구분	준공 사업	수익 집계	비용 집계	수익집계 비율	비용집계 비율
3대문화권 문화생태 기반 조성	40	30	36	75.0	90.0
한반도 평화생태벨트	12	3	4	25.0	33.3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4	10	12	41.7	50.0
합계	76	43	52	56.6	68.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사업별 재무적 성과를 보면,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기반 조성 사업은 총수익이 36,983백만원, 총비용이 94,667백만원으로 이익률 $\Delta 156.0\%$ 를 기록하여 예상 성과에 미치지 못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총수익 5,399백만원 대비 총비용이 20,757백만원으로 이익률 $\Delta 284.5\%$ 를 기록했으며, 한반도 평화생태 벨트 사업 역시 총수익 770백만원 대비 총비용이 2,873백만원으로 이익률이 $\Delta 286.1\%$ 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의 재무적 성과는 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며, 초기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철저한 재무적 타당성 검토와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재무적 성과 분석은 단순히 재정 지표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계획과 실행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 확보와 더불어, 사업계획의 내실 있는 검토와 성과 관리 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표 IV-23〉 3대문화권 문화생태 기반 조성 사업의 재무적 성과

(단위: 백만원, %)

구분	0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합계
총수익	7,529	14,266	15,188	-	-	36,983
총비용	18,673	34,195	41,799	-	-	94,667
이익	△11,144	△19,929	△26,611	-	-	△57,684
이익률	△148.0	△139.7	△175.2	-	-	△156.0

주: 1. 사회적 할인율 4.5%, COVID-19 발생(1차년도 및 2차년도) 기간 제외, 사업계획서상 예측성과 연평균 관광수입 297,499 백만원

2. 총수익: 매출액, 총비용: 운영비 및 관리비, 이익 = 총수익 - 총비용, 이익률 = 이익 ÷ 총수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IV-24〉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의 재무적 성과

(단위: 백만원, %)

구분	0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합계
총수익	126	618	881	2,101	1,673	5,399
총비용	4,093	3,874	2,884	3,997	5,909	20,757
이익	-3,967	-3,256	-2,003	-1,896	-4,236	-15,358
이익률	-3148.4	-526.9	-227.4	-90.2	-253.2	-284.5

주: 1. 사회적 할인율 4.5%, COVID-19 발생(3차년도 및 4차년도) 기간 제외, 사업계획서상 예측성과 연평균 관광수입 397,848 백만원

2. 총수익: 매출액, 총비용: 운영비 및 관리비, 이익 = 총수익 - 총비용, 이익률 = 이익 ÷ 총수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IV-25〉 한반도 평화생태벨트의 재무적 성과

(단위: 백만원, %)

구분	0차년도	1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합계
총수익	113	15	642	-	-	770
총비용	425	428	2,120	-	-	2,973
이익	△312	△413	△1,478	-	-	△2,203
이익률	△276.1	△2753.3	△230.2	-	-	△286.1

주: 1. 사회적 할인율 4.5%, COVID-19 발생(2차년도 및 3차년도) 기간 제외

2. 총수익: 매출액, 총비용: 운영비 및 관리비, 이익 = 총수익 - 총비용, 이익률 = 이익 ÷ 총수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4) 사후관리 부족

광역권 개발 사업 추진 이후 사후 관리가 부족할 경우, 정책 결정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Pforr와 Hosie(2009)는 관광 프로젝트가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기대했던 경제적 성과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없을 경우, 국가와 지역의 관광 개발과 투자 정책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후 관리

를 통해 산출된 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산을 재배분하거나 정책을 수정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재배분과 정책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 산출지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광역권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완료 후 산출지표(방문객 수, 총수익, 총비용 등)를 체계적으로 추적하지 않고 있다. 관광 사업의 사후 산출지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개별 사업에서도 예산 투입에 대한 산출지표 관리가 미흡하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표의 광역권 사업 준공 후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현황을 제시한다.

〈표 IV-2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전체 대상 사업 중 74.6%가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자원 개발사업 보조금 지침」 제9조에 의거 ‘사후평가’(세부사업별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 종료 2년 이후 객관적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운영성과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리·운영 유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성과평가 결과 등을 제출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면 지자체 중심의 자체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부처가 이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IV-26〉 광역권 개발 사업의 준공 후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현황

(단위: %)

구분	준공 후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계	비고 (문체부 평가)
	미보고	보고	무응답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97.73	0.00	2.27	100.0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 최종평가’ 진행 (‘23.8.’~‘24.7.’)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50.00	50.00	0.00	100.0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53.85	46.15	0.00	100.0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96.77	3.23	0.00	100.0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중간평가’ 진행 (‘23.11.’~‘24.11.’)
계	74.6	24.8	0.6	100.0	

주: 2024년 10월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를 받아, 광역관광권에 포함된 146개 내역 사업에 대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광역권 개발 사업군 전체에 악순환을 일으키며, 과거 성과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어렵게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관광개발정보시스템(TDSS)'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사업 추진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종료된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TDSS에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투입 및 산출정보를 검색해 본 결과, 해당 사업의 산출지표는 전무한 상태였으며,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에서도 투입 지표만 존재할 뿐, 산출지표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실태를 검토해 보면, 통합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자체의 자료 협조 등 제도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TDSS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면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정보는 매우 제한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예를 들어 <표 IV-27>에 각 사업별 대상 사업의 수가 명시되어 있지만, 사업비 정보가 기록된 사업은 전무하며, 주요 시설 정보도 기록되지 않았다. 방문객 수 정보는 표의 모든 사업에 대해 제공되지 않거나 극히 일부 사업에만 제공되고 있다. 또한 총수익이나 총비용과 같은 화폐적 지표는 아예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성과 관리 실태를 분석해 보면 통합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사업 단계에서 사후 관리 데이터를 생산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V-2] TDSS 정보 검색 결과 예시



주: 검색 시점은 2024. 11. 9. 기준임. 검색은 해당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료된 해당 연도, 1~5년 후 모두 조사함. 사업이 종료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17~2021년까지,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은 2021~2024년까지 검색함.

자료: 관광개발정보시스템(www.tdss.kr), 검색일자: 2024. 11. 9.

〈표 IV-27〉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성과 관리 실태

(단위: 개)

구분	대상 기간	대상 사업	사업비 정보	주요 시설	방문객 수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	2000~2009	64	0	0	0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2000~2010	186	0	0	0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2008~2017	57	0	0	0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2009~2018	17	0	0	0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2008~2017	25	0	0	0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2010~2017	31	0	0	0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2010~2021	57	1	1	0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013~2022	32	0	0	0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2013~2022	29	0	0	0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017~2026	40	-	-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2019~2028	47	-	-	-

주: 검색 시점은 2024. 11. 9. 기준임. 검색은 해당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료된 해당 연도, 1~5년 후 모두 조사함. 사업이 종료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17~2021년까지,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은 2021~2024년까지 검색함.

자료: 관광개발정보시스템(www.tdss.kr), 검색일자: 2024. 11. 9.

3.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가. 계획평가

가-1. 계획평가 방법

특화관광자원개발 사업군의 계획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계획 수립 여부 확인을 통해 사업의 중복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사업의 세부 내역별로 기본계획서나 사업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하였다. 특히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은 계획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립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추가 평가를 수행하였다.

둘째, 수립된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기본계획이 수립된 사업들에 대해 계획이 실제로 구체적인 목표를 갖추고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산 확보, 인·허가 같은 행정절차의 사전 대비, 부지 확보 여부와 사업 대상지 변경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계획의 현실성과 실행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업을 실

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사업 추진 지침 여부 등도 확인하였다.

셋째, 사업성과 목표 설정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각 사업에 설정된 성과 목표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하였으며, 사업의 전체적인 목표와 세부 성과 목표 간의 일관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넷째, 성과 관리 체계의 구축 여부를 검토하였다. 사업이 수행되는 동안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체계가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사업 수행 중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성과 관리 체계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조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중요한 평가 항목이었다.

가-2. 계획평가 결과

1) 특화자원 활용에 대한 기준 및 방향(가이드라인) 부족

기존 대규모 관광지와 달리 특화관광자원은 독특한 체험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관광분야에서는 해당 시장을 SIT 관광(Special Interest Tourism)으로 정의한다. 본래 특화관광자원은 타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당초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이 아니었으나, 관광객의 요구 및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자원으로 개발되고 있는 자원이다. 예를 들어 폐광은 본래 석탄 산업을 위한 시설이었으며, 각종 국가유산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보존 대상인 문화유산이었다. 그러나 폐광처럼 본래 기능이 종료되거나 리모델링이 요구되기도 하고, 국가유산처럼 관광객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자원을 관광객에게 개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관광 자원화’라고 한다.

관광 자원화는 사물이나 활동이 보유하는 관광잠재력을 현재화시키는 작업, 즉 존재하고 있는 그대로 또는 일정한 변경을 통하여 관광잠재력을 지닌 사물을 볼거리화 및 놀거리화 시킴으로써 관광자원에 내재된 가치를 구현시키는 일련의 행위이다(박석희, 2007). 그리고 관광목적이지 않았던 자원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관광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반 요소가 요구된다. 즉 관광자원화 과정에서 관광개발 또는 인프라 구축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지역의 특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광 자원화하여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관광 자원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향 및 기준이 사전에 설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광

자원화 과정에서 본래 자원의 특성을 상실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도 저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 여수시 사도·낭도는 전라남도의 '섬 관광자원 개발사업 연구'에 따라 사도~낭도 관광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인도교 가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공룡화석지(사도 공룡발자국 및 퇴적층, 천연기념물 제434호로 지정)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대규모 인공구조물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2007년 현상변경허가를 허용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어서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도 인도교 건설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으며, 2011년 민간투자자가 인도교 가설을 추진했으나 이때도 결국 허가를 받지 못했다(연합뉴스, 2021. 1. 18.). 이에 따라 여수시는 2023년 사도~낭도 생태탐방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목표를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생태탐방 기반 구축으로 재설정하였으며, 국가유산을 훼손하지 않고 국가유산과 이격된 공간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자원 배분 효율성 및 지역 간 형평성 저해

경제학에서 자원의 최적 배분(optimal allocation of resources)은 공공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간주된다(Coase, 1960). 그리고 부처 간 협력과 조율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이로 인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광인프라 확대를 목표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이 생태 복원을 추진하는 환경부의 정책과 충돌할 경우, 환경 훼손과 자원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교통망 확장은 접근성을 개선해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으나, 과도한 개발이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재정적 여건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개별 부처의 예산이 분산됨에 따라 지역 개발의 장기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지역의 동일한 특화자원을 대상으로 부처 간에 독립적인 관광 자원화 사업이 추진되거나 동일 부처 내에서 시차를 두고 반복 지원하는 경우에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가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강원도 폐광지역인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의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그동안 9개 중앙부처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부처 간 조율 부족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 문제는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되어 왔다. Neumark와 Simpson(2014)은 지방 정책과 경제 발전 간 상호작용을 연구하며, 중복

투자와 비연계적 지원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중복적 사업 추진이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지역 경제 내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서도 폐광지역 개발에서 부처 간 중복 투자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예를 들어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민일보(2010), 동아일보(2023) 등 언론에서도 폐광지역 개발에서의 부처 간 중복투자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동일 부처 내에서도 그동안 시차를 두고 단계별로 유사한 지원이 반복되었다. 문체부는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 4개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단계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강원도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2004년 최초 사업이 시작된 이후 3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7년까지 약 20년 이상 지원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1단계는 폐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 사업, 2단계는 관광상품개발 사업, 3단계는 관광생태계 구축 사업으로 단계별 사업 명칭 및 내용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대규모 국책 사업이 아닌 개별 지역 단위의 관광 자원화 사업에서 20년간 반복적인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및 전국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폐광지역 1단계 및 2단계 사업 완료 이후에도 여전히 지역 관광수요 증가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며, 지속가능한 운영 및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는 문화체육관광부(2021b)의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단계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뒷받침한다.

〈표 IV-28〉 강원도 폐광지역에 대한 연도별 지원(문체부)

지역	1단계 지원 연도	2단계 지원 연도	3단계 지원 연도
강원 태백시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3~2027
강원 삼척시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강원 영월군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강원 정선군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2021b.

폐광지역 지원은 초기와 달리,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 지역에 과도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주로 공공 부문이 특정 지역에 반복적이고 과도하게 투자할 때

나타나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러한 집중 투자는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과 기회비용의 발생, 공공재의 지역 간 불균형 배분, 경제적 편익의 불균형적 집중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자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에 투자될 자원이 제한되면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전체 사회 후생을 감소시키며, 한정된 공공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둘째, 경제학에서 공공재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정 지역에만 공공재가 과도하게 집중되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생활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교통 인프라, 교육, 의료와 같은 중요한 공공 서비스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된다면, 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과 기회가 제한되어 형평성 문제가 심화된다.

셋째, 특정 지역에 집중된 투자로 인해 그 지역 내 일부 경제 주체가 혜택을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업 개발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대형 상점과 사업체가 이익을 독점하게 되어 경제적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문제를 초래한다.

폐광지역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중복 지원을 방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문화 자산을 보존하며 이를 관광 모델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환경부는 생태계 보호와 관광 인프라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망 확장을 최소화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교통 동선을 설계하여 자원과 자연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개별 부처의 임시적이고 독립적인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통해 폐광지역에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 폐광지역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3단계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 동일 지역에서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일 지역에서 반복적인 사업이 추진될 경우,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보다는 사업의 중복성과 예산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이들 지역 외의 폐광지역에서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역경제의 소득 증가 등 실질적인 성과가 보장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 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과정평가

나-1. 과정평가 방법

과정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축된 시설이 본래 목적에 따라 운영 및 활용되고 있는지, 일반 관광시설과는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둘째,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활용 진흥 사업에 대해서는 내역사업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을 대상으로 과정평가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의 내내역사업인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에 대한 과정평가를 시행한다. 과정평가에서는 주로 인천공항 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 관계자와의 심층면담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입수한 추가 자료 및 증빙자료 확인 방법을 활용한다.

나-2. 과정평가 결과

1) 당초 목적과 다른 시설의 사용

일부 특화자원을 활용한 사업 결과물이 관리 소홀로 부정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지적되었다. 국립공원공단은 생태탐방원(Nature Center)을 운영 중이다. 생태탐방원은 북한산, 지리산, 설악산, 소백산, 한려해상, 가야산, 무등산, 변산반도 등 총 9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시설은 생활관광 체류시설을 포함하여 워크숍, 회의 목적의 강의실과 강당 등이다. 생활관은 4인실, 6인실, 8인실 규모로 시설당 72~104명 수용 가능하며, 강의실은 20~5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 강당은 70~1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무대 등을 포함한 다목적 공간이 각 1개씩 구성되어 있다.

일반 국민이 생태탐방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그러나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전국 생태탐방원 숙박시설 다섯 곳의 예비 객실을 내부 직원과 지인 부탁을 받고 무료로 대여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동아일보, 2023. 8. 2.). 이처럼 시설의 완공 이후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부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비객실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있었고, 해당 시설이 일반 관광숙박시설과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29〉 생태탐방원 이용객 및 수익금 현황

(단위: 백명, 백만원)

구분	개원 시기	수용 가능인원	이용객 현황					수익 금액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	2020	2021	2022	2023
북한산	2011. 9.	102	223	23	1,179	-	-	326	47	20	312	307
지리산	2015. 3.	124	143	61	40	-	-	240	79	196	318	328
설악산	2018. 4.	104	112	62	215	-	-	159	65	198	292	246
소백산	2018. 5.	104	169	54	183	-	-	247	56	153	264	293
한려해상	2018. 10.	86	178	106	204	-	-	234	90	176	344	363
가야산	2018. 11.	110	95	56	220	-	-	139	45	141	196	242
무등산	2018. 11.	72	120	68	170	-	-	199	55	117	231	245
내장산	2019. 12.	84	-	99	147	-	-	-	75	138	261	277
변산반도	2023. 7.	100	-	-	-	-	-	-	-	-	-	256

자료: 국립공원연구원 내부자료

2) 사업 실적 및 성과 모니터링 체계 미비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활용 진흥 사업 중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은 2019년 문체부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국가유산청 담당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당해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국가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IT 기술과 국가유산을 결합한 디지털 국가유산 체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이하 ‘홍보관’)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2023년 3월 개관한 홍보관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지하 1층 교통 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320㎡를 무상 임대하여 사용 중이다.

홍보관은 주로 국가유산과 VR, 미디어아트 등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한 체험 공간과 국가유산 여행 정보 종합 안내 및 휴게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에게 국가유산 방문 코스 방문자 여권을 배부하여 국가유산 10개 코스 76개 거점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홍보관은 사업 콘텐츠 및 운영 방식에 있어서 관광 편의지원 사업군의 내역사업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의 내역사업인 관광안내소 운영과는 차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인천공항 관광안내소는 특별한 콘텐츠 및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항 안내센터와 유사하게 방문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내 서비스만 제공하기 때문이다. 2024년 1~11월까지 홍보관 방문객은 총 12만 7,523명이며, 이 중에서 내국인 방문객은 4만 9,630명(38.9%), 외국인 방문객은 7만 7,893명(61.1%)이다. 즉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 방문객 비중이 20%가량 더 높으므로 홍보관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국가유산 실제 방

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홍보관에서는 방문객에게 국가유산 방문코스 방문자 여권을 배포하고, 여권에 표시된 국가유산을 방문하여 일정 개수 이상의 스탬프(도장)를 찍어 오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자 여권을 배부 받은 방문객이 국가유산을 실제로 얼마나 방문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국가유산 방문지에서도 인천국제공항 홍보관과 연계한 모니터링 및 프로모션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홍보관의 근본적인 목적이 국가유산 홍보를 통해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문자 여권 배부 이후 실적 집계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연간 12억원가량의 운영비가 투입되는 홍보관의 운영 실적 및 효과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그림 IV-3] 인천국제공항 관광안내소 및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



자료: 한국관광공사 및 국가유산청 내부자료

한편 2024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방문객 중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외국인에 비해 그렇지 않은 외국인의 비중이 약 두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체부와 유산청 간 협의를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의 세부사업인 한국관광 해외광고,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등과 연계하거나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 Korea’ 등의 앱(apps)을 통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및 외국인 관광객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유산청 사업과 문체부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국가유산청 및 문체부에서 홍보관을 비롯한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의 전반적인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공동 관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홍보관 방문객의 종합 만족도(89.32점) 및 콘텐츠 만족도(89.26점)가 높고, 응답자의 91.3%가 인천공항 이외의 주요 지역에도 홍보관 추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바탕으로 추후 사업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홍보관을 통한 실제 국가유산 방문 실적 및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그림 IV-4] 국가유산 방문코스 방문자 여권 및 기념품



자료: 국가유산청 내부자료

4.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가. 계획평가

가-1. 계획평가 방법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군에 대한 계획평가는 주로 특정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문제를 평가한다.

가-2. 계획평가 결과

지역관광개발 사업군에는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역자원을 중심 테마로 하는 사업들이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자원의 활용을 중심으로 계획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한 국비 지원의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사업계획 단계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이 구분되고, 국비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 부문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Oates, 1999; von Hagen & Pisani-Ferry, 2002). 첫째, 외부효과와 내부효과 기준이다. 특정 지역의 관광이나 개발이 인접 지역에까지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가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조정하고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반면 관광자원이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혜택을 줄 때 나타나는 내부효과가 더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재정대응성 원칙에 따른 기준이다. 공공서비스의 혜택 범위와 이를 제공하는 정부의 범위가 일치할 때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원칙에 따라, 지역 특성이나 주민 선호가 강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은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관광기반 기반조성 사업의 내역 사업인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9)」를 통해 기존 관광개발사업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도적 사업 발굴 및 추진 방식을 통한 지역수요 맞춤형 관광활성화 여건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관광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여 사업 발굴 및

지역의 특화산업을 창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 지역의 자립적 관광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정 및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내·외부효과 및 재정대응성 원칙의 측면에서 국비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사업에 선정된 지역이 4개에 불과하고, 사업 내용도 해당 지역을 반려동물과 함께 관광하기 위한 제반 여건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즉 지역에 대한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요에 맞춘 사업이며, 외부효과보다는 내부효과가 강한 사업이다. 또한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혜택 범위도 주로 지역 주민 및 사업체 등에 국한되므로 재정대응성 차원에서도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정 투입을 줄이고 지방정부 재정을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IV-30〉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선정 및 사업 내용

구분	선정 수		선정지역	주요 내용
2023년	광역형	1개소	울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애니언시티 울산, 반려동물의 울타리가 되다 • 주요 사업: 반려동물 동반 고래바다 여행선 체험, 반려동물 동반여행 전용 시티투어 코스 개발 및 관광택시운영, 반려동물 동반여행 신규 창업 여행사 지원 등
	기초형	1개소	충남 태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건강하게, 행복하게 • 주요 사업: 반려견 동반 전용 천리포 해수욕장 운영, 꽃지 해수욕장 도그 클래스(요가, 마사지), 반려동물 동반기능 숙박시설 지원 등
2024년	기초형	1개소	경기 포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세상 모든 반려동물이 행복해지는 여행지 • 주요 사업: 포천 아트밸리 연계 반려동물 웰컴센터 조성, 노견을 위한 추억여행, 펫로스 증후군 치유 프로그램, 반려동물 음악축제, 반려동물 캠핑 페스타 등
	기초형	1개소	전남 순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순천에 펫 낙원을 더하다 • 주요 사업: 순천만국가정원 연계 체험형 캠핑 프로그램, 펫 머드 및 힐링 체험 프로그램, 반려동물 동반 체험형 마라톤, 반려동물 이색 밥상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나. 과정평가

나-1. 과정평가 방법

과정평가에서는 먼저 초기 단계에서의 사업 시행 방법 및 지자체 선정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한다. 그리고 사업의 후속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한다.

나-2. 과정평가 결과

1) 공모사업의 예측 가능성 저하로 지자체의 효율적 대처에 한계

중장기 정책사업은 추진목표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매년 계속 추진되는 경우도 있으나,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속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즉 사업의 지속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이다.

현재까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2019년 2개(충남 서천군, 경남 합천군), 2020년 8개(경기 수원시, 강원 정선군, 충북 제천시, 충남 아산시, 전북 남원시, 전남 강진군, 경북 포항시, 경남 사천시), 2021년 5개(강원 삼척시, 충북 단양군, 전북 진안군, 경북 영주시, 경남 남해군), 2024년 3개(강원 영월군, 전북 임실군, 경북 영양군) 등 총 18개이며,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2022년과 2023년에는 신규 선정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전국의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할 경우, 공모를 준비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향후 공모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지방비 매칭 등 사업계획 준비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중앙정부 역시 중장기 정책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사업 추진 효과 등 모니터링을 통해 부처 내 핵심 공모사업으로 육성해야 하지만,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러한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 정책사업이 사업 기간 내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등에 대한 철저한 계획 및 관리가 요구된다.

2) 일부 사업만 지속적으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진행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군의 다수 사업은 후속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황 집계만 이루어지고 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경우, ‘2022년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용역(완료, 문광연)’, ‘2023년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컨설팅 및 중간성과 진단 연구(완료, 문광연)’, ‘2024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용역’ 등을 통해 매년 컨설팅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비롯한 사후 관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지역으로 이관된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은 총 1,321개 대상 사업에 국비를 투입하였지만, 사업비 정보와 주요 시설 정보는 일부만 제공되고 있으며, 현재도 방문객 수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292개 대상 사업 중 일부 정보만이 제공될 뿐이며, 관광자원기반조성 사업, 폐광지역 관광자원개발 등 다른 주요 사업도 방문객 수 정보는 거의 없는 상태다. <표 IV-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군 전반에 걸쳐 주요 산출 지표들이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않고 있어, 개별 사업에서의 관리 부재뿐 아니라 전체 사업군 차원에서도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는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국내관광자원개발 사업군 전체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이다. 이러한 사후 관리 미비 문제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TDSS의 활용 성과도 연계되어 매년 5억원의 사업비가 설정된 TDSS 사업의 효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IV-31〉 주요 세부 사업별 성과 관리 실태

구 분	대상 사업	사업비 정보	주요 시설	방문객 수
문화관광자원개발	1,321	○	○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292	○	○	×
관광자원기반조성	67	○	○	△

주: 해당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료된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모든 연도를 조사하였으며, 정보가 있을 경우 ○, 부분적으로 있을 경우 △, 없을 경우 ×로 표시함

자료: 관광개발정보시스템(www.tdss.kr), 검색일자: 2024. 11. 9.

5.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가. 계획평가

가-1. 계획평가 방법

해양관광자원개발 사업군에 대한 계획평가는 기본계획서나 사업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사업의 기초적인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한다.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은 계획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수립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추가 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해양치유센터의 경우, 관련 법령, 기본계획, 예산요구안을 비교 검토하여 사업추진 계획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관계자 심층면담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한다.

가-2. 계획평가 결과

‘K-관광섬 육성사업’으로도 지칭되는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자연 친화, 소규모 및 저밀도 여행 등 관광 트렌드와 함께 섬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 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하였다. 섬 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은 인구 노령화 및 감소 등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물리적·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는 섬을 국제적 수준의 섬 관광 목적지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모 선정 이후 사업명이 ‘K-관광섬 육성사업’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체부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공모사업 내용서를 만들어 진행되었다. 즉 사업 초기부터 구체적인 계획 부재, 사업 타당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사업 목적과 세부 내용 구성에 있어서도 섬 지역에 대한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 섬이나 해양 사업은 자연 훼손의 가능성이 높고 한번 훼손되면 그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 방안도 함께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당해 사업의 주요 사업 구조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관광인프라 관련 사업’, ‘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관리운영 사업’ 등 다른 일반적인 공모사업과 유사하다.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를 위해 일반 공모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인프라, 콘텐츠, 관리 운영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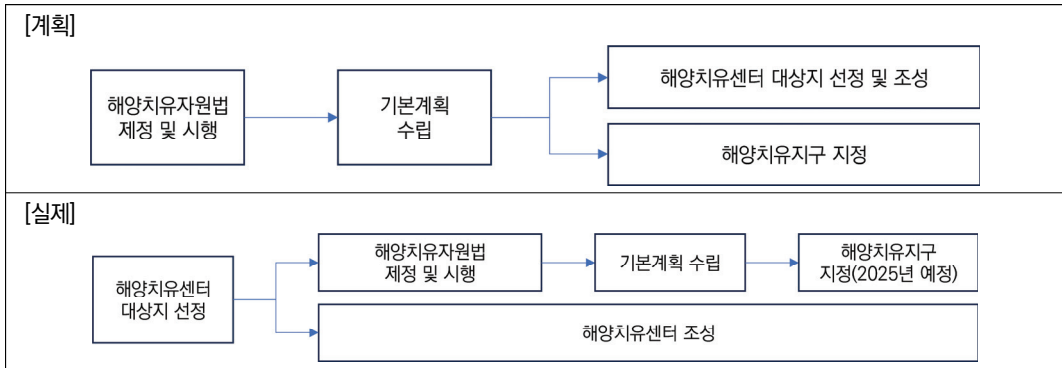
등 섬 및 해양 지역에 대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며, 이는 원천적으로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 차원에서부터 사업이 추진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해수부의 해양관광육성사업 중 해양치유센터 사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해양관광육성사업은 2020년 제정 및 2021년 시행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치유자원법’)」 제5조(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2항에서는 기본계획에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해양치유자원의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자원의 조사·연구·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서비스의 진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해양치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12월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한 바 있다.

동 기본계획에서는 3대 추진 전략 중 해양치유 서비스 인프라 조성 전략의 세부 추진과제로 ‘해양치유 시범 거점 조성 추진’ 및 ‘서비스 제공 공간 조성·확대 추진’ 등을 선정하였으며, 해양치유 시범 거점 조성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완도군·태안군·울진군·고성군에 2024년까지 해양치유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서비스 제공 공간 조성·확대 추진 과제에서는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기로 하였으며, 해양치유센터 소재지를 해양치유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치유자원과 연구·판매·의료 등 시설 간 연계성을 고려한 추가 지정을 통해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 해양치유센터 사업추진 과정은 이와 다르다. 세부사업 해양관광육성 중 해양치유센터 사업에 대한 2019년 및 2020년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2017년 해양치유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지자체 네 곳(완도군·태안군·울진군·고성군)이 먼저 선정되었고, 해양치유시범단지 실시 설계 예산이 2019년 편성되어 완도해양치유센터부터 본격적으로 조성 사업이 시행되었다. 즉 「해양치유자원법」 제정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 시행이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해양치유자원법 제정 및 시행, 기본계획 수립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과 기본계획이 없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당해 사업의 경우 완도군의 자체 사업타당성조사가 해양치유센터 건립 전에 이루어졌고, 사업 추진상 문제 발생은 없었으며,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도 지자체 기본 및 실시계획 등을 통해 수립하여 목적을 달성한 것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해양관광시설 조성 시 관련 법 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가 선행되고, 이에 따른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사업의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IV-5] 해양치유센터 사업추진 과정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나. 과정평가

나-1. 과정평가 방법

과정평가 단계에서는 주로 완도 해양치유센터 관계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파악한다. 그리고 완도 해양치유센터로부터 입수한 추가 자료 및 증빙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

나-2. 과정평가 결과

해양관광육성사업은 2024년 예산요구안에 의하면 세부사업 해양관광육성의 내내역사업인 해양치유시범지구 조성 사업은 2019~2023년까지 추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재 수급, 현장여건 변동, 중간 및 실시설계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등의 사유로 최초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모든 사업이 1~3년간 지연되었다.

〈표 IV-32〉 해양치유시범지구 조성 사업의 최초계획상 사업 기간 및 실제 사업 기간

구분	최초계획상 사업 기간	실제 사업 기간	사업 지연 기간
완도 해양치유센터	2019~2022년	2019~2023년(준공)	1년
태안 해양치유센터	2020~2023년	2020~2025년	2년
울진 해양치유센터	2020~2022년	2020~2025년	3년
고성 해양치유센터	2020~2022년	2020~2025년	3년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또한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준공된 현재까지도 해양치유지구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현재 해양치유지구 조성을 위한 고시 마련 예정으로, 2025년 하반기에 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완도 해양치유센터 운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위치하고 있어, 실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해수욕장을 사용하는 실외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해양치유지구 지정되지 않아 실외 프로그램 운영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해수욕장과 해양치유센터 간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둘째, 해양치유사 등 해양치유 관련 전문 자격증이 존재하지 않아 전문 인력 수급 및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통해 공동마케팅 홍보 및 판로확보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항은 향후 준공 및 운영될 예정인 태안·울진·고성 해양치유센터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조속한 해양치유지구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4개 해양치유센터 중 가장 먼저 운영을 시작한 완도 해양치유센터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문객 대부분이 완도 및 인근지역 주민이다. 모든 방문객에 대하여 거주지역을 조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2023년 12월 27일~2024년 1월 4일까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행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완도·전라남도·광주광역시 등 인근지역 거주자였으며, 경기도·서울시 등 수도권 거주자는 약 12%에 불과하였다. 또한 완도 해양치유센터 담당자에 대한 심층면담에서도 경험상 현재까지 방문객의 약 70~80%가 인근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완도 해양치유센터 및 완도군청에서는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단위에서 방문객을 유치하

기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해양치유센터와 관내숙박업소 간 이용자 요금 할인, 전 국민 대상 할인 프로모션, 지역 관광지 무료 및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도권 인근에 위치한 태안 해양치유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해양치유센터에서 향후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한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6.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가. 계획평가

가-1. 계획평가 방법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에 대한 계획평가에서는 주로 사업기간에 따른 연도별 예산 규모를 검토하였다.

가-2. 계획평가 결과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대상지 선정(국제관광도시 부산광역시 1곳, 지역관광거점도시에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 등 4곳, 총 5곳) 이후 도시별 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하였다(2020. 3.). 또한 기본계획 수립이 단기간 내에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고 기본계획의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거점도시 도시별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였다.

다만 2020년 도시별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사업이 착수되었으나,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 관광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2021년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인해 기본계획이 수정되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외래관광객 유치 및 주변 지역 확산이라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다. 코로나19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특별한 사례이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특수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향후에는 계획 수립 시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 및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과정평가

나-1. 과정평가 방법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에 대한 과정평가에서는 먼저 예산 집행률을 분석한다. 그리고 민간사업과의 사업내용 중복성 및 국비 지원 효율성을 검토한다.

나-2. 과정평가 결과

1) 저조한 예산 집행률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률 저조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표 IV-33>에 따르면,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추진된 2020년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누적 국비 실집행률은 전체 평균 73.2%이나, 특히 전주시와 목포시의 국비 실집행률은 각각 65.3%와 60.4%로 비교적 낮다. 이러한 현상은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이외의 다른 관광사업에서도 사업 집행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예산이 할당되었으나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 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일으킨다.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경우 상당수의 사업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은 토지 이용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사문화자원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서 토지 이용이 예상만큼 원활하지 못한 것이다. 사업 부지를 변경하면 이에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고 관광거점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핵심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테마 설정과 완결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관광거점도시 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2020년 관광거점도시가 선정된 이후 ‘2024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컨설팅 용역(진행 중, 문광연)’,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중간 성과관리 및 컨설팅 연구(완료, 문광연)’, ‘2022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컨설팅 및 성과진단 연구용역(완료, 문광연)’ 등이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한 재정집행 점검회의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표 IV-33〉 관광거점도시 사업 국비 누적 실적행률(2024년 12월 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지역	연도	예산	집행액	집행률
부산	2020	4,300	4,108	95.5
	2021	10,000	9,892	98.9
	2022	10,000	9,688	96.9
	2023	9,567	9,478	99.1
	2024	10,000	8,312	83.1
	소계	43,867	41,478	94.6
강릉	2020	2,150	2,080	96.7
	2021	6,500	6,067	93.3
	2022	5,250	4,682	89.2
	2023	7,004	5,963	85.1
	2024	14,007	5,410	38.6
	소계	34,911	24,202	69.3
전주	2020	2,150	2,150	100
	2021	6,500	5,896	90.7
	2022	5,250	4,277	81.5
	2023	8,769	5,280	60.2
	2024	8,396	2,693	32.1
	소계	31,065	20,296	65.3
목포	2020	2,150	2,111	98.2
	2021	6,500	6,000	92.3
	2022	5,250	5,113	97.4
	2023	8,685	5,698	65.6
	2024	13,028	2,606	20
	소계	35,613	21,528	60.4
안동	2020	2,150	2,076	96.6
	2021	6,500	6,428	98.9
	2022	5,250	4,850	92.4
	2023	6,976	5,321	76.3
	2024	13,952	5,764	41.3
	소계	34,828	24,439	70.2
합계	2020	12,900	12,525	97.1
	2021	36,000	34,283	95.2
	2022	31,000	28,610	92.3
	2023	41,001	31,740	77.4
	2024	59,383	24,785	41.7
	소계	180,284	131,943	73.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2) 비효과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 가능성 존재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에서는 2020년 시범사업 대상지였던 인천광역시 중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3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이 완료된 인천 중구의 경우, 사업 추진 당시 개발한 여행 애플리케이션인 ‘여행e지’, 스마트 결제시스템, 데이터 플랫폼 등 스마트관광 인프라를 지속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표 IV-34〉 스마트 관광도시 선정 지자체 현황

구분	선정 수		선정지역	주요 내용
2020년	1개소		인천광역시 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사업: 개항장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증강현실 프로그램 운영, 관광 특화 결제 서비스 운영 등
2021년	3개소		경기 수원시, 전남 여수시, 대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사업: (수원시) 수원화성 미개방 및 미복원 유적지 증강현실 구현, 위치 기반 관광정보 제공, 실시간 주차장 안내 등
2022년	교통연계형	2개소	울산광역시 남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주요 사업: 반려고래 성장 시뮬레이션을 결합한 스마트관광 특화 플랫폼 개발, 통합 모빌리티서비스 구축 등
			충북 청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문화제조창 등 원도심과 주변 주요 사업: 여행경험을 기록화 하는 디지털 콘텐츠 개발
	관광명소형	2개소	경북 경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경주 황리단길 일원 주요 사업: 메타버스 라운지 황리단 운영(여행자센터 역할), 월정교 미디어파사드 운영
			전북 남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광한루 전통문화체험지구 주요 사업: 시간대별 체류형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운영
	강소형	2개소	강원 양양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서피비치로드 주요 사업: 서핑통합정보 제공, 실시간 파도 예보 등
			경남 하동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화개장터, 최참판댁, 쌍계사 등 주요 사업: AI 맞춤형 차 추천 및 다원 예약 서비스 등
2023년	관광명소형	1개소	경기 용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백남준 아트센터, 경기도박물관 등 주요 사업: 미디어 파사드 공연, 인터랙티브 버스킹 등
	강소형	2개소	강원 인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자작나무 숲 주요 사업: 맞춤형 숲길 큐레이션, 디지털 문학가이드 등
			경남 통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통영 시내 일원 주요 사업: 섬 관광 맞춤형 여행코스 추천, 예약서비스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그러나 일부 애플리케이션을 제외하면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관광 애플리케이션 활용도가 높지 않으며,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내용과도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약 10년 전부터 이미 나오고 있다(매일경제, 2015. 6.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에서의 앱 개발이 지속되고, 이러한 앱의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행정안전부는 공공 앱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이용 미흡, 관리 부실 등 성과가 저조한 앱에 대해 국비 투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비를 권고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공공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에서는 126개의 앱이 폐기 권고로 평가되었으며, 2024년 공공 앱 운영 성과평가 결과에서도 83개 앱이 폐기 권고(12.8%, 중앙부처 2개, 지자체 57개, 공공기관 24개)로 평가된 바 있다.

스마트관광도시 사업과 관련한 2024년 공공앱 운영 성과측정 결과(행정안전부, 2025)를 살펴보면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으로 추진된 2개 어플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 현황은 앱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인천e지’ 앱의 경우에는 2021년 출시 이후 매년 5만건 이상이 다운로드되고 있지만, 동일 연도에 출시된 ‘인천e지AR’ 앱의 경우는 연간 다운로드 건수가 4천건도 되지 않으며, 추세도 매년 감소하여 2024년에는 약 1,500건에 불과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35〉 인천 스마트 관광도시 앱 운영 현황

앱명	출시 연도	누적 다운로드 수	2022년 다운로드 수	2023년 다운로드 수	2024년 다운로드 수	업데이트 일자	성과 측정 결과
인천e지 (스마트한 인천 여행의 시작)	2021	236,800	61,354	109,762	57,485	2024-07-25	유지
인천e지AR (인천스마트관광도시 AR/VR앱)	2021	7,630	3,353	2,306	1,499	2024-06-25	유지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공공앱 운영 성과 측정」, 2025.를 토대로 저자 작성

공공 부문에서 개발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광 앱도 일부 존재한다. ‘VISITKOREA’, ‘대한민국 구석구석’, ‘두루누비’ 등 한국관광공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앱들은 매년 10만~30만 건씩 다운로드되고 있으며, 출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 업데이트도 이루어지고 있다.

〈표 IV-36〉 한국관광공사 앱 운영 현황

앱명	출시 연도	누적 다운로드 수	2023년 다운로드 수	2024년 다운로드 수	업데이트 일자	성과 측정 결과
VISITKOREA: Official Guide	2011	1,384,727	102,112	77,332	2024-08-21	유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2011	5,255,342	204,906	312,498	2024-08-23	유지
두루누리(코리아둘레길)	2019	742,553	200,917	189,426	2024-08-22	유지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공공앱 운영 성과 측정」, 2025.를 토대로 저자 작성

그러나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을 비롯하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관광 앱의 경우에는 인지도가 높지 않고, 이용객 수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어서 행안부 평가에서 상당수 폐기 권고를 받았다. 이는 낮은 인지도로 인한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각종 숙박 앱을 선두로 민간사업체에서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관광 앱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이 원하는 여행 맞춤형 코스 등의 서비스를 훨씬 더 잘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 부문(특히 지자체 수준)에서의 관광 앱 개발에 대한 국비 투입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IV-37〉 전국 지자체 관광어플 현황

기관명	앱명	출시 연도	누적 다운로드 수	2023년 다운로드 수	2024년 다운로드 수	업데이트 일자	성과 측정 결과
용인시	용인관광	2017	25,542	2,739	615	2023-10-07	개선
파주시	민통선 관광	2022	258	103	61	2022-06-28	폐기
김천시	김천관광+	2021	4,191	1,384	1,414	2024-06-03	유지
전주시	비젯전주	2022	337	160	147	2022-07-27	폐기
공주시	SMART 백제 여유: 공주	2021	456	194	95	2023-08-31	폐기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중구역행	2017	1,349	181	46	2023-09-01	폐기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공공앱 운영 성과 측정」, 2025.를 토대로 저자 작성

7. 관광 편의지원 사업군

가. 계획평가

가-1. 계획평가 방법

관광편의지원 사업군에 대한 계획평가에서는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군과 마찬가지로 특정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적절성을 평가한다.

가-2. 계획평가 결과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검토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군 평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의 외부효과 및 내부효과를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지역의 관광이나 개발이 인접 지역에게까지 긍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가 강한 사업은 중앙정부가 조정하고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반면 내부효과는 관광자원이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혜택을 줄 때 나타나며, 이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재정 대응성 기준으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분하여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혜택 범위와 이를 제공하는 정부의 범위가 일치할 때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원칙에 따라, 지역 특성이나 주민 선호가 강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은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광편의지원 사업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검토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업은 DMO(지역관광추진조직) 지원사업이다. DMO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광역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문체부)는 이러한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DMO 지원사업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DMO와 같이 여러 지역이 협력할 수 있는 광역적으로 효과를 창출하거나 개별 지자체 스스로 하기 어려운 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와 장기적 자금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은 하동군 DMO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하동군뿐 아니라 인근지역으로도 관광객을 유입시켜 광역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였다.

반면 전주 DMO의 경우에는 전주 음식점과 예술 공연을 결합한 ‘전주 맛집 투어패스’를

통해 지역 음식업체와 예술인의 상생을 도모하는데, 이러한 사업 내용은 지역 특성에 맞춰 운영되며, 외부효과보다는 내부효과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은 지방정부 주도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는 광역적 협력과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맡고,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2) 일괄적인 기준 및 방식의 사업 체계

관광 편의지원 사업군의 사업들은 대부분 공모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관광부문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 및 신청 → 선정 →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추진 → 성과관리 및 평가’ 등의 국고보조사업의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각 단계별로 앞서 검토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이나 선정 방식 등은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관광편의 지원사업의 경우, 공모사업마다 정책추진 목적, 선정 대상, 사업 규모 등 사업 특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공모 및 신청단계에서의 공모 방식(선정 과정, 평가지표 등)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각 공모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 항목은 사업대상지 관련 사업 여건 및 잠재력으로 공모사업에 지원하는 지역 또는 관광자원의 매력도·경쟁력·수용 태세,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상위 정책과의 부합성 및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추진 조직 및 운영체계 등 지역 내 추진 주체 역량, 기대 효과 및 성과 측정(정성적·정량적 파급효과 등)이다. 이렇게 공모 방식 및 평가체계가 사업의 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면 지자체들이 공모사업의 목적에 따라 효과적인 사업 내용을 발굴하지 않고, 여러 공모사업에서 유사한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다른 공모사업에 제출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표 IV-38〉 공모사업 평가 항목

공모사업명	항목	세부 평가항목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가치 및 잠재력	• 자원 매력도, 수요 가능성, 접근성 및 편의성
	계획의 타당성	• 정책 추진방향 부합성, 관광경쟁력, 계획 및 연계적절성, 계획 실현성
	추진체계 적절성	• 추진체계 조직 및 활용, 지역사회 참여
	기대효과	• 직간접적 기대효과(정량·정성), 사업의 지속가능성(성과)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¹⁾	정책부합성	• 정책추진 필요성 및 부합성
	도시역량과 잠재력	• 관광도시(자원) 잠재력 , 관광인프라 역량, 도시·교통기반 우수성
	기본구상 우수성	• 목표 및 전략의 타당성, 사업 및 콘텐츠 우수성, 정책·재원계획 합리성
	실현가능성	• 추진체계 역량,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및 추진의지
	관광산업발전기여도	• 정량적 파급효과
생활관광 활성화사업	사업계획	• 계획의 충실성·독창성, 지역자원 활용도
	사업추진 협력도	• 사업추진기관 협업정도, 추진체계 조직 및 활용가능성
	기대효과	• 직간접적 기대효과(정량·정성), 사업유지관리 가능성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사업 ²⁾	여건의 우수성	• 관광자원 경쟁력, 수용태세 우수성
	현장 부합성	• 대상지 적성성, 전담조직 전문성 , 인근 시설 성장가능성
	실현 가능성	• 운영관리계획의 적절성 , 연도별 추진계획, 지자체 여건·역량 우수성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³⁾	관광지매력도	• 인지도, 매력도 , 인프라 및 편의시설 구비정도
	환경 준비도	• 편의성(교통·안내체계·정보), 개선가능성
	개선계획	• 인프라 개선사항, 프로그램 개선사항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⁴⁾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이해도, 지역관광여건의 경쟁력
	특화도시 적합성	• 사업계획 우수성, 사업내용 독창성, 홍보·마케팅 전략
	사업계획 수행역량	• 지자체 사업수행·관리 역량 , 인적자원(확보)계획, 지자체 경쟁력
	성과관리	• 성과측정, 사업지속가능성
워케이션 활성화사업	관광인프라	• 업무환경 적합성, 교통·편의시설 적합성
	상품화 전략	• 상품화계획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 홍보·마케팅 전략
	관리운영역량	• 운영주체 역량, 지속가능성

- 주: 1) 지역관광거점도시 3차 최종심사 기준
 2) 광역형 발표 및 현장평가 심사 기준
 3) 현장심사 장성평가(70%) 기준
 4) 성장지원형 서면평가 기준

자료: 윤주·진보라, 『공모형 지역관광사업 체계 개선방안』, 2024.

나. 과정평가

나-1. 과정평가 방법

과정평가에서는 주로 성과지표 및 사업의 사후관리 측면을 검토한다. 또한 사업의 공모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사업 내용의 재구조화 필요성을 검토한다.

나-2. 과정평가 결과

1) 성과 피드백 시스템 부재

관광안내소는 명확한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안내소가 한 번 조성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성과 피드백 시스템이 부재하면 과거 성과에 기반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별 성과 평가 시스템을 점검 및 마련하여 성과에 기반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정보를 공개하여 지자체 간 성과를 비교하고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우수 사례를 다른 지역이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예산 배정과 성과 인센티브가 실적에 따라 결정되며, 공공 부문 전반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과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고, 외부 평가 기구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2) 사업 내용의 조정 및 재구조화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은 축제 효과를 제고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육성을 목표로 한다. 문체부 지정 45개 ‘문화관광축제’를 브랜드화하여 통합 홍보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하이커 그라운드(HiKR)의 축제관 운영과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지사를 활용한 축제 홍보 및 외래객 유치 사업이 포함되었다. 앞으로는 각 축제별로 외래관광객 대상 홍보 및 마케팅을 개별 진행하되, ‘문화관광축제’라는 통합브랜드를 활용하여 홍보 채널만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IV-39〉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3년 예산	주요 내용
우수 문화관광 축제 지원	문화관광 축제지원	930	• '20~'23년 현행 문화관광축제 31개 대상, 축제당 30백만원 재정 지원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모니터링 및 컨설팅	350	• 축제 서면·현장 평가 • 산업포털 시스템(축제 평가 서류 업로드) 운영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936	• 대한민국 구석구석 문화관광축제 특별관 내 홍보부스 운영·HIKR 축제관 운영 • 관광공사 해외 지사 활용, 축제 외래객 유치 등
축제 경쟁력 강화	과제지원	1,000	• 10개 문화관광축제 대상, 컨설팅 기반 축제장 조성 지원 - 제로웨이스트 인프라 조성, 친환경 축제 여행상품 개발, 시민참여 축제 프로그램 구성
	전문인력 양성	250	• 축제 아카데미, 컨퍼런스, 청년층 대상 축제 직무 교육 등
	빅데이터 분석	200	• '23년 문화관광축제 관람객 수, 소비지출 빅데이터 분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계획」, 2023f.를 토대로 저자 작성

8. 국내관광 사업군(관광개발 및 편의지원)에 대한 영향평가

가. 영향평가 개요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의 영향평가에서 국제관광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통계분석 방법을 설명하였다. 전술한 통계모형 식 (1)과 (2)는 변수들의 정의를 약간 수정하면 국내관광 사업군의 성과를 평가하는 모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나. 영향평가 방법(식별전략)

1) 사업군별 영향평가 방법

국내관광 사업군(세부 사업군 및 일부 내역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해 개체 i 를 (국가가 아니라) 국내 시군구($i = 1, 2, \dots, N$)로, j 를 (시군구가 속한) 국내 시도($j = 1, 2, \dots, J$)로 재정의한다. 그리고 시점 t 는 위 소절과 동일하게 연도($t = 1, 2, \dots, T$)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종속변수 Y_{ijt} 는 이제 시도 j 에 속한 시군구 i 의 연도 t 현재 성과변수 값을 표시한다. 국내관광 사업군의 핵심 성과는 지역 소득과 지역 고용이다. 시군구 i 의 연도 t 의 지역 소득은 지역 내 총생산액(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전력판매량 그리고

인공위성 조도의 자연로그 값으로 측정한다. 한편 처치변수 변수 d_{ijt} 는 이제 시군구 i 에 대해 연도 t 에 해당 사업군 혹은 세부 사업에 투입된 예산액의 자연로그 값을 표시한다.

이상에서 정의한 변수들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군구 단위 패널자료를 이용해 국내관광 사업군 및 일부 내역사업들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국제관광 사업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관광 사업군 예산 투입의 인과효과를 보여주는 모수는 β_1 이다. $\beta_1 > 0$ 은 해당 사업의 예산 투입이 해당 시군구의 당해 연도 GRDP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beta_1 = 0$ 은 해당 사업의 예산 투입이 시군구의 GRDP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hat{\beta}_1$ 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판단한다.

국내관광 사업군은 국제관광 사업군과 비교했을 때 시군구 단위에서 세부 사업군과 일부 내역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관광 사업군을 더욱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데, 식 (2)를 사용하여 다음의 세부 사업군을 우선적으로 분석한 후 필요한 경우 내역사업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분석 대상 세부 사업군은 광역권 개발 사업군, 특화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지역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해양관광 자원 개발 사업군,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관광 편의 지원사업군이다.

2) 주요 내역사업 영향평가 방법

앞 절에서는 국내관광 사업군에 대한 영향 평가 방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국내관광 사업군의 처치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내역사업이 상호작용하면서 전국적으로 변동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분석은 사업군 전체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장점이 있지만, 개별 내역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관광 사업군의 세부 사업군(광역권 개발 사업군, 특화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지역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해양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관광 편의 지원사업군)에 속하는 주요 내역사업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영향평가(이하 '내역사업 영향 평가')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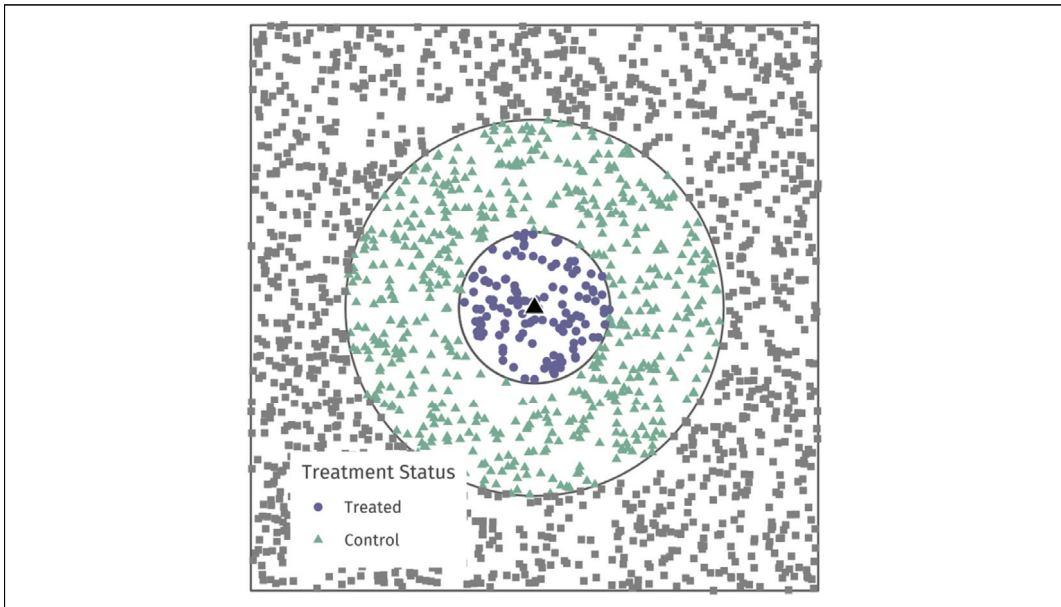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주요 내역사업, 즉 특화관광 자원개발 사업군의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폐광), 해양관광 자원개발 사업군의 해양관광 육성 사업,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의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추진 내용과 처치 지역을 고려하여 링 방법을 결합한 이중차분법(DID with Ring method)을 채택하였다(Asquith, et al., 2023; Butts, 2023). 링 방법

은 이중차분법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특정 구역을 중심으로 ‘링’ 형태의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처치 지역과 주변 지역 간의 성과 차이를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각 내역사업의 영향이 주변 지역에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식별하고,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링 방법의 핵심 개념은 처치 효과를 평가할 때, 공간적 비교를 통해 처치 지역과 인접한 비교 지역 간의 성과 차이를 추정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시행된 중심 위치(거점도시)를 처치 지역으로 정의하고, 해당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을 설정해 분석을 진행한다.

〈그림 IV-6〉은 링 방법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처치 링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이 지역의 성과 변화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분석에서 처치 링에 포함된 지역은 보라색 점(●)으로 표시되어 시각적으로 구분되며, 주요 분석 대상이 된다. 반면 비교 링은 처치 링 외곽에 위치한 주변 지역으로,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처치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이 비교 링은 처치 지역의 성과 변화와 비교하기 위한 대조군 역할을 하며, 처치 링의 외곽에 위치해 처치 효과를 상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비교 링에 포함된 지역은 녹색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처치 링과 구분된다.

[그림 IV-6] 링 방법에서 처치 및 통제집단



자료: Butts(2023: 2) Fig. 1.

마지막으로 바깥쪽 링 외곽에 위치한 나머지 지역은 처치 효과가 미치지 않거나 처치 지역과 유사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분석 표본에서 제외된다. 이는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처치 링과 비교 링 간의 성과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돕는다. [그림 IV-6]에서는 회색 점들로 표시된 이 바깥 지역이 분석에서 제외된 지역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링 방법을 활용한 이중차분 추정치는 처치 링과 비교 링 사이의 평균 성과 변화를 비교하여 도출된다. 이 방식은 처치 지역의 성과 변화가 비교 지역에 비해 얼마나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하며, 처치의 순수한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링 방법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 간의 비교를 통해 처치 효과의 공간적 확산을 최소화하고, 처치와 관련 없는 외생적 요인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링 방법은 합성통제법(Synthetic Control Method)에서 기증자 집단(donor pool)을 구성하는 방식과 유사한 개념을 적용한다. 합성통제법에서는 미처치 지역 중 처치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지역을 기증자 집단으로 구성하여, 이들을 처치 지역의 성과 변화와 비교하는 추정법이다(Abadie, et al., 2010). 링 방법에서는 처치 지역 바로 외곽에 위치한 비교 링을 설정하여, 처치 지역의 특성과 유사하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링 방법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예를 들어 Card and Krueger(1994)는 뉴저지(NJ)와 펜실베이니아(PA) 주의 경계선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패스트푸드점 고용에 미친 영향을 연구했다. 이 연구는 1992년 뉴저지 주의 최저임금 인상을 실험적 충격(treatment)으로 간주하고, 인접한 PA 경계선 인근 지역을 비교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경제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사례로,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의 경계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을 확보한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은 링 방법의 식별 전략과 유사하며, 처치 지역과 인접한 비교 지역 간의 성과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관광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한 접근이 적용된 바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은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에 관광지가 노출되었을 때의 효과를 추정하고자, 모든 시군구를 표본으로 삼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립공원들로 표본을 제한하였다. 프로그램 노출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1박 2일에 노출되었으나 유치 동기가 없고 유사한 매력을 가진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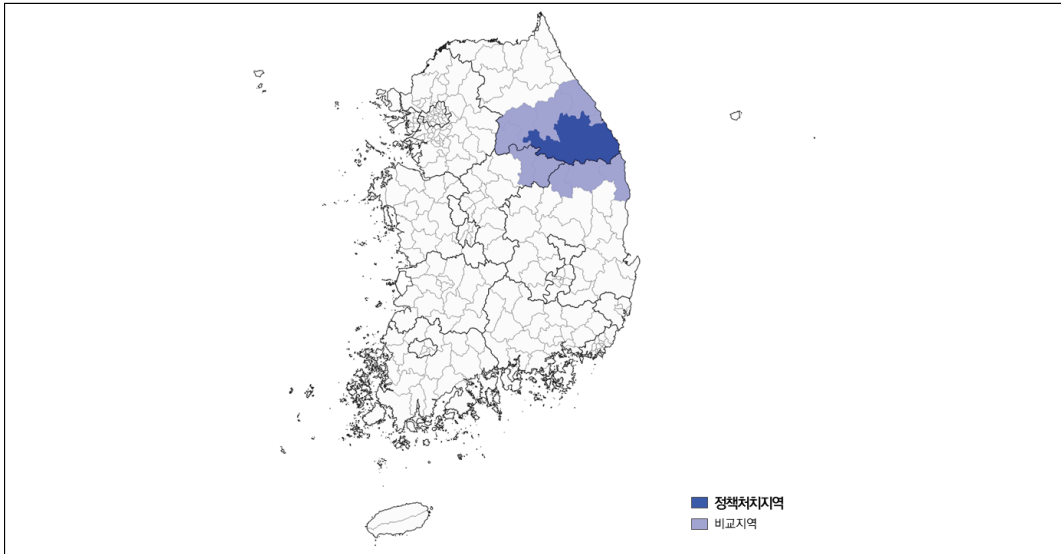
□ 특화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중 ‘폐광지역 지원(문체부)’

본 연구에서는 폐광지역 지원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강원도의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을 정책 처치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폐광지역 지원 정책은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들 지역이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으로 간주된다. 정책이 처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적·사회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평가함으로써, 폐광지역 지원 정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정책 효과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통제집단은 강원도 내의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횡성군, 평창군과 경상북도의 영주시, 봉화군, 울진군, 충청북도의 제천시, 단양군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통제 지역은 처치 지역과 동일한 강원도 및 인접 행정구역에 위치하면서도 폐광지역 지원 정책의 처치를 받지 않은 지역으로, 링 방법을 결합한 이중차분법을 통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링 방법을 통해 처치 지역과 물리적으로 인접하면서도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지닌 비교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정책 처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요인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높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정책 효과 비교에 적합하다. 첫째, 지리적 인접성이다.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은 강원도와 인접 도 경계에 위치하며, 산악 지형과 같은 유사한 자연 환경을 공유한다. 이는 해당 지역 간 교통 접근성 및 물류 조건이 유사함을 의미하며, 정책의 효과가 외부 요인보다 정책 자체의 처치 차이에 의한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을 높인다. 둘째, 산업 구조의 유사성이다. 두 집단 모두 전통적으로 광업, 농업, 관광업에 주로 의존해 왔으며, 대규모 제조업 중심지와는 다른 소규모 산업 구조를 가진다. 이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두 집단에 유사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인다. 셋째, 경제적 조건 측면에서도 유사성을 보인다.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은 소득 수준이 낮고,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경제적 활력과 인구 유입이 필요한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배경의 유사성은 폐광지역 지원 정책의 효과를 비교할 때 두 집단 간 경제적 차이에 따른 왜곡을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인구 규모와 도시화 수준에서의 유사성도 정책 효과 분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두 집단 모두 인구 밀도가 낮고 도시화가 상대적으로 덜 진행된 지역으로, 소규모 도시와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공유한다. 이는 정책의 효과가 인구 밀도나 도시화 수준의 차이로 인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며, 정책 처치 지역과 통제집단 간 비교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더욱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

[그림 IV-7] 폐광지역 지원(문체부)사업의 분석 대상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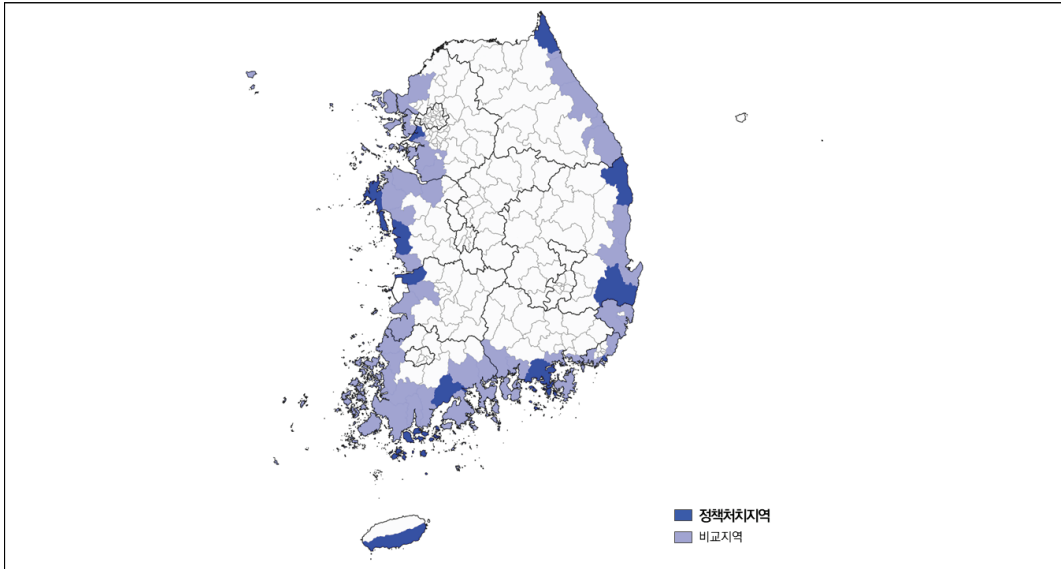
본 연구는 링 방법과 이중차분법을 결합하여 정책 처치 지역과 통제집단 간의 성과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폐광지역 지원 정책의 효과를 정밀하게 추정하고자 한다. 링 방법의 적용은 정책 처치 지역과 지리적·경제적 특성이 유사한 인접 지역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정책의 직접적 효과를 명확히 드러내고 외생적 요인의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비교를 기반으로 폐광지역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파악하고,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중 ‘해양관광육성 사업’

본 연구는 ‘해양관광육성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책의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선정하고, 두 집단의 유사성을 분석하였다. 해양관광육성 사업은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으로, 주요 처치 지역은 부산광역시 남구, 경기도 시흥시, 충청남도 보령시와 태안군, 전라남도 보성군과 완도군, 경상북도 경주시와 울진군, 경상남도 통영시와 고성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원도 고성군, 전라북도 군산시로 구성된다. 이들 처치 지역은 해양 관광과 레저 활성화를 위한 주요 거점으로 선정되었으며, 정책 처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수요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분석에서는 정책 처치 지역이 주로 해안에 위치한 특성을 고려하여, 통제집단 역시 해안 인접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처치 지역과 통제집단이 주요 지리적·경제적 특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정책 처치 지역의 성과 변화가 해안 특성을 공유하는 통제집단과 비교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그림 IV-8] 해양관광육성 사업의 분석 대상



자료: 저자 작성

통제집단으로는 부산광역시의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인천광역시의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울산광역시의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도의 평택시, 안산시, 파주시, 김포시, 화성시; 충청남도의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전라남도의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북도의 포항시, 영덕군; 경상남도의 창원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 강원도의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양양군; 전라북도의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이 포함되었다. 이들 통제 지역은 해안에 위치한 특성을 지니면서도 정책의 직접적인 처치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처치집단과 유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 적절한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은 지리적·경제적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어 정책 효과 분석에 적합한 비교 대상이 된다. 첫째, 지리적 특성에서 두 집단 모두 해안에 위치하여 해양 접근성을

공유한다. 이는 해양 관광 및 레저 활동을 위해 중요한 지리적 요소로, 해안 접근성이 관광 수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조건이 된다.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해양 접근성을 보유함으로써 해양관광육성 사업의 효과가 지리적 요인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 두 집단은 산업 구조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처치집단 지역은 전통적으로 해양 관광, 수산업, 해양 레저 산업을 주요 경제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해양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통제집단 역시 해양 관광과 관련된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양 레저 및 수산업이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 구조가 유사하다. 이러한 산업적 유사성은 정책 처치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일관되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셋째, 경제적 배경에서도 두 집단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 및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해양 관광 수요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발전 가능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두 집단 간 정책 효과의 차이가 지역의 경제적 조건에 기인하기보다는 정책 처치의 직접적인 효과를 반영할 가능성을 높인다. 넷째, 사회적·문화적 특성에서도 두 집단은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해안에 위치한 지역들은 해양 문화와 해양 관광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은 편으로, 해양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과 지지가 큰 편이다. 이로 인해 정책 처치가 해양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정책 효과 비교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해안 인접 지역으로 통제집단을 구성함으로써, 내륙 지역과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생적 요인을 최소화하였다. 내륙 지역은 해양 관광과 무관한 경제적 특성을 보이며, 해안과 관련된 자원이나 접근성을 갖추지 않아 해양관광육성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를 평가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통제집단을 해안 인접 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해양 관광과 관련된 외생적 요인을 배제하고 정책 효과를 보다 순수하게 평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요약하면 본 분석에서는 해양관광육성 사업의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지리적·경제적 유사성을 확보하고자 링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 관광 및 레저 활동에 미치는 정책의 영향을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두 집단 간 정책 처치에 따른 성과 변화를 보다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유사한 해양 관광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중 ‘관광거점 도시 육성 사업(문체부)’

본 분석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관광거점 도시 육성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책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고, 두 집단 간 유사성을 분석한다. 관광거점 도시 육성 사업은 방한 관광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목표로,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지역 관광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며, 외국인 관광객이 접근하기 쉬운 주요 거점을 지방에 마련하여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증대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관광거점 도시 사업의 주요 정책 처치 지역(이하, 정책 처치지역1)은 부산 중구,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에 5개 도시로 구성된다. 이들 도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관광 거점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직접적으로 시행되는 핵심 지역이다. 정책 처치지역1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거점으로서, 해당 지역에 다양한 관광 자원과 인프라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링 방법을 응용하여 정책 처치지역1에 인접한 20개 지역을 정책 처치지역2로 구분하였다. 정책 처치지역2는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주시, 경북 의성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예천군, 경북 봉화군, 강원 동해시, 강원 홍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양양군, 전북 익산시, 전북 김제시, 전북 완주군이다. 이들 지역은 관광거점 도시에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정책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책 처치지역2는 관광거점 도시에 인접하여 정책의 파급효과를 반영하는 간접 영향을 받는 집단으로 설정되었다.

이론적으로 관광거점 도시 육성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정책 처치지역1에서 나타나는 정책 효과는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 이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을 경우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방 관광 활성화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 및 관광산업이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 사업이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으로 관광 수요를 확산시키려는 취지를 달성했다면, 정책 처치지역1에 인접한 정책 처치지역2 역시 간접적인 효과를 받아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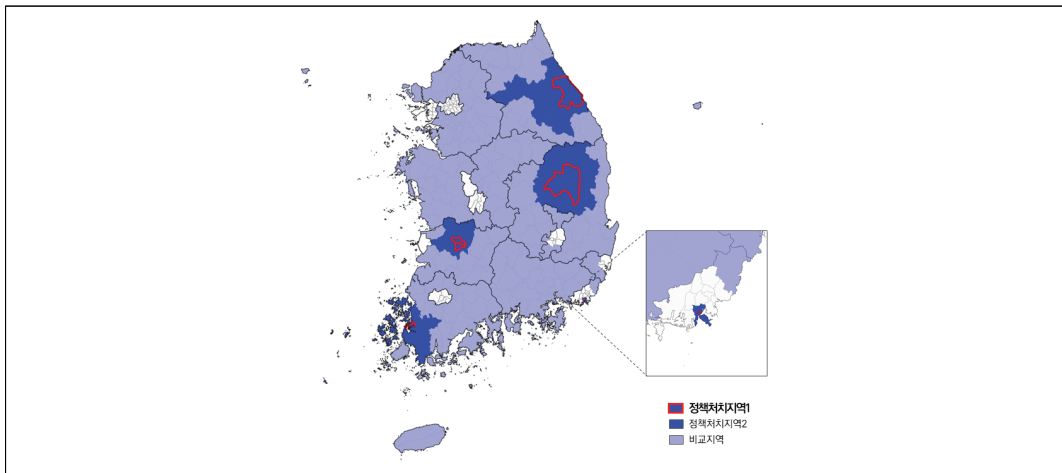
또한 관광거점 도시 육성 사업의 목표가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도시 육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의 핵심적 처치 지역인 정책 처치지역1에서의 효과는 간접 영향을 받는 정책

처치지역2에서의 효과보다 커야 한다. 이는 정책 처치지역1에서 직접적인 인프라 투자와 관광 자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정책 효과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그 인접 지역에서는 해당 효과가 상대적으로 덜 강하게 파급된다는 가정을 반영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정책 처치지역1과 정책 처치지역2를 나타내는 두 개의 더미변수를 설정하고, 회귀 분석을 통해 이 변수들의 계수를 추정할 것이다. 정책 처치지역1 더미변수의 계수는 해당 지역에서의 직접적인 정책 효과를 나타내며, 정책 처치지역2 더미변수의 계수는 간접적 파급효과를 반영한다. 두 계수를 비교함으로써, 정책 처치지역1에서의 직접적인 효과가 정책 처치지역2에서의 간접적인 효과보다 더 크지, 그리고 양(+)의 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비교지역(통제집단)은 정책 처치지역1과 정책 처치지역2에 속하지 않는 기타 시·군 지역(구 제외)으로 구성되었다. 이 비교지역은 관광거점 도시 육성 사업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처치집단과의 성과 차이를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적절한 대조군 역할을 한다. 통제집단은 거점 도시에 대한 간접적 접근성이 없으며, 관광거점 도시에 투자된 자원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정책 처치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순수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림 IV-9] 관광거점 도시 육성 사업의 분석 대상



자료: 저자 작성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은 지리적·경제적 유사성을 갖추고 있어 비교 분석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다. 첫째, 지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정책 처치지역1과 정책 처치지역2 모두 주요 관광 거점과 그 인접 지역에 위치하여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이 높다. 정책 처치지역1의 경우 지

방 주요 도시들로서 공항, 항만,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발달해 있어 접근성이 우수하다. 정책 처치지역2 또한 거점 도시에 인접해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하여, 정책의 간접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통제집단은 주요 관광 거점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여, 정책 처치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제공한다. 둘째, 산업 구조에서의 유사성을 갖는다. 정책 처치집단은 관광업과 서비스업이 경제의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 처치지역2와 통제집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특히 정책 처치지역2는 거점 도시에 인접해 관광업 관련 직간접적인 경제적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책 처치지역1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칠 가능성이 높다. 통제집단은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산업 구조상 관광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어 비교 분석의 일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외생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통제집단은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부산은 제외하였다. 관광거점 도시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통제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정책 처치의 순수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다. 이는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비교가 정책 처치로 인한 변화에 집중할 수 있게 하며, 외부 요인으로 인한 왜곡을 최소화하여 분석의 정확성을 높인다.

본 연구는 관광거점 도시 육성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정책 처치지역1, 정책 처치지역2,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지리적·경제적 유사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책 처치가 미친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비교 분석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방 관광 활성화라는 관광거점 도시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검증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 자료 수집 및 기초통계량

국내관광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분석에 사용될 성과 변수, 처치 변수, 통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이 분석에서는 '국내관광 지원사업의 예산 투입액'을 시군구 단위로 집계된 자료를 처치변수로 사용하며,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1년간의 연도별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1) 성과 변수

국내관광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주요 경제적 지표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역 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과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제공하는 종사자 수를 활용한다. GRDP는 특정 지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며 지역 발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종사자 수는 고용 변화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GRDP와 종사자 수 데이터 모두 공표 시점이 수집 시점에 비해 상당히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국내관광지원 사업이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시행되었으나, 현재 발표된 시군구별 GRDP 데이터는 2021년까지, 종사자 수 데이터는 2022년까지만 제공된다. 이러한 시차로 인해 국내관광 사업군의 성과를 시의성 있게 평가하기 어려우며, 정책의 신속한 효과 검증과 보완에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시의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인공위성 야간조도와 전력 판매량을 새로운 지표로 검토한다. 인공위성 조도 자료는 Henderson et al.(2012) 이후 경제발전의 대리변수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GRDP와 같은 전통적 경제 지표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경제 수준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전력 소비량(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역시 경제 활동의 변동성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경제 상황을 신속히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두 변수 모두 월 단위의 빈도로 제공되며, 읍면동 단위 이상의 세밀한 지리적 수준에서 경제 활동을 측정할 수 있어 장소 기반 정책 평가에 유용한 대리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대안적 지표로서 인공위성 조도와 전력 판매량에도 일부 한계가 존재한다. Gibson et al.(2020)에 따르면 인공위성 조도는 빛 공해가 적은 농업 중심 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이 활발하더라도 낮은 조도를 기록할 수 있으며, 도심 지역에서는 조도 포화 현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전력 사용량 또한 특정 산업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중심 지역은 전력 소비가 높지만, 서비스업 중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 소비량을 보일 수 있다. 더불어 에너지 절약 정책이나 기술 혁신으로 전력 사용량이 줄어들더라도 경제 성장이 지속될 수 있어 전력 판매량이 지역 경제활동을 완벽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지표 중 어느 하나만을 분석하지 않고, 각 지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GRDP, 전력 판매량, 인공위성 조도를 모두 사용하여 상호 보완적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의 변동성을 보다 정밀하게 포착하고, 대안적 지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 지역 내 총생산(GRDP)

〈표 IV-40〉은 시·군·구별 GRDP(지역 내 총생산)를 발표한 지자체 수를 연도별로 나타낸다. 1998년과 1999년에는 18개의 지자체만이 명목 GRDP를 발표할 수 있었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발표 지자체가 89~90개로 증가하였다. 이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72개 지자체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228개 지자체에서 명목 GRDP를 발표하게 되었다. 실질 GRDP 발표는 더욱 제한적이어서, 2000년대 초반에는 10~11개 지자체에 불과했고, 2005년 이후 47개로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159개로 확대되었다. 2016년 이후야 대부분의 지자체인 228개가 실질 GRDP를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많은 지자체가 GRDP를 발표하지 못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표하는 지자체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0〉 시기별 지자체별 명목 GRDP와 실질 GRDP 공표

(단위: 지자체 수)

관측치(시·군·구) 연도	명목 GRDP	2015년 기준 실질 GRDP
1998~1999	18	0
2000~2004	89~90	10~11
2005~2009	172	47
2010~2014	228	159
2015~2021	228	228

주: 통계청의 실질 GRDP는 2005년, 2010년, 2015년 기준으로 각각 발표됨. 연도별 실질 GRDP를 적절히 결합하여 장기 실질 GRDP를 산출할 수도 있지만,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실질 GRDP는 여러 이유로 결합이 불가능함. 이에 따라 가장 많은 시군구 공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최신 기준인 2015년 기준 실질 GRDP만을 표에 제시함.

시군구별 연도별 GRDP와 인구 정보를 이용하여 GRDP 공표 여부와 지역 규모 간의 체계적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GRDP 미공표(=1)를 종속변수로, 지자체 규모를 나타내는 인구를 설명 변수로 설정하여 패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41〉 인구규모와 GRDP 공표 간의 상관성

모형	인구 추정치	표준오차	t값	p값	95% 신뢰구간
패널 logit	-.097128	.0069169	-14.04	0.000	[-.1106849, -.0835711]
합동 logit	-.0026899	.0012026	-2.24	0.025	[-.0050469, -.0003328]

주: 종속변수는 명목 GRDP임. 패널 logit분석에서는 총 7,296개의 관측치가 사용되었으며, 228개의 시군구를 그룹 변수가 사용되었음. 합동 logit 분석에서는 총 7,328개의 관측치가 사용되었음.

〈표 IV-41〉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일 지역 내에서 인구가 적을수록 GRDP가 공표되지 않는 경향(패널 logit 모형)과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GRDP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합동 logit 모형)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내관광 사업의 정책 효과가 누락됨으로써 선택편의 문제(selection bias)가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GRDP가 결측된 소규모 지역에서는 관광정책 변동에 따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워 해당 사업의 실제 효과를 정확히 식별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⁵⁾ 따라서 GRDP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시군구 수준에서 국내관광 사업군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소규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정교한 성과 측정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력판매량과 인공위성 조도와 같은 대체 지표를 성과지표로 활용하여, 소규모 지역에서도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본 평가에서는 이러한 보완책으로 전력판매량과 인공위성 조도를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두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분석 결과에 중점을 두어 해석하고자 한다. GRDP 대신 전력판매량과 인공위성 조도를 활용하면, 특히 소규모 지역에서도 정책의 효과를 보다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42〉는 지역 내 총생산(GRDP)의 기초 통계량을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다. 전체 기간에 대한 GRDP의 평균은 7,131.0십억원이며, 표준편차는 9,727.0으로 나타나 비교적 큰 분포를 보인다. 최솟값은 271.3, 최댓값은 91,041.7이며, 총 2,637개의 관측치가 포함되었다. 2020년 이전의 경우 GRDP의 평균은 6,946.7십억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 표준편차는 9,437.0으로 나타났다. 최솟값과 최댓값은 각각 271.3과 81,880.2이고, 총 2,409개의 관측치가 포함되었다. 2021년의 경우 GRDP의 평균은 9,078.2십억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으며, 표준편차는 12,240.5로 나타나 분포가 더 넓다. 최솟값은 354.2, 최댓값은 91,041.7로 기록되었으며, 총 228개의 관측치가 포함되었다. 이는 물가 상승률 등으로 인해 다른 기간보다 평균과 변동 폭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2022년과 2023년의 GRDP 데이터는 현재 미공표 상태로 통계량이 제공되지 않았다.

5) 회귀분석에서 설명변수 x의 관측치는 모두 확보되었으나, 종속변수 y가 일부 개체에서만 관측되고, 관측되지 않은 개체들이 체계적인 특성을 가진 경우, 이를 선택편의 문제 또는 표본 선택편의 문제라고 한다. 이 경우, 데이터가 무작위로 결측되지 않고 특정 요인이나 특성에 따라 결측될 가능성이 있어 분석 결과가 편향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Heckman 2단계 방법 등이 사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선택편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자료의 부재 등 다른 이유가 결합되어 있어 Heckman 2단계 방법만으로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표 IV-42〉 GRDP의 기술통계량

(단위: 십억원)

구분	전체	2020년 이전	2021년	2022년	2023년
GRDP	7131.0	6946.7	9078.2	미공표	미공표
	(9727.0)	(9437.0)	(12240.5)		
	[271.3, 91041.7]	[271.3, 81880.2]	[354.2, 91041.7]		
	2637	2409	228		

주: 2004년부터 2023년까지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평균(SD), [최소, 최대], 관측치 순임.

□ 전력 판매량

본 연구는 국내관광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전력판매량을 지역 경제활동의 대리 지표로 활용한다. 전력판매량은 한국전력공사(KEPCO)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 다양한 계약종별 시군구 단위 월별 데이터를 포함하여 지역별 경제활동을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다. 전력판매량은 경제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로 높은 시의성과 신뢰성을 지니며, 정책 효과를 시의성 있게 평가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기능한다. 특히 GRDP와 고용 데이터의 시의성 문제를 보완하여 지역 경제활동의 변동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서, 국내관광 지원사업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제공하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의 시군구별 월별 전력 판매량을 연도별로 집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장소기반 정책의 경제적 성과를 실시간으로 평가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정책 분석을 기대한다.

〈표 IV-43〉은 전력 판매량(GW)의 기초 통계량을 연도별로 보여준다. 전체 기간 동안 전력 판매량의 평균은 1,991.3GW이며, 표준편차는 2,598.0으로 전력 판매량 값이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체 관측치 수는 4,580개로, 최솟값은 27.8, 최댓값은 21,235.2이다.

2020년 이전의 전력 판매량 평균은 1,924.7GW로,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표준편차는 2,486.8로 나타났으며, 최솟값과 최댓값은 각각 27.8과 19,482.6이다. 이 시기의 관측치 수는 3,893개다. 최근 2023년의 경우 평균 전력 판매량은 2,384.1GW로,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표준편차는 3,160.2로 나타났으며, 최솟값과 최댓값은 각각 72.4와 21,209.4였다. 관측치 수는 229개였다. 요약하면 전력 판매량은 2021년 이후 평균과 표준편차가 증가하며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IV-43〉 전력 판매량의 기술통계량

(단위: GW)

구분	전체	2020년 이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력판매량	1991.3 (2598.0)	1924.7 (2486.8)	2329.4 (3082.5)	2392.7 (3162.4)	2384.1 (3160.2)
	[27.8, 21235.2]	[27.8, 19482.6]	[67.9, 20601.1]	[72.3, 21235.2]	[72.4, 21209.4]
	4580	3893	229	229	229

주: 평균(SD), [최소, 최대], 관측치 순임.

□ 인공위성 조도(VIIRS)

본 연구에서는 인공위성 야간조도 자료로 VIIRS(Visible Infrared Imaging Radiometer Suite)를 활용한다. 현재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인공위성 야간조도 자료로는 VIIRS와 DMSP(Defense Meteorological Satellite Program)가 있으며, 두 자료는 시간적·공간적 해상도와 측정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

VIIRS 데이터는 2012년부터 제공되기 시작했으며, 월간 및 연간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 VIIRS의 주요 장점은 센서 포화 상태(sensor saturation)가 없다는 점과 최신 자료가 포함된다는 점이다. 센서 포화는 조도 센서가 측정 가능한 최대치를 초과할 경우에도 최댓값으로 기록되는 현상인데, VIIRS는 최대 코딩값(top-coding) 없이 더욱 정교한 조도 차이를 측정할 수 있다. 또한 DMSP에 비해 높은 공간 해상도를 제공하여 지역 간 조도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VIIRS는 본 연구에 적합한 고해상도 야간조도 자료로서 분석에 활용한다.

〈표 IV-44〉는 인공위성 야간조도 자료인 VIIRS의 기초 통계량을 연도별로 제시한 것이다. 전체 기간에 대한 조도의 평균은 13.6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6.9로 비교적 넓은 분포를 보인다. 조도의 최솟값은 0.3, 최댓값은 90.8이며, 총 2,748개의 관측치가 포함되었다. 최근 2023년에는 평균 조도가 13.5로 다시 소폭 하락하였으며, 표준편차는 16.0으로 나타나 분포가 다소 좁아졌다. 최솟값은 0.6, 최댓값은 80.0으로 기록되었고, 관측치 수는 229개이다.

요약하자면 조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며, 각 연도의 조도 분포는 표준편차 값에서 알 수 있듯이 다소 변동성이 존재한다.

〈표 IV-44〉 조도의 기술통계량

(단위: 0~∞)

구분	전체	2020년 이전	2021년	2022년	2023년
조도	13.6	13.4	14.4	14.8	13.5
	(16.9)	(16.9)	(17.3)	(17.7)	(16.0)
	[0.3, 90.8]	[0.3, 90.8]	[0.5, 75.2]	[0.6, 78.8]	[0.6, 80.0]
	2748	2061	229	229	229

주: 인공위성 야간조도 자료는 VIIRS임. 평균(SD), [최소, 최대], 관측치 순임.

□ 취업자 수

시군구별 고용자 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미시 원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및 연도별 고용 규모를 추계한다. 「전국사업체조사」는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이를 통해 지역별 연도별 각 사업체의 총 취업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사업체별 취업자 수를 지역 단위로 합산하여 전국의 시군구 및 읍면동별 총 고용 규모를 추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의 패널 데이터를 구성한다. 또한 원자료에는 사업체가 속한 산업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지역별 산업별 고용 규모를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

〈표 IV-45〉는 연도별 취업자 수(단위: 만명)의 기초 통계량을 보여준다.

〈표 IV-45〉 취업자 수의 기술통계량

(단위: 만명)

구분	전체	2020년 이전	2021년	2022년	2023년
취업자 수	6.6	6.2	10.0	10.1	미공표
	(8.5)	(8.0)	(11.2)	(11.4)	
	[0.1, 81.3]	[0.1, 81.3]	[3.7, 77.5]	[4.2, 77.6]	
	4351	3893	229	229	

주: 평균(SD), [최소, 최대], 관측치 순임.

전체 기간 동안 취업자 수의 평균은 6.6만명이며, 표준편차는 8.5로 나타났다. 최솟값은 0.1, 최댓값은 81.3으로 관측되었고, 총 4,351개의 관측치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2022년의 평균 취업자 수는 10.1만명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표준편차는 11.4로 2021년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최솟값과 최댓값은 각각 4.2와 77.6으로 관측되었고, 이 시기의 관측치는 229개이다. 2023년의 데이터는 현재 미공표 상태로, 통계량이 제공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취업자 수는 2020년 이전에는 평균 6만명대에 머물렀으나, 2021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1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이후로 표준편차도 증가하여, 취업자 수의 변동성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2) 정책 처치변수: 국내관광 사업군별 예산 투입액

앞서 국제 관광 지원사업의 경우 연도 t , 지역 i 에 대해 투입한 예산액의 자연로그 값을 처치변수 d_{it} 로 설정하였다. 국내 관광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실증분석에 사용되는 처치변수 d_{it} 는 시군구별 연도별 국내관광 사업군 및 세부 사업군의 예산 투입액의 자연로그 값이다. 다만 해당 내역사업들 중에서 시군구가 아닌 광역시도로 예산이 배분되어 광역시도에서 집행된 예산은 제외한다.

〈표 IV-46〉은 세부 사업군별 예산 투입액에 대한 요약통계량을 나타낸다.

〈표 IV-46〉 정책변수의 기술통계

(단위: 억원)

구분	전체	2020년 이전	2021년	2022년	2023년
광역권 개발 사업군	0.72 (5.78) [0.00, 112.07] 4589	0.16 (2.03) [0.00, 76.87] 3897	3.85 (14.48) [0.00, 112.07] 230	3.53 (11.62) [0.00, 80.65] 231	4.26 (14.76) [0.00, 95.53] 231
특화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1.23 (5.84) [0.00, 148.14] 4589	0.73 (4.16) [0.00, 100.00] 3897	3.32 (8.47) [0.00, 83.81] 230	4.44 (13.48) [0.00, 148.14] 231	4.33 (10.32) [0.00, 100.90] 231
지역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0.32 (4.14) [0.00, 219.60] 4589	0.04 (0.40) [0.00, 11.88] 3897	0.65 (2.01) [0.00, 20.78] 230	2.00 (7.35) [0.00, 55.88] 231	3.17 (16.41) [0.00, 219.60] 231
해양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0.57 (6.66) [0.00, 168.00] 4589	0.11 (2.47) [0.00, 124.00] 3897	2.47 (12.32) [0.00, 100.76] 230	3.46 (17.02) [0.00, 120.00] 231	3.61 (17.78) [0.00, 168.00] 231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0.60 (7.80) [0.00, 197.84] 4589	0.08 (2.19) [0.00, 82.16] 3897	3.94 (21.89) [0.00, 197.84] 230	3.97 (19.78) [0.00, 193.76] 231	2.60 (15.24) [0.00, 115.62] 231
관광편의 지원 사업군	0.58 (1.85) [0.00, 34.50] 4589	0.39 (1.29) [0.00, 19.61] 3897	1.56 (3.06) [0.00, 19.90] 230	1.88 (4.26) [0.00, 33.51] 231	1.54 (2.96) [0.00, 34.50] 231

주: 평균(SD), [최소, 최대], 관측치 순임.

광역권 개발의 전체 평균 예산은 시군구당 0.72억원(표준편차 5.78)이다. 2020년 이전에는 시군구당 0.16억원, 2021년에는 3.85억원, 2022년에는 3.53억원, 2023년에는 4.26억원으로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솟값은 0.00억원, 최댓값은 112.07억원으로 시군구당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 2021년부터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는데 이는 광역권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의미한다.

특화관광 자원개발 사업군의 전체 평균 예산은 시군구당 1.23억원(표준편차 5.84)이다. 2020년 이전 0.73억원에서 2021년 3.32억원, 2022년 4.44억원, 2023년에는 4.33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최솟값은 0.00억원, 최댓값은 148.14억원으로 지역별 차이가 크다. 특히 2021년 이후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이는 지역 관광 자원 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다.

지역관광 자원개발의 평균 예산은 시군구당 0.32억원(표준편차 4.14)이다. 2020년 이전 0.04억원, 2021년 0.65억원, 2022년 2.00억원, 2023년 3.17억원으로 예산이 급증했다. 이는 지역관광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연도별로 크게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최솟값은 0.00억원, 최댓값은 219.60억원으로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다.

해양관광 자원개발의 평균 예산은 시군구당 0.57억원(표준편차 6.66)이다. 2020년 이전에는 0.11억원이었으나 2021년 2.47억원, 2022년 3.46억원, 2023년 3.6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해양관광에 대한 투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시사하며,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솟값은 0.00억원, 최댓값은 168.00억원으로 편차가 크다.

도시관광 활성화는 평균 시군구당 0.60억원(표준편차 7.80)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20년 이전 0.08억원, 2021년 3.94억원, 2022년 3.97억원, 2023년 2.6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도시관광 인프라 개발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솟값은 0.00억원, 최댓값은 197.84억원이다.

관광편의 지원의 평균 예산은 시군구당 0.58억원(표준편차 1.85)으로, 2020년 이전 0.39억원, 2021년 1.56억원, 2022년 1.88억원, 2023년 1.5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이후 문화관광에 대한 지원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최솟값은 0.00억원, 최댓값은 34.50억원으로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군에서 2020년 이후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광역권 개발, 특화관광 자원개발, 해양관광 자원개발 및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에서 큰 폭의 예산 증가가 나타났다.

라. 영향평가 결과

이 절에서는 국내관광 사업군의 예산 투입이 지역 소득 및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를 사업군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각 사업군의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세부사업에 대한 실증분석도 실시하였다.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분석과 유사하게 다양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결과를 먼저 요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상세한 분석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관광 사업군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각 관광 사업군(광역관광, 특화관광, 지역관광, 해양관광, 도시관광, 관광편의)의 예산 투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력판매량과 조도를 대리 지표로 사용하여 예산 투입이 지역 경제와 소득에 미치는 단기 및 중장기적 영향을 검토한 결과, 사업군별로 상이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군에 맞는 정책 조정과 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사업군별 예산 투입 효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광역관광(〈표 IV-47〉 참조), 지역관광 사업군(〈표 IV-49〉 참조), 그리고 해양관광 사업군(〈표 IV-50〉 참조)에서는 예산 투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 투입이 지역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며, 관광객 유입 증가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일 사업군이더라도 해당 사업군을 구성하는 사업들에서는 이질적인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해양관광 자원 개발 사업군의 해양관광육성 사업(〈표 IV-56〉 참조)에서는 예산 투입의 경제적 효과가 매우 미미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양관광 육성사업의 대부분이 현재 아직 사업이 건설 중인 단계이므로 향후 지역경제 효과 등은 현재 건설 중인 시설들의 운영 이후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업군에서 예산 투입의 효과가 당해 연도(t 년)와 전년도($t-1$ 년)의 전력판매량과 조도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관광 예산이 주로 단기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 성과가 두드러지는 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산 투입의 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고용 효과와 관련해서는 광역관광, 특화관광, 관광편의 사업군에서 단기적 예산 투입이 취업자 수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였다(〈표 IV-53〉 참조). 이는 이들 사업군이 고용

창출에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며, 특히 광역관광과 같은 시설 투자 중심의 사업군은 단기적 고용 창출에 유리한 사업군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양관광과 도시관광 사업군은 예산 투입의 고용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나, 단기적으로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자면 첫째, 사업군별 맞춤형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 전력판매량과 조도, 그리고 고용 효과에 대한 예산 투입 효과가 사업군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각 사업군의 특성에 맞춘 예산 배분 전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광역관광과 지역관광 사업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득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으므로, 이러한 사업군에는 지역 경제의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둘째, 단기적 성과 극대화를 위한 신속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다수의 관광 사업군에서 단기적 예산 투입이 경제적 성과 지표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나타났으므로, 예산 집행 후 즉각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정책을 조정하여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는 정책의 지속성과 경제적 성과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으로, 각 사업군별 예산 집행 결과를 빠르게 점검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체계적 접근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장소기반에서 사람기반 관광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연구 결과, 관광 예산이 단기적 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 경제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시설 및 장소 중심의 관광정책에서 사람 중심의 접근으로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예산이 단기적 성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사람기반 정책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장기적 관광 효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 예산의 단기적 성과가 장기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를 감안할 때, 예산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경제 성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중장기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관광 사업군별 예산 투입이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며, 관광 예산이 주로 단기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사업군 특성에 맞춘 맞춤형 예산 정책과 지속 가능한 사람기반 관광정책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관광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이어지는 실증분석에서는 국내관광 사업군의 정책 투입이 지역 소득 및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를 사업군별로 분석한다. 분석은 광역권 개발 사업군, 특화 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지역 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해양 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도시 관광 활성화 사업군, 관광 편의 지원 사업군 순으로 진행된다.

1) 광역권 개발 사업군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표 IV-47〉은 광역관광 사업군의 예산 투입이 지역 소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종속변수는 각각 로그 GRDP, 로그 전력판매량, 로그 조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1)열부터 (9)열까지의 모형에서 시간 지연 효과를 고려하여 t 년도, $t-1$ 년도, $t-2$ 년도의 예산 투입이 각 종속변수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먼저 (1)열부터 (3)열은 로그 GRDP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결과이다. (1)열에서 t 년도 예산 투입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2)열과 (3)열에서는 시간 지연 효과를 고려하여 $t-1$ 년도와 $t-2$ 년도의 예산 투입을 포함하였으나,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 투입이 GRDP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가 뚜렷하지 않음을 시사할 수 있으나, GRDP의 공표 편향 문제로 인해 소규모 지역의 경제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로 로그 전력판매량과 인공위성 조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4)열부터 (6)열은 로그 전력판매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4)열에서 t 년도 예산 투입의 계수는 0.009423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어, 예산 투입이 10% 증가할 때 전력판매량이 약 0.094% 증가함을 시사한다. 이는 해당 연도의 예산 투입이 전력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내며, 전력판매량이 GRDP보다 광역관광 사업군의 경제적 성과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열과 (6)열에서는 시간 지연 효과를 고려하여 $t-1$ 년도, 혹은 $t-1$ 년도와 $t-2$ 년도의 예산 투입을 포함하였다. (5)열과 (6)열에서 t 년도와 $t-1$ 년도의 예산 투입이 모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였다. 이는 예산 투입이 전력판매량 증가에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6)열의 경우 $t-2$ 년도로 넘어가면서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산 효과가 약화되거나 소멸되는 경향을 보인다.

〈표 IV-47〉 광역관광 사업군 정책이 지역 소득에 미친 효과

종속변수	로그 GRDP	로그 GRDP	로그 GRDP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VIIR	로그 VIIR	로그 VIIR
변수	(1)	(2)	(3)	(4)	(5)	(6)	(7)	(8)	(9)
로그 사업군 예산(t 년)	-0.000436 (-.2474)	-0.000162 (-.1087)	-0.000244 (-.1674)	.009423*** (3.972)	.005678** (2.918)	.005232** (2.823)	.006191** (2.997)	.005714*** (4.071)	.005671*** (4.005)
로그 사업군 예산($t-1$ 년)		-0.000595 (-.4371)	-0.000529 (-.4269)		.004726*** (3.592)	.004669*** (3.555)		.000747 (.4303)	.000625 (.552)
로그 사업군 예산($t-2$ 년)			-0.000031 (-.02133)			-0.000193 (-.09913)			.000248 (.1385)
지역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표본 수	2637	2626	2579	4580	4351	4122	2748	2748	2748
지역 수	228			229			229		
분석 기간	2004~2021			2004~2023			2012~2023		
표본 평균(표준편차)	15.115 (1.155)			7.027 (1.065)			1.663 (1.485)		

주: 1. ()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계산된 t -통계량임.
 2. * $p<0.05$, ** $p<0.01$, *** $p<0.001$

즉 전력판매량에서는 t 년도와 $t-1$ 년도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관찰되었으며,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diminishing effect, 감소 효과)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7)월부터 (9)월은 인공위성 조도(VIIR)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7)월에서 t 년도 예산 투입의 계수는 0.006191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여, 예산 투입이 인공위성 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시간 지연 효과를 반영한 (8)월과 (9)월에서도 t 년도 예산 투입의 긍정적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며, 특히 (9)월의 계수는 .005671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인다. 다만 $t-1$ 년도와 $t-2$ 년도의 예산 투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인공위성 조도의 경우 예산 투입 효과가 단기적으로 집중되어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이는 인공위성 조도가 예산 투입의 단기적인 성과를 더 잘 반영하지만, 장기적 효과는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인공위성 조도에서는 t 년도에 강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효과는 빠르게 소멸되어 $t-1$ 년과 $t-2$ 년도로 갈수록 영향력이 미미해진다(diminishing effect). 이는 인공위성 조도가 단기적인 정책 성과를 민감하게 반영하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포착하지 못하는 점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GRDP 데이터의 한계와 소규모 지역에서의 공표 편향 문제를 고려할 때, 전력판매량과 인공위성 조도에서 유사한 긍정적 결과가 관찰된 점은 광역관광 사업군 예산이 지역 소득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전력판매량과 조도 분석 결과에 의하면 t 년도 예산 투입이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광역관광 사업군 예산이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다.

2) 특화관광 자원개발 사업군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표 IV-48〉은 특화관광 사업군 정책이 지역 소득에 미친 효과로, 특화관광 사업군의 예산 투입이 지역 소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종속변수로는 로그 GRDP, 로그 전력판매량, 로그 인공위성 조도(VIIR)를 사용하였으며, (1)월부터 (9)월까지의 모형에서 시간 지연 효과를 고려하여 t 년도, $t-1$ 년도, $t-2$ 년도의 예산 투입이 각 종속변수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표 IV-48〉 특화관광 사업군 정책이 지역 소득에 미친 효과

종속변수	로그 GRDP	로그 GRDP	로그 GRDP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VIIR	로그 VIIR
변수	(1)	(2)	(3)	(4)	(5)	(6)	(7)	(8)	(9)
로그 사업군 예산(<i>t</i> 년)	.000902 (.7563)	.000708 (.8249)	.000655 (.7785)	.005559*** (3.347)	.003221** (3.185)	.002705** (2.968)	.002428 (1.827)	.001115 (1.029)	.001072 (.998)
로그 사업군 예산(<i>t</i> -1년)		.000429 (.5006)	.000484 (.8098)		.003167** (2.965)	.001472** (2.602)		.002581* (2.401)	.001766* (2.132)
로그 사업군 예산(<i>t</i> -2년)			-.000252 (-.2905)			.002641** (2.637)			.001589 (1.641)
지역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표본 수	2637	2626	2579	4580	4351	4122	2748	2748	2748
지역 수	228	229		229			229		
분석 기간	2004~2021			2004~2023			2012~2023		
표본 평균(표준편차)	15.116 (1.155)			7.027 (1.064)			1.663 (1.485)		

주: 1. ()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계산된 *t*-통계량임.
 2. * $p < 0.05$, ** $p < 0.01$, *** $p < 0.001$

먼저 (1)열부터 (3)열은 로그 GRDP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결과이다. (1)열에서 t 년도 예산 투입의 계수는 0.000902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예산 투입이 GRDP에 미친 즉각적인 영향이 없음을 시사한다. (2)열과 (3)열에서는 시간 지연 효과를 반영하여 $t-1$ 년도와 $t-2$ 년도의 예산 투입을 추가로 포함하였지만, $t-1$ 년도와 $t-2$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 역시 모두 유의하지 않다. 이는 예산 투입이 GRDP에 미치는 단기 및 장기적 효과가 뚜렷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다. 다만 GRDP 데이터의 공표 편향 문제로 인해 소규모 지역의 경제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열부터 (6)열은 로그 전력판매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4)열에서 t 년도 예산 투입의 계수는 0.005559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며, 예산 투입이 10% 증가할 때 전력판매량이 약 0.055% 증가함을 시사한다. 이는 해당 연도의 예산 투입이 전력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 시간 지연 효과를 반영한 (5)열과 (6)열에서는 $t-1$ 년도와 $t-2$ 년도의 예산 투입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t , $t-1$ 년도의 예산 투입은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 전력판매량 증가에 단기 및 중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열부터 (9)열은 로그 인공위성 조도(VIIR)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 준다. (7)열에서 t 년도 예산 투입의 계수는 0.002428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8)열과 (9)열에서는 시간 지연 효과를 반영해 $t-1$ 년도와 $t-2$ 년도의 예산 투입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t-1$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는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였으나, t 년과 $t-2$ 년도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4)열부터 (9)열의 결과를 종합해 볼때, 전체적으로 특화관광 사업군 정책은 지역 소득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인공위성 조도의 경우 t 년도는 유의하지 않고 $t-1$ 년도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나타난다.

종합적으로 전력판매량과 인공위성 조도에서 나타난 유사한 긍정적 결과는 특화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예산이 지역 소득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전력판매량과 인공위성 조도 분석에서 일부 t 년도와 $t-1$ 년도의 예산 투입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는 것은 특화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예산이 시간 경과에 따라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지역관광 자원개발 사업군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표 IV-49〉는 지역관광 사업군 정책이 지역 소득에 미친 효과로, 지역관광 사업군 정책이 지역 소득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종속변수로는 로그 GRDP, 로그 전력판매량, 로그 인공위성 조도(VIIR)를 사용했으며, (1)열부터 (9)열까지의 모형에서는 시간 지연 효과를 고려하여 t 년도, $t-1$ 년도, $t-2$ 년도의 예산 투입이 각 종속변수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먼저 (1)열에서 로그 GRDP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결과를 보면, t 년도 예산 투입의 계수는 -0.000494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t 년도 예산 투입이 GRDP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2)열에서도 $t-1$ 년도와 $t-2$ 년도의 예산 투입을 포함하여 시간 지연 효과를 분석했으나, 모든 계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3)열에서 $t-1$ 년도와 $t-2$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산 투입이 GRDP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가 뚜렷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GRDP의 공표 편향으로 인해 소규모 지역의 경제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4)열부터 (6)열은 로그 전력판매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분석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양(+)의 계수가 추정되었으며, 특히 (5)열에서는 $t-1$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가 0.002318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였다. 이는 전년도 예산 투입이 현재 연도의 전력판매량 증가에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7)열부터 (9)열은 로그 인공위성 조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분석 결과이다. 모든 열에서 추정된 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관광 사업군 정책이 지역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7)열부터 (9)열은 인공위성 조도(VIIR)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7)열에서 t 년도 예산 투입의 계수는 0.006251 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인다. 이는 t 년도 예산 투입이 인공위성 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8)열과 (9)열에서는 시간 지연 효과를 반영해 $t-1$ 년도와 $t-2$ 년도의 예산 투입을 포함하였으며, $t-1$ 년도와 $t-2$ 년도의 계수는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사업군의 예산 투입이 단기 및 중기적 효과가 누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49〉 지역관광 사업군 정책이 지역 소득에 미친 효과

종속변수	로그 GRDP	로그 GRDP	로그 GRDP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VIIR	로그 VIIR	로그 VIIR
변수	(1)	(2)	(3)	(4)	(5)	(6)	(7)	(8)	(9)	
로그 사업군 예산(t 년)	-0.000494 (-0.3452)	-0.000978 (-0.7536)	-0.000905 (-0.7052)	.003728 (1.767)	.001952 (1.252)	.001155 (.8122)	.006251** (3.25)	.003584* (2.461)	.002878* (2.177)	
로그 사업군 예산($t-1$ 년)		.002108 (1.5)	.002057 (1.659)		.002318* (1.983)	.00117 (1.482)		.005589*** (4.344)	.003702*** (3.981)	
로그 사업군 예산($t-2$ 년)			.00048 (.2364)			.002496 (1.859)			.006134*** (3.96)	
지역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업도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표본 수	2637	2626	2579	4580	4351	4122	2748	2748	2748	
지역 수	228			229			229			
분석 기간	2004~2021			2004~2023			2012~2023			
표본 평균(표준편차)	15.116 (1.155)			7.027 (1.065)			1.663 (1.485)			

주: 1. ()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계산된 t -통계량임.
 2. * $p<0.05$, ** $p<0.01$, *** $p<0.001$

4) 해양관광 자원 개발 사업군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표 IV-50〉의 해양관광 사업군 정책이 지역 소득에 미친 효과는 해양관광 사업군의 예산 투입이 지역 소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종속변수로는 로그 GRDP, 로그 전력판매량, 로그 인공위성 조도(VIIR)를 사용하였으며, (1)월부터 (9)월까지의 모형에서 시간 지연 효과를 고려하여 t 년도, $t-1$ 년도, $t-2$ 년도의 예산 투입이 각 종속변수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먼저 (1)월부터 (3)월은 로그 GRDP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결과이다. (1)월에서 t 년도 예산 투입의 계수는 -0.002215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해당 연도의 예산 투입이 GRDP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2)월과 (3)월에서도 $t-1$ 년도와 $t-2$ 년도의 예산 투입을 포함하였으나,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 투입의 장기적 효과 또한 뚜렷하지 않다.

(4)월부터 (6)월은 로그 전력판매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4)월에서 t 년도 예산 투입의 계수는 0.005007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해당 연도 예산 투입이 전력판매량에 미친 즉각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 투입의 효과가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5)월과 (6)월에서는 t 년도뿐만 아니라 $t-1$ 년도와 $t-2$ 년도의 예산 투입을 추가로 포함하여 모형을 재구성하였다.

(5)월에서는 t 년도 예산 투입 계수가 0.006925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어, 예산 투입이 10% 증가할 때 전력판매량이 약 0.069% 증가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t-1$ 년도와 $t-2$ 년도의 예산 투입은 유의하지 않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산 효과가 소멸되는 경향을 보인다. (6)월에서도 t 년도 계수는 유의미한 반면, $t-1$ 년도와 $t-2$ 년도의 계수는 유의하지 않아 단기적인 긍정적 효과는 나타나지만, 중기 이후에는 효과가 사라지는 패턴을 보여준다.

(7)월부터 (9)월은 로그 인공위성 조도(VIIR)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7)월에서 t 년도 예산 투입의 계수는 0.006127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 (8)월에서는 t 년도 계수가 0.00777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이며, 예산 투입이 인공위성 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9)월에서도 t 년도 계수가 0.007931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만, $t-1$ 년도와 $t-2$ 년도의 계수는 유의하지 않아 예산 투입이 단기적으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IV-50〉 해양관광 사업군 정책이 지역 소득에 미친 효과

종속변수	로그 GRDP	로그 GRDP	로그 GRDP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VIIR	로그 VIIR	로그 VIIR
변수	(1)	(2)	(3)	(4)	(5)	(6)	(7)	(8)	(9)
로그 사업군 예산(t 년)	-0.02215 (-0.7746)	-0.00736 (-0.3158)	-0.01409 (-0.6644)	.005007 (1.212)	.006925* (2.112)	.006565* (2.087)	.006127 (1.919)	.007779** (2.836)	.007931** (2.96)
로그 사업군 예산($t-1$ 년)		-0.02676 (-1.294)	-0.04032 (-1.823)		-0.03192 (-1.023)	-0.0234 (-0.9675)		-0.02477 (-0.9204)	-0.01127 (-0.468)
로그 사업군 예산($t-2$ 년)			.005897 (1.441)			-0.001283 (-0.7707)			-0.002241 (-0.8859)
지역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업도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표본 수	2637	2626	2579	4580	4351	4122	2748	2748	2748
지역 수	228			229			229		
분석 기간	2004~2021			2004~2023			2012~2023		
표본 평균(표준편차)	15.116 (1.155)			7.027 (1.064)			1.663 (1.484)		

주: 1. ()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계산된 t -통계량임.
 2. * $p<0.05$, ** $p<0.01$, *** $p<0.001$

종합적으로 전력판매량과 인공위성 조도에서 나타난 결과는 해양관광 사업군 예산이 지역 소득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전력판매량과 인공위성 조도 분석에서 t 년도 예산 투입이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였다)는 것은 예산 투입이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되며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5)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표 IV-51>의 도시관광 사업군 정책이 지역 소득에 미친 효과에서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도시관광 사업군의 예산 투입이 지역 소득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로는 로그 GRDP, 로그 전력판매량, 로그 인공위성 조도(VIIR)를 설정하여, 각 연도의 예산 투입 효과를 t 년도, $t-1$ 년도, $t-2$ 년도 시차를 두고 분석하였다.

먼저 (1)열부터 (3)열은 로그 GRDP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결과를 보여주며, 이 세 열 모두에서 t 년도, $t-1$ 년도, $t-2$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도시관광 사업군의 예산 투입이 GRDP에 단기적이거나 장기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4)열부터 (6)열은 로그 전력판매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결과이다. 여기서도 t 년도, $t-1$ 년도, $t-2$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예산 투입이 전력판매량에 대해 일관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7)열부터 (9)열은 로그 인공위성 조도(VIIR)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결과이다. 이 부분에서도 모든 시차에서 예산 투입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예산 투입이 인공위성 조도에 미치는 단기적 및 장기적 영향이 없음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도시관광 사업군 예산의 투입은 t 년도, $t-1$ 년도, $t-2$ 년도 어느 시점에서든 지역 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도시관광 사업군 예산이 지역 소득 증대에 즉각적이거나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도시관광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적 개입과 전략 수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V-51〉 도시관광 사업군 정책이 지역 소득에 미친 효과

종속변수	로그 GRDP	로그 GRDP	로그 GRDP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VIIR	로그 VIIR
변수	(1)	(2)	(3)	(4)	(5)	(6)	(7)	(8)	(9)
로그 사업군 예산(t 년)	.000118 (.05105)	.000275 (.1123)	.000157 (.06402)	-.002644 (-.9085)	-.002607 (-1.29)	-.00224 (-1.195)	.000085 (.03321)	.000658 (.3015)	.000833 (.3717)
로그 사업군 예산($t-1$ 년)		-.000418 (-.3175)	-.000445 (-.3368)		.00054 (.2638)	.001019 (.6083)		-.001096 (-.6627)	-.000673 (-.3931)
로그 사업군 예산($t-2$ 년)			0.0000 (0.0000)			-.001013 (-.507)			-.001239 (-.6187)
지역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표본 수	2637	2626	2579	4580	4351	4122	2748	2748	2748
지역 수	228	229		229			229		
분석 기간	2004~2021			2004~2023			2012~2023		
표본 평균(표준편차)	15.116 (1.155)			7.027 (1.064)			1.663 (1.484)		

주: 1. ()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계산된 t -통계량임.
 2. * $p<0.05$, ** $p<0.01$, *** $p<0.001$

6) 관광 편의 지원사업군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표 IV-52〉은 관광편의 사업군 정책이 지역 소득에 미친 효과로, 관광편의 사업군의 예산 투입이 지역 소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종속변수로는 로그 GRDP, 로그 전력판매량, 로그 인공위성 조도(VIIR)를 사용하였으며, (1)열부터 (9)열까지의 모형에서 시간 지연 효과를 고려하여 t 년도, $t-1$ 년도, $t-2$ 년도의 예산 투입이 각 종속변수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먼저 (1)열부터 (3)열은 로그 GRDP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결과이다. (1)열부터 (3)열까지 t 년도 예산 투입의 계수는 양(+)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해당 연도의 예산 투입이 GRDP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2)열에서 $t-1$ 년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3)열에서는 $t-1$ 년도와 $t-2$ 년도의 예산 투입을 포함하고 있는데 $t-1$ 년도의 계수는 유의하지만 $t-2$ 년도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예산 투입이 GRDP에 단기적(당해 년 혹은 전년)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그러나 GRDP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4)열부터 (9)열까지의 결과를 좀 더 살펴본다.

(4)열부터 (6)열은 로그 전력판매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4)열에서 (6)열까지 모든 계수가 유의하다. 이는 전력판매량에 대한 예산 투입의 효과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7)열부터 (9)열은 로그 인공위성 조도(VIIR)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7)열에서 (9)열까지 모든 예산 투입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점에서 예산 투입이 인공위성 조도에 미친 단기적 또는 장기적 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관광편의 사업군의 예산 투입은 t 년도, $t-1$ 년도, $t-2$ 년도 모두에서 지역 소득을 구성하는 지표들(로그 GRDP, 전력판매량, 인공위성 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편의 사업군 예산이 지역 소득 증대에 즉각적이거나 지속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IV-52〉 관광편의 사업군 정책이 지역 소득에 미친 효과

종속변수	로그 GRDP	로그 GRDP	로그 GRDP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VIIR	로그 VIIR	로그 VIIR
변수	(1)	(2)	(3)	(4)	(5)	(6)	(7)	(8)	(9)	
로그 사업군 예산(t 년)	.003754** (2.736)	.003007** (2.737)	.003002** (2.838)	.01392*** (7.294)	.007829*** (6.13)	.006561*** (5.479)	.007712*** (5.743)	.002514* (2.495)	.002094* (2.281)	
로그 사업군 예산($t-1$ 년)		.001292 (1.243)	.001783* (2.328)		.007149*** (6.305)	.003839*** (6.251)		.00878*** (7.517)	.003804*** (5.009)	
로그 사업군 예산($t-2$ 년)			-.000987 (-.9541)			.004745*** (3.927)			.008618*** (7.017)	
지역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표본 수	2637	2626	2579	4580	4351	4122	2748	2748	2748	
지역 수	228			229			229			
분석 기간	2004~2021			2004~2023			2012~2023			
표본 평균(표준편차)	15.116 (1.155)			7.027 (1.064)			1.663 (1.484)			

주: 1. ()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계산된 t -통계량임.
 2. * $p<0.05$, ** $p<0.01$, *** $p<0.001$

7) 국내관광 사업군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표 IV-53〉은 국내관광 사업군 정책이 취업자 수에 미친 효과로서 각 사업군별 예산 투입이 지역의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종속변수로는 로그 취업자 수를 사용하였고, (1)열부터 (9)열까지 각 사업군의 예산 투입이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다. 홀수열은 해당 연도 예산 투입만을 포함하여 분석하였고, 짝수열은 예산 투입의 시간 지연 효과를 반영하여 t 년도뿐만 아니라 $t-1$, $t-2$ 년도의 예산 투입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 시간 지연 효과를 반영한 짝수열을 중심으로 각 사업군별 예산 투입이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하며, 시차에 따른 추정 계수의 변화를 통해 누적 효과의 감소나 증가 여부를 평가한다.

□ 광역관광 사업군

〈표 IV-53〉의 (1)열부터 (3)열을 보면, 광역권 사업군의 예산 투입은 t 년도와 $t-1$ 년도의 취업자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열에서 t 년도 예산 투입 계수는 0.006577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여, 예산이 10% 증가할 때 취업자 수가 약 0.065%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t-1$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는 0.004253으로 역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예산 투입이 중기적으로도 취업자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 특화관광 사업군

〈표 IV-53〉의 (4)열부터 (6)열을 보면 (4)열에서 t 년도 예산 투입의 계수는 0.003293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나타나며, 예산이 10% 증가할 때 취업자 수가 약 0.033%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1$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도 0.002466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였지만, $t-2$ 년도의 예산 투입은 유의하지 않아 장기적 누적 효과는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모든 시차의 효과를 살펴본 (6)열의 결과에 따르면 특화관광 사업군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미미하거나 효과가 없음을 일 수 있다.

□ 지역관광 사업군

〈표 IV-53〉의 (7)열부터 (9)열을 보면 지역관광 사업군의 예산 투입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취업자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열을 포함한 모든 시차에서 계수가 유의하지 않으며, 이는 해당 사업군의 예산 투입이 취업자 수 증대에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관광 사업군의 예산이 지역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하며,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 해양관광 사업군

〈표 IV-53〉의 계속의 (1)열부터 (3)열을 보면 해양관광 사업군 역시 모든 시차에서 예산 투입이 취업자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각 열에서 예산 투입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해양관광 사업군의 예산이 취업자 수 증가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시점 모두에서 예산 투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 사업군에 대한 예산 투입이 지역 취업자 수 증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나타낸다.

□ 도시관광 사업군

〈표 IV-53〉의 계속의 (4)열부터 (6)열을 보면, 도시관광 사업군의 예산 투입이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부정적임을 시사하는 결과는 흥미로운 발견이다. (4)열에서 t 년도 예산 투입이 10% 증가할 때 취업자 수가 약 0.065% 감소하는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보였다는 점은 단순히 예산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는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화로 인한 고용 감소, 관광산업의 구조적 변화, 또는 일부 취업 인력이 타 산업으로 이동하는 등의 경로를 통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규명하지 않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해당 경로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열에서도 t 년도 예산 투입의 음(-)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t-1$ 년도와 $t-2$ 년도의 예산 투입은 유의하지 않아, 장기적인 누적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시관광 사업군의 예산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취업자 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영향이 희미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53〉 국내관광 사업군 정책이 취업자 수에 미친 효과

종속변수 (로그 취업자수)	(1)	(2)	(3)	(4)	(5)	(6)	(7)	(8)	(9)
	광역권	광역권	광역권	특화관광	특화관광	특화관광	지역관광	지역관광	지역관광
로그 사업군 예산(t -1년)	.00923** (2.724)	.006577* (2.511)	.006293* (2.476)	.003293* (2.139)	.001623 (1.456)	.001382 (1.269)	.000879 (.4676)	.001589 (1.149)	.001853 (1.372)
로그 사업군 예산($t-1$ 년)		.004253* (2.362)	.003888** (2.631)		.002466* (2.133)	.001156 (1.814)		-.002056 (-.6678)	-.000994 (-.3732)
로그 사업군 예산($t-2$ 년)			.000919 (.5174)			.002206 (1.855)			-.004497 (-1.821)
지역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업도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표본 수									
지역 수	4351	4122	3893	4351	4122	3893	4351	4122	3893
분석 기간	2004~2021			2004~2023			2012~2023		
표본 평균(표준편차)	15.115 (1.155)			7.027 (1.065)			1.663 (1.485)		

〈표 IV-53〉의 계속

종속변수 (로그 취업지수)	(1)	(2)	(3)	(4)	(5)	(6)	(7)	(8)	(9)
	해양관광	해양관광	해양관광	도시관광	도시관광	도시관광	관광편의	관광편의	관광편의
로그 사업군 예산($t-1$ 년)	-0.001659 (-0.5012)	-0.001074 (-0.3686)	-0.000905 (-0.3048)	-0.006534* (-2.349)	-0.00525* (-2.222)	-0.005155* (-2.253)	.006192*** (3.38)	.00351** (3.131)	.003164** (3.06)
로그 사업군 예산($t-1$ 년)		-0.000419 (-0.3233)	-0.000267 (-0.2185)		-0.002495 (-1.472)	-0.002158 (-1.358)		.003647** (3.026)	.002116*** (3.389)
로그 사업군 예산($t-2$ 년)			-0.000322 (-0.2624)			-0.000849 (-0.5409)			.002618* (2.27)
지역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표본 수									
지역 수	4351	4122	3893	4351	4122	3893	4351	4122	3893
분석 기간	2004~2021			2004~2023			2012~2023		
표본 평균(표준편차)	15.115 (1.155)			7.027 (1.065)			1.663 (1.485)		

주: 1. ()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계산된 t -통계량임.
 2. * $p<0.05$, ** $p<0.01$, *** $p<0.001$

□ 관광편의 사업군

〈표 IV-53〉의 계속의 (7)열부터 (9)열을 보면, 관광편의 사업군의 예산 투입은 t 년도와 $t-1$ 년도 모두에서 취업자 수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열에서 t 년도 예산 투입 계수는 0.00351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나타내어, 예산이 10% 증가할 때 취업자 수가 약 0.035% 증가함을 시사한다. 또한 (9)열을 미루어 보았을 때, t 년도, $t-1$ 년도, $t-2$ 년도의 계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관광편의 사업군의 예산 투입이 단기 및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누적 효과를 발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 성과 지표와 정기적인 평가 체계의 도입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이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이다. 이를 통해 각 사업군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에는 사업 구조를 개선하거나 자원 배분을 조정하여 지역 경제의 실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성과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정책 대응은 제한된 예산을 최적화하여 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지역 및 상황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

8) 주요 세부 및 내역사업 분석

다음으로 앞선 세부 사업군 분석에 이어, 세부 사업군 내 주요 세부 혹은 내역 사업군들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기술한다.

가) 특화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이 분석은 특화관광 자원개발 사업군의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의 예산 투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결과를 보여준다. 종속변수로는 로그 GRDP, 로그 전력 판매량, 로그 인공위성 조도(VIIR)를 사용하였으며, 시간의 지연 효과를 반영하여 t 년도, $t-1$ 년도, $t-2$ 년도의 예산 투입이 각각의 변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폐광지역에 대한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표 IV-54〉의 (1)열부터 (3)열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이 GRDP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t 년도 예산 투입의 계수는 각각 0.02802, 0.02496, 0.02359로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t-1$ 년도의 예산 투

입 계수 역시 0.03819와 0.03702로 양(+)의 값을 보였지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2$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는 -0.009507 로 미미한 음(-)의 효과를 보였으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폐광지역 관광사업 예산이 GRDP와 같은 전통적인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기에는 GRDP 지표에 한계가 있어, 이 분석에서는 GRDP 지표의 해석을 중심으로 다루지 않는다.

다음으로 (4)열부터 (6)열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이 전력판매량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t 년도 예산 투입의 계수는 각각 0.03056, 0.02136, 0.01912로 나타났으며, 양(+)의 값을 가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6)열에서의 $t-1$ 년도 예산 투입 계수는 0.0421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예산 투입이 시차를 두고 전력 사용량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t-2$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는 -0.04948 로 음(-)의 값을 나타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이 인프라 구축 및 경제활동을 통해 전력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t-1$ 년도의 유의미한 결과는 해당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단기적이기보다는 일정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7)열부터 (9)열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이 인공위성 조도(VIIR)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t 년도 예산 투입의 계수는 각각 -0.000711 , -0.005441 , -0.005403 으로 음(-)의 값을 가지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t-1$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는 각각 0.0268과 0.02672로 양(+)의 효과를 보였지만, 유의미하지 않다. $t-2$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는 매우 작은 값(0.000236 및 -0.01566)을 보이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폐광지역 관광사업 예산이 조도 증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크지 않거나 시간이 더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폐광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이 단기간 내에 야간 조도 증가를 유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나타낸다. <표 IV-54> 특화관광 자원개발 사업군의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의 분석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은 지역경제에 매우 미미하거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54〉 특화관광 자원개발 사업군의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종속변수	로그 GRDP	로그 GRDP	로그 GRDP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VIIR	로그 VIIR	로그 VIIR
변수	(1)	(2)	(3)	(4)	(5)	(6)	(7)	(8)	(9)	
로그 사업군 예산(t 년)	0.02802 (0.5148)	0.02496 (0.4866)	0.02359 (0.4725)	0.03056 (0.5733)	0.02136 (0.6967)	0.01912 (0.7274)	-0.000711 (-0.01919)	-0.005441 (-0.1623)	-0.005403 (-0.1619)	
로그 사업군 예산($t-1$ 년)		0.03819 (0.7688)	0.03702 (0.7454)		0.0174 (0.3989)	.04215** (3.291)		0.0268 (0.7488)	0.02672 (-0.7096)	
로그 사업군 예산($t-2$ 년)			-0.009507 (-0.2985)			-0.04948 (-0.9324)			0.000236 (-0.01566)	
지역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표본 수	165	163	161	280	266	252	168	168	168	
지역 수	14	14	14	14	14	14	14			
분석 기간	2004~2021			2004~2023			2012~2023			
표본 평균(표준편차)	14.471 (0.635)			6.942 (0.646)			0.181 (.607)			

주: 1. ()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계산된 t -통계량임.
 2. * $p<0.05$, ** $p<0.01$, *** $p<0.001$

나) 지역관광 자원개발 사업군의 한국형 지역관광활성화: '걷기여행길'

〈표 IV-55〉 지역관광 자원개발 사업군의 한국형 지역관광활성화: '걷기여행길'은 지역관광 자원개발 사업군의 '걷기여행길' 예산 투입이 지역 소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종속변수로는 각각 로그 GRDP, 로그 전력판매량, 로그 인공위성 조도(VIIR)를 사용하였으며, (1)월부터 (9)월까지의 모형에서 시간 지연 효과를 고려하여 t 년도, $t-1$ 년도, $t-2$ 년도의 예산 투입이 각 종속변수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먼저 (1)월부터 (3)월은 '걷기여행길' 사업이 GRDP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1)월, (2)월, 그리고 (3)월 모두에서 t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는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지만, $t-1$ 년도와 $t-2$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는 유의하지 않다. 이는 GRDP가 지역 전체의 경제성장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걷기여행길'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분석에서는 GRDP 지표의 해석을 중심으로 다루지 않는다.

(4)월부터 (6)월은 '걷기여행길' 사업이 전력판매량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결과를 보여준다. (4)월부터 (6)월의 모든 계수가 유의하지 않아, '걷기여행길' 예산 투입이 전력판매량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해당 사업이 전력 사용량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7)월부터 (9)월은 '걷기여행길' 사업이 인공위성 조도(VIIR)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9)월에서는 t 년도와 $t-1$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가 각각 0.002932와 0.003215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t-2$ 년도의 예산 투입 역시 0.005542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 이는 '걷기여행길' 예산 투입이 인공위성 조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단기에서 중기, 장기적으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계수가 t 년도에서 $t-2$ 년도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이 관찰되는데, 이는 '걷기여행길' 예산 투입의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어 점점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초기에는 다소 미미하게 나타났던 조도 증가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됨에 따라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걷기여행길' 사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야간 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연계된 환경적 개선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55〉 지역관광 자원개발 사업군의 한국형 지역관광활성화: '김기여행길'

종속변수	로그 GRDP	로그 GRDP	로그 GRDP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VIIR	로그 VIIR	로그 VIIR
변수	(1)	(2)	(3)	(4)	(5)	(6)	(7)	(8)	(9)	
로그 사업군 예산(t 년)	-0.0338* (-2.087)	-0.03258* (-2.021)	-0.003367* (-2.032)	.003361 (1.374)	.002062 (1.061)	.001626 (.8645)	.003518* (2.058)	.002692 (1.818)	.002932* (2.019)	
로그 사업군 예산($t-1$ 년)		-0.001824 (-1.197)	-0.001652 (-1.162)		.002829 (1.454)	.001679 (1.101)		.004016** (2.621)	.003215* (2.518)	
로그 사업군 예산($t-2$ 년)			-0.001351 (-.5749)			.003821 (1.673)			.005542** (2.732)	
지역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표본 수	2637	2626	2579	4580	4351	4122	2748	2748	2748	
지역 수	228			229			229			
분석 기간	2004~2021			2004~2023			2012~2023			
표본 평균(표준편차)	15.116 (1.155)			7.027 (1.065)			1.663 (1.485)			

주: 1. ()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계산된 t -통계량임.
 2. * $p<0.05$, ** $p<0.01$, *** $p<0.001$

결론적으로 지역관광 자원개발 사업군에서 추진된 ‘걷기여행길’ 사업은 GRDP나 전력판매량과 같은 전통적인 경제 지표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인공위성 조도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보였다. 이는 ‘걷기여행길’ 사업이 주로 도시 밀집 지역보다는 자연 경관 중심의 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기존의 경제 지표로는 이 사업의 효과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경제 지표인 GRDP나 전력판매량은 도시 중심의 경제활동을 잘 설명하지만, 농촌이나 교외 지역에서는 경제적 변화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반면 인공위성 조도는 인프라가 덜 발달한 지역의 경제활동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외곽 지역의 경제활동을 설명하는 유용한 지표로 사용된다.

따라서 한국의 ‘걷기여행길’ 사업도 도시 외곽이나 농촌 지역에서 관광객 유입과 경제활동을 유발하면서, 인공위성 조도를 통해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이는 비도시 지역 중심의 사업 효과를 분석할 때 인공위성 조도가 적절한 성과 측정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 해양관광 자원 개발 사업군의 해양관광육성

〈표 IV-56〉 해양관광 자원 개발 사업군의 해양관광육성은 해양관광 자원 개발 사업군의 해양관광육성 예산 투입이 지역 소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종속변수는 로그 GRDP, 로그 전력판매량, 로그 인공위성 조도(VIIR)를 사용하였으며, (1)월부터 (9)월까지의 모형에서 시간 지연 효과를 고려하여 t 년도, $t-1$ 년도, $t-2$ 년도의 예산 투입이 각 종속변수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먼저 (1)월부터 (3)월은 해양관광육성 사업이 GRDP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1)월, (2)월, (3)월 모두에서 t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GRDP가 전체 경제성장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특정 지역 중심으로 시행되는 해양관광육성 사업의 효과를 포착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4)월부터 (6)월은 해양관광육성 사업이 전력판매량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결과를 보여준다. (4)월부터 (6)월까지의 모든 계수가 유의하지 않아, 예산 투입이 전력판매량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해양관광육성 사업이 전력사용량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그 영향이 작음을 시사한다.

〈표 IV-56〉 해양관광 자원 개발 사업군의 해양관광육성

종속변수	로그 GRDP	로그 GRDP	로그 GRDP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VIIR	로그 VIIR	로그 VIIR
변수	(1)	(2)	(3)	(4)	(5)	(6)	(7)	(8)	(9)	
로그 사업군 예산(t 년)	-0.001574 (-.524)	-0.000053 (-.0221)	-0.0008 (-.3615)	.001445 (.3048)	.003041 (.8008)	.003149 (.8589)	.00252 (.7179)	.004262 (1.53)	.004504 (1.673)	
로그 사업군 예산($t-1$ 년)		-0.00281 (-1.296)	-0.004097 (-1.81)		-0.002218 (-.7243)	-0.001555 (-.6881)		-0.002513 (-1.029)	-0.00089 (-.4343)	
로그 사업군 예산($t-2$ 년)			.005883 (1.416)			-0.001145 (-.6347)			-0.00281 (-1.092)	
지역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표본 수	861	861	841	1460	1387	1314	876	876	876	
지역 수	73			73						
분석 기간	2005~2021			2004~2023			2012~2023			
표본 평균(표준편차)	15.110 (1.163)			7.178 (1.237)			1.575 (1.385)			

주: 1. ()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계산된 t -통계량임.
 2. * $p<0.05$, ** $p<0.01$, *** $p<0.001$

(7)열부터 (9)열은 해양관광육성 사업이 인공위성 조도(VIIR)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7)열에서 t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는 0.00252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8)열에서는 t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 0.004262로 나타났으나 역시 유의하지 않다. (9)열에서도 t 년도, $t-1$ 년도, $t-2$ 년도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해양관광육성 사업이 인공위성 조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지 않음을 나타낸다.

종합적으로 해양관광 자원 개발 사업군에서 추진된 해양관광육성 사업의 예산 투입은 GRDP, 전력판매량, 인공위성 조도(VIIR)와 같은 지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사업의 경제적 성과가 전통적인 경제 지표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지역 경제에 대한 영향이 미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해양관광육성 사업의 예산 투입이 GRDP, 전력판매량, 조도 지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은 해양관광 자원 개발 사업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인프라 확충에서 기대되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해양관광 사업의 자원 투입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갖기 위해 추가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산 투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구조를 개선하거나, 사람 중심의 관광 접근을 통해 지역 경제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해양관광 육성사업의 대부분이 현재 아직 사업이 건설 중인 단계이므로 향후 지역경제 효과 등은 현재 건설 중인 시설들의 운영 이후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라)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의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관광 거점도시

〈표 IV-57〉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의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관광 거점도시는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의 예산 투입이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은 관광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예산 투입이 지역 소득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 소득을 측정하는 지표로 로그 GRDP, 로그 전력 판매량, 로그 인공위성 조도(VIIR)를 사용하였다.

먼저 (1)열부터 (4)열까지는 지역 내 총생산(로그 GRDP)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1)열에서 t 년도 예산 투입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t-1$ 년도의 예산 투입 계수는 (2)열에서 -0.003592, (3)열에서 -0.003573로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표 IV-57〉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의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관광 거점도시

종속변수	로그 GRDP	로그 GRDP	로그 GRDP	로그 GRDP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VIIR	로그 VIIR	로그 VIIR	로그 VIIR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로그 사업군 예산(<i>t</i> 년)	.002896 (.8391)	.0047 (1.157)	.004458 (1.077)		-.00857** (-3.105)	-.007638** (-3.104)	-.006809** (-3.027)		-.008745** (-2.928)	-.005268 (-1.712)	-.005204 (-1.705)	
로그 사업군 예산(<i>t</i> -1년)		-.003592* (-2.364)	-.003573* (-2.345)			-.000278 (-.3678)	-.000762 (-1.824)			-.004555 (-1.94)	-.005335** (-2.836)	
로그 사업군 예산(<i>t</i> -2년)			0 (.)				.000585 (.6873)				.001059 (.6558)	
처치집단1				.03813 (.8094)				-.1223** (-3.222)				-.1111** (-2.722)
처치집단2				-.01774 (-.6917)				-.05168 (-1.429)				.06122 (1.573)
지역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표본 수	1929	1918	1871	1929	3180	3021	2862	3180	1908	1908	1908	1908
지역 수	159				159				159			
분석 기간	2004-2021				2004-2023				2004-2023			
표본 평균 (표준편차)	14.849 (1.159)				6.889 (1.182)				(0.907 (1.082)			

주: 1. ()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계산된 *t*-통계량임.

2. * $p < 0.05$, ** $p < 0.01$, *** $p < 0.001$

다음으로 (5)월부터 (8)월까지의 전력판매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도시관광 활성화(관광 거점도시) 예산 투입이 전력판매량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다. (5)월에서는 t 년도 예산 투입이 전력판매량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t-1$ 년도의 예산 투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예산 투입이 단기적으로 지역 에너지 소비와 같은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9)월부터 (12)월까지의 인공위성 조도(VIIR)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도시관광 활성화 예산이 지역 야간 조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9)월에서 t 년도 예산 투입이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었고, (10)월의 모든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11)월에서도 (9)월과 유사한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관광 거점도시 사업은 도시 관광 및 산업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기적 효과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사업은 관광수용력, 접근성, 관광자원의 경쟁력 및 실현 가능성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도시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명확한 경제적 효과가 관측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의 순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는 해당 사업이 기대한 경제적 성과를 점진적으로 창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현재 관광 거점도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를 보이며, 인근 지역으로의 방문 범위를 확장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의 확대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실증적 분석을 바탕으로 관광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관광 편의 지원사업군의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 지역관광조직

〈표 IV-58〉 관광 편의 지원사업군의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 지역관광조직은 관광 편의 지원사업군에서 국내 관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관광 조직에 투입된 예산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에는 지역 소득 지표로서 로그 GRDP(지역 내 총생산), 로그 전력판매량, 로그 인공위성 조도(VIIR)를 사용하였으며, (1)월부터 (9)월까지의 모형에서 시간 지연 효과를 반영하여 t 년도, $t-1$ 년도, $t-2$ 년도의 예산 투입이 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먼저 (1)열, (2)열, (3)열은 로그 GRDP를 기준으로 예산 투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해당 연도 예산 투입뿐만 아니라 시차를 둔 예산 투입의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단기적으로 예산 투입이 GRDP와 같은 지역 내 총생산 지표에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력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4)열, (5)열, (6)열의 결과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해당 연도 예산 투입과 시차를 둔 예산 투입 모두 전력판매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분석에서는 음(-)의 효과가 관찰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단기적으로 지역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인공위성 조도를 기준으로 한 (7)열, (8)열, (9)열의 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예산 투입이 조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으며, 이는 예산 투입이 단기적으로 지역의 생활 인프라나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관광편의지원 사업군 중 내역사업 '지역관광조직'의 예산 투입이 지역 내 총생산, 전력판매량, 조도와 같은 주요 경제 및 생활 지표에 단기적인 긍정적 성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관광조직의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조직이 충분히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관광조직이 지자체의 행정적 통제하에 있을 경우 민간의 창의적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Bornhorst, et al.(2010)은 관광 목적지 관리 조직(Destination Management Organizations, DMO)의 성공 요인으로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조하였으며, Dredge(2006) 또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의사결정이 관광 조직의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Wang and Xiang(2007)은 관광 조직의 네트워크 관리와 협력 구조가 자율성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관광 개발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볼 때, 지역관광조직이 지자체에 지나치게 의존적일 경우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V-58〉 관광 편의 지원 사업군의 국내관광 역할 강화 사업: 지역관광조직

종속변수	로그 GRDP	로그 GRDP	로그 GRDP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VIIR	로그 VIIR	로그 VIIR
변수	(1)	(2)	(3)	(4)	(5)	(6)	(7)	(8)	(9)
로그 사업군 예산(t 년)	-0.002117 (-.9036)	-0.001786 (-.8174)	-0.001439 (-.6533)	-0.00008 (-.03122)	-0.000498 (-.2584)	-0.000515 (-.2623)	.002673 (1.16)	.002363 (1.279)	.002881 (1.477)
로그 사업군 예산($t-1$ 년)		-0.000287 (-.1394)	-0.000891 (-.3537)		.000506 (.276)	-0.000454 (-.407)		.000697 (.3249)	-0.001731 (-1.066)
로그 사업군 예산($t-2$ 년)			.004267 (.7437)			.001883 (.8302)			.005369 (1.945)
지역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표본 수	2637	2626	2579	4580	4351	4122	2748	2748	2748
지역 수	228			229			229		
분석 기간	2004~2021			2004~2023			2012~2023		
표본 평균(표준편차)	15.116 (1.155)			7.027 (1.065)			1.663 (1.485)		

주: 1. ()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계산된 t -통계량임.
 2. * $p<0.05$, ** $p<0.01$, *** $p<0.001$

따라서 지역관광조직의 역할과 권한을 재검토하여 민간 부문의 창의적인 접근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관광조직이 지역 경제에 더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바) 관광 편의 지원사업군의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관광해설

〈표 IV-59〉 관광 편의 지원사업군의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관광해설은 관광 편의 지원사업군의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특히 관광해설 예산 투입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지역 소득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로그 GRDP(지역 내 총생산), 로그 전력판매량, 로그 조도를 사용했다. (1)열은 지역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해당 연도의 예산 투입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예산 투입의 효과가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1)열 모형은 장기적인 인과효과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열과 (3)열에서는 t 년뿐만 아니라 $t-1$ 년도와 $t-2$ 년도의 예산 투입액을 추가 변수로 포함하여 지연 효과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2)열과 (3)열의 추정치를 중심으로 예산 투입이 지역 소득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먼저 로그 GRDP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1)열에서는 해당 연도의 예산 투입이 GRDP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2)열과 (3)열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전력판매량에 대한 예산 투입 효과는 (4)열에서 (6)열까지 분석되었다. (4)열의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예산 투입이 전력판매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 투입이 지역 내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력판매량의 증가는 산업 및 상업 활동의 활발함을 반영할 수 있어 관광 편의 사업이 이러한 경제 활동을 장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5)열과 (6)열에서는 각각 1년 및 2년의 지연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예산 투입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관광 편의 지원 사업군 중 '문화관광해설사'가 단기적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장기적 경제 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도에 대한 예산 투입 효과는 (7)열에서 (9)열에 걸쳐 검토되었다. (7)열의 결과에서는 해당 연도의 예산 투입이 조도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관광 편의 지원사업이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IV-59〉 관광 편의 지원사업군의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관광해설

종속변수	로그 GRDP	로그 GRDP	로그 GRDP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전력량	로그 VIIR	로그 VIIR	로그 VIIR
변수	(1)	(2)	(3)	(4)	(5)	(6)	(7)	(8)	(9)	
로그 사업군 예산(t 년)	.004427** (2.704)	.004666** (3.314)	.004495** (3.26)	.0153*** (7.443)	.009216*** (5.764)	.008327*** (5.424)	.008962*** (5.782)	.001225 (.9977)	.001703 (1.417)	
로그 사업군 예산($t-1$ 년)		-.000292 (-.2117)	.001343 (1.387)		.006267*** (4.33)	.00204*** (3.902)		.01055*** (7.093)	.003287** (3.093)	
로그 사업군 예산($t-2$ 년)			-.002228 (-1.748)			.005037** (3.26)			.009493*** (5.665)	
지역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표본 수	2637	2626	2579	4580	4351	4122	2748	2748	2748	
지역 수	228			229			229			
분석 기간	2004~2021			2004~2023			2012~2023			
표본 평균(표준편차)	15.116 (1.155)			7.027 (1.065)			1.663 (1.485)			

주: 1. ()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계산된 t -통계량임.
 2. * $p<0.05$, ** $p<0.01$, *** $p<0.001$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관광 편의 지원사업군의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의 예산 투입이 로그 GRDP, 전력판매량, 조도와 같은 지표에 대해 단기적 및 지연 효과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력판매량과 조도에서 나타난 유의미한 양(+)의 효과는 예산 투입이 지역의 경제 활동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로그 GRDP에 대한 장기적 효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아 관광 편의 지원사업이 지역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력판매량과 조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지역관광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3)에서는 무작위 배정을 통한 문화관광해설의 처치-통제 집단 실험 결과, 문화관광해설이 지역관광에 대한 관광객의 추가 지불 의사(Willingness to Pay, WTP)를 약 7.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관광해설이 지역의 관광을 고부가가치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해설 사업이 인적자원기반 관광정책으로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인적자원기반 관광정책은 지역 자원의 고유한 가치를 관광객에게 전달함으로써 관광지의 매력을 높이고 관광객의 경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관광해설 서비스는 이러한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자원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을 통해 관광객의 지역관광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결과는 관광해설 사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지지하며, 인적자원기반 관광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고유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지역 경제에 지속 가능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이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표 IV-60〉 내역사업들이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는 여러 내역사업의 예산 투입이 지역 취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에 포함된 내역사업은 특화관광 자원개발 사업군의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이하 “폐광”), 지역관광 자원개발 사업군의 ‘한국형 지역관광활성화: 걷기여행길’(이하 “걷기”), 해양관광 자원 개발 사업군의 ‘해양관광육성’(이하 “해양”),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의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관광 거점도시’(이하

“거점도시”), 관광 편의 지원사업군의 ‘국내관광 역량 강화 사업: 지역관광조직’(이하 “지역관광”), 관광 편의 지원사업군의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관광해설’(이하 “관광해설”)이다.

정책 변수로서 각 사업의 예산 투입이 시차를 두고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간 지연 효과를 반영한 모형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각 열에서는 t 년도뿐만 아니라 $t-1$ 년도, $t-2$ 년도의 예산 투입을 추가 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예산 투입의 단기(t 년도), 중기($t-1$ 년도), 장기($t-2$ 년도) 영향을 모두 반영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투입이 취업자 수에 미치는 포괄적인 인과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폐광 사업 분석) 폐광 사업에 대한 분석을 보면 (1)열과 (2)열 모두에서 예산 투입이 취업자 수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광 사업이 단기적 및 장기적 고용 창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걷기 사업 분석) 걷기 사업에 대한 분석을 보면 (3)열과 (4)열 모두에서 예산 투입이 취업자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이는 걷기 사업이 단기적 및 장기적 고용 창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걷기 사업이 주로 환경 개선이나 관광 자원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임을 반영할 수 있다.

(해양 사업 분석) 해양 사업 또한 (5)열과 (6)열에서 예산 투입이 취업자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관광육성 사업은 주로 해양 인프라 확충 및 장기적 관광 자원 개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용 창출보다는 인프라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거점도시 사업 분석) 거점도시 사업의 경우 (7)열과 (8)열에서 당해 연도의 예산 투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나타냈다. (7)열의 계수는 -0.008826 로 나타났으며, 이는 거점도시로 지정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거점도시(처치집단1)와 거점도시의 연접지역(처치집단2)을 처치로 구분하여 분석한 (9)열의 결과도 거점지역에 대한 재정지출이 취업자 수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거점도시 지정과 예산 집중이 지역 경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

(지역관광조직 DMO 사업 분석) 지역관광 사업은 (10)열과 (11)열 모두에서 예산 투입이 취업자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관광조직을 통한 예산 투입이 지역 고용 창출에 제한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광해설 사업 분석) 관광해설 사업에 대한 분석에서는 (12)열과 (13)열에서 당해 연도의 예산 투입이 모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였다. 특히 (12)열의 계수는 0.006879로 나타나, 관광해설 사업이 지역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관광해설 서비스가 지역 관광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경로를 제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관광해설 사업이 고용 창출에 가장 일관된 긍정적 효과를 보였으나, 다른 사업들은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기반 관광정책으로서 관광해설 프로그램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거점도시와 지역관광조직과 같은 사업들은 정책적 목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예산 집행 방식 및 자율성을 고려한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표 IV-60〉 내역사업들이 취업자 수에 미치는 효과

사업군	폐광	폐광	건기	건기	해양	해양
변수	(1)	(2)	(3)	(4)	(5)	(6)
로그 사업군 예산(<i>t</i> 년)	-0.03748 (-1.44)	-0.01545 (-0.6069)	-0.02796 (-1.186)	-0.02512 (-1.31)	.000023 (.006076)	.000972 (.2755)
로그 사업군 예산(<i>t</i> -1년)		-0.01014 (-1.059)		-0.04334 (-1.103)		.000239 (.1726)
로그 사업군 예산(<i>t</i> -2년)		-.05973* (-2.381)		-.01121** (-2.791)		-.001266 (-.7992)
처치집단1						
처치집단2						
지역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표본 수	266	238	4351	3893	1387	1241
지역 수	229		229		73	
분석 기간	2004~2022		2004~2022		2004~2022	
표본평균 (표준편차)	9.694 (0.827)		10.399 (1.266)		10.344 (1.169)	

〈표 IV-60〉의 계속

사업군	거점도시	거점도시	거점도시	DMO	DMO	관광해설	관광해설
변수	(7)	(8)	(9)	(10)	(11)	(12)	(13)
로그 사업군 예산(<i>t</i> 년)	-0.008826*** (-3.532)	-0.008123** (-2.694)		-0.002554 (-1.134)	-0.001896 (-1.05)	.006879*** (3.486)	.003611** (2.883)
로그 사업군 예산(<i>t</i> -1년)		-0.0005 (-.3705)			-0.001589 (-1.334)		.0021** (2.608)
로그 사업군 예산(<i>t</i> -2년)		-0.000502 (-1.145)			-0.001778 (-1.184)		.002353 (1.636)
처치집단1			-.1247*** (-3.63)				
처치집단2			-.04812 (-1.521)				
지역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연도 FE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표본 수	3021	2703	3021	4351	3893	4351	3893
지역 수	159			229		229	
분석 기간	2004~2022			2004~2022		2004~2022	
표본평균 (표준편차)	10.01566 (1.26078)			10.399 (1.266)		10.399 (1.266)	

주: 1. ()는 강건한 표준오차를 사용하여 계산된 *t*-통계량임.

2. * $p < 0.05$, ** $p < 0.01$, *** $p < 0.001$

V. 평가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1. 계획평가 및 과정평가 결과 요약

관광인프라 지원 사업군에 대한 계획평가 및 과정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에 대한 계획평가에서는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및 3년 단위의 인바운드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정평가에서는 사업 수행 기관이 사업 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 및 보고하여 성과지표가 주로 단기적 성과에 집중, 사업 만족도 조사 미흡, 지자체 참여 저조로 사업성과 창출에 한계,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련성이 낮은 사업 추진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광역권 개발 사업군에 대한 계획 평가에서는 동일한 지역에서 유사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업 간 중복성과 예산 비효율성이 우려된다. 특히 사업이 완료된 이후 해당 사업을 통해 어떠한 산출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광역권 개발 사업이 계획과 집행에 집중되는 반면, 그 효과를 검증하고 환류하는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광역권 개발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별 사업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성과 지표를 강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정비 중이며, 제출된 지표를 국가관광자원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TDSS)에 집계하여 모니터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다만 TDSS는 개별 사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제출 의무를 명시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질적인 사업들 간에도 표준화된 성과 관리 지표를 개발하여 확정하고, TDSS의 표준화된 항목으로 구성하여 집계하고 활용하는 것

이 중요하다. 또한 기존에 입력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한 투입, 활동, 산출 지표를 소급 조사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과 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

또한 시설 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에 집중하여 연계·협력을 위한 광역권 관광개발계획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별 균등한 사업 배분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과정평가에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집행률 저조, 사업 타당성 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요인 다수 발생,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미비 등의 문제가 파악되었다.

특화관광자원개발 사업군에 대한 계획평가에서는 특화자원 활용에 대한 기준 및 방향(가이드라인)이 부족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자원 배분 효율성 및 지역 간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과정평가에서는 당초 목적과 다른 시설 사용, 사업 실적 및 성과 모니터링 체계 미비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군에 대한 계획평가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과정평가에서는 공모사업의 예측 가능성 저하로 지자체의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 사업만 지속적으로 컨설팅 및 모니터링이 진행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해양관광자원개발 사업군에 대한 계획평가에서는 기본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된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과정평가에서는 계획과 상이하게 사업이 진행되거나 비합리적인 절차로 사업이 진행된 문제가 파악되었다.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에 대한 계획평가에서는 코로나19, 관광소비자 트렌드 변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인해 기본계획이 수정되어 목표 달성에 한계가 존재하는 사업이 파악되었고, 과정평가에서는 토지 이용 문제 등으로 인한 예산 집행률 저조, 비효과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 낭비 가능성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관광편의지원 사업군에 대한 계획평가에서는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군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일괄적인 기준 및 방식의 사업 체계 문제도 파악되었다. 과정평가에서는 성과 피드백 시스템 부재, 사업 내용의 조정 및 재구조화 필요성 등이 평가되었다.

〈표 V-1〉 사업군별 평가 결과 요약

구분	평가 필요성	평가 결과	
가.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1) 외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 (2) 국가별 외래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 필요 (3)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성 검증 필요 (4) 추진체계 점검 및 객관적인 성과지표 검토	계획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및 3년 단위의 인바운드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
		과정	(1) 사업 수행 기관이 사업 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 및 보고하여 성과지표가 주로 단기적 성과에 집중 (2) 사업 만족도 조사 미흡 (3) 지자체 참여 저조로 사업성과 창출에 한계 (4)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련성이 낮은 사업 추진
나. 광역권 개발 사업군	(1)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계획 수립 (2) 지속적인 예산집행을 저조 (3) 동일한 지역에 대한 예산 중복 투입 가능성	계획	(1) 동일 지역에 유사한 사업이 반복 추진 (2) 사업별 성과지표가 상이하여 사업 간 성과 비교가 어려움 (3) 시설 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에 집중하여 연계·협력을 위한 광역권 관광개발계획 목적 달성에 한계 (4) 지자체별 균등한 사업 배분으로 사업 효과 저조 및 지연 가능성 존재
		과정	(1)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집행률 저조 (2) 사업 타당성 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요인 다수 발생 (3)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미비
다. 특화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1) 특정 지역에 대한 예산 집중 가능성 (2) 고유 자원 활용 방안 및 가이드라인 부재	계획	(1) 특화자원 활용에 대한 기준 및 방향(가이드라인) 부족 (2)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자원 배분 효율성 및 지역 간 형평성 저해
		과정	(1) 당초 목적과 다른 시설의 사용 (2) 사업 실적 및 성과 모니터링 체계 미비
라. 지역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1) 유사 및 중복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필요 (2) 사업성과 및 사후 관리 미비	계획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 문제
		과정	(1) 공모사업의 예측 가능성 저하로 지자체의 효율적 대처에 한계 (2) 일부 사업만 지속적으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진행
마. 해양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1) 기본계획 미수립 등 사업 추진 과정 검토 필요 (2) 자원 고유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	계획	기본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사업 추진
		과정	일반적이지 않은 사업 추진 절차
바.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1) 낮은 예산 집행률 검토 (2)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계획	코로나19, 관광소비자 트렌드 변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인해 기본계획 수정 및 목표 달성에 한계
		과정	(1) 토지 이용 문제 등으로 인해 예산 집행률 저조 (2) 비효과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 낭비 가능성 존재
사. 관광 편의 지원사업군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 추진	계획	(1)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역할 구분 문제 (2) 일괄적인 기준 및 방식의 사업 체계
		과정	(1) 성과 피드백 시스템 부재 (2) 사업 내용의 조정 및 재구조화 필요

2. 영향 평가결과 요약

관광인프라 지원 사업군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은 방한 외래관광객 수 및 외국인 직접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역권 개발 사업과 특화관광자원개발 사업은 지역 소득 및 취업자 수 증가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 소득 및 취업자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 및 해양관광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지역 소득 증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취업자 수 증가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은 지역 소득 및 취업자 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관광편의지원 사업도 지역 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V-2〉 관광인프라 지원 사업군의 세부 사업군별 영향평가 결과

구분	(1)	(2)	(3)			(4)
	방한 외래 관광객	외국인 직접 투자	지역 소득			
			(3-1) GRDP	(3-2) 전력판매량	(3-3) VIIR	
1.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	○				
2. 광역권 개발 사업군			X	○	○	○
3. 특화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X	○	○	△
3-1.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X	△	X	X
4. 지역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X	△	○	X
4-1. 걷기여행길			X	X	○	X
5.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X	○	○	X
5-1. 해양관광육성			X	X	X	X
6.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X	X	X	X
6-1.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X	X	X	X
7. 관광 편의지원 사업군			X	X	X	○
7-1. DMO			X	X	X	X
7-2. 문화관광해설사			○	○	○	○

주: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가 상당수 도출된 결과를 의미하며,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계수가 상당히 많진 않지만 일부 도출된 경우, X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음의(-) 계수가 도출된 경우를 의미함

자료: 본 심층평가의 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재작성

3. 정책 제언

가.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1) 사업 실적을 객관적이고 장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마련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에서는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대행사나 수탁받은 기관이 성과평가 결과까지 자체적으로 제출하여 성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성과평가 지표가 주로 단기적 산출물 및 투입량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성과지표만으로는 각종 홍보·마케팅 관련 재정지출이 외래관광객 유치, 외국인 직접투자 등 경제적 성과를 얼마나 창출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관광 해외 광고 사업의 2024년 보조사업별 정량 지표로 디지털 매체 조회 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콘텐츠 제작 건수, 프로모션 참가자 수 등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개별 활동에 국한된 단기 산출물(outputs)일 뿐이다. 또한 문체부는 해당 사업의 성과보고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3대 전략 시장의 방한 외래 관광객 수를 성과지표로 포함하고 있으나, 방한 외래 관광객 수는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독립적인 성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지표 유지에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연도에 국가별로 투입된 예산과 방한 외래 관광객 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단기 산출물(outputs)에 의존하는 평가보다 연도별·국가별 투입 예산 대비 방한 외래 관광객 수의 절대적·상대적 비교를 통해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고 유용하다.⁶⁾ 따라서 단기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외래 관광객 수, 방문 의향 전환율, 재방문 및 추천 의향, 브랜드 인지도 변화 등의 지표를 활용하되, 세부 사업 실적에 국한되지 않고 연도별·국가별 투입 예산과 방한 외래 관광객 수 간의 관계(예산대비 증감율 등)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본 심층 평가에서 제시하는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현대 경영학과 마케팅에서 논의되는 광고와 브랜드 구축, 그리고 매출 간의 논리적 관계에 비추어 보면, 광고 및 브랜드 구축은 국가별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 투입에 해당하며, 매출은 방한 외래 관광객 수로 해석할 수 있다.

2) 사업 만족도 파악 및 지자체 참여 확대 필요, 사업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 추진 지양

2024년 코리아그랜드세일 사업의 참여기업 중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기업이 약 10% 수준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사업체가 직접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참가기업에 대한 설문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의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자체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 효과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 DRT 사업은 대도시보다는 교통 접근성이 낮은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되, 외래관광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결제 편의를 함께 개선하여 외래관광객 유치라는 사업목적에 맞도록 사업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영향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 중심의 해외지사 평가 및 예산 배분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의 상당한 예산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 위탁 집행되고 있다.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에서 해외지사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국가별 외래관광객 수와 같은 절대적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단기적인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홍보 마케팅 예산 투입액 대비 외래관광객 증가율을 중심으로 한 평가 방식이 보다 적합하다. 이는 각 지사의 성과를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안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해당 연도 성과에 대한 투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성과 평가에서 예산 대비 증가율을 중심으로 삼는 것은 효율성 평가와 성과 기반 예산 배분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먼저 예산 대비 증가율은 주어진 자원하에서 성과를 극대화한 해외지사의 상대적 성과를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표로 작용하며, 각 지사가 동일한 자원으로 달성한 성과를 비교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또한 성과 중심의 예산 배분 체계는 높은 성과를 보인 해외지사에게 추가적인 자원을 배정함으로써 전반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반대로 낮은 성과를 보인 지사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요구하거나 자원 배분을 조정하는 전략을 도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예산 대비 증가율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접근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

는 데 기여한다. 절대적 외래관광객 수의 증대만을 목표로 삼을 경우, 예산이 단기적 캠페인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예산 대비 증가율을 기반으로 한 평가 체계는 중장기적인 전략의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예산 투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는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이 단순한 방문자 수 증대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유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본 심층평가에서 제안한 국제관광 사업군의 정량평가 방법론을 해외지사의 성과 평가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방법론은 예산 투입 효과를 지역별, 시간적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해외지사의 장기적인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매년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에 대한 정량적인 정책 평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중장기 계획 수립 전에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에 대한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별 예산 투입이 확인되는 특정 해외지사가 초기에는 낮은 성과를 보였으나 장기적으로 예산 투입의 효과가 누적되어 성과를 창출하는 경우, 정량평가 방법론은 이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은 성과 기반 예산 배분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해외지사 간 성과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해외지사의 성과 평가와 예산 배분 과정에서 예산 대비 증가율을 중심으로 한 평가 체계는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효한 방안이다. 이를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의 정책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장기적인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3〉 국제관광 사업군의 대륙별 홍보·마케팅 예산·편성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연도	전 세계(공통)			아시아			유럽			북중미			전체		
	편성액	집행액	차이	편성액	집행액	차이	편성액	집행액	차이	편성액	집행액	차이	편성액	집행액	차이
2002	1,376	1,375	1	62	62	-	31	31	-	31	31	-	1,500	1,499	1
2004	240	240	-	-	-	-	-	-	-	-	-	-	240	240	-
2005	620	620	-	191	191	-	77	77	-	32	32	-	920	920	-
2006	70	70	-	49	49	-	22	22	-	9	9	-	150	150	-
2007	2,200	2,200	-	246	246	-	103	103	-	50	50	-	2,599	2,599	-
2008	1,140	1,140	-	627	627	-	259	259	-	114	114	-	2,140	2,140	-
2009	1,200	1,200	-	813	813	-	340	340	-	147	147	-	2,500	2,500	-
2010	1,500	1,500	-	636	636	-	262	262	-	102	102	-	2,500	2,500	-
2011	43,887	43,867	20	1,076	1,076	-	452	452	-	172	172	-	45,587	45,567	20
2012	58,665	58,105	560	11,290	11,290	-	736	736	-	2,075	2,075	-	72,766	72,206	560
2013	57,200	57,149	51	10,614	10,614	-	564	564	-	3,108	3,107	1	71,486	71,434	52
2014	62,832	61,729	1,103	5,224	5,224	-	509	509	-	2,446	2,446	-	71,011	69,908	1,103
2015	85,826	67,621	18,205	5,556	5,556	-	245	245	-	1,950	1,950	-	93,577	75,372	18,205
2016	38,034	37,755	279	26,856	26,856	-	229	229	-	6,447	6,437	10	71,566	71,277	289
2017	15,986	15,349	637	36,049	35,849	200	190	190	-	7,021	7,021	-	59,246	58,409	837
2018	17,971	15,644	2,327	35,101	34,010	1,091	295	295	-	7,292	7,284	8	60,659	57,233	3,426
2019	20,721	20,165	556	29,078	29,078	-	443	443	-	9,530	9,530	-	59,772	59,216	556
2020	26,972	22,135	4,837	26,858	26,839	19	411	411	-	10,919	10,919	-	65,160	60,304	4,856
2021	30,093	27,222	2,871	36,447	36,397	50	424	424	-	15,982	15,982	-	82,946	80,025	2,921
2022	25,516	24,872	644	32,573	32,573	-	405	405	-	15,160	15,160	-	73,654	73,010	644
2023	25,128	24,896	232	36,557	36,557	-	408	408	-	14,930	14,930	-	77,023	76,791	232
합계	517,177	484,854	32,323	295,903	294,543	1,360	6,405	6,405	-	97,517	97,498	19	917,002	883,300	33,70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V-3>은 2002년부터 2023년까지 국제관광 사업군의 홍보·마케팅 예산을 대륙별로 구분한 현황이다. 먼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 홍보 및 마케팅 활동에는 총 517,177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484,854백만원이 집행되었다.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마케팅 활동에는 총 295,903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94,543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마케팅 활동에는 총 6,40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 및 집행되었다. 그리고 북중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마케팅 활동에는 총 97,517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97,498백만원이 집행되었다. 예산 편성액과 집행액 차이는 대부분 전 세계 공통 홍보·마케팅 활동에서 발생하였다.

<표 V-3>과 <표 V-4>에 제시된 2002년부터 2023년까지 국제관광 사업군의 홍보·마케팅 예산 누적 집행액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전 세계 공통 홍보·마케팅 예산 집행액(484,854백만원)이 5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홍보·마케팅 활동 예산 집행액(294,543백만원)은 33.3%를 차지하고, 유럽 지역(6,405백만원) 및 북중미 지역(97,498백만원)은 각각 0.8%, 11.0%를 차지한다. 따라서 국제관광 사업군의 대륙별 홍보·마케팅 예산 집행액 비중을 순서대로 나타내면 전 세계(공통), 아시아, 북중미, 유럽 순이다.

<표 V-4> 국제관광 사업군의 대륙별 홍보·마케팅 예산 집행액

(단위: 백만원, %)

구분	총액(2002~2023년)	비중
전 세계(공통)	484,854	54.9
아시아	294,543	33.3
유럽	6,405	0.8
북중미	97,498	11.0
합계	883,300	10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한편, 본 심층평가에서는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고 예산의 최적 배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대륙별 및 소득 수준별 광고 지출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 아시아 지역과 중위 소득국가에서 광고 지출의 탄력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유럽 및 북중미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제한된 예산하에서 광고 예산의 한계수익률(marginal return)이 높은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전략임을 시사한다.

특히 방한 관광객 수의 대륙별 분포를 살펴보면(〈표 V-5〉 방한 외래관광객 상위 10위 국가별 방문객 수, 소득 수준 및 인구수), 상위 10개국 중 9개가 아시아 국가이며, 유일한 예외가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방한 관광 수요가 일반적인 소비자 선택에 의해서라기보다 주한 미군 주둔, 양국 간 외교 관계 등 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크다. 이는 광고 투자의 효과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참고로 〈표 V-5〉에 포함된 국가들 중 상당수가 중위소득국으로 방한 관광의 잠재적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위소득 국가 중에서 중하위소득국 내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중상위소득층이 존재한다는 점과 아시아 국가로서의 높은 접근성을 감안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마케팅이 장기적으로 유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중상위소득국에서는 추가적인 광고 지출이 관광 유입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중하위소득국의 경우 해당 국가 내 중상위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관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표 V-5〉 방한 외래관광객 상위 10위 국가별 방문객 수, 소득 수준 및 인구수

(단위: 만명)

대륙	국가	방문객 수	소득 수준	인구수
아시아	일본	232	고소득국	12,558
아시아	중국	202	중위 소득국	141,054
북아메리카	미국	109	고소득국	33,189
아시아	대만	96	고소득국	2,382
아시아	베트남	42	중위 소득국	9,817
아시아	홍콩	40	고소득국	755
아시아	태국	38	중위 소득국	6,995
아시아	싱가포르	35	고소득국	564
아시아	필리핀	34	중위 소득국	11,388
아시아	말레이시아	26	중위 소득국	3,318

주: 방문객 수는 한국관광공사의 '2023 한국관광통계' 보고서에 기반하고 있다. 인구수 데이터는 2023년 기준이며, 각국의 공식 통계청 및 국제 기구의 발표를 참고하고 있다.

국제관광 사업군의 대륙별 홍보·마케팅 예산 집행액 분석에 따르면(〈표 V-3〉과 〈표 V-4〉 참조) 전 세계(공통) 광고 투자 비중이 전체의 약 55%에 달한다. 이러한 높은 비중은 방한 관광 광고 전략이 글로벌 통합 마케팅 전략인 Global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s(Global IMC) 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일한 마케팅 메시

지를 전 세계 시장에 일괄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Global IMC 방식은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고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동일한 광고 콘텐츠를 다양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어 제작 및 운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시장별 광고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방한 관광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Global IMC 방식은 여러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방한 관광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획일적인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개별 시장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광고 탄력성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정량 분석 결과, 아시아 시장에서는 광고 탄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유럽과 북중미 시장에서는 광고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별 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광고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고소득 국가의 경우 방한 관광에 대한 인지도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광고 투입이 관광객 증가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 비탄력적인 구조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방한 관광 광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Global IMC 중심 전략을 축소하고, 국가별 시장 특성을 반영한 현지화 광고(localized advertising) 또는 시장별 맞춤 광고(market-specific advertising)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광고 전략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광고 탄력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투자 수익률(ROI)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광고 메시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소비자 소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별 소비자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마케팅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광고 예산의 한계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은 방한 관광객 수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추가적인 광고 투자가 방문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해당 시장이 가격과 정보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 광고를 통한 수요 창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중위 소득 국가의 경우,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이 존재하는 만큼 광고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유럽 및 북중미 시장은 광고에 대한 반응 탄력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여행 결정 요인이 단기적인 광고보다는 장기적인 브랜드 이미지, 문화적 요인, 네트워크 효과 등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광고 예산 투입보다는 장기적인 관계 구축과 고급 관광 상품 개발이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본 심층평가 결과는 방한 관광 광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최근 7년간의 추세를 반영하여 Global IMC 중심전략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개별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예산투입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다.⁷⁾ 아시아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며, 방한 관광객 수에서 아시아 국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추가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관광수요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방한 관광 광고 전략의 최적 배분을 위해서는 Global IMC 방식의 비중을 계속해서 축소해 나가고, 광고 탄력성이 높은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화 광고 또는 시장별 맞춤 광고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한정된 광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방한 관광객 유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3년 현재 약 53%에 달하는 Global IMC 중심 광고 예산과 유럽 및 북중미 광고 투자의 비중을 축소하고, 현재 47% 수준인 아시아 광고 투자 비중을 Global IMC 중심 광고 예산 비중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방한 관광 광고의 한계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광역권 개발 사업군

1) 광역권 사업의 사전 점검 기준 수립 등을 통한 자원 효율화

광역권 개발 사업에서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되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광역권 개발 사업은 다수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기간 추진되므로, 중복 추진을 방지하고 사업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권 개발 사업의 순서와 추진 시기를 계획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일정 수준의 구체성을 갖춘 방식으로 대략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기타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 시기 등에 있어 일정한 탄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군사 관련 계획

7) 최근 7개년(2017~2023년) 전체 대비 Global IMC 집행액 평균 비율: 16.1%/이전 7개년(2010~2016년) 전체 대비 Global IMC 집행액 평균 비율: 39.1%

을 제외한 국토개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으로 계획기간은 20년이며,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른 부처별 계획도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 국토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지자체장에게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 관점의 조정과 전략 설정이 가능하다. 특히 「국토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정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추진이 필요한 광역권 개발 사업을 반영할 수 있다.

한편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광역권 개발 사업만의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해당 계획 수립 시 문체부, 국토부, 해수부 등 광역권 사업을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부처들이 참여하여 사업 추진 시기와 관련 지자체를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단위 사업 내용도 참여 부처들의 사전 검토에 의한 상호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특히 지금까지 추진된 지역별 사업의 유사성과 대상 지역의 편중 현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정 지역에 사업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균형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개별 부처나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만으로는 시점별·지역별 중복 투자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계획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이고 지역 현안에만 초점을 맞춘 사업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업 간 연계성과 체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장기 계획은 전체 기간을 고려한 종합적인 틀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적인 단계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동일한 지자체에서 광역권 개발 사업이 횡수(예: 세 차례 이상), 투자비 등의 측면에서 과도하게 추진된 경우, 일정 기간(예: 10년) 동안 해당 지자체를 새로운 광역권 개발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지자체가 사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광역권 개발 사업의 개념과 운영 방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내규 등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일반적으로 광역권 개발 사업의 기간이 10년임을 고려할 때,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최근 10년 동안 수행된 기존 광역권 개발 사업의 내용 및 대상지, 공모형 사업 등 타 국비 지원 사업의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요 사업 내용과 대상지를 선정할 때 유사·중복 사업을 사전에 걸러내는 스크리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표준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초기 광역권 개발 사업은 성과지표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으나, 최근 추진되는 광역권 개발 사업은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각 사업의 성과지표의 내용 및 수준이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숙박여행일수, 관광객 만족도, 지역민 관광행복 수준 등 10개 항목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관광객 수요 증가만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고,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도 관광객 및 관광 수입 증가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광역관광개발 사업마다 성과지표가 제각각이면 사업별 성과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워 결국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성과지표를 마련하고, 모든 사업에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표준성과지표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같이 관광객 방문 만족도, 관광객 소비 증가율(지역 경제 기여도), 지역관광 일자리 증가율 등 사업의 최종 성과(outcomes)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관광개발정보시스템(TDSS)은 사업의 투입 및 산출 지표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지만, 사업별 투입 및 산출 지표가 거의 등록되지 않아 성과평가나 장기적인 발전 방향 수립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역권 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종 성과를 평가 및 환류할 수 있는 체계적인 행정 및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광역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세목별 투입 예산, 단계별 추진 과정 및 이력을 TDSS에 직접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즉 사업의 투입 및 산출 지표뿐만 아니라 월별 또는 분기별 방문객 수, 세목별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주기적인 결과(outputs) 또한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고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실시간 성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행 법령 및 규정상 지자체가 TDSS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거나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자발적 입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문체부는 TDSS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컨설팅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성과 모니터링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야 한다.

넷째, 광역권 개발 사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국고보조금의 경우 교부 이후 2년 동안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년차 이후에도 1~2년간 사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이 시작되고 마지막 연도의 보조금이 집행된 이후 2년 동안 추가로 사업이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13년차부터 주기적인 최종 성과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개별 단위 사업별로 관광객 방문 만족도, 관광객 소비 증가율(지역 경제 기여도), 지역 관광 일자리 증가율 등 사업의 최종 성과(outcomes)를 지자체와 협력하여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추진될 광역권 개발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과거 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그동안 TDSS에 입력되지 않은 사업들의 투입, 활동, 산출 및 성과 지표에 대한 소급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한 후, 신속한 조사를 통해 기존 사업들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연계·협력 사업 추진 및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한 사업지 선정

심층평가 대상 사업은 모두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두고 있지만, 실제 사업 내용은 대부분 지역별로 시설 조성을 조성하는 등의 관광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은 향후 지역 간 연계 및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관광개발뿐만 아니라 연계·협력 사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단위 사업들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되어야 조성된 공간을 활용하는 연계·협력 사업도 함께 추진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별 기본계획 수립 여부, 대상지 매입 진행, 재정심사, 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수준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

4)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사전 수요 예측 강화 및 사업 지연 요인 최소화

광역권 단위 사업들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 앞서 검토한 것처럼 광역권 개발 사업의 90% 정도가 관광개발사업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향은 초기 광역권 개발 사업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단위 사

업 중에서 거점사업처럼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 예측과 관광시장 분석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한 사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재무적 타당성 검토 및 예산 대비 수익률과 운영비용을 산출하여 해당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부지 확보, 인허가, 조례 개정, 예산 심사, 관련 부처 협의, 민간 위탁기관 및 프로그램 선정 등 사전 관리 가능한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정읍시 장금이 파크와 같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는 더 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5) 광역권 개발 사업군 예산 투입의 지역 소득 기여도 극대화 전략

앞선 광역권 개발 사업군이 지역 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역권 개발 사업군의 예산 투입은 전력판매량과 인공위성 조도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보이며, 이는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전력판매량에서 나타난 결과는 광역권 사업군이 지역 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소득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광역권 개발 사업군에서는 사업의 추진 상황·집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 예산 투입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소득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효과의 점진적 감쇠를 고려하여 후속 사업을 통해 성과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다. 특화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1) 특화자원의 여건 및 특색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수립

특화관광자원은 해당 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 특성을 극대화해야 하며, 일반 관광자원과는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국가유산은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소중한 자원으로 관광객들에게 훼손되거나 파괴될 경우 엄청난 사회적 충격과 비용, 시간이 소요된다. 승례문 방화사건(2008년)과 최근 발생한 경복궁 낙서사건 등은 국가유산을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관련 자원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담당부처에서 자원의 특성, 안전관리 방안, 관광자원화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배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화관광자원개발 사업군의 예산 투입이 전력판매량과 인공위성 조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며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이드라인에는 관광 자원의 질적 개선과 지역 경제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맞춤형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해당 부처는 물론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자원 활용 시 중요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시설의 부정 사용 방지 및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담당 부처는 국가 재정이 투입된 시설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인천공항에 설치 및 운영 중인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관 사례처럼 성과 모니터링 체계가 부재하면 운영 실적 및 효과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 재정이 지속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3)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의 중단 및 자원 효율성 제고 방안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 지역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부처 간 및 부처 내 지원이 지속되면 재정 자원 배분 효율성과 지역 간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에서도 예산 투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GRDP, 전력판매량, 인공위성 조도(VIIR) 등 주요 지표에서 경제적 성과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일부 긍정적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긴 했지만 그마저도 제한적이었다. 특히 유사 사업이 시차를 두고 반복적으로 추진되거나 사업명이 변경되며 재추진된 사례는 자원의 낭비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더 이상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폐광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신규 사업이나 유사 사업의 추진은 제한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성과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원 투입은 비효율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 기존 사업의 효과를 철저히 평가하고, 사업 구조와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새로운 투자나 사업

재추진은 지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은 현재의 방식으로는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추가적 사업 추진을 제한하고, 기존 사업의 성과를 엄격히 평가하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폐광지역의 관광산업이 비효율적인 반복 투자를 멈추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 지역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 및 사업 재구조화

특정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구분할 때는 해당 사업이 광역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외부효과'가 큰 사업인지, 사업의 수혜자 및 경제적 효과가 해당 지역에 주로 국한되는 '내부효과'가 큰 사업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예산은 외부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하고, 내부효과가 큰 사업은 지방정부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사업 예산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전국적인 인식 개선과 캠페인을 주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평가된다. 사업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부효과보다는 내부효과가 큰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는 예산의 직접 지원과 같은 기존 사업 내용을 축소하여 반려동물 동반 여행 문화를 촉진하는 캠페인에만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정책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의 성과,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여 성공 사례,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형 지역관광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 중 '인천공항 내 K-관광·컬처존 조성사업'은 사업 대상지(인천국제공항) 및 사업 내용으로 볼 때, 사업의 주된 수혜 대상이 국내 관광객보다는 외래관광객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해 내역 사업은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의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기반 조성' 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V-6〉 한국형 지역관광활성화 사업의 재구조화

내역사업	평가 결과	개선(안)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앙정부의 전국적인 캠페인 주도 및 지방정부의 재정 비중 확대
2. 인천공항 내 K-관광·컬처존 조성	외래관광객들에게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의 '한국관광 해외광고' 또는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통합

2) 철저한 예산 계획 및 체계적인 사후 관리 필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과 같은 중장기 정책사업에서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특정 연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 공모를 준비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어 체계적인 사업계획 준비가 어려울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부처 내 핵심 공모사업 육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 정책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예산 등에 대한 철저한 계획 및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지역관광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 성과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3)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추가 개선 방안

특정 지역의 특화된 관광자원 개발은 관광객의 소비 패턴과 현지 경제 기여도를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춘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특화자원은 단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 역사 등을 반영한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의 지역관광추진조직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하며, 관광상품 및 콘텐츠 발굴은 해당 조직이나 기관을 선정할 필요는 없으나 상업적 활용보다는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개발 주체가 여행사와 같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업체보다는 지역관광추진조직이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군은 각 지자체가 자신들이 보유한 자원을 가지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성과 정보를 공개하여 지자체 간 성과를 비교하고, 성과에 기반한 경쟁을 유도하며 우수 사례를 발굴 및 확산시켜, 예산 배정과 성과 인센티브를 실적에 따라 결정하여 공공 부문의 전반적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과 데이터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 구축으로 정보 비대칭 문

제 해결 및 성과평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자체 간 비교 및 인센티브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 정보를 공개하고, 지자체 간 성과를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는 포털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마.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군

1) 일반적인 사업 추진 절차 준수 및 사업대상지 특성 고려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및 해양치유센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먼저 이루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관광자원 사업과 같이 큰 규모의 국가 재정사업에서는 기본계획, 근거 법령 등이 먼저 마련된 이후 사업을 시행하는 일반적인 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대상지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섬 지역은 겨울에는 선박 결항률이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매년 3분기 이후에는 기초지자체 예산 교부 최소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체부는 예산 계획 수립 시 3분기까지 사업비를 배정하고, 예산 교부 시 지방비 확보 여부, 행정절차 추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월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차차년도 국비 예산을 감액 편성하면 될 것이다.

2) 해양관광 자원 개발 사업군의 지역 소득 증대 기여 방안

해양관광 자원 개발 사업군의 예산 투입은 전력 판매량과 인공위성 조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이는 단기적으로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해양관광 자원 개발 사업군은 해양 레저 및 해양문화축제 등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마케팅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세부 사업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세부사업인 '해양관광육성'을 분석한 결과, 지역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세부사업의 초점이 지역 경제와의 직접적인 연계보다는 장기적인 인프라 확충에 치중되었거나, 지역 자원의 활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해양관광 육성사업의 대부분이 현재 아

직 사업이 건설 중인 단계이므로 향후 지역경제 효과 등은 현재 건설 중인 시설들의 운영 이후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해양치유센터 사업은 사업 방향 및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로운 체험관 건립 등 신규 사업 추진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의 고유한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완도 해양치유센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경제와의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체류 시간 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완도 해양치유센터와 올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태안 해양치유센터 등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단기적인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 등 가시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넷째,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관광 수익이 지역 내에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양관광 자원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성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투입·활동·산출·단기 성과·중장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류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해양관광육성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및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존폐 여부를 결정하거나 성과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등 집중 관리·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우수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자체의 신규 사업 추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여섯째, 해양치유센터 사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기적 성과 창출과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예: 특정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사업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 주도의 고유한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콘텐츠 개발 사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해양치유센터가 지역 경제에 지속 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바.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1)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사업계획 마련

관광거점 도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 관광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인해 원래 수립하였던 기본계획을 수정하였고, 이로 인해 목표 달성에도 한계가 있었다. 또한 관광거점 도시 사업의 경우 역사문화자원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사업대상지가 다수 선정되면서 토지 이용이 예상보다 원활하지 못하여 예산 집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 상황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시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 및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지자체 단위의 관광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국비 투입 지양

인천시, 파주시, 전주시 등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자체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관광 애플리케이션의 이용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특히 관광 애플리케이션은 공공 부문보다 민간 부문에서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관광 앱을 개발하고, 관광객들이 원하는 여행 맞춤형 코스 등의 서비스를 훨씬 더 잘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 낭비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 단위의 관광 앱 개발에 국비를 투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3)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의 지역 소득 효과 부족과 정책적 개선 방향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의 정량평가 결과, 예산 투입이 전력판매량, 인공위성 조도, GRDP와 같은 지역 소득 관련 지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이 지역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의 정량평가 결과도, 예산 투입이 GRDP, 전력판매량, 인공위성 조도와 같은 지표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특히 관광 거점도시 정책의 경우, 특정 지역에 자원이 집중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 부재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인프라 중심의 사업 초점)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이 지역 내 관광객 유입과 체류 시간 증가보다는 인프라 확충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업의 광역적 파급효과 부족) 사업의 영향이 지정

된 도시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주변 지역으로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관광객 경험 중심의 사업 재구성)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체류를 늘릴 수 있는 활동(예: 문화 이벤트, 지역 특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 (지역 연계 강화) 도시관광 사업이 주변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사. 국내 관광편의 지원 사업군

1) 지역관광조직(DMO)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확대 방안

DMO에 대한 정량분석 결과, 현재까지 지역경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성평가 및 관련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DMO는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 개편과 지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본 심층평가에서의 영향평가 결과 DMO 사업이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광역 중심의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DMO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전체 예산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효과 추이를 관찰하면서 계획을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 광역 중심의 DMO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역 DMO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컨대 하동군 DMO 사례는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에도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광역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광역 DMO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별 지역에 국한된 소규모 DMO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DMO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로, 과도한 행정적 통제는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민간 주도의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보장하면서,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를 도입하여 투입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이 DMO의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배분 및 지원을 조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DMO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셋째,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시 DMO 사례(전주 음식점 및 예술 공연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지역 특성에 초점을 둔 내부효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의 특성과 DMO의 역할 간 연계가 미흡한 경우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지역별 DMO의 잠재력과 한계를 면밀히 평가한 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DMO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구조를 재편하거나 타 지역 DMO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DMO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사업구조와 운영 방식으로는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 중앙정부는 광역적 관점에서 DMO를 지원하고, 민간 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현 예산 수준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효과를 관찰하고 조정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DMO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업별 공모방식 차별화

관광편의 지원사업은 공모사업마다 정책추진 목적, 선정 대상, 사업 규모 등 각 사업의 특성이 차별적이지만, 선정 과정, 평가 지표 등 공모방식은 사업마다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모방식 및 평가 지표가 사업마다 유사하면 지자체가 공모사업별로 특화된 사업 내용을 계획하지 않고, 여러 공모사업에서 유사한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다른 공모사업에 제출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모사업별로 공모방식 및 평가 체계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3) 성과 피드백 시스템 마련 및 사업 재구조화

관광안내소와 같이 성과 피드백 시스템이 부재하면 성과 기반 개선이 어려워 예산의 비

효율적 사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 성과 평가 시스템을 점검 및 마련하여 성과에 기반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관광안내소가 지방 이양된 현 시점에서 담당 지자체는 성과 향상에 대한 동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성과평가 및 환류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문체부 지정 45개 '문화관광축제' 통합 홍보, 하이커 그라운드(HiKR) 축제관 운영,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를 활용한 축제 홍보 및 외래객 유치 사업을 모두 포함하는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의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각 축제별로 외래관광객 대상 홍보 및 마케팅을 개별 진행하고, '문화관광축제'라는 통합브랜드를 활용하여 홍보 채널만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국내 관광편의 지원 사업군의 고용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방향

국내 관광편의 지원 사업군의 정량평가 결과, 지역 소득 지표(GRDP, 전력판매량, 인공 위성 조도)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취업자 수와 같은 고용 지표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관광편의 지원 사업군이 고용 창출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고용 중심의 사업 설계) 관광편의 지원 사업군은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설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광 관련 서비스 산업이나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의 직접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 일회성 고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의 중장기적인 고용 효과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관광 관련 인프라 구축과 유지·운영에 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문화관광해설사의 고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의 정량평가 결과, 지역 소득과 고용 지표 모두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을 제안한다.

먼저 단기 혹은 중기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의 상당 부분이 2022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2025년 현재 문체부의 관련 예산은 4억원으로 교육 콘텐츠 개발과 문화관광해설사 시스템 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맞춤형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 콘텐츠 개발이 더욱 중요해졌다. 문체부는 중앙 차원에서 기본 교육 콘텐츠의 표준안을 제시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이를 변형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지원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이 자율적으로 고유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설사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역 간 활동 제한 완화를 통한 인적자본 활용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는 본인이 소속된 지자체 내에서만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의 해설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어 있다. 이는 해설사의 전문성과 인적자본 활용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하며, 국가적으로 육성된 인적자본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초래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공통 과목 유지와 지역 특수성 시험 도입이 필요하다. 문화관광해설사의 기본 자격과 공통 과목 시험은 그대로 유지하되, 타 지역에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추가 시험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설사가 지역 특유의 문화와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설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둘째, 타 지역 해설 서비스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 추가 시험을 통과한 해설사에게는 타 지역에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설사가 본인의 전문성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발휘하고, 관광객들에게도 고품질의 해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인적자본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된다. 지역 간 해설사의 이동성과 활동 범위 확대는 국가적으로 육성된 인적자본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지역 간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관광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동시에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아. 정책제언 요약

관광인프라 지원 사업군에 대한 정책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에서는 사업 실적을 객관적이고 장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민간 참여기업의 사업 만족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지자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업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 추진은 지양해야 하며, 단기적인 성과 평가 시 홍보·마케팅 예산 투입액 대비 외래관광객 증가율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Global IMC 방식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광고 탄력성이 높은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화 광고 또는 시장별 맞춤형 광고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광역권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의 사전 점검 기준 수립 등을 통해 재원을 효율화하고, 사업 공통의 표준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본래 사업의 취지에 맞게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강화하며, 사업지 선정 시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업 타당성 검토 시 재무적 성과 관련 사항을 강화하고, 사업 종료 후 최종 성과 평가 진행 및 성과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사후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초기 예산 집중 투자를 통해 단기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소득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을 병행하며, 후속 사업을 통해 성과를 유지 및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특화관광자원개발 사업에서는 특화자원의 여건 및 특색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설의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폐광지역에 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신규 사업이나 유사 사업의 추진을 제한해야 한다.

지역관광자원개발 사업에서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인천공항 내 K-관광·컬처존 조성사업을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 정책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예산 등 철저한 계획 및 관리, 지역관광개발 사업 전반에 걸친 성과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도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공 및 성과 평가 투명성 제고도 필요하다.

해양관광자원개발 사업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사업을 시행하는 일반적인 사업 추진

절차 준수가 요구된다. 기본계획 수립 이전의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사업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관광자원 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 소득 증대 기여 방안으로 사업추진 방향 및 방식 재검토, 지역의 고유한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 해양치유센터 관련 전국 홍보 추진,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도록 방향 전환, 단기적인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체험 프로그램 등 가시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 설계,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관광 수익의 지역 내 재투자를 유도하고, 해양관광 자원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 확립, 투입·활동·산출·단기성과·중장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모형 구축 및 환류 평가체계 마련 등을 제안한다.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사업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지자체 단위의 관광 애플리케이션 개발에는 국비 투입을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종료 이후 정확한 성과 분석으로 정책적 개선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관광편의지원 사업군에서는 DMO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광역 중심 DMO 우선 지원,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DMO 관련 민간 부문의 자율성 강화,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 도입,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된다. 또한 공모사업별로 공모방식을 차별화하고, 사업별 성과 평가 시스템 점검 및 마련하여 성과 기반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축제지원 사업에서는 각 축제별로 외래관광객 대상 홍보 및 마케팅을 개별 진행하고, 홍보 채널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 강화, 교육 콘텐츠의 지역별 맞춤형 개발 지원, 문화관광해설사 시스템 개편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 지역 간 균형 발전과 해설사 육성의 지속 가능성 보장, 문화관광해설사의 지역 간 활동 제한 완화를 통한 인적자본 활용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당해 사업군 전반에 걸쳐 고용 중심의 사업 설계 및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

〈표 V-7〉 사업군별 평가 결과 및 개선 방안

구분	평가 결과	개선 방안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군	<p>계획 평가</p> <p>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및 3년 단위의 인바운드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p>	<p>해당 없음</p>
	<p>과정 평가</p> <p>(1) 사업 수행 기관이 사업 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 및 보고하여 성과지표가 주로 단기적 성과에 집중 (2) 사업 만족도 조사 미흡 (3) 지자체 참여 저조로 사업성과 창출에 한계 (4)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련성이 낮은 사업 추진(예: 대도시 위주의 수요응답형 교통(DRT) 사업)</p>	<p>(1) 사업 실적을 객관적이고 장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마련 (2) 국가별 외래 관광객 수, 방문 의향 전환율, 재방문 및 추천 의향, 브랜드 인지도 변화 등의 지표로 단기 목표 달성 여부 평가 (3) 세부 사업 실적에 국한되지 않고 연도별·국가별 투입 예산과 방문 외래 관광객 수 간의 관계(예산대비 증감율 등)를 중심으로 평가 (4) 사업 만족도 파악 및 지자체 참여 확대 필요 (5) 관광 DRT 사업은 기존 사업 목적에 맞게 교통 접근성이 낮은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외래관광객의 예약 및 결제 편의 개선 등으로 사업방향 조정</p>
	<p>영향 평가</p> <p>방한 외래관광객 수 및 외국인 직접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성과 중심의 해외지사 평가 및 예산 배분 필요</p>	<p>(1) 단기적인 성과 평가 시 홍보·마케팅 예산 투입액 대비 외래관광객 증가율을 중심으로 평가 (2)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Global IMC 방식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 광고 탄력성이 높은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화 광고 또는 시장별 맞춤 광고 전략을 강화 (3) 중장기적으로 이중차분모형(DID) 등 정량평가에서 활용한 경제학적 방법론을 해외지사 성과 평가에 적용하여 예산 배분 체계 정교화 및 해외지사 간 성과 격차 완화</p>
광역권 개발 사업군	<p>계획 평가</p> <p>(1) 동일 지역에 유사한 사업이 반복 추진 (2) 사업별 성과지표가 상이하여 사업 간 성과 비교가 어려움 (3) 시설 조성 등 하드웨어 사업에 집중하여 연계·협력을 위한 광역권 관광개발계획 목적 달성에 한계 (4) 지자체별 균등한 사업 배분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 존재</p>	<p>(1) 광역권 개발 사업의 사전 점검 기준 수립 등을 통한 자원 효율화 추진 (2) 광역권 개발 사업의 순서 및 추진 시기를 계획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단계별 중장기 계획 마련 (3) 동일 지자체에서 광역권 개발 사업이 횡수(예: 세 차례 이상), 투자비 등의 측면에서 과도하게 추진된 경우, 일정 기간(예: 10년) 동안 새로운 광역권 개발 사업 대상에서 제외</p>
	<p>과정 평가</p> <p>(1)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집행률 저조 (2) 사업 타당성 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요인 다수 발생 (3)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미비</p>	<p>(4) 신규 사업 추진 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최근 10년 동안 수행된 기존 광역권 개발 사업의 내용 및 대상지, 공모형 사업 등 타 국비 지원 사업의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사·중복 사업을 사전 스크리닝</p>

〈표 V-7〉의 계속

구분	평가 결과	개선 방안
		(5) 관광객 방문 만족도, 관광객 소비 증가율(지역 경제 기여도), 지역관광 일자리 증가율 등 사업의 최종 성과(outcomes)를 파악할 수 있는 표준성과 지표 설정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6) 사업 추진 지자체가 세목별 투입 예산, 단계별 추진 과정 및 이력을 관광개발정보시스템(TDSS)에 직접 입력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 (7) 연계·협력 사업 추진 및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한 사업지 선정 (8) 재무적 성과 관련 사업 타당성 조사 강화 (9) 광역권 개발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성과 관리 체계 마련 (10) 사업 종료 이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영향 평가 지역 소득 및 취업자 수 증가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1) 사업의 추진상황·집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 예산 투입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소득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 병행 (2) 후속 사업을 통해 성과 유지 및 확대 방안 필요
특화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계획 평가 (1) 특화자원 활용에 대한 기준 및 방향(가이드라인) 부족 (2)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자원 배분 효율성 및 지역 간 형평성 저해	(1) 폐광, 섬 등 특화자원 전반에 걸쳐 해당 자원의 여건 및 특색을 반영한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2) 시설의 부정 사용 방지 및 성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과정 평가 (1) 당초 목적과 다른 시설의 사용 (2) 사업 실적 및 성과 모니터링 체계 미비	
	영향 평가 (1) 지역 소득 및 취업자 수 증가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은 지역 소득 및 취업자 수에 유의한 영향 없음	폐광지역에 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부사업(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을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신규 사업이나 유사 사업의 추진 제한

〈표 V-7〉의 계속

구분	평가 결과	개선 방안
지역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계획 평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 문제	(1)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방 정부의 재정 비중 점진적 확대 (2) 인천공항 내 K-관광·컬처존 조성사업을 외래 관광객 유치 사업군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과정 평가 (1) 공모사업의 예측 가능성 저하로 지자체의 효율적 대처에 한계 (2) 일부 사업만 지속적으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진행	(1) 중장기 정책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예산 등에 대한 철저한 계획 및 관리 (2) 지역관광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 성과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영향 평가 지역 소득 증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취업자 수 증가에는 유의적인 영향 없음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2) 사업의 성과 정보를 공개하여 성과에 기반한 지자체간 경쟁 유도 및 우수 사례 발굴·확산, 예산 배정 및 성과 인센티브를 실적에 따라 결정하여 공공 부문의 전반적 효율성 증대
해양관광 자원개발 사업군	계획 평가 기본계획 미수립 상태에서 사업 추진	(1) 기본계획, 근거 법령 등이 먼저 마련된 이후 사업을 시행하는 일반적인 사업 추진 절차 준수
	과정 평가 일반적이지 않은 사업 추진 절차	(2) 기본계획 수립 이전의 예산 편성 지양 (2) 사업대상지 특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영향 평가 (1) 지역 소득 증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취업자 수 증가에는 유의한 영향 없음 (2) 해양관광육성 사업은 지역 소득 및 취업자 수에 유의한 영향 없음	(1) 사업추진 방향 및 방식 재검토 (2) 해양치유센터의 경우, 지역의 고유한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객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3) 단기적인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제나 체험 프로그램 등 가시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 설계 (4)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관광 수익의 지역 내 재투자를 유도하고, 해양관광 자원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 확립 (5) 투입·활동·산출·단기성과·중장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모형 구축 및 환류 평가 체계 마련

〈표 V-7〉의 계속

구분	평가 결과	개선 방안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군	계획 평가	
	과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사업계획 마련 (2) 지자체 단위의 관광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국비 투입 지양
	영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종료(2025년 예정) 이후 정확한 성과 분석으로 정책적 개선방향을 도출 (2) 관광객 경험 중심의 사업 재구성(예: 문화 이벤트, 지역 특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관광객 유입 촉진) (3) 도시관광 사업이 주변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인근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및 사업 범위 광역화
관광 편의 지원사업군	계획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정부는 광역 중심의 DMO를 우선 지원하고,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2) DMO 관련 민간 부문의 자율성 강화, 성과 중심의 운영체계 도입,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3) 사업별 공모방식 차별화
	과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과 피드백 시스템 부재 (2) 사업 내용의 조정 및 재구조화 필요
	영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별 성과 평가 시스템 점검 및 마련하여 성과 기반 개선 유도,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지자체 인센티브 부여 검토 (2) 문화관광축제지원 사업에서 각 축제별로 외래 관광객 대상 홍보 및 마케팅을 개별 진행하고, 홍보 채널 일원화
	영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소득 및 취업자 수 증가에 유의한 영향 없음 (2) DMO 사업은 지역 소득 및 취업자 수에 유의한 영향 없음 (3)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은 지역 소득 및 취업자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참고문헌

[보고서 및 논문]

- 국가유산청, 「2019년 예산요구서」, 2018.
_____, 「2020년 예산요구서」, 2019.
_____, 「2021년 예산요구서」, 2020.
_____, 「2022년 예산요구서」, 2021.
_____, 「2023년 예산요구서」, 2022.
_____,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 보고(부처별 IV)」, 2019.
_____,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 보고(부처별 II)」, 2021.
- 국회예산정책처, 「2020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
_____, 「2022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a.
_____, 「2021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 2023b.
_____,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
- 국토교통부, 「2019년 예산요구서」, 2018.
_____, 「2020년 예산요구서」, 2019.
_____, 「2021년 예산요구서」, 2020.
_____, 「2022년 예산요구서」, 2021.
_____, 「2023년 예산요구서」, 2022.
_____,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 관계부처 합동, 「제6차 관광기본계획 : K-컬처와 함께하는 관광매력국가」, 2022.
- 권정기, 「지방공기업 실패사례 연구: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2017.
- 김성윤·김현지·김형근, 『위케이션활성화 방안 연구』, 2023.
- 김성윤·이충훈, 『관광재정 확충 및 효율성 제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 김향자,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시대의 관광수용태세 정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_____, 『지역 관광자원 개발방향 연구 I-현황 분석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 김현주·윤주·이성빈. (2024), 『지방시대, 방한 외래관광객 지방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 류광훈·손신옥, 『방한 외래 관광객 확대를 위한 관광-항공 협력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001.
- _____,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평가 기초연구」, 2010.
- _____, 「2010년 기준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사업 성과평가」, 2011.
- _____, 「2019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2020.
- _____,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사업 심층평가」, 2013.
- _____,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연구」, 2014.
- _____,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2015.
- _____,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계획(안)」, 2016.
- _____,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연구」, 2017.
- _____, 「2019년 예산요구서」, 2018.
- _____, 「2020년 예산요구서」, 2019a.
- _____,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방안 연구」, 2019b.
- _____, 「2021년 예산요구서」, 2020a.
- _____, 「광역관광개발 개선 방안 연구」, 2020b.
- _____,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022~2031』, 2021a.
- _____,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2021b.
- _____, 「2022년 예산요구서」, 2021c.
- _____, 「2023년 예산요구서」, 2022.
- _____, 「2022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2023a.
- _____, 「2022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컨설팅 및 성과진단 연구용역」, 2023b.
- _____,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연구」, 2023c.
- _____,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2023d.
- _____, 「2024년 예산요구서」, 2023e.
- _____, 「2023년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계획」, 2023f.
- _____, 「2023년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모니터링 및 중간성과 진단 연구」, 2024a.
- _____, 「관광거점 도시 육성사업 중간 성과관리 및 컨설팅 연구」, 2024b.
- _____,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간평가」, 2024.
- 박경열, 『국가지원 관광자원개발사업 유형 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 박석희, 『신관광자원론』, 일신사, 2007.
- 오동훈·임경수·소진광·김남조, 「도시마케팅 관점에서 본 해외 관광레저도시 사례 연구」, 『국토계획』, 제43권 제1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8, pp. 207~223.
- 윤주,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모니터링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 윤주·김진영, 『관광자원 개발사업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 윤주·진보라, 『공모형 지역관광사업 체계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 전효재·김윤영·김유림, 『인구감소시대, 지역관광의 역할과 정책 대응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4.
- 진보라,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변화의 경로의존성 분석」,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6.
- 최경은·김현정, 『국제관광 재개 국면의 주요국 외래객 유치 정책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
- 한국관광공사, 『2021 한국관광안내표지 종합안내서』, 2021a.
- _____, 『위케이션 활용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2021b.
- _____, 『2023 지역 맞춤형 안내표지 컨설팅 사업』, 2023a.
- _____,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방안 연구』, 2023b.
- _____, 『한국 관광안내표지 종합안내서』, 2023. 2023c.
- _____, 『2024-2028 인바운드 마케팅 전략 수립』, 2023. 2023d.
- _____, 『2023 한국관광안내표지 종합안내서』, 2024a.
- _____, 『2023 문화관광축제 빅데이터 분석』, 2024b.
- _____, 『2024 국가별 방안 관광시장 분석』, 2024c.
- _____, 『2024 지역 맞춤형 안내표지 컨설팅 사업』, 2024d.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관광에 대한 TV간접광고의 효과 추정: KBS2 1박 2일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013.
- _____, 『지역관광 사업의 성과평가 방법연구』, 2024.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 및 방법론 연구』, 2023.
- 한숙영, 전민지, 「문화유산관광지에서의 무작위 현장실험을 통한 문화관광해설사 해설서비스의 효과 검증-관광객 방문 만족을 중심으로」, 『동북아관광연구』, 제13권 제2호, 2017, pp. 25~45.
- 해양수산부, 「2019년 예산요구서」, 2018.
- _____, 「2020년 예산요구서」, 2019.
- _____, 「2021년 예산요구서」, 2020.
- _____, 「2022년 예산요구서」, 2021.
- _____, 「2023년 예산요구서」, 2022.
- _____, 「2024년 예산요구서」, 2023a.
- _____, 「해양레저관광활성화 방안」, 2023b.
- 행정안전부, 「2024년 공공액 운영 성과 측정」, 2025.
- 환경부, 「2019년 예산요구서」, 2018.
- _____, 「2020년 예산요구서」, 2019.
- _____, 「2021년 예산요구서」, 2020.
- _____, 「2022년 예산요구서」, 2021.

_____, 「2023년 예산요구서」, 2022.

_____, 「2024년 예산요구서」, 2023.

Abadie, A., Diamond, A., and Hainmueller, J., “Synthetic Control Methods for Comparative Case Studies: Estimating the Effect of California’s Tobacco Control Program,”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05(490), 2010, pp. 493~505.

Asquith, B. J., Mast, E., and Reed, D., “Local Effects of Large New Apartment Buildings in Low-Income Area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05(2), 2023, pp. 359~375.

Blonigen, B. A.,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on FDI Determinants,” *Atlantic Economic Journal*, 33, 2005, pp. 383~403.

Bornhorst, T., Ritchie, J. R. B., and Sheehan, L., “Determinants of Tourism Success for DMOs & Destinations: An Empirical Examination of Stakeholders’ Perspectives,” *Tourism Management*, 31(5), 2010, pp. 572~589.

Bronnenberg, B. J., Dhar, S. K., and Dubé, J.-P., “Brand History, Geography, and the Persistence of Brand Sha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7(1), 2009, pp. 87~115.

Butts, K., “Difference-in-Differences with Geocoded Microdata,” *Journal of Urban Economics*, 133, 2023, 103493.

Card, D., & Krueger, A. B.,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American Economic Review*, 84(4), 1994, pp. 772~793.

Coase, R. H. (1960).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pp. 1~44.

Dekimpe, M. G., and Hanssens, D. M., “The Persistence of Marketing Effects on Sales,” *Marketing Science*, 14(1), 1995, pp. 1~21.

Dredge, D., “Policy Networks and the Local Organisation of Tourism.” *Tourism Management*, 27(2), 2006, pp. 269~280.

Dwyer, L., Forsyth, P., and Spurr, R., “Evaluating Tourism’s Economic Effects: New and Old Approaches,” *Tourism Management*, 25(3), 2004, pp. 307~317.

Endo, K.,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ourism-Flows and Volumes.” *Tourism Management*, 27(4), 2006, pp. 600~614.

- Faber, B., and Gaubert, C., "Tourism and Economic Development: Evidence from Mexico's Coastline," *American Economic Review*, 109(6), 2019, pp. 2245~2293.
- Flyvbjerg, B., Bruzelius, N., and Rothengatter, W., *Megaprojects and Risk: An Anatomy of Amb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Fourie, J., and Santana-Gallego, M., "The Impact of International Tourism on International Trade and FDI,"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3(2), 2011, pp. 170~185.
- Francois, J., and Hoekman, B., "Services Trade and Polic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8(3), 2010, pp. 642-692.
- Francois, J., Fillat Castejón, C., and Woerz, J., "Cross-Border Trade and FDI in Services," CEPR Discussion Paper No. 7074, 2008.
- Gould, D. M., "Immigrant Links to the Home Country: Empirical Implications for U.S. Bilateral Trade Flow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6(2), 1994, pp. 302~316.
- Guerrieri, P., Maggi, B., Meliciani, V., and Padoan, P. C., "Technology Diffusion, Services, and Endogenous Growth in Europe,"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16(3), 2005, pp. 353~372.
- Head, K., Ries, J., & Swenson, D., "Agglomeration Benefits and Location Choice: Evidence from Japanese Manufacturing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8(3-4), 1995, pp. 223~247.
- Javorcik, B. S., "The Composi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vidence from Transition Economies," *European Economic Review*, 48(1), 2004, pp. 39~62.
- Levi, M., "A Model, a Method, and a Map: Rational Choice in Comparative and Historical Analysis. Comparative Politics: Rationality, Culture, and Structure", Cambridge Univ. Press. 1997.
- Melvin, J. R., "Trade in Producer Services: A Heckscher-Ohlin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5), 1989, pp. 1180~1191.
- Neumark, D., and Simpson, H., "Place-Based Policies," NBER Working Paper No. 20049, 2014.
- Oulton, N., "Must the Growth Rate Decline? Baumol's Unbalanced Growth and the Transition from Manufacturing to Services," *Oxford Economic Papers*, 53(4), 2001, pp. 605~627.

- Pike, S., and Page, S. J., "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s and Destination Marketing: A Narrative Analysis of the Literature," *Tourism Management*, 41, 2014, pp. 202~227.
- Oates, W. E. (1999). "An essay on fiscal federalis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7(3), 1120~1149.
- Portes, A., and Yiu, J., "Entrepreneurship, Transnationalism, and Development," *Migration Studies*, 1(1), 2013, pp. 75~95.
- Raff, H., and Schmitt, N., "Who Goes Where?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an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Outbound FDI." *European Economic Review*, 53(4), 2009, pp. 500~514.
- Rauch, J. E., and Trindade, V., "Ethnic Chinese Networks in International Trad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4(1), 2002, pp. 116~130.
- Ritchie, J. R. B., and Ritchie, R. J. B., "A Framework for an Industry-Supported Destination Marketing Information System," *Tourism Management*, 23(5), 2002, pp. 439~454.
- Song, H., Dwyer, L., Li, G., and Cao, Z., "Tourism Economics Research: A Review and Assess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39(3), 2012, pp. 1653~1682.
- Tellis, G. J., "Effective Advertising: Understanding When, How, and Why Advertising Work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1(1), 2004, pp. 28~41.
- Vakratsas, D., and Ambler, T., "How Advertising Works: What Do We Really Know?," *Journal of Marketing*, 63(1), 1999, pp. 26~43.
- von Hagen, J., & Pisani-Ferry, J. (2002). Commitment through delegation? Potential conflicts between centralization and accountability in the European Union. In M. Buti, S. Eijffinger, & D. Franco (Eds.),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in EMU: Interactions and coordination" (pp. 337-36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ng, Y., and Xiang, Z., "Toward a Theoretical Framework of Collaborative Destination Marketing," *Journal of Travel Research*, 46(1), 2007, pp. 75~85.
- Woodside, A. G., and Lysonski, S., "A General Model of Traveler Destination Choice," *Journal of Travel Research*, 27(4), 1989, pp. 8~14.
- UNWTO (2008),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Tourism Statistics 2008 (IRTS 2008)*, New York, Madrid.

[보도자료]

- 『강원도민일보』, 「[폐광지역 활성화 전략 심포지엄] “정부 지원 확대 폐광지 경쟁력 강화 절실”」, 2010. 10. 21.,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485563>, 검색일자: 2025. 2. 3.
- 『뉴시스』, 「예산 줄줄 샌 지자체 문화·관광사업…7명 징계·11명 주의 요구」, 2024. 8. 6., https://www.newsis.com/pdf/?id=NISX20240806_0002839191, 검색일자: 2024. 11. 5.
- 『동아일보』, 「폐광지역 7곳, 26년간 4조 썼지만 인구 급감」, 2023. 1. 3.,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103/117264863/1>, 검색일자: 2025. 2. 3.
- 『동아일보』, 「국립공원 직원들, 생태탐방원 예비객실 공짜로 써오다 적발」, 2023. 8. 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802/120532661/2>, 검색일자: 2024. 11. 16.
- 『매일경제』, 「혈세 낭비하는 공공기관 앱 사라질까?」, 2015. 6. 12., <https://www.mk.co.kr/news/culture/6793404>, 검색일자: 2024. 11. 16.
- 『아주경제』, 「강원도, 문체부 등과 함께 ‘폐광지역 3단계 사업 기본계획 보고 및 발전방안 협의회’ 개최」, 2022. 2. 10., <https://www.ajunews.com/view/20220210112646564>, 검색일자: 2024. 11. 5.
- 『연합뉴스』, 「여수시, ‘공룡의 섬’ 사도-낭도 연결하는 인도교 개설 추진」, 2021. 1. 8.,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8105500054>, 검색일자: 2024. 12. 5.
- 『열린정책뉴스』, 「지자체, 허술한 문화·관광사업 추진으로 세금낭비 여전」, 2024. 8. 18., <https://www.opengo.center/news/articleView.html?idxno=29389>, 검색일자: 2024. 12. 14.
- 『KBS 뉴스』, 「‘세금 평평’ 지역 관광…애물단지만 양산 [이슈 집중]」, 2024. 2. 2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2759>, 검색일자: 2024. 9. 23.

[웹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검색일자: 2024. 10. 1.).
- 열린재정, <https://www.openfiscaldata.go.kr>(검색일자: 2024. 10. 3.).
- 지표누리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57(검색일자: 2024. 10. 1.).



관광인프라 지원 사업군

